5개년(2013~2017)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사업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업실행기관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전홍진				
	부센터장	이구상				
	연구부장	나은진	장지훈			
담당 연구원	팀장	최진화				
	팀원	곽민하	권희연	방지윤	성근혜	안중근
		유득권	육동연	이선아	이수진	이순주
		이예진	이정윤	조은이	조은정	홍혜인
	조사원	권다희	김민정	김보람	김소연	김순구
		김영훈	김우영	나재연	류온유	문영현
		박보미	심수연	윤성화	윤정수	이금주
		이상훈	이예지	이지연	이한주	임수연
		정미림	최나영	표수미	홍장현	황상진
소속 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효진				
	팀장	서지혜				
	팀원	곽아름	문미진	박재영	오민아	원보름
		유혜림	이윤아	이지현	황선주	
공동연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빅데이터센터장	김연용				
빅데이터운영실	빅데이터센터 주임연구원	박성용				
자문위원						
삼성서울병원	의생명연구원	김선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 호				
분당서울대병원		명우재				
서울시립대학교		신권철				
백석대학교		최명민				
삼성서울병원		홍진표				
협조기관		**경찰청 · 서울지방경찰청 · 서울시 25개 구 경찰서**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위탁하고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사업을 수행한 결과보고서로, 보고서 내 포함되어 있는 의견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열람 및 이용은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지자체에서 지역 내 자살예방사업 계획 및 추진을 목적으로 가능하며, 목적 외의 활용은 금합니다.

보고서 열람기관(자)은 이 보고서를 지역 내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 인용 시 특히 주의를 요하며,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의 외부 인용에 대한 책임은 인용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총평

본 광역보고서는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수집한 5개년(2013~2017년) 간 자살사망자 자료를 기반으로 경찰 수사기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자료인 건강보험공단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자살사망자의 특성 및 자살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각 구별 자살사망자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 수는 총 10,522명이었다. 이 중 한강에서 익사하여 발견되었으나 자살을 시도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617명을 제외한 총 9,905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1].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률은 2013년(21.7명)부터 2017년(18.3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서울시 구별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별 인구분포 뿐만 아니라 발견장소, 자살방법, 주원인 등에 대해서 비교해서 볼 수 있고, 자살에서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여 특정 요인 간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발견장소와 자살방법의 연관성(예: 공공장소&투신 등)이 있었고, 생애주기별로 자살사망자가 선택하는 자살방법이나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원인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둘째,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분석한 결과를 통해, 자살사망자의 건강보험료 분위, 건강보험가입상태, 정신질환, 신체질환 및 장애종류 등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경찰 수사기록은 수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로 자살사망자의 나이, 성별, 발견장소 및 자살방법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자살사망자가 속해있던 사회, 환경적 요인 및 개인적인 특성 요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부 객관적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살사망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계, 분석하여 자살사망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는 개인의 건강보험료분위, 건강보험가입상태, 병원에서 진료 받았던 기록 및 장애진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시 자살사망자들이 사망 전 어떤 질환을 주로 앓았고, 어떤 질환이 자살사망률이 높은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자살사망 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자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특정 요인과 자살사망의 관계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 자료를 통해서는 고용 안정성 상태를, 건강

1) 상기 617명의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제3-6장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에 제시하였다.

보험료분위변화를 통해서는 대략적인 경제상태 변화와 자살과의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셋째, 서울시 자살사망자 중에서 자살사망률이 높았던 특정 대상군을 선별하고 이 대상군별 자살사망자 특성과 자살사망 관련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해 자살사망자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객관적인 요인들 통해 분석해본 결과 자살사망률이 높은 특성 대상군을 선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각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특정 정신질환자, 장애진단 받은 자, 건강보험분위가 낮은 의료보호 수급권자 등의 자살사망률이 서울시의 일반 대조군보다 높았다. 이 특정 대상군을 다시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의 사망원인 및 자살과 관련된 특성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연령별로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군을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고 자살사망자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요인들인, 실업자나 독거자에 대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발생한 자살사망에 대하여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본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주요 시사점

1. 자살 다발 발생지역[2]에 대한 이해

한강변에서 익사하여 발견된 자살사망자 수는 전체 자살 사망자의 약 10%인 1,044명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자살로 사망한 장소에 다시 자살이 일어나는 “자살 다발 발생지역(Hot spot)”이 구마다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서울시 자살 사망의 약 10%가 한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마포대교에서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의 26.5%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살 다발 발생지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 자살사망자의 유족, 지역사회 주민, 친구, 직장동료와 같은 고위험군으로 이어지는 연쇄를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 경제상태와 자살사망

건강보험료분위별 분석을 보면, 상위구간에 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살사망률은 약 2.6배, 하위구간의 경우 약 1.6배에 달한다.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률을 보면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변화가 없었던 경우(십만명당 66명), ②하위구간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화된 경우(십만명당 58명), ③중위구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화한 경우(십만명당 34명)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료 분위의 변화 양상보다는 사망 당시의 보험료 분위 상태 즉, 의료급여 구간일 경우 자살문제와 더욱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2) 추후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공개 예정인 ‘자살사망 시각화플랫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정신질환과 자살사망

정신질환과 자살사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살사망자의 19.7%가 수면장애로 치료 받은 적이 있고, 우울증은 23.4%, 불안장애는 15.4%가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수사 기록 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로는 전체 사망자의 51%가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우울증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에 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살사망자 중 수면장애 진단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보통 정신질환의 초기 혹은 공통 증상이 수면 불균형이라는 점에 착안할 때 수면장애와 그 외 정신질환이 공존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 신체질환과 자살사망

신체질환 중에서는 자살사망자에서 신경계 질환이나 관절염, 고혈압, 간질환, 심장질환, 암, 당뇨 등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장년기와 노인 자살이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특히 사지의 움직임이 힘든 환자의 경우에는 자살위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경우에 자살 위험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5. 장애와 자살사망

장애종류별로 볼 때 사지의 움직임이 힘든 지체장애(肢體障碍)를 가지고 있는 자살사망자가 전체 자살 사망자의 45%를 차지했고 다른 장애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률은 정신장애(199.4명)와 호흡기장애(201.1명)에서 더 높았다.

6. 아동·청소년의 자살사망

아동·청소년기의 자살사망의 경우 가계 기준 보험료 분위가 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가 48.9%로 가장 많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14.1%로 높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7. 지역 맞춤형 개입

발견장소와 자살방법의 경우는 대체로 자택, 목맴이 가장 많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 영등포구는 공공장소에서 자살이 많았고, 중구, 종로구는 숙박업소에서 자살이 많았다. 노원구에서는 투신이, 가스중독은 관악구와 은평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서울시의 자살사망은 각 구별로 자살사망률 및 특정 장소, 방법의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이에, 구 단위로 자살발생 다발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자살 문제와 관련한 근거 중심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 즉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활용 안내

본 결과보고서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다각적 정보 수집 및 연계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과제 1-1'에 의거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원인 심층분석'의 일환으로, 5년간(2013~2017년) 경찰 수사기록 상 사망원인이 자살로 분류된 기록에 관한 정보 수집을 진행하였고, 2) 객관적 정보 수집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각 자살사망자에 대한 심화분석을 실시하였다. 3) 또한, 특별/광역시 단위의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의 자살사망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하였다.

제1장에는 분석 목적, 자료 수집 및 연계, 분석 항목,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특별/광역시의 전체적인 자살사망자 현황을, 제3장에서는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자살사망자의 건강보험료분위, 건강보험가입상태, 정신 및 신체질환, 장애종류와 같은 주제별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광역단위의 각 지역만이 지니는 독특한 자살사망 특성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다차원적인 예방적 접근을 고안하고자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고, 이들의 자살사망과 관련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후 제시하였다.

본 결과보고서는 2018년 9월부터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작성 및 배포하고 있는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기초단위 자살사망 현황 및 특성에 더해, 광역단위의 통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국가 통계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진 바, 자살사망자의 특성 및 자살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서울시 자살사망자 수'는 기초단위 결과 분석에 포함된 기초단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초단위 보고서의 경우 조사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제된 지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 광역단위 보고서의 경우 각 특별시/광역시의 조사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이 완료된 후 최종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자살사망자의 발견장소에 따른 지역 간 이동 양상과 같은 사항은 이미 배포된 기초단위 분석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광역 단위 보고서에서는 분석이 가능한 사항이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연구분석팀
홈페이지 www.psyauto.or.kr
이 메 일 psyauto@psyauto.co.kr
문의전화 02-555-1097

※ 전체 요약 ※

▹ 5년간(2013-2017년) 서울특별시 발견 전체 자살사망자 수: 9,905명

- □ 5년간 2,173명('13) 〉 2,079명('14) 〉 1,975명('15) 〉 1,901명('16) 〉 1,777명('17) 순으로 감소 추세
- □ 자살사망자 수: 노원구(617명), 강서구(571명), 강남구(566명) 순으로 많음
- □ 자살사망률: 영등포구(27.6명), 금천구(27.2명), 용산구(25.6명) 순으로 높음

▹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현황

- □ 생애주기: 장년기(2,605명, 26.3%) 〉 중년기(2,598명, 26.2%) 〉 노년기(2,542명, 25.7%)
- □ 발견장소: 자택(5,865명, 59.2%) 〉 공공장소(2,756명, 27.8%) 〉 숙박업소(411명, 4.1%)
- □ 자살방법: 목맴(5,620명, 56.7%) 〉 투신(1,979명, 20.0%) 〉 가스중독(1,104명, 11.1%)
- □ 주원인: 정신건강문제(3,914명, 39.5%) 〉 경제문제(1,925명, 19.4%) 〉 신체건강문제(1,688명, 17.0%)
- □ 동거 여부: 동거(6,799명, 68.6%) 〉 독거(2,756명, 27.8%)

▹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의료급여 구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자살 사망자 수	751	370	412	432	471	345	546	544	460	427
자살 사망률	38.2	20.8	24.5	25.3	26.5	22.7	26.4	26.3	22.4	19.5

	10분위	11분위	12분위	13분위	14분위	15분위	16분위	17분위	18분위	19분위	20분위
자살 사망자 수	376	346	398	369	392	406	443	458	511	532	690
자살 사망률	18.4	15.9	16.9	15.6	16.0	15.1	15.3	14.3	14.8	14.2	13.7

▹ 건강보험료구간별 대상자 분석

의료급여구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공장소 (266명/총 716명, 37.2%)	투신 (226명/총 718명, 31.5%)	지속적 빈곤 (227명/총 465명, 48.8%)
	노년기 (244명/총 719명, 33.9%)	정신병적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 (155명 10.4% / 110명 7.4% 총 1,492명)	고혈압 (373명/총 2,587명, 14.4%)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1~6분위)	자택 (1,308명/총 2,112명, 61.9%)	가스중독 (273명/총 2,130명, 12.8%)	무직·구직 (351명/총 1,395명, 25.2%)
	장년기 (609명/총 2,130명, 28.6%)	수면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 (573명, 20.3% / 154명, 5.5% 총 2,822명)	당뇨병 (456명/총 5,578명, 8.2%)

▹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자 수와 비율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
2,014명, 20.7%	2,335명, 24.0%	1,392명, 14.3%	3,292명, 33.8%	536명, 5.5%	121명 1.2%

▹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우울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	정신병적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양극성장애	치매
자살 사망자 수	2,932	2,471	1,935	1,665	821	603	582	313
자살 사망률	397.2	311.2	344.1	482.7	407.0	677.8	581.6	106.6

	기타장애	간질	정신활성화 물질사용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성격장애	행태증후군	발달장애	정신지연
자살 사망자 수	286	249	224	144	133	114	33	42
자살 사망률	187.9	165.3	1326.4	119.1	879.8	658.7	87.7	161.5

▹ 정신질환별 대상자 분석

수면장애	노년기 (967명/총 2,453명, 39.4%)	신경계질환 (2,099명/ 총 9,316명, 22.5%)	의료급여구간 (267명/총 2,453명, 10.9%)
	자택 (1,591명/총 2,471명, 64.4%)	약물음독 (94명/총 2,471명, 3.8%)	직장피부양자 (973명/총 2,453명, 39.7%)
우울장애	공공장소 (799명/총 2,932명, 27.3%)	투신 (754명/총 2,932명, 25.7%)	상위구간 / 의료급여구간 (1,187명, 40.8% / 302명, 10.4% 총 2,908명)
	노년기 (899명/총 2,908명, 30.9%)	직장피부양자 (1,119명/총 2,908명, 38.5%)	신경계질환 (1,839명/ 총 9,646명, 19.1%)
정신병적 장애	투신 (400명/총 821명, 48.7%)	의료급여구간 (155명/총 814명, 19.0%)	의료급여세대주 (114명/총 814명, 14.0%)
	공공장소 (383명/총 821명, 46.7%)	중년기 (295명/총 814명, 36.2%)	심장질환 (248명/총 1,888명, 13.1%)

▹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신경계질환	관절염	고혈압	간질환	심장질환
자살 사망자 수	4,410	4,000	3,225	2,690	2,569
자살 사망률	166.7	94.4	57.0	180.0	188.3

	암	당뇨병	갑상선장애	대뇌혈관질환	호흡기장애	만성신부전증
자살 사망자 수	2,515	1,921	1,387	1,180	344	183
자살 사망률	171.5	76.8	102.2	142.9	477.5	86.2

▹ 신체질환별 대상자 분석

고혈압	남성 (2,248명/총 3,190명, 70.5%)	노년기 (1,802명/총 3,188명, 56.5%)	수면장애 (1,169명/총 5,245명, 22.3%)
	자택 (2,037명/총 3,225명, 63.2%)	상위구간 (1,297명/총 3,190명, 40.7%)	직장피부양자 (1,369명/총 3,190명, 42.9%)
당뇨병	남성 (1,372명/총 1,902명, 72.1%)	노년기 (991명/총 1,902명, 52.1%)	의료급여구간 (223명/총 1,902명, 11.7%)
	농약음독 (60명/총 1,921명, 3.1%)	치매 (151명/총 3,152명, 4.8%)	직장피부양자 (780명/총 1,902, 41.0%)
암	노년기 (1,169명/총 2,484명, 47.1%)	불안장애 / 신체형장애 (739명, 16.8% / 644명, 14.7% 총 4,392명)	상위구간 (1,072명/총 2,484명, 43.2%)
	자택 (1,609명/총 2,515명, 64.0%)	투신 (543명/총 2,515명, 21.6%)	직장피부양자 (1,085명/총 2,484명, 43.7%)

▹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지체장애	정신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지적장애	호흡기장애
자살 사망자 수	511	159	126	109	108	39	29	22
자살 사망률	52.4	199.4	60.4	51.3	50.1	52.4	23.6	201.1

▹ 장애종류별 대상자 분석

지체장애	자택 (315명/총 487명, 64.7%)	노년기 (236명/총 488명, 48.4%)	의료급여구간 (93명/총 489명, 19.0%)
	농약음독 (23명/총 488명, 4.7%)	직장피부양자 / 의료급여세대주 (198명, 40.5% / 77명, 15.7% 총 489명)	남성 (389명/총 489명, 79.6%)
정신장애	여성 (59명/총 145명, 40.7%	중년기 (71명/총 145명, 49.0%)	의료급여구간 (79명/총 135명, 58.5%)
	투신 (81명/총 142명, 57.0%)	의료급여세대주 / 의료급여세대원 (63명, 43.4% / 16명, 11.0% 총 145명)	공공장소 (77명/총 141명, 54.6%)
호흡기장애	남성 (18명/총 21명, 85.7%)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10명, 52.6% / 0명, 0% 총 19명)	투신 (7명/총 19명, 36.8%)
	노년기 (16명/총 21명, 76.2%)	하위구간 (4명/총 7명, 57.1%)	자택 (16명/총 16명, 100%)

▹ 5년간(2013-2017년)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 수: 1,044명 (전체의 9.9%)

마포대교	한강대교	광진교	잠실대교	양화대교
113명	36명	30명	20명	17명
26.5%	8.4%	7.0%	4.7%	4.0%

▹ 한강변 익사자 분석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	생애주기	주원인	다발 발생 시기
	청년기	정신건강문제	7~9월

Contents

본문 목차

제1장. 개 요 1

1. 분석 목적 2
2. 분석 자료 수집: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3
   1) 조사 대상 3
   2) 조사 도구 3
   3) 자료 수집 4
3. 분석 자료 연계: 전수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5
   1) 자료 연계 5
   2) 연계자료 분석 항목 6
4. 연계자료 분석 10
5. 용어 안내 11

제2장. 서울특별시 자살사망자 현황 분석 16

※ 제2장 요약 ※ 17
1.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현황 및 추이 18
   1)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18
   2) 5년간 구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2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22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22
   2) 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23
   3)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24
   4)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25
   5)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26
   6) 발견장소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27

7) 생애주기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28
8) 생애주기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29
3.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현황 30
1)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련 세부 분석 30
2) 구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수 31
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 32

제3장. 서울특별시 주제별 자살사망 분석 34
※ 제3장 요약 ※ 35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 분석 36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37
2)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40
3) 건강보험료구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42
4)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 분석 45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 분석 46
1)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46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47
3) 실업 추정 자살사망자의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 기간 분석 48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50
1) 정신질환별 치료력과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과 증상 비교 50
2) 연도별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52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54
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57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58
1) 연도별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58
2)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60
3)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62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63
1) 연도별 서울시 등록장애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63
2)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65
3)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67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68
1) 한강변 익사자의 시도지 확인 여부 68
2) 한강변 익사자의 발견장소 분석 69
3) 한강변 익사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분석 71
4) 한강변 익사자의 생애주기/주원인 분석 72
5) 교량별 자살사망자 수 73
6) 교량별 자살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분석 74
7) 교량별/연도별 자살사망자 수 75
8) 교량별/월별 자살사망자 수 76
9) 교량별/성별 자살사망자 수 77
10) 교량별/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78
11)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79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80

※ 제4장 요약 ※ 81
1-1. 건강보험료구간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의료급여구간 83
1) 의료급여구간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83
2) 의료급여구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84
1-2. 건강보험료구간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85
2)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85
2)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86
2-1. 생활상태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실업자 87
1) 고용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87

2) 실업 추정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88
2-2. 생활상태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독거자 89
1)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89
2) 독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90
3-1.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수면장애 91
1) 수면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91
2) 수면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92
3-2.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우울장애 93
1) 우울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93
2) 우울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94
3-3.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정신병적장애 95
1) 정신병적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95
2) 정신병적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96
4-1.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고혈압 97
1) 고혈압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97
2) 고혈압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87
4-2.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당뇨병 99
1) 당뇨병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99
2)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00
4-3.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암 101
1) 암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101
2) 암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02
5-1.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지체장애 103
1) 지체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103
2) 지체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04
5-2.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정신장애 105
1) 정신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105

2) 정신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06
5-3.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호흡기장애 107
1) 호흡기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107
2) 호흡기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08
6-1.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아동기(아동·청소년) 109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109
2) 아동기(아동·청소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10
6-2.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청년기 111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111
2) 청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12
6-3.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중년기 113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113
2) 중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14
6-4.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장년기 115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115
2) 장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16
6-5.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노년기 117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117
2) 노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118

부 록.

1장. 개요

1. 분석 목적
2. 분석 자료 수집
3. 분석 자료 연계
4. 연계자료 분석
5. 용어 안내

제 1 장 개요

1. 분석 목적

○ 본 결과보고서는 자살사망자에 대한 다각적 정보 수집 및 연계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과제 1-1'[3]에 의거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원인 심층분석'이 추진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심리부검센터[4]에 업무를 위탁, 수행하였다. 본 사업으로 5년간(2013~2017년) 경찰 수사기록 상 사망원인이 자살로 분류된 기록에 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자살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자살 예방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더불어 수사를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인 경찰 수사기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살사망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본 조사의 수집 및 연계자료 심층분석을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다각적 접근이 고안되기를 기대한다.

3) 과제1-1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4)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2014년 4월 중앙심리부검센터 설립

2. 분석 자료 수집: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1) 조사 대상

○ 본 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경찰 수사기록 상 사망의 원인이 자살로 분류된 기록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 자살통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 자료는 집계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사망신고서 항목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기준지를 중심으로 사망원인과 사망자 수가 집계된다. 반면, 본 조사에서는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근거하여 자살사망자 수를 집계하였기 때문에 실제 자살이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2) 조사 도구

○ 본 조사를 위해 중앙심리부검센터는 경찰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조사 체크리스트(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for Police Record 1.0; 이하 K-PAC-PR 1.0)를 개발하였다. 이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한국형 심리부검면담 체크리스트(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K-PAC)[5]를 토대로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한 항목을 포함한다.

○ 또한, 2019년 4월, 시행지침 세밀화, 영역별 기록방법 구체화, 특이 자살사망 건의 설명 및 체크법 안내를 추가한 1차 개정본(Korea-Psychological Autopsy Checklist for Police Record 2.0; 이하 K-PAC-PR 2.0)을 제작, 조사에 이용하였다.

○ K-PAC-PR 1.0 및 2.0의 주요 조사 항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조사 항목

조사 항목	세부 항목
A. 자살사망자 기본정보	이름, 성별, 주민등록지 상 주소, 실거주지, 발견장소, 사망 당시 거주형태, 거처의 종류, 학력, 고용상태, 직업, 결혼상태, 동거자 유무, 세부동거자 등
B. 자살 관련 정보	사망일, 발견일, 발견시간, 사망추정시간, 발견장소 유형, 최초발견자, 자살방법 등
C. 자살원인 정보	직업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신체건강문제, 정신건강문제, 정신과적 증상 유무, 추정 정신질환, 정신과 질환 진단 여부, 정신과 치료력 등
D. 관계자 진술 정보	자살자와의 관계, 자살자의 사망 전 변화 유무, 경고신호(언어, 행동, 정서)

5)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2014년 K-PAC 2.0을 개발하였고, 2016년 K-PAC 2.1로 개정 후 현재까지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부검 면담을 진행 중임.

3) 자료 수집

① 예비 연구

○ 본 조사에 앞서 2016~2017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총 7개 시군구에 대한 자살사망자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경찰청 및 해당 지방경찰청, 경찰서와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쳤다. 조사 후 결과 보고를 통해 본 조사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② 시행 계획 수립

○ 시범지역 예비 연구를 통해 확인된 오류 및 수정사항을 점검하고 반영하였다. 이러한 수정과정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증례기록지(이하 e-CRF)[6]를 구축, 시스템 입력 방식을 통해 기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7]를 구성, 예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사내용, 분석의 범위, 자료 해석 등에 대한 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고,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였다.

○ 2017년 진행된 4개 지역에 대한 보고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무진과 자문위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였고, 수정·보완하여 보고서의 형식이 최종 완성되었다.

③ 본 조사 시행

○ 2018년 5월부터 서울지역 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중앙심리부검센터 소속의 훈련받은 전문 조사원이 전국의 경찰서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였다. 조사원들이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자살사망자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 및 확인하여 조사항목을 e-CRF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망자 이외의 개인정보는 모두 배제하는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보안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6)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임상연구관리 시스템(iCreaT)에서는 국가 과제 특성에 따라 전자증례기록지(electronic-Case Report Form; e-CRF)의 설계 및 웹 구현을 지원하고 있음.
7) 사회복지학, 법학, 정신의학, 통계학,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

3. 분석 자료 연계: 전수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1) 자료 연계

①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 본 보고서에서는 광역단위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자살사망 현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사를 목적으로 수집된 경찰 수사기록 자료만으로는 자살에 관한 통합적인 정보를 획득하기에 한계가 있는 바, 자살사망자의 객관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통계 데이터와 연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의 연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유서비스의 '맞춤형 연구 DB' 신청 절차 를 거쳐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와 연계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 특히, 자문단 및 자료 출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심층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료분위, 건강보험가입상태, 정신질환, 신체질환, 장애종류 등의 분석 항목을 선정하였다.

② 연계현황

◦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서울시 자살사망자 자료는 총 10,522건이었다. 이 중 신원미상자이거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등의 이유로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0,336건이 연계 후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연계자료 분석 항목

① 건강보험료분위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 등에 따라 부과[8]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급여구간, 1~20분위의 보험료 분위 코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9].

○ 자료 추출 시, 각 자살사망자별 등록 코드 중 자살사망한 해의 건강보험료분위 이력을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② 건강보험가입상태[10]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구분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 상태 코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 자료 추출 시, 각 자살사망자별 등록 코드 중, 자살사망한 해의 건강보험가입상태 이력을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 다음 표는 본 보고서 분석에 포함된 건강보험가입상태 분류이다.

표 2. 건강보험가입상태 분류

분류		적용 대상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지역세대원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1]	의료급여세대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을 각 시·도지사에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가구단위 급여 또는 개인단위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
	의료급여세대원	의료급여세대주의 피부양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여,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함.

8)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일 불명). 건강보험의 이해 '운영구조'(2019. 06. 접속). URL: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200

9) 의료급여구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세대주와 의료급여 세대원)는 아니나, 불상의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의료급여구간으로 분류된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일 불명). 건강보험의 이해 '적용대상 및 인구' (2019. 06. 접속). URL: h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210

11)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일 불명). 건강보험안내 '의료급여' (2019. 06. 접속). URL: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D02

③ 정신질환

○ 정신질환에 대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6-KCD5 연계표 통합코드를 참고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기호(F00-F99) 및 정신과에서 진료한 간질(G4-G41)에 해당하는 정신과 질환 상병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자살사망자의 진료기록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시점인 2002년부터 사망 직전까지의 정신질환 치료 이력 중 아래 질환에 해당하는 주상병 코드가 부여된 경우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 추출 시, 특정 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2002년 이후 진단받은 모든 주상병을 분석에 포함하여, 개별 자살사망자가 진단받은 다수의 주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횟수가 아닌 질환의 종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질환 간에는 중복 추출을 허용하였으나, 질환 내에서는 중복 추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 다음 표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기호의 실제 질환명과 본 보고서 기술 시 정리한 질환명 분류이다.

표 3. 정신질환 질환명 및 보고서 기입명

질환명	보고서 기입명	Code
치매	치매	F00-F03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F10
기타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F11-F1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정신병적 장애	F20-F29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	F30-F31
우울장애	우울장애	F32-F39
불안장애	불안장애	F40-F41
신경증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장애	신체형장애	F42-F48
정신(발육)지연	정신지연	F70-F79
생리적 장해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 증후군	행태 증후군	F50, F52-59
수면장애	수면장애	F51/G47
성격장애	성격장애	F60-F69
발달장애	발달장애	F80-F89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F90-F98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기타 장애	F04-F09
간질	간질	G40-G41

④ 신체질환

○ 신체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병행위통계 산출 검토에 다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대상환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자살사망자의 진료기록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시점인 2002년부터 사망 직전까지의 신체질환 치료 이력 중 아래 질환에 해당하는 주상병 코드가 부여된 경우 분석에 포함하였다. 자료 추출 시, 특정 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2002년 이후 진단받은 모든 주상병을 분석에 포함하여, 개별 자살사망자가 진단받은 다수의 주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횟수가 아닌 질환의 종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따라서 질환 간에는 중복 추출을 허용하였으나, 질환 내에서는 중복 추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 다음 표는 본 보고서 분석에 포함된 질환명 분류이다.

표 4. 신체질환 질환명 및 보고서 기입명

질환명	보고서 기입명	Code
고혈압	고혈압	I10-I15
당뇨병	당뇨병	E10-E14
대뇌혈관질환	대뇌혈관질환	I60-I69
호흡기 결핵	호흡기결핵	A15, A16, A19
갑상선의 장애	갑상선장애	E00-E07
심장질환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만성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	N18
신경계질환	신경계질환	G00-G37, G42-G83
관절염	관절염	M00-M09, M11-M19, M45
간의질환	간질환	B18, B19, K70-K77
암	암	C00-C97, D00-D09, D32-D33, D37-D48

⑤ 장애종류

○ 장애진단 및 종류에 대해 법률 제16258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코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자료 추출 시, 각 자살사망자별 등록 코드 중 자살사망한 해의 장애 이력을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 다음 표는 본 보고서 분석에 포함된 장애종류 분류이다.

표 5. 장애종류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기능 이상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4. 연계자료 분석

○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9월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기초단위(시군구별 읍면동 단위) 분석 결과 보고서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통한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배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 전체의 자살사망자 현황과 마을 단위(읍면동) 세부 현황, 지역 내 독특한 자살사망 특성 등을 분석하고, 분석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 자살예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 특별시/광역시에 해당하는 각 기초단위 분석 및 보고서 배포 완료 후, 광역단위(특별시/광역시별 시군구 단위)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전반적인 자살사망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광범위한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광역단위의 전체적인 자살사망자 현황 및 추이를 제시하였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분위, 건강보험가입상태, 정신질환, 신체질환, 장애종류와 같은 주제별 심화분석을 실시하여 자살사망자의 특성 및 자살과 관련된 요인들을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더불어, 분석항목에 따라 특정 대상군을 선별하여(건강보험료구간별, 생활상태별, 정신질환별, 신체질환별, 장애종류별, 생애주기별) 이들의 성별, 생애주기, 결혼상태, 발견장소, 자살방법, 주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5. 용어 안내

구 분	내 용
생애주기	① 아동기: 18세 이하 ② 청년기: 19 ~ 34세 ③ 중년기: 35 ~ 49세 ④ 장년기: 50 ~ 64세 ⑤ 노년기: 65세 이상
	※ 항목 기준 2017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중앙심리부검센터, 2018)
결혼상태	① 기혼: 법적 결혼 상태인 경우 ② 별거: 법적 결혼 상태에서 1개월 이상 떨어져서 지내는 경우 ③ 미혼: 법적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는 경우 ④ 사별: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하여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 ⑤ 이혼: 배우자와 서로 헤어져서 현재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 ⑥ 미상: 자살로 사망하였으나 결혼 상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항목 기준 한국의료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 2017)
독거	수사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동거자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지 내/외 자살사망자	① 주민등록지 내: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자살사망 발견지가 일치하는 경우 ② 주민등록지 외: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자살사망 발견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신원미상	수사기록을 통해 개인신상정보 파악이 불가한 경우 예) 백골화 사체, 사체 부패 및 훼손 등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상태	① 피고용인: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② 자영업자: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자(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는 자) ③ 실업자: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상태에 있지 않는 자 (경제활동인구연보 상 (사망당시)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④ 학생: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자 ⑤ 전업주부: 자신의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자 ⑥ 의무복무: 군복무자(직업군인제외), 사회복무요원, 병역특례요원 등 ⑦ 그 외 비경제 활동인: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의 만 15세 이상인 자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를 포함함.) ⑧ 기타: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⑨ 미상: 고용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항목 기준 2017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PAC) 2.1
발견장소	발견장소는 자택, 학교 및 직장, 공공장소, 교외 및 야산, 숙박업소, 친척집, 지인집, 병원, 기타 등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① 자택: 자살사망자의 실거주지 ② 학교 및 직장: 자살사망자가 소속된 학교나 직장 ③ 공공장소: 다수가 빈번하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 예) 주차장, 아파트 개방형 복도, 국립공원, 산책로 등 ④ 교외: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야산: 등산로에서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산지 ⑤ 숙박업소: 요금을 받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을 하는 곳 예) 호텔, 모텔, 여인숙, 고시원 등 ⑥ 친척집: 자살사망자와 비동거 상태인 가족(직계 포함) 및 친척의 거처 ⑦ 지인집: 자살사망자의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지인의 거처 ⑧ 병원: 병원 소유지 내 장소 예) 병원 옥상, 병동 내, 병원 주차장 등 ⑨ 기타: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혹은, 시도장소와 발견장소가 달라 시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자살사망자의 자살시도 장소는 발견장소와 일치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므로 본 조사에서는 자살사망자가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분류 및 집계하였다. 그러나 투신 또는 익사와 같이 실제 자살시도 장소와 발견장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살시도 장소를 기준으로 하였다.
	※ 항목 기준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PAC) 2.1
자살방법	자살방법은 목맴, 가스중독, 농약음독, 투신, 약물음독, 상해, 익사, 기타, 미상 등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① 목맴: 목매달기에 해당 ② 가스중독: 가스질식에 해당 ③ 농약음독: 농약, 살충제, 제초제를 포함 ④ 투신: 뛰어내림에 해당 ⑤ 약물음독: 수면제, 진통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기타 약물 포함 ⑥ 상해: 칼/송곳으로 찌르기, 차/지하철에 뛰어들기, 분신, 총기사용, 기타 상해 포함 ⑦ 익사: 물에 뛰어들기에 해당 ⑧ 기타: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⑨ 미상: 자살로 사망하였으나 자살방법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항목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6-KCD5 연계표 통합코드(통계청)
자살의 주원인	자살의 주원인은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하였을 때 자살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됨. ① 직업문제: 이직, 사업 실패, 과도한 업무량, 직장 내 경쟁, 소외, 실업 등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② 경제문제: 소득감소, 지출증가, 파산, 부채 등 경제적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원인으로 추정되

	는 경우 ③ 신체건강문제: 신체적 질병 혹은 장애 등 신체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정신건강문제: 정신과적 질환 혹은 증상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자살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⑤ 가족관계문제: 가족간 갈등, 소외, 사별 등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⑥ 대인관계문제: 가족 이외의 관계(애인, 친구 등) 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갈등, 소외 등)가 자살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⑦ 기타: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⑧ 미상: 자살로 사망하였으나 자살사망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항목 기준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PAC) 2.1
세부 경제문제	경제문제가 있음인 경우 모든 세부 직업적 문제를 예/아니오로 평가함(중복체크 가능). ① 입금 및 사업자 소득 감소: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로, 파산과 부채에 해당되는 경우와는 구분 ② 지출증가: 소득 대비 현저히 높은 지출이 요구되는 사건이 있는 경우 ③ 파산: 법적파산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④ 부채: 부채 발생 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자살사망자는 발생된 빚으로 인해 사망 직전까지도 빚 독촉을 받거나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음 ⑤ 지속적 빈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이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 못 한 상태로 빈곤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었던 사람으로 정의(절대적 빈곤)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성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을 경우 ⑥ 무직/구직 ⑦ 기타: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항목 기준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PAC) 2.1
건강보험료분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 등에 따라 부과[12]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보험료 분위 코드를 기준 (건강보험료분위: 1~20분위)
	※ 항목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가입상태	①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② 직장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③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 ④ 지역세대원: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⑤ 의료급여세대주 ⑥ 의료급여세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을 각 시·도지사에 시달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장이 가구단위 급여 또는 개인단위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 수급자를 선정

	※ 항목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신질환	① 치매: 치매 ②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③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기타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④ 정신병적장애: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⑤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 ⑥ 우울장애: 우울장애 ⑦ 불안장애: 불안장애 ⑧ 신체형장애: 신경증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⑨ 정신지연: 정신(발육)지연 ⑩ 행태증후군: 생리적 장해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 ⑪ 수면장애: 수면장애 ⑫ 성격장애: 성격장애 ⑬ 발달장애: 발달장애 ⑭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⑮ 기타장애: 기타 정신 및 행동장애 ⑯ 간질: 간질
	※ 항목 기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6-KCD5 연계표 통합코드(통계청)
신체질환	① 고혈압 ② 당뇨병 ③ 대뇌혈관질환 ④ 호흡기 결핵 ⑤ 갑상선장애 ⑥ 심장질환 ⑦ 만성신부전증 ⑧ 신경계질환 ⑨ 관절염 ⑩ 간질환 ⑪ 암
	※ 항목 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대상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종류	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②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③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④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⑤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⑥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⑦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⑧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⑨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⑩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⑪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기능 이상 ⑫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⑬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⑭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⑮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 항목 기준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12)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일 불명). 건강보험의 이해 '운영구조'(2019. 06. 접속). URL: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200

2장. 서울특별시 자살사망자 현황 분석

1.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현황 및 추이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3.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현황

※ 제2장 요약 ※

■ 5년간(2013~2017년) 구별 자살사망자 수 & 자살사망률

- □ 자살사망자 수
  : 노원구(617명) 〉 강서구(571명) 〉 강남구(566명)
- □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 영등포구(27.6명) 〉 금천구(27.2명) 〉 용산구(25.6명)

■ 요인별 서울시 자살사망자 수

- □ 생애주기
  : 장년기(2,605명, 26.3%) 〉 중년기(2,598명, 26.2%) 〉 노년기(2,542명, 25.7%)
- □ 발견장소
  : 자택(5,865명, 59.2%) 〉 공공장소(2,756명, 27.8%) 〉 숙박업소(411명, 4.1%)
- □ 자살방법
  : 목맴(5,620명, 56.7%) 〉 투신(1,979명, 20.0%) 〉 가스중독(1,104명, 11.1%)
- □ 주원인(문제)
  : 정신건강(3,914명, 39.5%) 〉 경제(1,925명, 19.4%) 〉 신체건강(1,688명, 17.0%)
- □ 독거 여부
  : 동거(6,799명, 68.6%) 〉 독거(2,756명, 27.8%)

■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수

- □ 구내 주민등록 자살사망자 수: 7,752명(78.3%)
- □ 구외 주민등록 자살사망자 수: 1,180명(11.9%)
- □ 시외 주민등록 자살사망자 수: 916명(9.2%)

■ 주민등록 기준 시·자살사망 발견시 불일치

- □ 영등포구(시외 유입 자살사망자 수, 99명, 19.3%)
  :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은 시외 유입 외 자살사망자 발견지

제2장 서울특별시 자살사망자 현황 분석

1.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현황 및 추이

1)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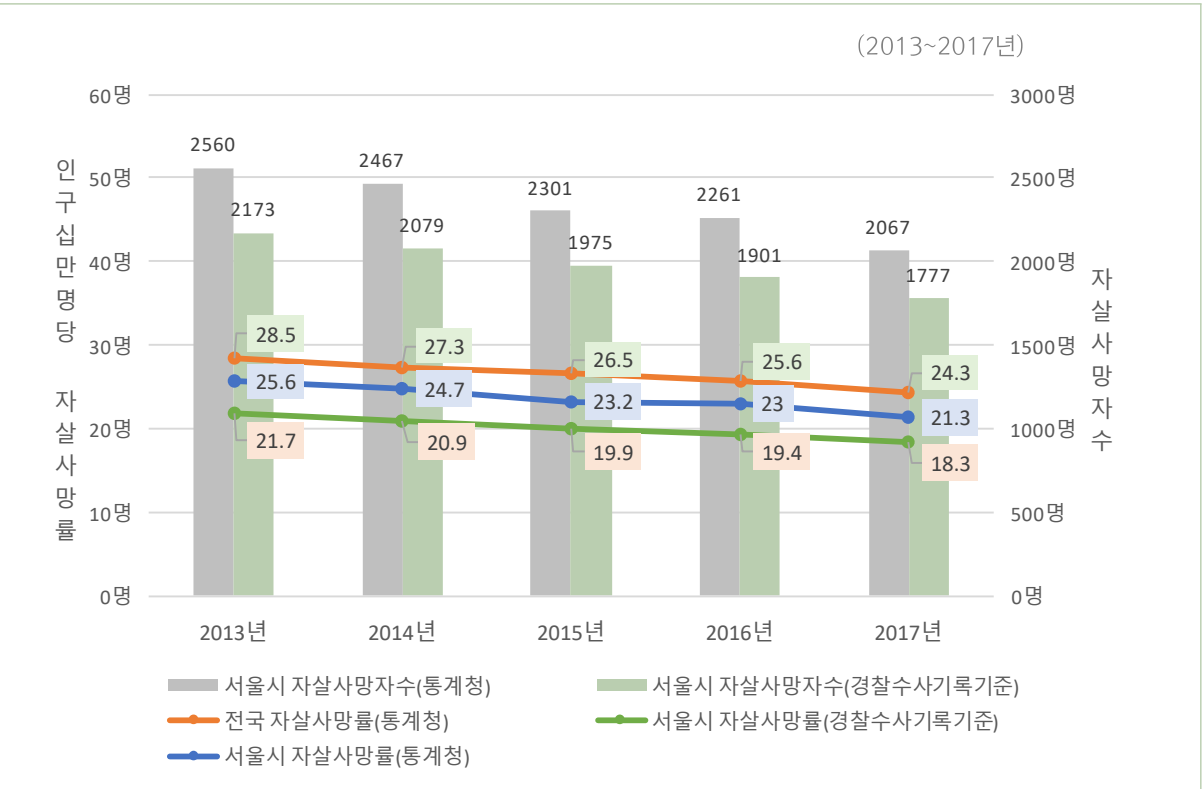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① 통계청 기준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B}{A}$ ×100,000

A= 연도별(2013~2017) 연앙인구 수

B= 통계청 제시 연도별(2013~2017) 자살사망자 수

② 경찰 수사기록기준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C}{A}$ ×100,000

A= 연도별(2013~2017) 연앙인구 수

C= 경찰 수사기록 상 연도별(2013~2017) 자살사망자 수

- B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살사망자 수를 의미. C에는 통계청 기준과 달리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으나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가 포함되어있음.
- 경찰 수사기록 기준 자살사망률의 경우, 자살사망자의 수가 발견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청 자살사망률의 산출과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 그 함의를 두어 제시하는 바,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 후 산출하였음.

통계청 발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의 5년(2013~2017년)간 자살사망자 수는 총 11,656명이었고,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집계된 자살사망자의 수는 총 10,522명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자살사망자가 발견된 장소, 즉 자살을 시도한 장소를 기준으로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자살예방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한강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 중, 사인이 익사로 확인되었으나 자살을 시도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617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9,905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기 617명의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제3장 서울특별시 주제별 자살사망 분석 중 6-1~4 한강변 익사자 분석'에 제시하였다.

○ 그림 1을 보면, 경찰 수사기록 기준으로 5년간(2013~2017년) 매해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이 통계청 발표 결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통계청과 본 조사 모두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연도별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인구통계특성 등 구체적 현황은 부록 1-1-2장에 제시하였다.

2) 5년간 구별 자살사망자 수[13]와 자살사망률[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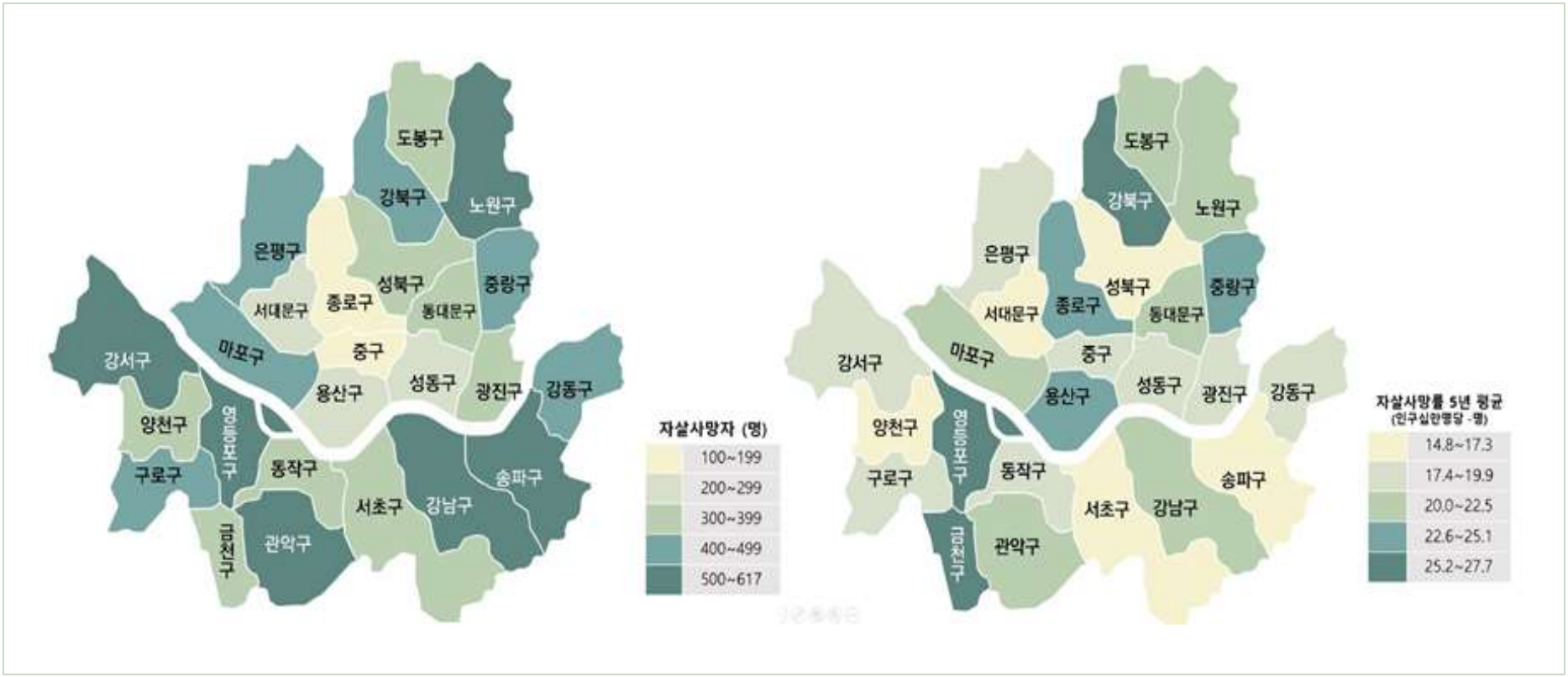


그림 2. 5년간 구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13) 부록 1-1-3 '연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14) 부록 1-1-4 '5년간 구별 자살사망률 평균' 참고

자살사망자 수는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각 구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총합을 의미한다. **자살사망률 평균**은 서울시 각 구의 연도별(2013~2017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의 5년치 평균값을 의미한다.

○ 서울시 각 구의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총 수와 자살사망률 평균을 분석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의 총 수를 살펴보았을 때, 노원구가 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서구(571명), 강남구(566명), 관악구(560명), 송파구(538명) 순으로 많았다.

○ 5년간(2013년~2017년) 자살사망률 평균을 분석한 결과, 영등포구가 27.6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천구(27.2명), 용산구(25.6명), 강북구(25.5명), 중랑구(24.0명) 순으로 높았다.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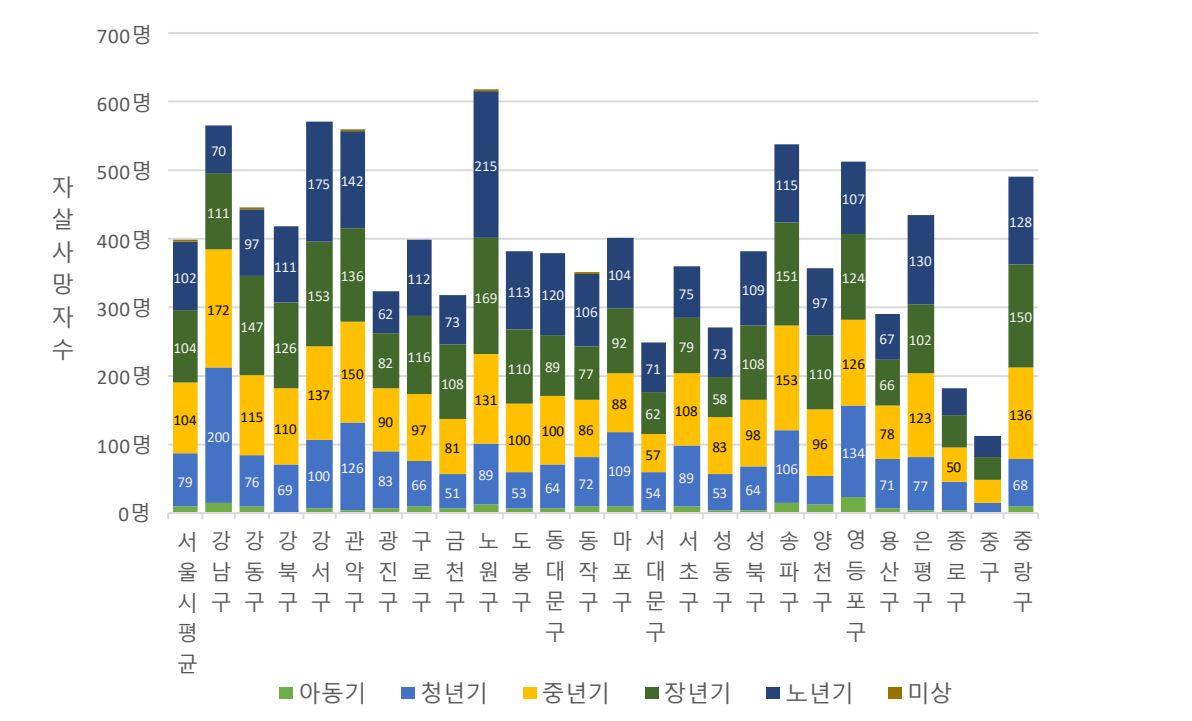


그림 3.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생애주기는 2017 심리부검 면담 결과보고서[16)]를 기준으로, 아동기(18세 이하), 청년기(19세~34세), 중년기(35세~49세), 장년기(50세~64세), 노년기(65세 이상)의 총 5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연도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의 5년치 평균을 의미한다.

○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구별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 현황을 그림 3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장년기(2,605명, 26.3%)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중년기(2,598명, 26.2%), 노년기(2,542명, 25.7%), 청년기(1,971명, 19.9%), 아동기(184명, 1.9%) 순으로 나타났다.

○ 각 구별로 보았을 때, 금천구(108명, 34.0%), 강동구(147명, 33.0%), 양천구(110명, 30.8%)의 경우 장년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동구(83명, 30.6%), 서초구(108명, 30.1%)의 경우 중년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원구(215명, 34.8%), 동대문구(120명, 31.6%), 강서구(175명, 30.6%)에서는 모든 생애주기 중 노년기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200명, 35.3%), 마포구(109명, 27.2%), 영등포구(134명, 26.1%)의 경우 청년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영등포구(23명, 4.5%), 양천구(12명, 3.4%)에서는 아동기 비율이 서울시 평균(7명, 1.9%)보다 높게 나타났다.

15) 부록 1-2-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16) 본문 1-5 '용어 안내' 참고

2) 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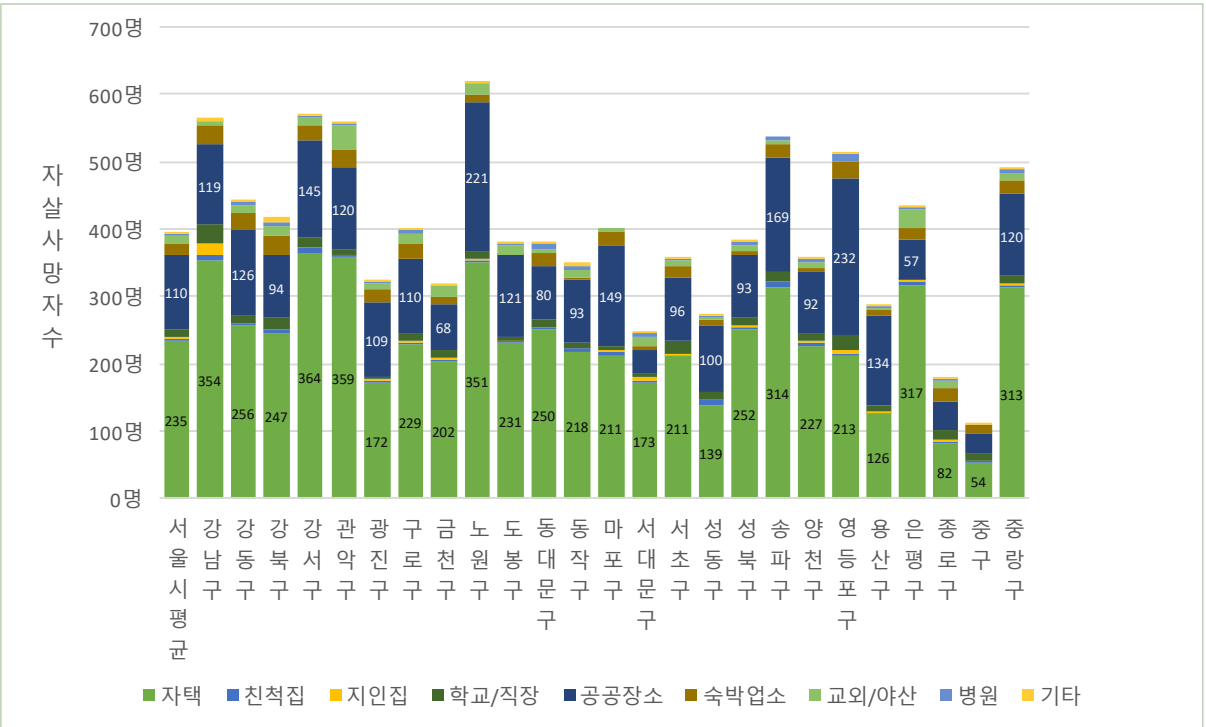


그림 4. 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발견장소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18)]를 기준으로 조사하였고, 자택, 친척집, 지인집, 학교 및 직장, 공공장소, 숙박업소, 교외 및 야산, 병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연도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의 5년치 평균을 의미한다.

○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구별 자살사망자의 발견장소 현황을 그림 4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자살사망자가 발견된 장소를 살펴보면, 자택(5,865명, 59.2%)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공공장소(2,756명, 27.8%), 숙박업소(411명, 4.1%), 학교/직장(286명, 2.9%) 순으로 나타났다.

○ 각 구별로 보았을 때, 은평구(317명, 72.9%), 서대문구(173명, 69.8%), 성북구(252명, 66.0%)의 경우 자택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용산구(134명, 46.4%), 영등포구(232명, 45.1%)의 경우 공공장소 발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구(13명, 11.7%), 종로구(20명, 11.1%), 광진구(22명, 6.8%)에서는 숙박업소 발견 비율이 서울시 평균(16명, 4.1%)보다 높았고, 중구(10명, 9.0%), 종로구(15명, 8.3%), 서초구(18명, 5.0%)에서는 학교/직장 발견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11명, 2.9%)보다 높게 나타났다.

17) 부록 1-2-2 '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18) 본문 1-5 '용어 안내' 참고

3)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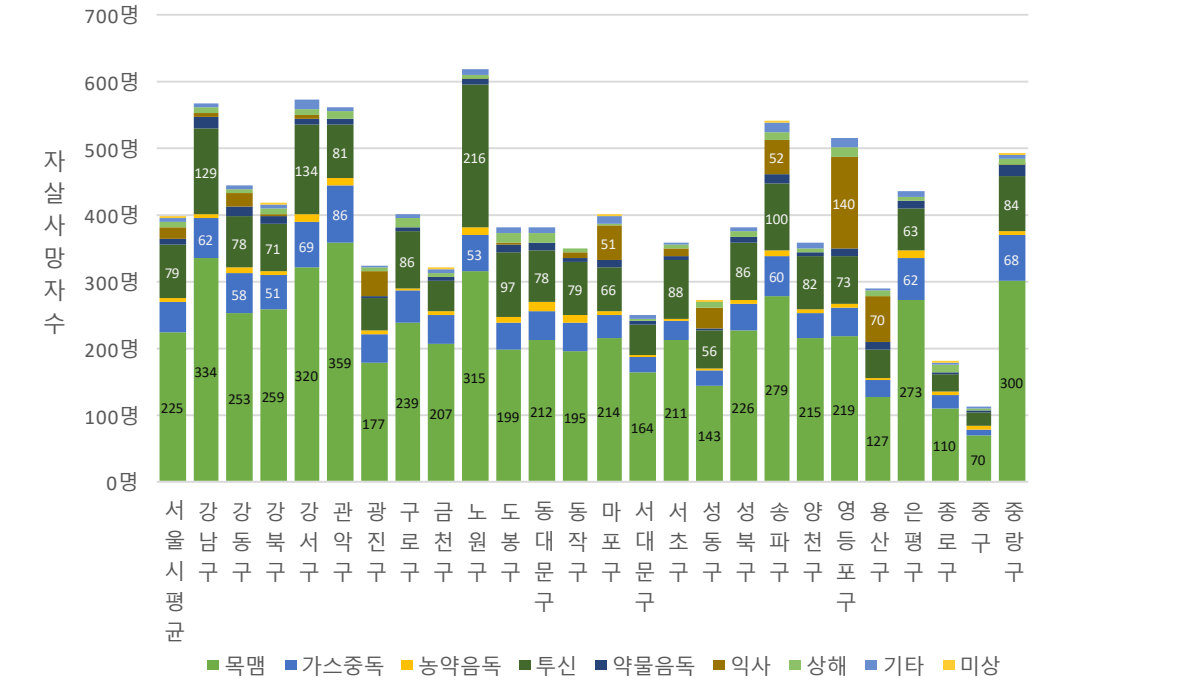


그림 5.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 **자살방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6-KCD5 연계표 통합코드[20)]에 근거하여 항목을 구성하였다. 총 9개 항목으로, 목맴, 가스중독, 투신, 익사, 농약음독, 약물음독, 상해, 기타, 미상 등이다. **서울시 평균**은 연도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의 5년치 평균을 의미한다.

○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구별 자살사망자가 사용한 자살방법 현황을 그림 5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 발견된 자살사망자가 사용한 자살방법을 살펴보면, 목맴(5,620명, 56.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투신(1,979명, 20.0%), 가스중독(1,104명, 11.1%), 익사(433명, 4.4%)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각 구별로 보았을 때 모든 구에서 목맴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원구(216명, 35.0%), 도봉구(97명, 25.5%)의 경우 투신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79명, 20.0%)보다 높았고, 관악구(86명, 15.4%), 은평구(62명, 14.3%)의 경우 가스중독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44명, 11.2%)보다 높았다. 한편, 영등포구(140명, 27.2%), 용산구(70명, 24.2%), 마포구(51명, 12.7%)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익사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17명, 4.4%)보다 높게 나타났다.

19) 부록 1-2-3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20) 본문 1-5 '용어 안내' 참고

4)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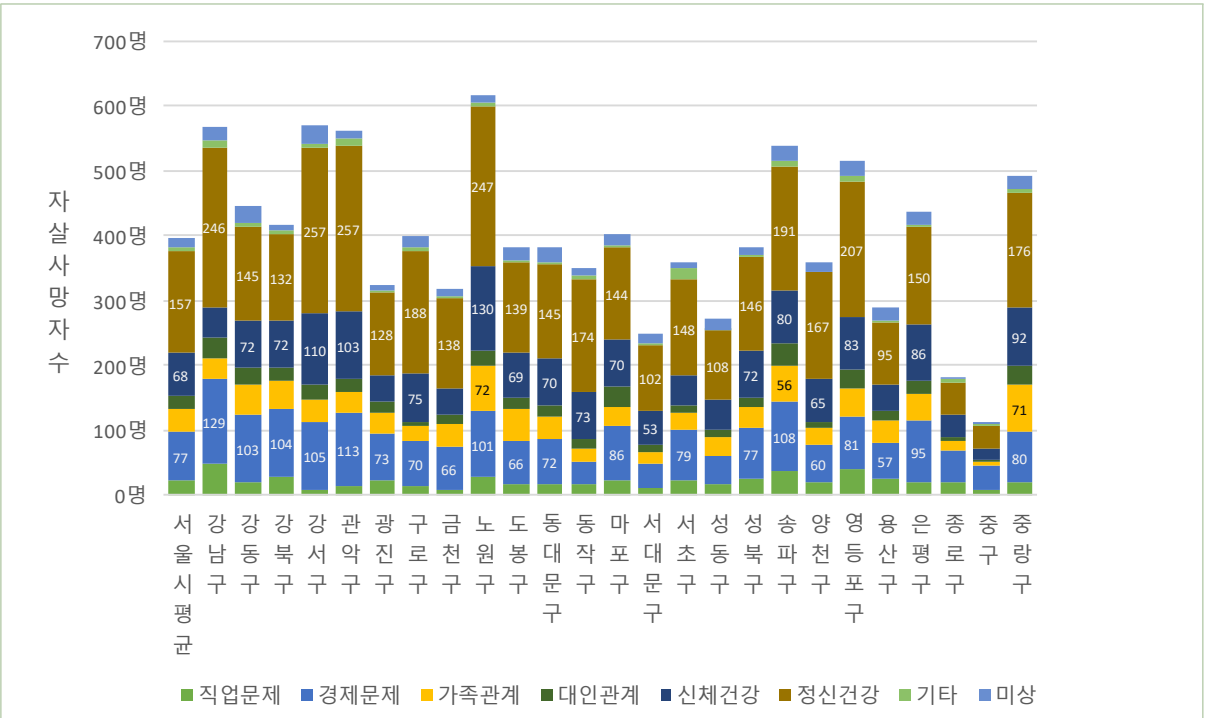


그림 6.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자살사망의 **주원인**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22)]를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항목은 직업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문제, 대인관계문제, 신체건강문제, 정신건강문제, 기타,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연도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의 5년치 평균을 의미한다.

○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구별 자살사망자의 자살사망 주원인 현황을 그림 6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자살사망 주원인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문제(3,914명, 39.5%), 경제문제(1,925명, 19.4%), 신체건강문제(1,688명, 17.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각 구별로 자살사망의 주원인을 살펴보면, 중구와 종로구를 제외하면 모든 구에서 정신건강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구(36명, 32.4%)와 종로구(48명, 26.7%)의 경우 경제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서대문구(53명, 21.4%), 노원구(130명, 21.1%), 동작구(73명, 20.9%)에서는 신체건강문제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68명, 17.0%)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21) 부록 1-2-4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22) 본문 1-5 '용어 안내' 참고

5)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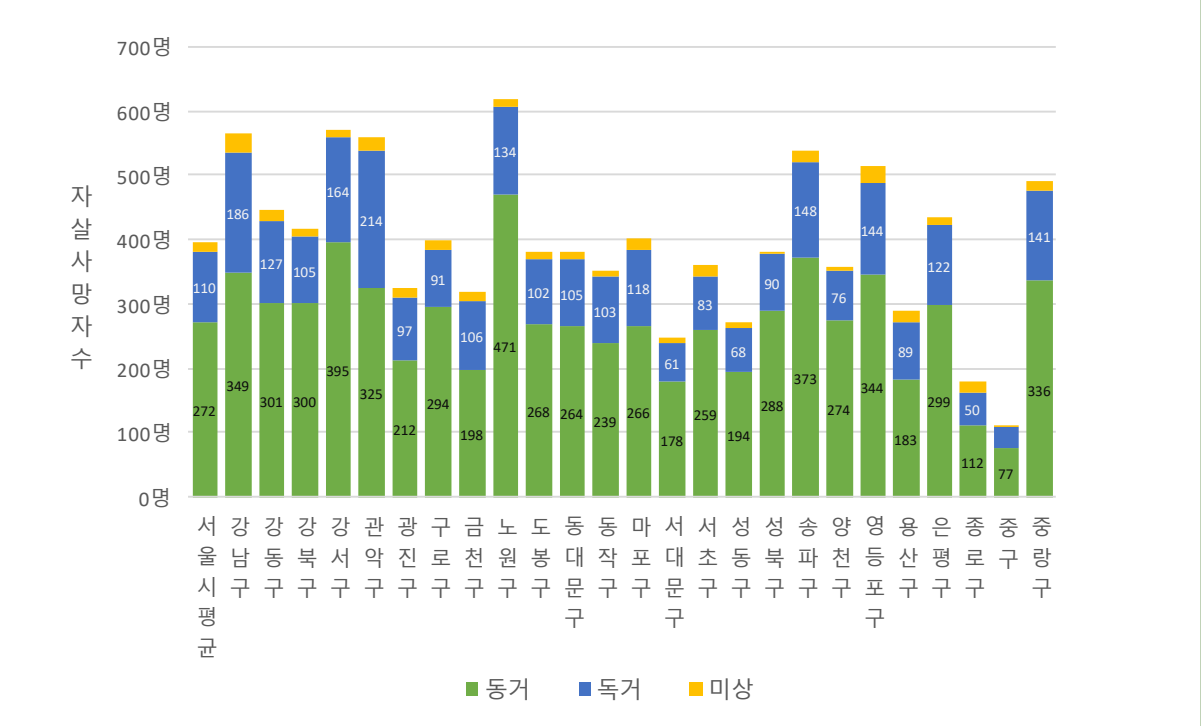


그림 7.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자살사망자의 **독거 여부**는 동거(동거인 있음), 독거(동거인 없음), 미상으로 분류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연도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의 5년치 평균을 의미한다.

○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구별 자살사망자의 독거 여부를 그림 7에 제시하였다.

○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서울시의 1인가구 비율(동거인이 없는 경우)은 31.0%였다(2016년 27.9%, 2015년 27.2%)[24)].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독거 여부를 살펴보면, 사망 당시 동거인이 있었던 경우(동거)가 68.6%(6,799명), 동거인이 없었던 경우(독거)가 27.8%(2,756명)로 나타났다.

○ 각 구별로 독거 여부를 살펴보면, 관악구(214명, 38.2%), 금천구(106명, 33.3%), 강남구(186명, 32.9%)의 순으로 독거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3) 부록 1-2-5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24) 국가통계포털(2018. 9. 14). 1인가구비율(시도/시/군/구) URL: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1161&conn_path=I2

6) 발견장소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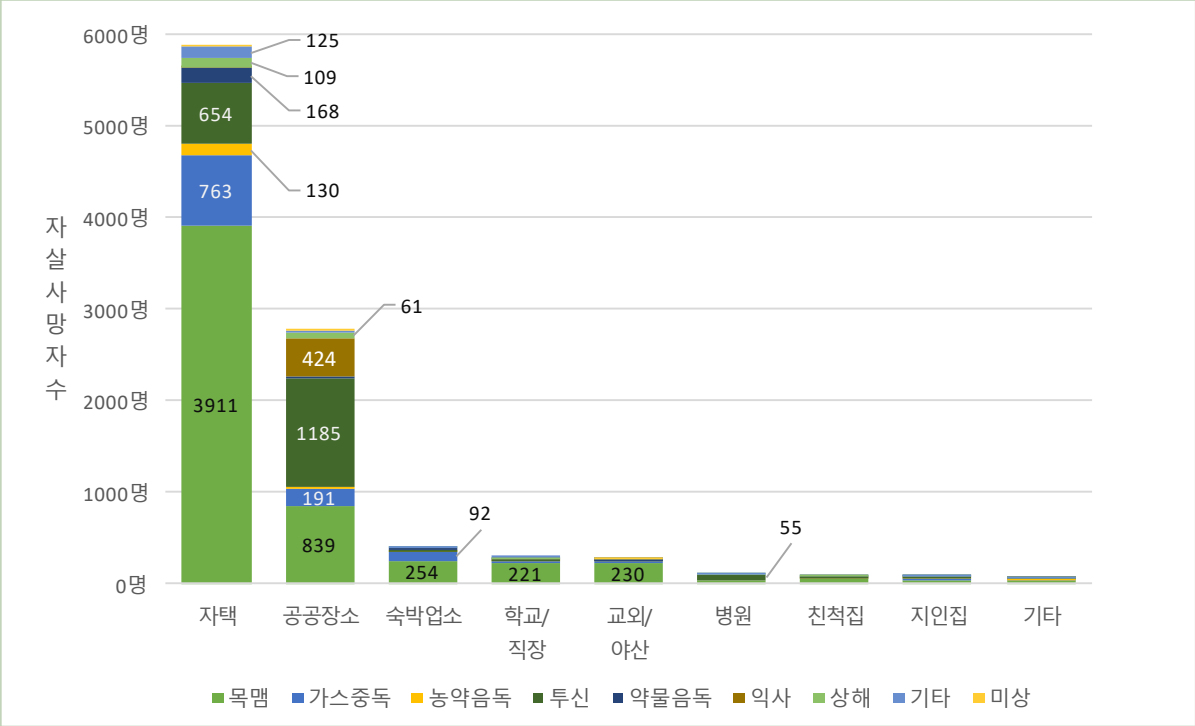


그림 8. 발견장소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자살사망자가 발견된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발견장소별 자살방법을 분석하였다.

○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발견장소별 자살방법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8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발견장소별 자살방법을 분석한 결과, 자택에서 목맴으로 사망한 경우가 3,911건으로 서울시 전체 9,905건 중 3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공공장소와 병원을 제외하면 모든 장소에서 자살사망자가 목맴으로 사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공장소의 경우 투신(1,185명, 43.0%)으로 사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맴(839명, 30.4%), 익사(424명, 15.4%)가 그 뒤를 이었다. 병원의 경우 투신(55명, 56.1%)으로 사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목맴(36명, 36.7%)과 상해(6명, 6.1%)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업소에서는 목맴(254명, 61.8%)에 이어 가스중독(92명, 22.4%)으로 사망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5) 부록 1-2-6 '발견장소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7) 생애주기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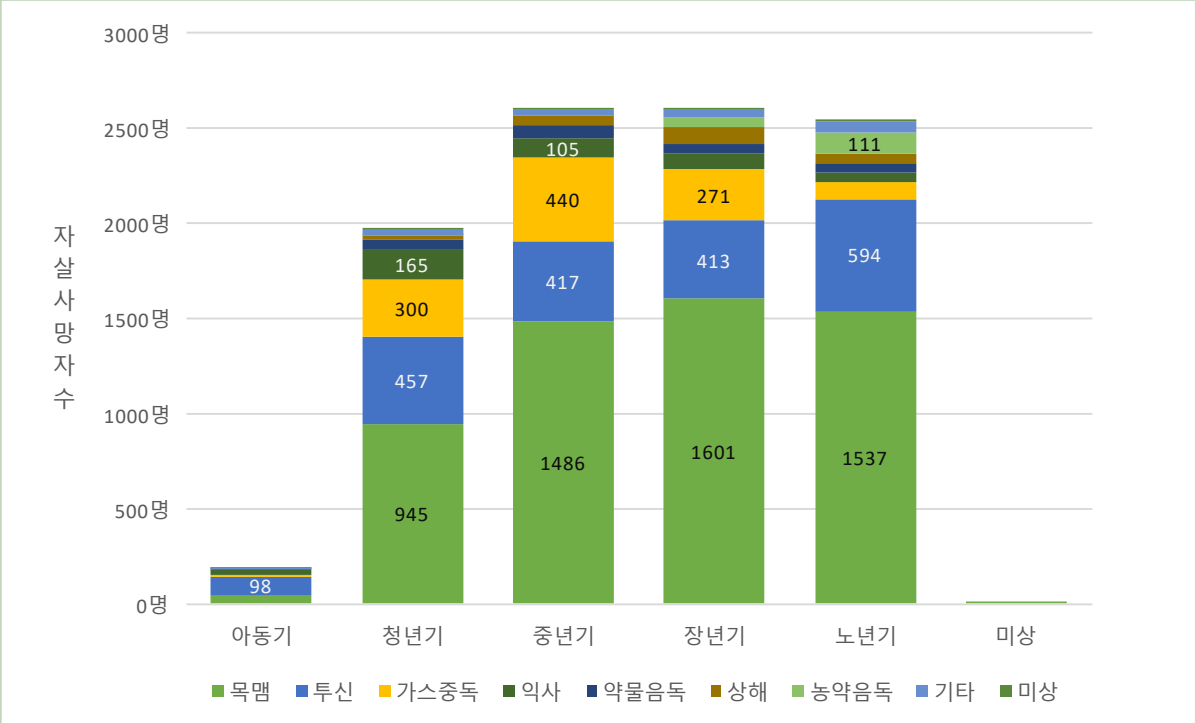


그림 9. 생애주기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자살방법을 분석하였다.

○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생애주기별 자살방법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9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와 자살방법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를 제외하면 모든 생애주기에서 목맴으로 사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아동기의 경우 투신(98명, 53.3%)으로 사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목맴(46명, 25.0%), 익사(27명, 14.7%)가 뒤를 이었다.

○ 청년기와 장년기에서는 목맴(각 945명, 47.9%; 1,601명, 61.3%)에 이어 투신(각 457명, 23.2%; 413명, 15.8%)과 가스중독(각 300명, 15.2%; 271명, 10.4%)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중년기의 경우 목맴(1,486명, 57.2%)에 이어 가스중독(440명, 16.9%), 투신(417명, 16.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노년기에서는 목맴(1,537명, 60.4%)과 투신(594명, 23.3%)에 이어 농약음독(111명, 4.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6) 부록 1-2-7 '생애주기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8) 생애주기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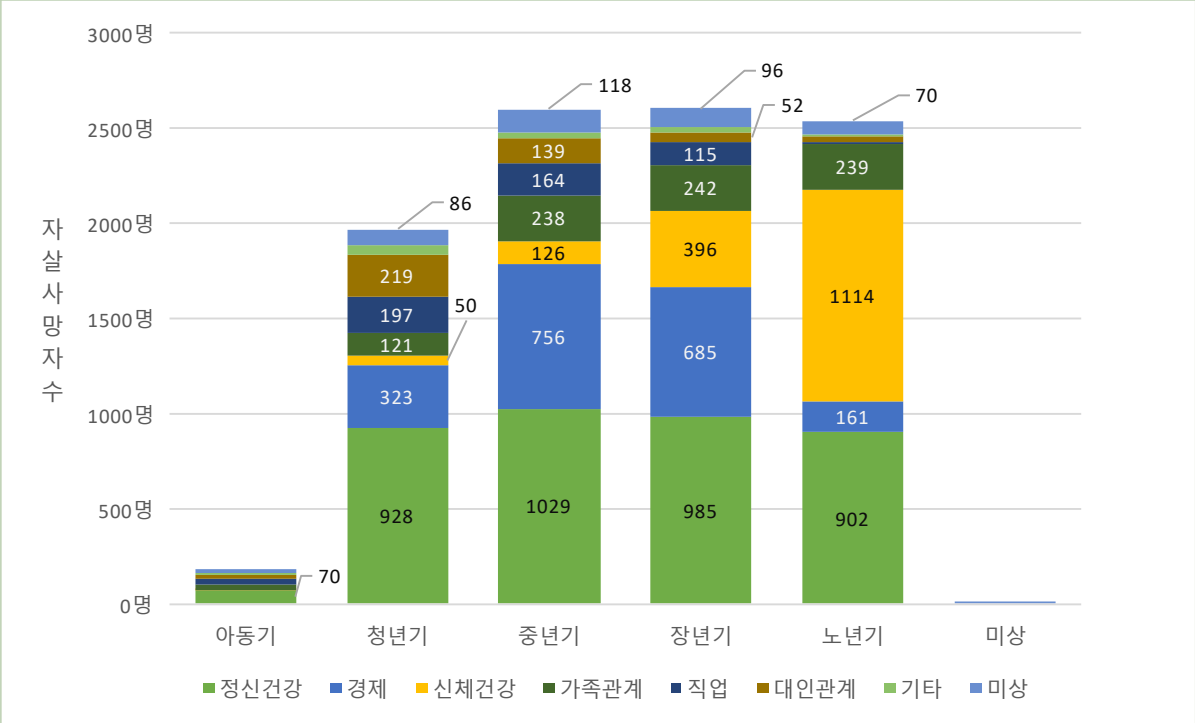


그림 10. 생애주기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생애주기별 자살 주원인을 분석하였다.

○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생애주기별 자살 주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그림 10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별 주원인을 분석한 결과, 노년기를 제외한 모든 생애주기에서 정신건강문제를 주원인으로 한 자살사망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노년기의 경우 자살사망의 주원인이 신체건강문제(1,114명, 43.8%)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정신건강문제(902명, 35.5%), 경제문제(161명, 6.3%)가 그 뒤를 이었다.

○ 청년기와 중년기, 장년기의 경우 정신건강문제(각 928명, 47.1%; 1,029명, 39.6%; 985명, 37.8%)에 이어 경제문제(각 323명, 16.4%; 756명, 29.1%; 685명, 26.3%)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아동기의 경우, 정신건강문제(70명, 38.0%)에 이어 가족관계문제(34명, 18.5%), 대인관계문제(26명, 14.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7) 부록 1-2-8 '생애주기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3.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현황

1)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련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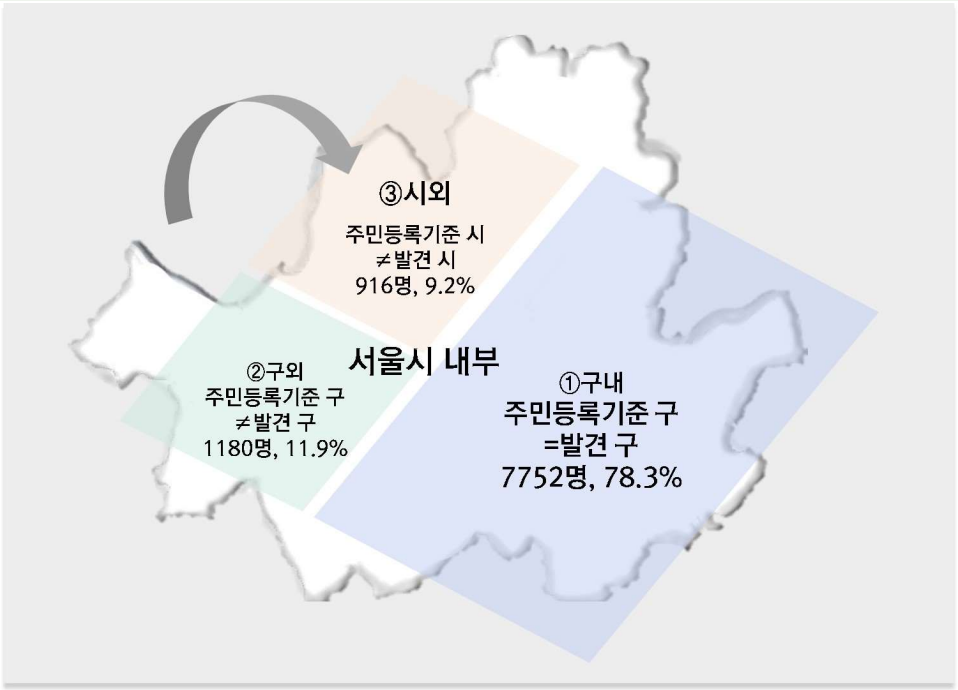


그림 11.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련 세부 분석

본 조사는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발견된 장소의 주소를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발견장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살사망자의 경우 '구'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①주민등록기준 구와 발견 구가 일치하는 구내 자살사망자와 ②주민등록 기준 구와 발견 구가 불일치 하는 구외 자살사망자로 분류된다. 한편, 주민등록지를 '시'를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③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가 아닌 기타 시도일 때 시외 자살사망자로 명명하였다.

○ 그림 11은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련 분석 결과이다.

○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는 90.8%(8,923명)로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자살사망자는 9.2%(916명)였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8,932명을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기준 구와 발견 구가 일치하는 구내 사망자는 전체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78.3%(7,752명)이었고, 일치하지 않는 사망자는 11.9%(1,180명)로 나타났다[28].

28) 주민등록기준 구와 발견 구의 불일치 현황에 대한 세부 수치는 부록 1-3-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 참고

2) 구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수[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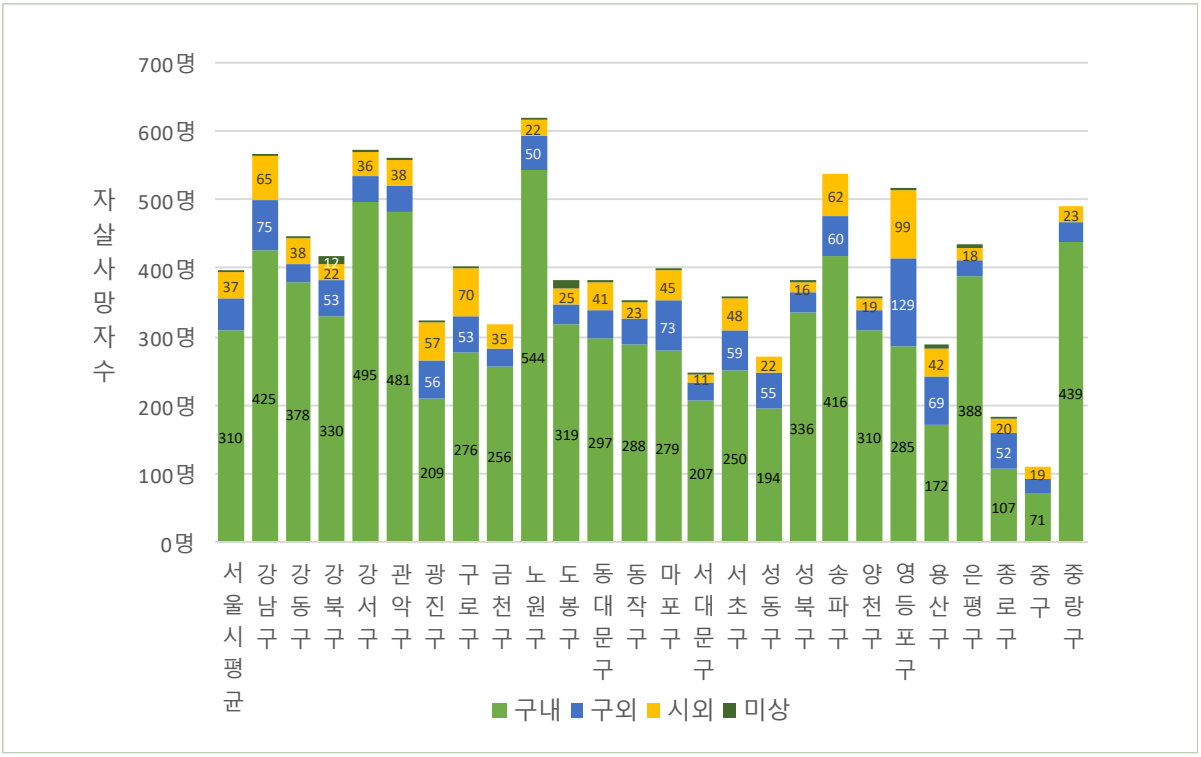


그림 12. 구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수

구내 자살사망자, 구외 자살사망자, 시외 자살사망자에 대하여 구별로 분석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련 분석 결과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 구내 자살사망자 7,752명에 대한 구별 분석 결과, 주민등록기준 구와 발견 구가 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439명, 89.4%)로 25개 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은평구(388명, 89.2%), 노원구(544명, 88.2%) 순이었다.

○ 구외 자살사망자 1,180명에 대한 구별 분석 결과, 주민등록기준 구와 발견 구가 불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52명, 28.9%)로 25개 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영등포구(129명, 25.1%), 용산구(69명, 23.9%) 순이었다.

○ 시외 자살사망자 916명의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영등포구가 99명, 19.6%로 가장 많은 시외 유입 자살사망자가 발견되었다. 이어 광진구(57명, 17.6%), 구로구(70명, 17.5%) 순으로 나타났다.

29) 부록 1-3-1 '구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수' 참고

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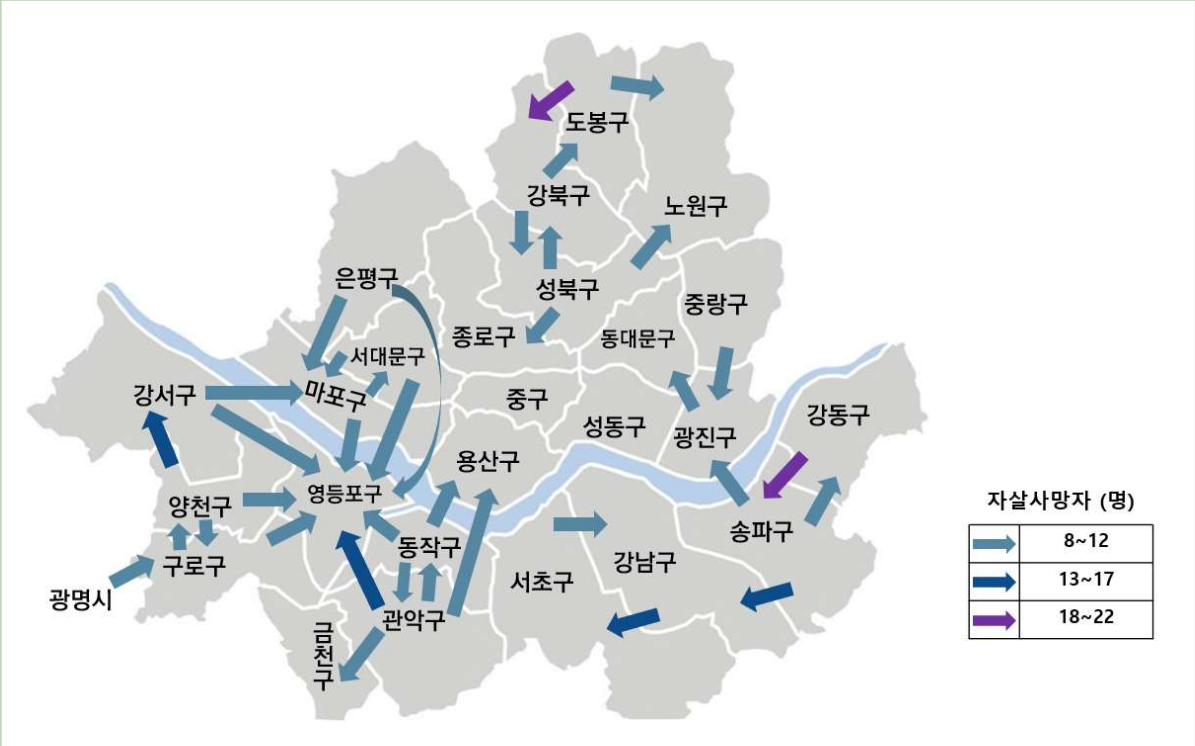


그림 1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발견장소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개의 주소지를 비교하여 **자살사망자의 이동 경로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그림 13과 부록 1-3-3에 제시하였다(예: 그림 12에서 'A구 → B구'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가 A구인 자가 B구에서 자살사망해 발견된 것을 의미).

○ 영등포구의 경우 5년간(2013~2017년) 발견된 자살사망자 중 주민등록지 외 자살사망자(228명, 44.4%)[31)]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등포구 인근의 구로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에 더해 관악구, 강서구, 서대문구 등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로구(70명, 38.9%)는 주민등록지 외 자살사망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성북구, 성동구, 은평구 등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의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민등록지 외 자살사망자 비율이 세 번째로 높았던 용산구(110명, 38.1%)의 경우에도 인근의 동작구와 관악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의 유입이 많았다.

30) 부록 1-3-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 참고
31) 부록 1-3-1 '구별 주민등록지 내·외 자살사망자 수' 참고

○ 한편, 강북구와 성북구, 양천구와 구로구, 동작구와 관악구, 강동구와 송파구, 마포구와 서대문구 같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행정구의 경우 자살사망자가 서로 이동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강북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가 성북구에서 자살사망하여 발견된 경우가 많았고, 동시에 성북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가 강북구에서 자살사망하여 발견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상세 분석한 결과는 부록 1-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장. 서울특별시 주제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 분석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 분석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 제3장 요약 ※

■ 전수조사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 자료에 대한 이해

□ 자살사망에 대한 객관적, 통합적 이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 연계 실시
- ▹ 건강보험료분위, 건강보험가입상태, 정신질환, 신체질환, 장애종류의 분석 항목 선정

□ 총 10,336건의 연계 자료 생성 후 분석 실시
- ▹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된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자료 총 10,522건
- ▹ 신원미상,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의 이유로 연계 불가능한 186건 제외

※ 단, 세부 분석 항목에 따라 분석 대상 총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 분석

□ 건강보험료분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1~20분위)를 4개 구간으로 구분
- ▹ 의료급여구간, 건강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 건강보험료 중위구간(7~13분위), 상위구간(14~20분위)

□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 자살사망자 수
  : 상위구간(3,432명) 〉 중위구간(2,920명) 〉 하위구간(2,576명)
- ▹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 의료급여구간(38.2명) 〉 하위구간(24.4명) 〉 중위구간(19.3명)

□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 자살사망자 수
  : 변화없음(상위구간→상위구간 2,615명) 〉 변화없음(중위구간→중위구간 1,662명) 〉 변화없음(하위구간→하위구간 1,511명)
- ▹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 변화없음(의료급여구간→의료급여구간, 66.4명) 〉 구간하락(하위구간→의료급여구간, 58.3명) 〉 구간하락(중위구간→의료급여구간, 34.3명)

■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 분석

□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
- ▹ 직장피부양자(3,292명, 33.8%) 〉 지역세대원(2,335명, 24.0%) 〉 지역세대주(2,014명, 20.7%)

□ 실업추정 자살사망자의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와 자살사망 분석
- ▹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 후 30일 이내 자살사망(3.3명) 〉 60일 이내 자살사망(2.9명) 〉 100일 이내 자살사망(2.6명)
- ▹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 후 30일 이내에 자살사망 빈번히 발생

■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 추정 정신과 증상 유무(전수조사 기준)과 실제 정신질환 치료력(연계자료 기준) 비교
▹ 추정 정신과 증상 있음 〉 정신질환 치료: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불안장애
□ 정신질환자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5년 평균 179.5명(2013~2017년)
□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자살사망자 수
: 우울장애(2,932명) 〉 수면장애(2,471명) 〉 불안장애(1,935명)
▹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1326.4명) 〉 성격장애(879.8명) 〉 알코올사용장애(677.8명)

■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 신체질환자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5년 평균 52.9명(2013~2017년)
□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자살사망자 수
: 신경계질환(4,410명) 〉 관절염(4,000명) 〉 고혈압(3,225명)
▹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 호흡기결핵(477.5명) 〉 심장질환(188.3명) 〉 간질환(180.0명)

■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 장애인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5년 평균 57.4명(2013~2017년)
□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자살사망자 수
: 지체장애(511명) 〉 정신장애(159명) 〉 청각장애(126명)
▹ 자살사망률(인구십만명당)
: 호흡기장애(201.1명) 〉 정신장애(199.4명) 〉 청각장애(60.4명)

■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 한강변 익사자의 자살사망 분석
▹ 시도지 확인건(427건, 41%): 남성(348명, 81.5%), 청년기(165명, 38.6%), 정신건강문제(168명, 39.3%)
▹ 시도지 미상건(617명, 59%): 청년기(220명, 35.7%), 정신건강문제(242명, 39.2%)
□ 교량별 자살사망 분석(427건)
▹ 마포대교(113명, 26.5%) 〉 한강대교(36명, 8.4%) 〉 광진교(30명, 7.0%)
▹ 연도별: 2014년(104명, 24.4%) 〉 2013년(93명, 21.8%) 〉 2015년(81명, 19.0%)
▹ 월별: 8월(51명, 11.9%) 〉 9월(50명, 11.7%) 〉 7월(47명, 11.0%)

제3장 서울특별시 주제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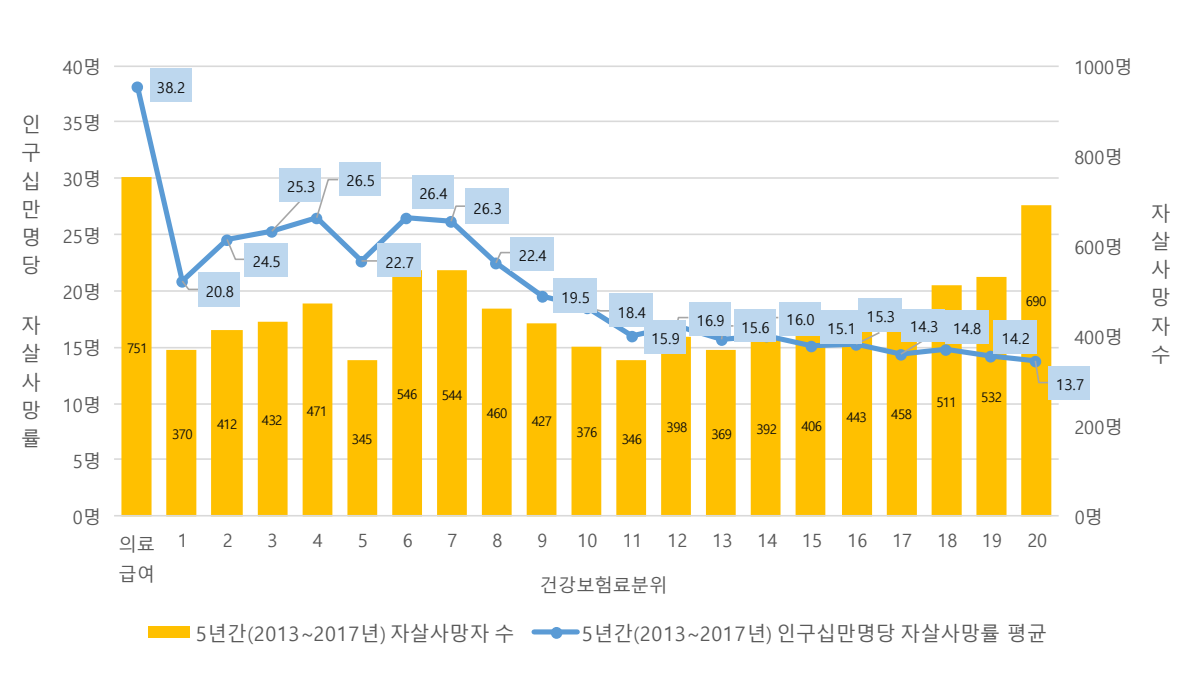


그림 14.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① 그림 14의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은 건강보험료분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의 5년간(2013~2017년) 평균값을 의미함

② 연계자료 기준 건강보험료분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 $\frac{B}{A} \times 100{,}000$

A= 연도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분위별 인구 수
B= 연계자료 기준 연도별(2013~2017년) 서울시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

◆ A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함. 단, 의료급여구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세대주와 의료급여 세대원)는 아니나, 불상의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의료급여구간으로 분류된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

32) 부록 2-1-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참고

(단위 : 명)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분위별 인구 수						서울시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					
서울시 전체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 사망자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급여	440,837	373,610	383,426	392,283	384,084	의료급여	147	151	148	152	153
1분위	333,422	339,369	383,397	362,392	354,355	1분위	74	75	98	53	70
2분위	303,465	357,892	318,787	352,004	355,622	2분위	77	78	87	84	86
3분위	338,448	317,644	325,109	330,779	414,054	3분위	101	90	84	75	82
4분위	403,830	350,862	411,657	309,184	275,218	4분위	133	89	106	82	61
5분위	266,504	311,637	264,619	357,416	334,994	5분위	93	66	40	68	78
6분위	407,289	471,859	411,803	401,873	370,708	6분위	122	121	100	119	84
7분위	426,584	362,987	458,495	417,955	413,561	7분위	107	108	120	111	98
8분위	396,338	436,138	371,264	444,794	403,782	8분위	93	111	85	89	82
9분위	454,833	490,836	438,932	385,460	409,620	9분위	85	104	78	67	93
10분위	416,217	361,842	424,954	427,987	410,467	10분위	83	70	80	73	70
11분위	426,935	440,865	438,674	440,216	424,175	11분위	74	88	55	69	60
12분위	468,086	469,271	479,349	469,188	475,428	12분위	100	72	92	73	61
13분위	472,563	476,513	475,747	468,395	463,865	13분위	72	86	69	90	52
14분위	492,104	490,561	491,427	492,458	485,715	14분위	92	83	88	71	58
15분위	540,296	542,720	539,693	530,025	539,068	15분위	90	81	78	71	86
16분위	591,217	582,935	580,752	578,258	556,874	16분위	96	84	86	90	87
17분위	653,237	646,207	640,044	631,941	621,172	17분위	99	103	100	76	80
18분위	710,983	693,661	688,497	677,256	670,754	18분위	108	102	127	94	80
19분위	764,351	755,610	746,912	745,396	739,975	19분위	123	106	93	121	89
20분위	1,000,773	1,015,833	1,011,996	994,654	1,000,310	20분위	144	159	122	132	133

표 6.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분위별 인구 수 및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건강보험료분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전년도 대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변화				
자살사망률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사망률 변화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의료급여	33.3	40.4	38.6	38.7	39.8	의료급여	7.1 ▲	1.8 ▼	0.1 ▲	1.1 ▲
1분위	22.2	22.1	25.6	14.6	19.8	1분위	0.1 ▼	3.5 ▲	10.9 ▼	5.1 ▲
2분위	25.4	21.8	27.3	23.9	24.2	2분위	3.6 ▼	5.5 ▲	3.4 ▼	0.3 ▲
3분위	29.8	28.3	25.8	22.7	19.8	3분위	1.5 ▼	2.5 ▼	3.2 ▼	2.9 ▼
4분위	32.9	25.4	25.7	26.5	22.2	4분위	7.6 ▼	0.4 ▲	0.8 ▲	4.4 ▼
5분위	34.9	21.2	15.1	19.0	23.3	5분위	13.7 ▼	6.1 ▼	3.9 ▲	4.3 ▲
6분위	30.0	25.6	24.3	29.6	22.7	6분위	4.3 ▼	1.4 ▼	5.3 ▲	7.0 ▼
7분위	25.1	29.8	26.2	26.6	23.7	7분위	4.7 ▲	3.6 ▼	0.4 ▲	2.9 ▼
8분위	23.5	25.5	22.9	20.0	20.3	8분위	2.0 ▲	2.6 ▼	2.9 ▼	0.3 ▲
9분위	18.7	21.2	17.8	17.4	22.7	9분위	2.5 ▲	3.4 ▼	0.4 ▼	5.3 ▲
10분위	19.9	19.3	18.8	17.1	17.1	10분위	0.6 ▼	0.5 ▼	1.8 ▼	- -
11분위	17.3	20.0	12.5	15.7	14.1	11분위	2.6 ▲	7.4 ▼	3.1 ▲	1.5 ▼
12분위	21.4	15.3	19.2	15.6	12.8	12분위	6.0 ▼	3.8 ▲	3.6 ▼	2.7 ▼
13분위	15.2	18.0	14.5	19.2	11.2	13분위	2.8 ▲	3.5 ▼	4.7 ▲	8.0 ▼
14분위	18.7	16.9	17.9	14.4	11.9	14분위	1.8 ▼	1.0 ▲	3.5 ▼	2.5 ▼
15분위	16.7	14.9	14.5	13.4	16.0	15분위	1.7 ▼	0.5 ▼	1.1 ▼	2.6 ▲
16분위	16.2	14.4	14.8	15.6	15.6	16분위	1.8 ▼	0.4 ▲	0.8 ▲	0.1 ▲
17분위	15.2	15.9	15.6	12.0	12.9	17분위	0.8 ▲	0.3 ▼	3.6 ▼	0.9 ▲
18분위	15.2	14.7	18.4	13.9	11.9	18분위	0.5 ▼	3.7 ▲	4.6 ▼	2.0 ▼
19분위	16.1	14.0	12.5	16.2	12.0	19분위	2.1 ▼	1.6 ▼	3.8 ▲	4.2 ▼
20분위	14.4	15.7	12.1	13.3	13.3	20분위	1.3 ▲	3.6 ▼	1.2 ▲	- -

표 7.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률 변화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분위별 5년간(2013년~2017년) 자살사망자 수와 5년간(2013~2017년) 평균 자살사망률을 분석하여 그림 14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의료급여구간이 7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보험료 20분위(690명), 건강보험료 6분위(546명) 순으로 많았다.

○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분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평균을 살펴본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1~8분위에 해당하는 인구의 자살사망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6분위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구체적으로 의료급여구간의 자살사망률이 인구십만명당 38.2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4분위 26.5명, 6분위 26.4명, 7분위 26.3명 순이었다.

○ 건강보험료분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3, 4, 5분위의 경우 다른 건강보험료분위에 비해 연도별 자살사망률 증감폭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2)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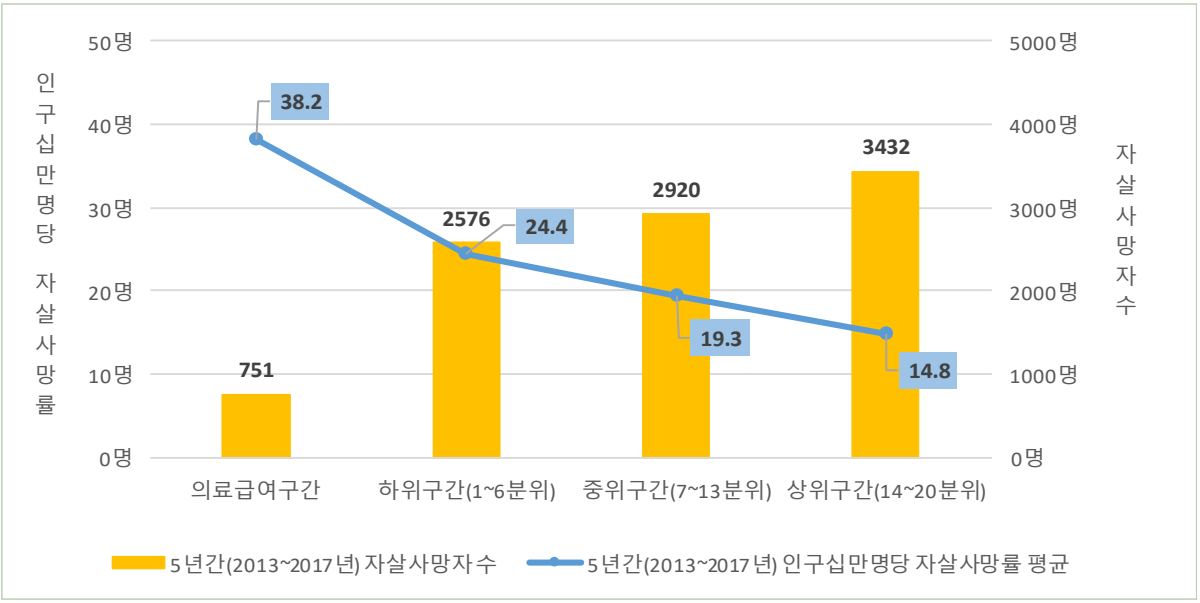


그림 15.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① 대상자 정의

구분	정의
의료급여구간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건강보험료 1~6분위
건강보험료 중위구간	건강보험료 7~13분위
건강보험료 상위구간	건강보험료 14~20분위

② 그림 15의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은 건강보험료구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의 5년간(2013~2017년) 평균값을 의미함

③ 연계자료 기준 건강보험료구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B}{A} \times 100{,}000$

A= 연도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구간별 인구 수

B= 연계자료 기준 연도별(2013~2017년) 서울시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

◆ A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함. 단, 의료급여구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세대주와 의료급여 세대원)는 아니나, 불상의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의료급여구간으로 분류된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

33) 부록 2-1-2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참고

(단위 : 명)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구간별 인구 수						서울시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					
서울시 전체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사망자	2013	2014	2015	2016	2017
의료급여구간	440,837	373,610	383,426	392,283	384,084	의료급여구간	147	151	148	152	153
하위구간(1~6분위)	2,052,958	2,149,263	2,115,372	2,113,648	2,104,951	하위구간(1~6분위)	600	519	515	481	461
중위구간(7~13분위)	3,061,556	3,038,452	3,087,415	3,053,995	3,000,898	중위구간(7~13분위)	614	639	579	572	516
상위구간(14~20분위)	4,752,961	4,727,527	4,699,321	4,649,988	4,613,868	상위구간(14~20분위)	752	718	694	655	613

표 8.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구간별 인구 수 및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건강보험료구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전년도 대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변화				
자살사망률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사망률 변화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의료급여구간	33.3	40.4	38.6	38.7	39.8	의료급여구간	7.1 ▲	1.8 ▼	0.1 ▲	1.1 ▲
하위구간(1~6분위)	29.2	24.1	24.0	22.7	22.0	하위구간(1~6분위)	5.1 ▼	0.1 ▼	1.3 ▼	0.7 ▲
중위구간(7~13분위)	20.2	21.3	18.8	18.8	17.4	중위구간(7~13분위)	1.1 ▲	2.5 ▼	- -	1.4 ▼
상위구간(14~20분위)	16.1	15.2	15.1	14.1	13.4	상위구간(14~20분위)	0.8 ▼	0.1 ▼	1.0 ▼	0.7 ▼

표 9.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률 변화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1~20분위를 의료급여구간, 건강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 건강보험료 중위구간(7~13분위), 건강보험료 상위구간(14~20분위)으로 구분[34]하였다. 각 구간별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와 5년간(2013~2017년) 평균 자살사망률을 분석하여 그림 15에 제시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상위구간이 3,4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위구간(2,920명), 하위구간(2,576명), 의료급여구간(751명) 순이었다.

○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구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평균을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구간(38.2명), 하위구간(24.4명), 중위구간(19.3명), 상위구간(14.8명) 순으로 나타났다.

○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는 상위구간일수록 많아지는 반면,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은 하위구간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건강보험료구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하위, 중위, 상위구간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자살사망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의료급여구간은 자살사망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34) 김상희 국회의원 (2016. 9. 25). 소득 양극화에 이어, 출산 양극화까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URL:https://www.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38457&searchNoSeq=2016092538457

3) 건강보험료구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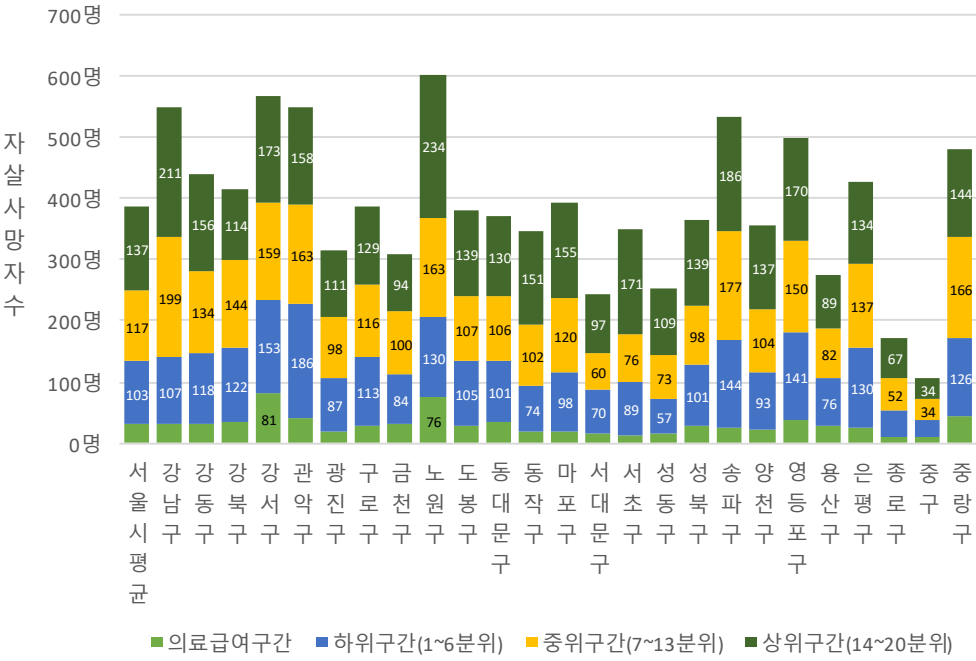


그림 16. 건강보험료구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구별 건강보험료구간 현황을 그림 16에 제시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의 5년간(2013~2017년) 평균을 의미한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건강보험료구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료 상위구간(3,432명, 35.5%)의 자살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중위구간(2,920명, 30.2%), 하위구간(2,576명, 26.6%), 의료급여구간(751명,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구별 건강보험료구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구에서 건강보험료 상위구간의 자살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강북구(144명, 34.8%), 중랑구(166명, 34.5%), 금천구(100명, 32.5%), 은평구(137명, 32.1%)의 경우 건강보험료 중위구간 자살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관악구(186명, 33.9%)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자살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강서구(81명, 14.3%)와 노원구(76명, 12.6%)에서는 다른 구와 비교해 의료급여구간의 자살사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서울시 평균: 30명, 7.8%).

35) 부록 2-1-3 '건강보험료구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4)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 분석[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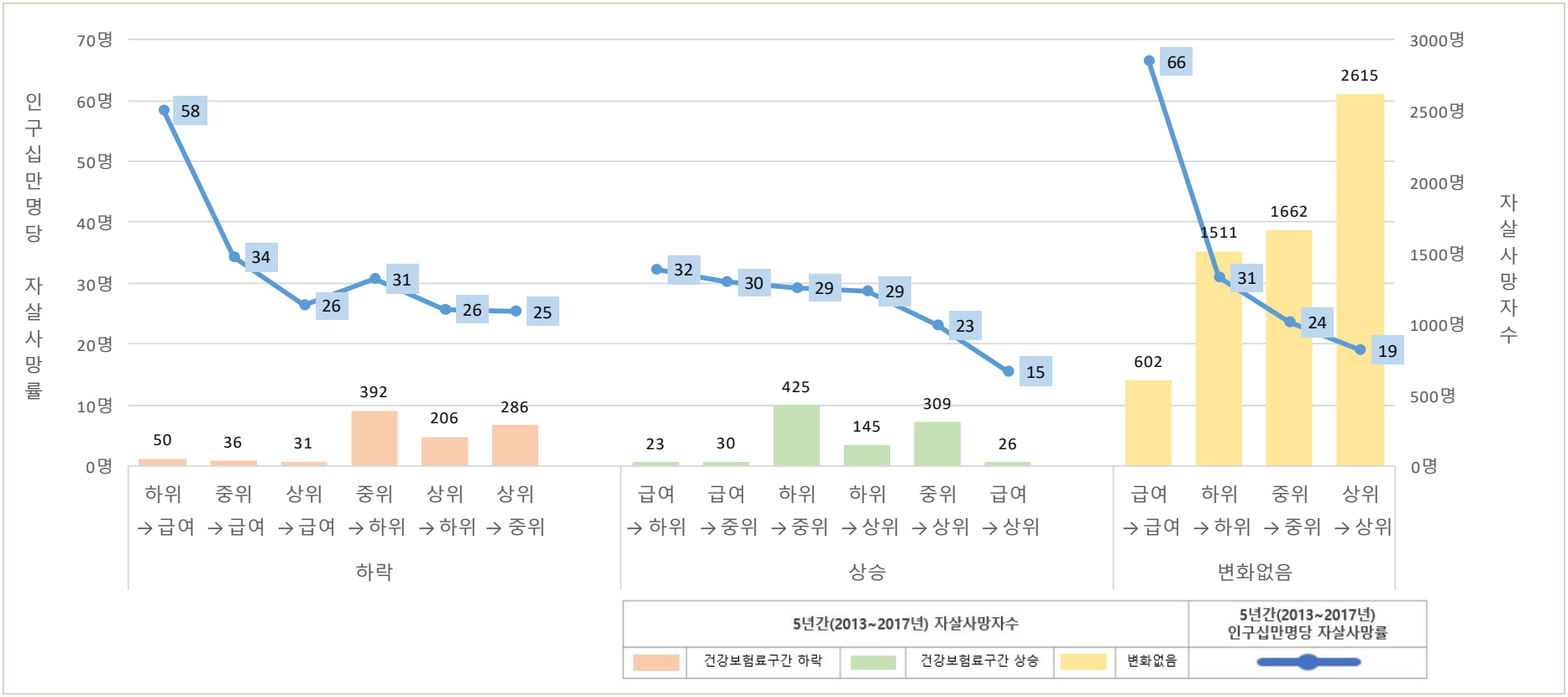


그림 17.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 분석

36) 부록 2-1-4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 현황' 참고

① 연계자료 기준 건강보험료구간 변화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 $\frac{B}{A} \times 100{,}000$

A=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자 수

B= 연계자료 기준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건강보험료구간 변화별 자살사망자 수

- A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함. 단, 1) 5년간(2013~2017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동 없이 서울시였던 대상자들에 한함. 즉, 해당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입 또는 타 지역에서 전출된 기록이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됨. 2) 또한, 의료급여구간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세대주와 의료급여 세대원)은 아니나, 불상의 이유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의료급여구간으로 분류된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힘.
- B에서 건강보험료구간 변화는 자살사망한 해를 기준으로 전년도에서 당해년도로의 건강보험료분위구간 변화를 의미함.

② B의 경우 자살사망한 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구간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중복값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A의 경우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모든 건강보험료구간의 변화를 파악하기에 5년간(2013~2017년) 한 차례 이상의 건강보험료구간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 중복값이 발생함.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구간 변화가 자살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같이 자료를 활용함.

※ 본 분석에서 사용된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은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자 총 수와 자살사망자 총 수를 활용해 산출한 값으로 각 연도별로 산출된 값이 아님을 밝힘. 자료의 특성 상 각 연도별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자 수와 자살사망자 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건강보험료구간 변화가 자살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분석을 실시한 바, 자료 해석에 주의를 요함.

(단위 : 명)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자 수		기준년도			
		상위구간	중위구간	하위구간	의료급여
기준 전년도	상위구간	13,760,939	1,129,720	799,963	117,795
	중위구간	1,336,114	7,016,914	1,276,028	104,863
	하위구간	505,817	1,450,280	4,895,971	85,760
	의료급여	167,849	99,662	71,269	906,980
서울시 건강보험료구간 변화별 자살사망자 수		기준년도			
		상위구간	중위구간	하위구간	의료급여
기준 전년도	상위구간	2,615	286	206	31
	중위구간	309	1,662	392	36
	하위구간	145	425	1,511	50
	의료급여	26	30	23	602
건강보험료구간 변화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기준년도			
		상위구간	중위구간	하위구간	의료급여
기준 전년도	상위구간	19.0	25.3	25.8	26.3
	중위구간	23.1	23.7	30.7	34.3
	하위구간	28.7	29.3	30.9	58.3
	의료급여	15.5	30.1	32.3	66.4

: 건강보험료구간 하락 : 건강보험료구간 상승 : 변화없음

표 10. 5년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구간 변화별 인구 수, 자살사망자 수 및 자살사망률

사망 당해년도와 사망 전년도의 건강보험료분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분위 변화별 자살사망 현황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료분위구간의 변화는 하락(예: 2013년 건강보험료 중위구간 → 2014년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상승(예: 2013년 건강보험료 중위구간 → 2014년 건강보험료 상위구간), 변화없음(예: 2013년 건강보험료 중위구간 → 2014년 건강보험료 중위구간)의 세 가지 상태를 가진다. 분석 결과를 그림 17과 표10에 제시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파악한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분위구간 변화자 수를 살펴보면,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구간→상위구간: 13,760,939명; 중위구간→중위구간: 7,016,914명; 하위구간→하위구간: 4,895,971명). 건강보험료분위구간이 하락한 경우를 살펴보면, 중위구간에서 하위구간으로 하락한 경우(1,276,028명)가 가장 많았고 반대로 상승한 경우는 하위구간에서 중위구간으로 상승한 경우(1,450,280명)가 가장 많았다.

○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 파악한 5년간(2013~2017년) 건강보험료분위구간 변화별 자살사망자 수를 살펴본 결과, 변화자 수와 마찬가지로 구간변화가 없는 경우의 자살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상위구간→상위구간: 2,615명; 중위구간→중위구간: 1,662명; 하위구간→하위구간: 1,511명). 건강보험료분위구간이 하락한 경우, 중위구간에서 하위구간으로 변화한 자살사망자수(392명)가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분위구간이 상승한 경우에는 하위구간에서 중위구간으로 변화한 자살사망자수(425명)가 가장 많았다.

○ 위의 자료를 종합하여 건강보험료분위구간 변화별 자살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① 의료급여구간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의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았고(66.4명) 이어 ② 하위구간에서 의료급여구간으로 하락한 경우(58.3명), ③ 중위구간에서 의료급여구간으로 하락한 경우(34.3명)의 순으로 자살사망률이 높았다.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가입상태[37]별 자살사망자 수[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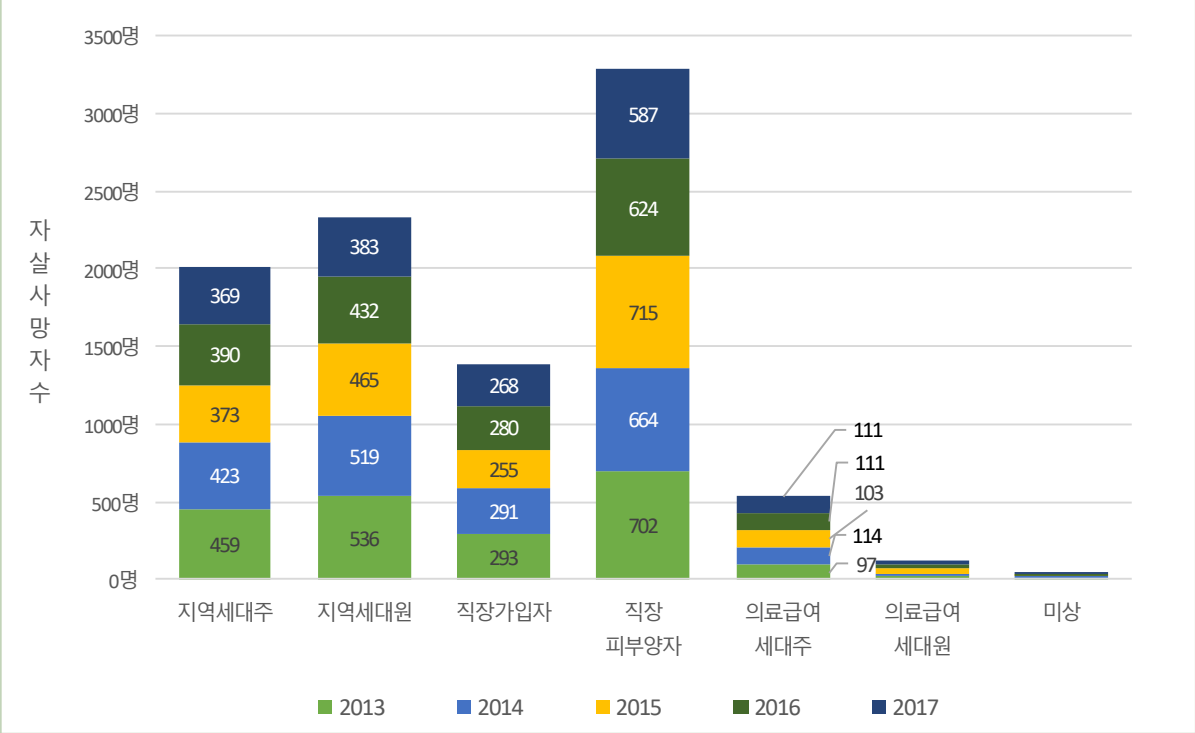


그림 18.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가입상태별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 현황을 그림 18에 제시하였다.

건강보험가입상태는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의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자살사망자가 사망한 당해연도의 건강보험가입상태를 기준으로 하였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건강보험가입상태를 분석한 결과, 직장피부양자(3,292명, 33.8%)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지역세대원(2,335명, 24.0%), 지역세대주(2,014명, 20.7%), 직장가입자(1,392명,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37) 본문 1-4 '연계자료 분석' 참고
38) 부록 2-2-1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2) 건강보험가입상태[39]별/구별 자살사망자 수[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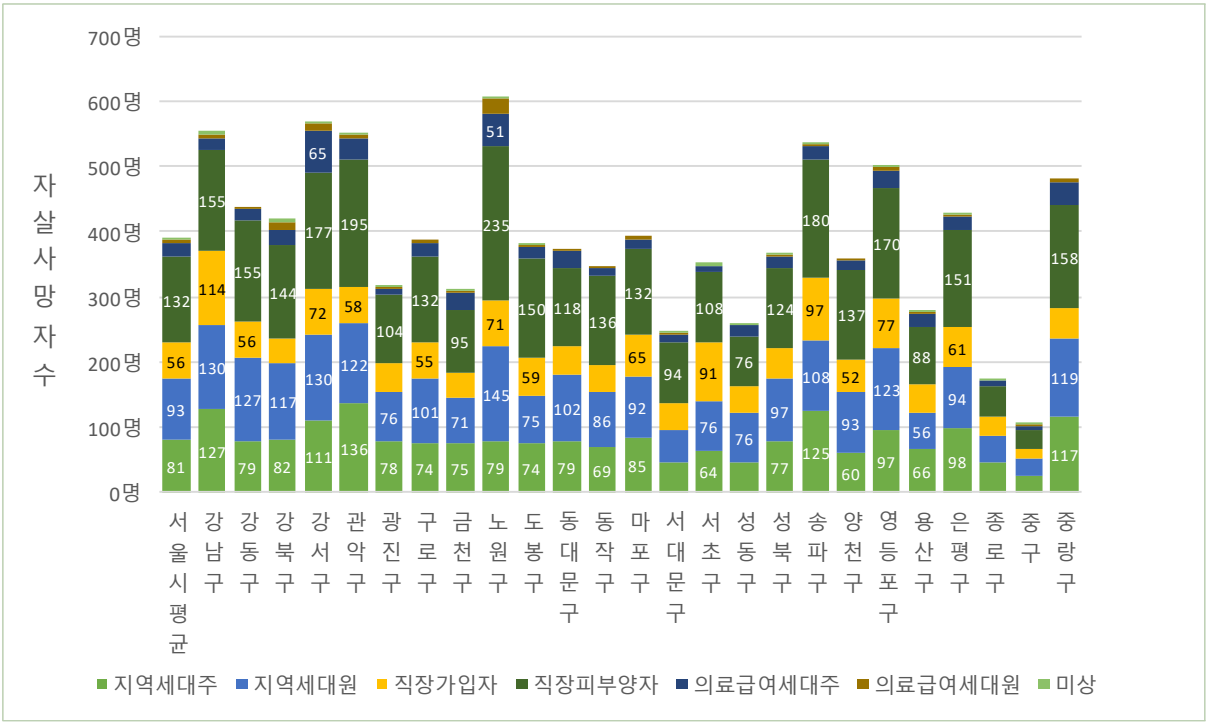


그림 19.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구별 건강보험가입상태 현황을 그림 19에 제시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수의 5년치(2013~2017년) 평균을 의미한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구별 건강보험가입상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구에서 서울시 전체와 같이 직장피부양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구에서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한편, 서초구(91명, 25.9%)와 강남구(114명, 20.6%)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서울시 평균: 56명, 14.3%), 강서구(65명, 11.5%)에서는 의료급여세대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서울시 평균: 21명, 5.5%).

39) 본문 1-4 '연계자료 분석' 참고
40) 부록 2-2-2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3) 실업 추정 자살사망자의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 기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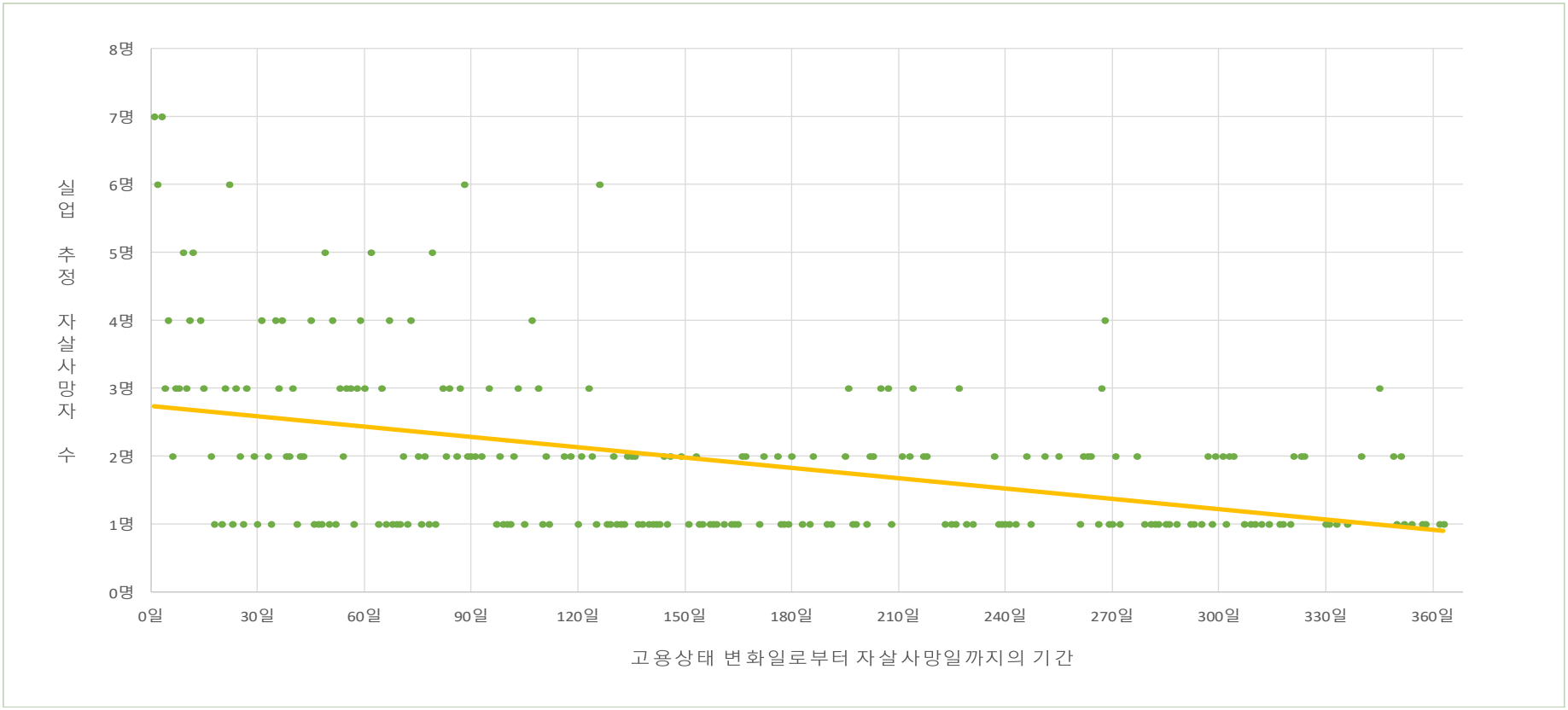


그림 20. 실업 추정 자살사망자의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 내역 상세 분석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실업자'[41]로 분류된 자살사망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의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 일수를 분석하였다.

실업 추정 자살사망자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1)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실업자'로 코딩된 자살사망자를 확인 후, 2) 연계자료에서 '고용상태 변화(사망 전 마지막 시점의 고용상태 변화 양상이 ① 직장가입자에서 그 외 가입자로 변화한 경우와, ②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가 아닌 그 외의 상태로 변화한 경우)'가 발생한 내역을 산출하였다.

고용상태 변화일로부터 자살사망일까지의 기간이 1년(365일) 이내에 해당하는 451명의 결과를 그림20에 제시하였다.

○ 그림 20의 추세선을 살펴보면,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일로부터 자살사망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자살사망자수는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는 2.9명, 100일 이내는 2.6명, 200일 이내는 2.2명이었다. 즉, 건강보험가입상태 변화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자살사망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본 조사에서는 한국형 심리부검 체크리스트(K-PAC) 2.1, 2017 경제활동인구연구(통계청)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상태에 대해 피고용인, 자영업자, 실업자, 학생, 전업주부, 의무복무, 그 외 비경제활동인, 기타, 미상으로 구분하였음. '실업자'란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자(경제활동인구연보 상 (사망당시)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한다.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1) 정신질환별 치료력[42]과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과 증상[43] 비교[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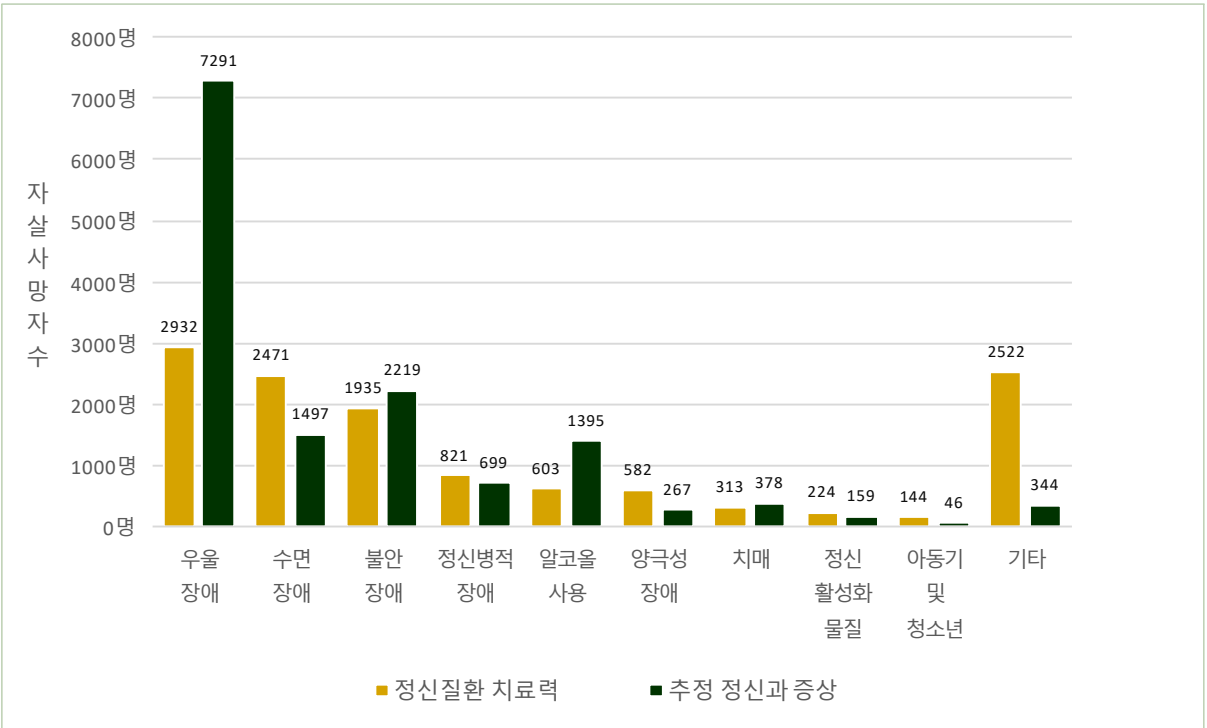


그림 21. 정신질환별 치료력과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과 증상 비교

K-PAC-PR을 토대로 수집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에는, 유족의 진술 및 의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조사원이 추정한 자살사망자의 생전 정신질환 증상 유무 및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때, 정신질환의 유무 및 종류는 확인된 진단내역이나 치료력과는 별개로 기록 상 자살사망자가 당시 정신과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내용을 의미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에는 개별 정신질환 진단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자살사망자의 정신질환 치료력을 추정하였다. 실제 정신질환 치료력과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질환 유무에 관한 기록을 비교하기 위해, 위의 두 자료를 유사한 성격의 질환별로 분류 후 비교 분석하였다(표 11).

42) 정신질환에 관한 자료 추출 시, 특정 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2002년 이후 진단받은 모든 주상병을 분석에 포함하여, 개별 자살사망자가 진단받은 다수의 주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횟수가 아닌 질환의 종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질환 간 중복 추출을 허용한 바, 5년간(2013~2017년)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의 총합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보다 많을 수 있음.

43) K-PAC-PR 내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 내 중복을 허용함. 이에 5년간(2013~2017년)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과 증상은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보다 많을 수 있음.

44) 부록 2-3-1 '정신질환별 치료력과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과 증상 비교'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파악한 5년간(2013~2017년) 정신질환 치료력과 전수조사 상 확인된 추정 정신과 증상에 대한 비교 결과를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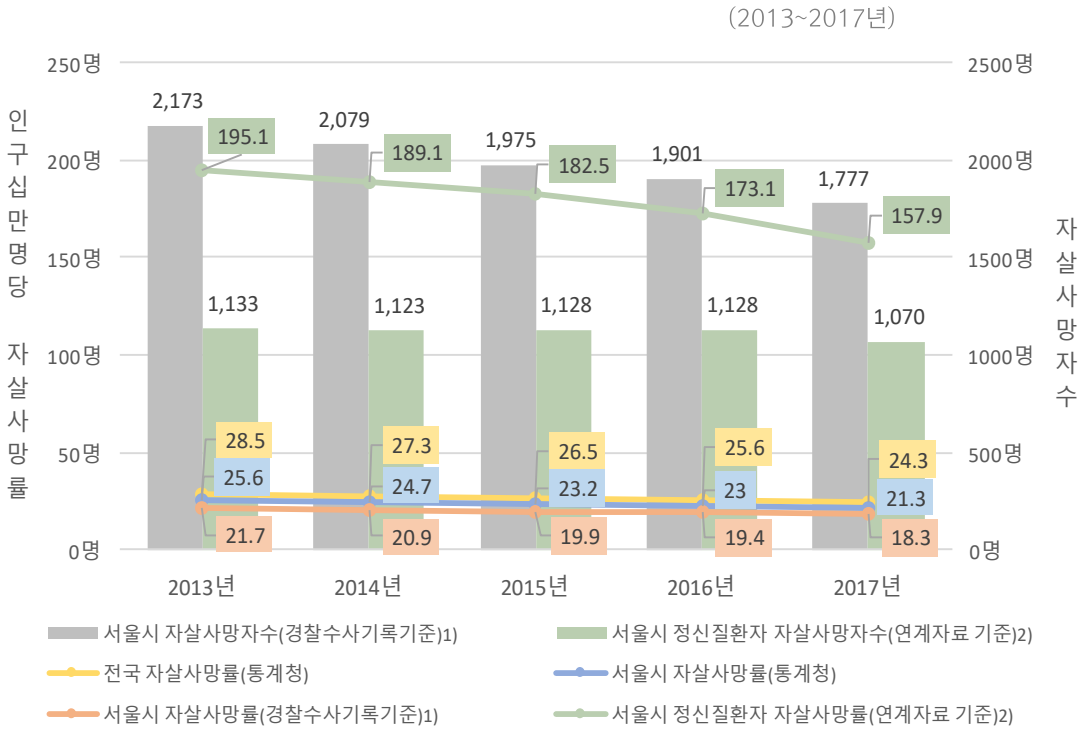
○ 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이를 주상병으로 치료 받은 실제 치료력(우울장애 2,932명; 불안장애 1,935명; 알코올 사용장애 603명)에 비해, 경찰 수사기록 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보았을 때 사망 당시 정신건강 관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경우(우울장애 7,291명; 불안장애 2,219명; 알코올 사용장애 1,395명)가 더욱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위의 질환의 경우, 본인의 호소 또는 주변의 관찰에 의해 여러 가지 정신과 증상이 파악되었던 것에 비해, 이를 주호소 문제로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의미한다.

K-PAC_PR	분류질환명	정신질환 치료력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	정신병적 장애	정신병적 장애
조증, 경조증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
우울	우울장애	우울장애
불안	불안장애	불안장애
불면	수면장애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및 이상 행동	치매	치매, 기타장애
알코올 남용, 오용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외 물질남용, 오용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소아, 청소년 정신과적 문제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정신지연, 발달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정신과 증상 기타	기타	신체형장애, 행태증후군, 성격장애, 간질

표 11. K-PAC-PR 추정 정신과 증상 및 정신질환 치료력 비교 분류

2) 연도별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45)]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자살사망률(통계청)	28.5	27.3	26.5	25.6	24.3
서울시 자살사망률(통계청)	25.6	24.7	23.2	23.0	21.3
서울시 자살사망률(경찰수사기록기준)[1)]	21.7	20.9	19.9	19.4	18.3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살사망률(연계자료 기준)[2)]	195.1	189.1	182.5	173.1	157.9
서울시 자살사망자수(경찰수사기록기준)[1)]	2,173	2,079	1,975	1,901	1,777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수(연계자료 기준)[2)]	1,133	1,123	1,128	1,128	1,070
서울시 정신질환자 수(연계자료 기준)[2)]	580,739	593,920	618,181	651,740	677,635

※ 자살사망률은 인구십만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1)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2) 경찰 수사기록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그림 22. 연도별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45) 부록 2-3-2 '연도별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참고

① 통계청 기준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B}{A}$ ×100,000

A= 연도별(2013~2017) 연앙인구 수
B= 통계청 제시 연도별(2013~2017) 자살사망자 수

② 경찰 수사기록 기준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C}{A}$ ×100,000

A= 연도별(2013~2017) 연앙인구 수
C= 경찰 수사기록 상 연도별(2013~2017) 자살사망자 수

③ 연계자료 기준 인구십만명당 정신질환자 자살사망률= $\frac{E}{D}$ ×100,000

D= 연도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정신질환자 수
E= 연계자료 기준 연도별(2013~2017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

◆ D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함.

※ 본 보고서에서 산출한 인구십만명당 정신질환자 자살사망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정신질환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특히 본 분석에서는 개별 자살사망자가 진단받을 수 있는 다수의 주상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개별 자살사망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둠. 이러한 이유로 본 분석에서의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총 수는 뒤이어 제시될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총 수와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힘.

연계자료를 통해 집계된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는 총 5,580명이었다.

○ 서울시 전체 인구와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 및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22에 제시하였다.

○ 연계자료 기준 정신질환자의 자살사망률은, 경찰 수사기록 기준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률에 비해 8~9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4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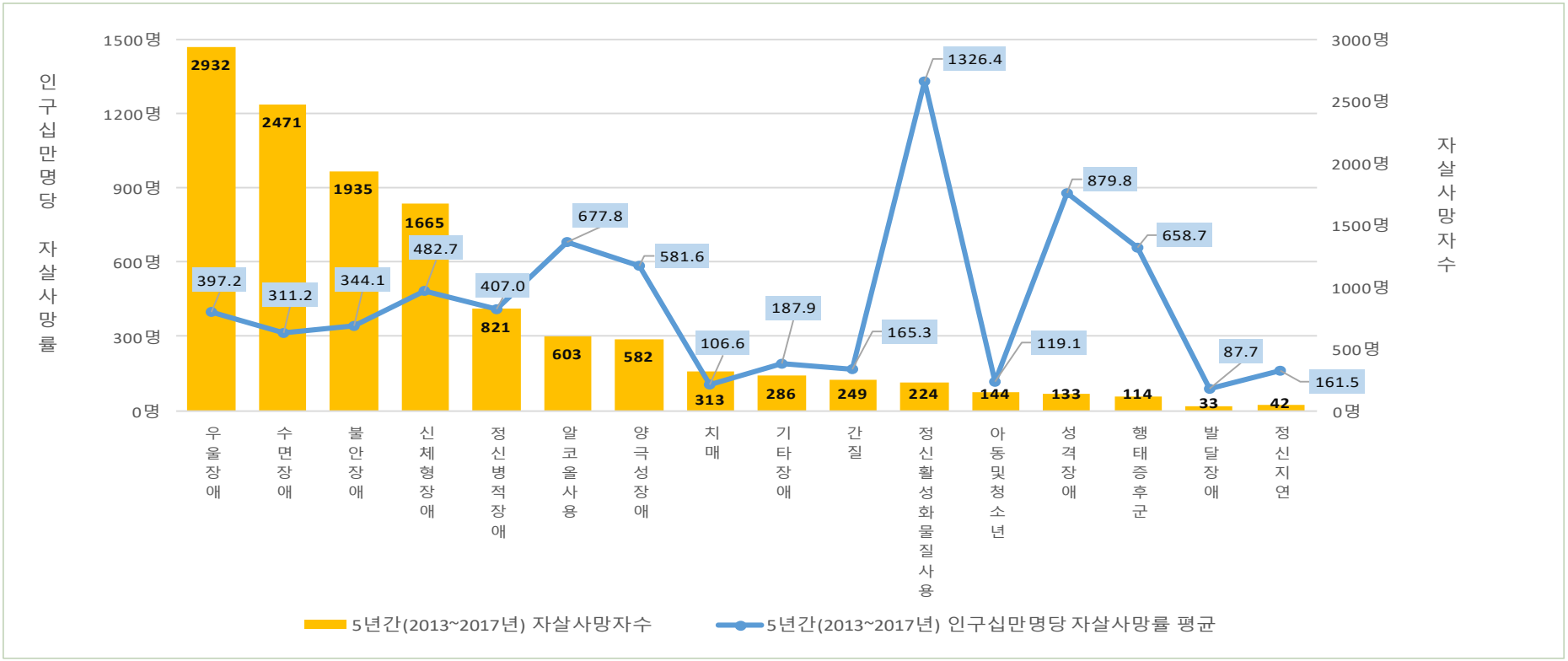


그림 2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46) 정신질환에 관한 자료 추출 시, 특정 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2002년 이후 진단받은 모든 주상병을 분석에 포함하여, 개별 자살사망자가 진단받은 다수의 주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횟수가 아닌 질환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였음. 따라서 질환 간 중복 추출을 허용한 바, 5년간(2013~2017년)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의 총합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보다 많을 수 있음.

47) 부록 2-3-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참고

(단위 : 명)

서울시 전체 정신질환별 인구 수						서울시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					
서울시 전체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 사망자	2013	2014	2015	2016	2017
수면장애	139,808	150,337	162,357	169,798	174,322	수면장애	468	468	503	520	512
우울장애	141,905	140,211	143,960	153,396	161,573	우울장애	596	591	598	585	562
불안장애	103,632	104,867	110,591	120,228	126,864	불안장애	396	358	424	388	369
신체형장애	70,633	69,290	67,952	68,842	68,275	신체형장애	337	313	348	355	312
정신병적장애	39,186	39,792	40,478	41,024	41,119	정신병적장애	142	166	172	182	159
알코올 사용장애	18,016	17,883	17,900	17,618	17,536	알코올 사용장애	123	126	124	108	122
양극성장애	18,492	19,143	20,018	21,011	22,178	양극성장애	129	109	120	125	99
치매	50,091	54,473	59,290	64,079	68,124	치매	59	58	72	58	66
기타 장애	21,882	25,890	30,298	36,571	42,202	기타 장애	52	43	66	59	66
간질	29,858	29,183	30,005	30,967	31,349	간질	51	64	49	49	36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3,245	3,832	4,100	3,301	2,741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47	41	43	53	40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27,129	24,586	22,802	23,147	23,874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25	31	27	27	34
성격장애	3,030	2,994	2,973	3,037	3,093	성격장애	27	22	32	26	26
행태 증후군	3,248	3,219	3,294	3,414	4,172	행태 증후군	20	19	22	28	25
발달장애	7,626	7,585	7,492	7,383	7,529	발달장애	8	6	5	7	7
정신지연	5,099	5,047	5,194	5,435	5,254	정신지연	8	11	5	10	8

표 12.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정신질환별 인구 수 및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정신질환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전년도 대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변화				
자살사망률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사망률 변화	2013 → 2014	2014 → 2015	2015 → 2016	2016 → 2017
수면장애	334.7	311.3	309.8	306.2	293.7	수면장애	23.4 ▼	1.5 ▼	3.6 ▼	12.5 ▼
우울장애	420.0	421.5	415.4	381.4	347.8	우울장애	1.5 ▲	6.1 ▼	34.0 ▼	33.5 ▼
불안장애	382.1	341.4	383.4	322.7	290.9	불안장애	40.7 ▼	42.0 ▲	60.7 ▼	31.9 ▼
신체형장애	477.1	451.7	512.1	515.7	457.0	신체형장애	25.4 ▼	60.4 ▲	3.5 ▲	58.7 ▼
정신병적장애	362.4	417.2	424.9	443.6	386.7	정신병적장애	54.8 ▲	7.8 ▲	18.7 ▲	57.0 ▼
알코올 사용장애	682.7	704.6	692.7	613.0	695.7	알코올 사용장애	21.9 ▲	11.8 ▼	79.7 ▼	82.7 ▲
양극성장애	697.6	569.4	599.5	594.9	446.4	양극성장애	128.2 ▼	30.1 ▲	4.5 ▼	148.5 ▼
치매	117.8	106.5	121.4	90.5	96.9	치매	11.3 ▼	15.0 ▲	30.9 ▼	6.4 ▲
기타 장애	237.6	166.1	217.8	161.3	156.4	기타 장애	71.6 ▼	51.7 ▲	56.5 ▼	4.9 ▼
간질	170.8	219.3	163.3	158.2	114.8	간질	48.5 ▲	56.0 ▼	5.1 ▼	43.4 ▼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1448.4	1069.9	1048.8	1605.6	1459.3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378.4 ▼	21.2 ▼	556.8 ▲	146.3 ▼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92.2	126.1	118.4	116.6	142.4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33.9 ▲	7.7 ▼	1.8 ▼	25.8 ▲
성격장애	891.1	734.8	1076.4	856.1	840.6	성격장애	156.3 ▼	341.6 ▲	220.2 ▼	15.5 ▼
행태 증후군	615.8	590.2	667.9	820.2	599.2	행태 증후군	25.5 ▼	77.6 ▲	152.3 ▲	220.9 ▼
발달장애	104.9	79.1	66.7	94.8	93.0	발달장애	25.8 ▼	12.4 ▼	28.1 ▲	1.8 ▼
정신지연	156.9	218.0	96.3	184.0	152.3	정신지연	61.1 ▲	121.7 ▼	87.7 ▲	31.7 ▼

표 13. 5년간(2013~2017년) 정신질환별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률 변화 추이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신질환별 5년간(2013년~2017년) 자살사망자 수와 5년치 자살사망률 평균을 분석하여 그림 23에 제시하였다.

○ 정신질환별로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우울장애가 2,9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면장애(2,471명), 불안장애(1,935명), 신체형장애(1,665명), 정신병적장애(821명), 알코올 사용장애(603명)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의 평균을 살펴보면,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가 1326.4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성격장애(879.8명), 알코올 사용장애(677.8명), 행태증후군(658.7명)) 순으로 나타났다.

○ 즉, 자살사망자 수가 많은 정신질환과 자살사망률이 높은 정신질환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평균을 고려했을 때, 양극성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신체형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경우 자살사망자 수가 많으며 자살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으로 파악된다.

○ 정신질환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면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장애의 경우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의 경우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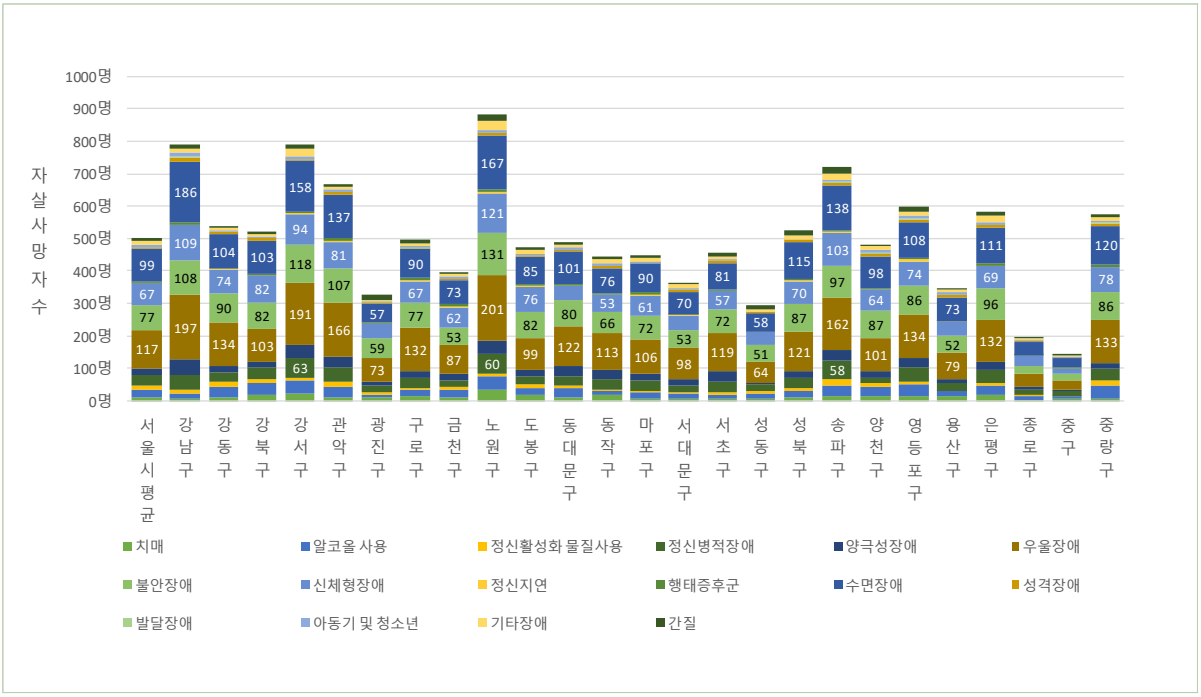


그림 2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구별 정신질환 현황을 그림 24에 제시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수의 5년치(2013~2017년) 평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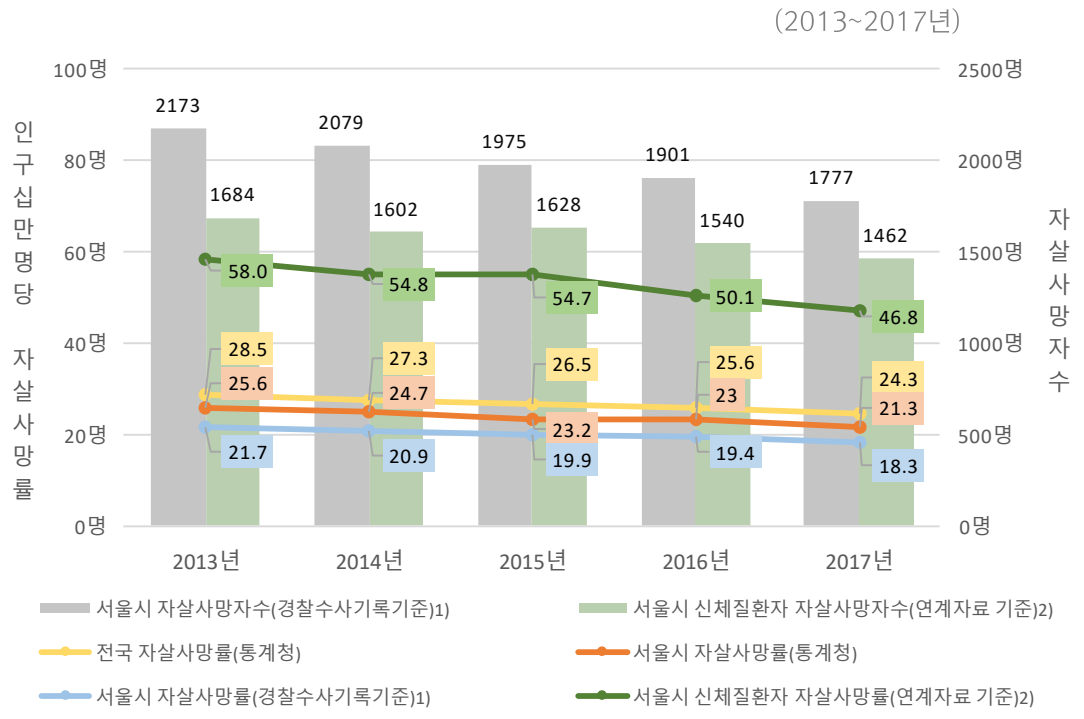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정신질환 유형을 구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구에서 우울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수면장애, 불안장애, 신체형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작구(19명, 4.3%)와 도봉구(19명, 4.0%)의 경우 자살사망자 중 치매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서울시 평균: 13명, 2.5%). 중랑구(39명, 6.8%)와 종로구(13명, 6.6%)에서는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비율이(서울시 평균: 24명, 4.8%), 중구(13명, 9.0%), 강서구(63명, 8.0%)와 송파구(58명, 8.0%)에서는 정신병적장애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서울시 평균: 33명, 6.5%).

48) 부록 2-3-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1) 연도별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49)]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자살사망률(통계청)	28.5	27.3	26.5	25.6	24.3
서울시 자살사망률(통계청)	25.6	24.7	23.2	23.0	21.3
서울시 자살사망률(경찰수사기록기준)[1)]	21.7	20.9	19.9	19.4	18.3
서울시 신체질환자 자살사망률(연계자료 기준)[2)]	58.0	54.8	54.7	50.1	46.8
서울시 자살사망자수(경찰수사기록기준)[1)]	2,173	2,079	1,975	1,901	1,777
서울시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수(연계자료 기준)[2)]	1,684	1,602	1,628	1,540	1,462
서울시 신체질환자 수(연계자료 기준)[2)]	2,902,575	2,925,587	2,974,609	3,073,981	3,124,610

※ 자살사망률은 인구십만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1)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2) 경찰 수사기록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그림 25. 연도별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49) 부록 2-4-1 '연도별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참고

① 통계청 기준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B}{A}$ ×100,000

A= 연도별(2013~2017) 연앙인구 수
B= 통계청 제시 연도별(2013~2017) 자살사망자 수

② 경찰 수사기록 기준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C}{A}$ ×100,000

A= 연도별(2013~2017) 연앙인구 수
C= 경찰 수사기록 상 연도별(2013~2017) 자살사망자 수

③ 연계자료 기준 인구십만명당 신체질환자 자살사망률= $\frac{E}{D}$ ×100,000

D= 연도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신체질환자 수
E= 연계자료 기준 연도별(2013~2017년) 서울시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수

◆ D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함.

※ 본 보고서에서 산출한 인구십만명당 신체질환자 자살사망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신체질환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 특히 본 분석에서는 개별 자살사망자가 진단받을 수 있는 다수의 주상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개별 자살사망자가 신체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둠. 이러한 이유로 본 분석에서의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총 수는 뒤이어 제시될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총 수와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힘.

연계자료를 통해 집계된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신체질환 보유 자살사망자 수는 총 7,916명이었다.

○ 서울시 전체 인구와 서울시 신체질환 보유 인구의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을 비교한 결과를 그림 25에 제시하였다.

○ 연계자료 기준 신체질환자의 자살사망률은 경찰 수사기록 기준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률에 비해 약 2~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신체질환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5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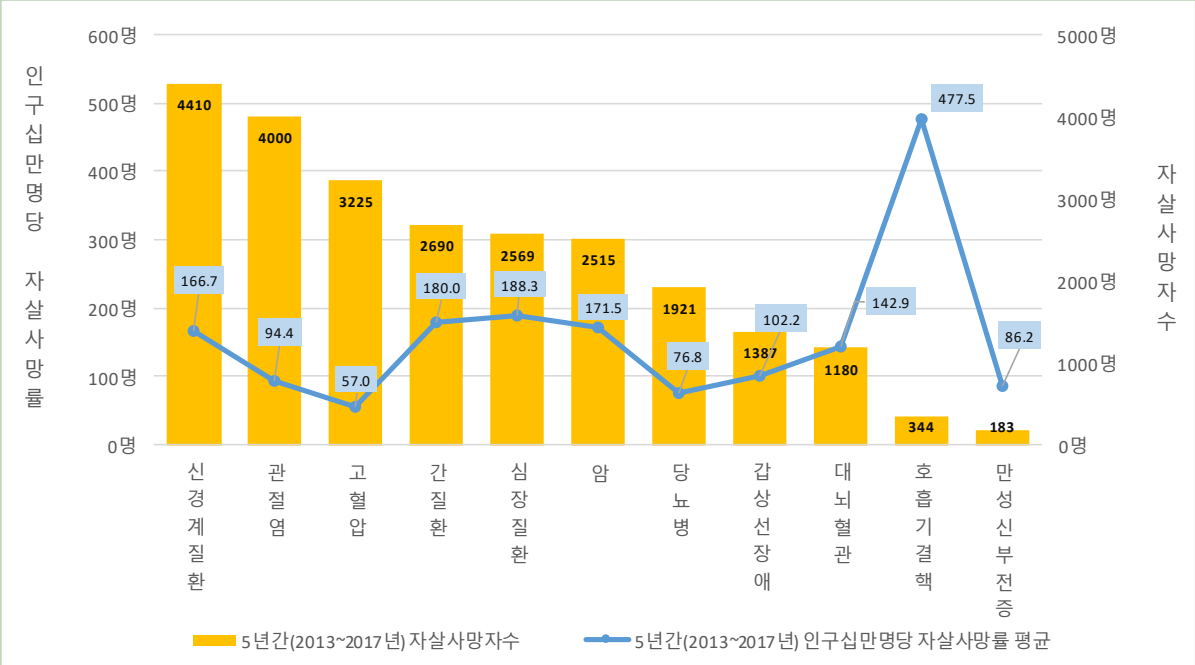


그림 26.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단위 : 명)

서울시 전체 신체질환별 인구 수						서울시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					
서울시 전체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 사망자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경계질환	494,602	503,078	523,504	559,864	571,598	신경계질환	878	857	882	929	864
관절염	822,121	834,211	845,736	866,810	873,644	관절염	821	761	859	784	775
고혈압	1,110,744	1,106,986	1,128,954	1,154,893	1,167,804	고혈압	677	666	691	618	573
간질환	300,091	288,464	288,508	309,914	309,148	간질환	528	546	540	546	530
심장질환	257,438	262,456	268,840	282,906	295,917	심장질환	501	507	532	518	511
암	273,954	283,105	292,866	308,265	321,201	암	566	533	521	465	430
당뇨	468,323	478,938	496,760	525,773	546,514	당뇨	401	396	420	357	347
갑상선장애	289,330	268,540	260,188	270,156	274,118	갑상선장애	246	290	296	283	272
대뇌혈관질환	160,786	159,274	165,407	169,108	173,259	대뇌혈관질환	247	237	250	239	207
호흡기결핵	16,434	15,239	14,165	13,794	12,500	호흡기결핵	77	68	76	64	59
만성신부전증	37,312	38,496	41,899	46,230	48,500	만성신부전증	31	36	34	39	43

표 14.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신체질환별 인구 수 및 자살사망자 수

50) 신체질환에 관한 자료 추출 시, 특정 시점을 설정하지 않고 2002년 이후 진단받은 모든 주상병을 분석에 포함하여, 개별 자살사망자가 진단받은 다수의 주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의 횟수가 아닌 질환의 종류를 기준으로 함. 따라서 질환 간 중복 추출을 허용한 바, 5년간(2013~2017년)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의 총합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보다 많을 수 있음.

51) 부록 2-4-2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참고

정신질환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전년도 대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변화				
자살사망률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사망률 변화	2013 → 2014	2014 → 2015	2015 → 2016	2016 → 2017
수면장애	334.7	311.3	309.8	306.2	293.7	수면장애	23.4 ▼	1.5 ▼	3.6 ▼	12.5 ▼
우울장애	420.0	421.5	415.4	381.4	347.8	우울장애	1.5 ▲	6.1 ▼	34.0 ▼	33.5 ▼
불안장애	382.1	341.4	383.4	322.7	290.9	불안장애	40.7 ▼	42.0 ▲	60.7 ▼	31.9 ▼
신체형장애	477.1	451.7	512.1	515.7	457.0	신체형장애	25.4 ▼	60.4 ▲	3.5 ▲	58.7 ▼
정신병적장애	362.4	417.2	424.9	443.6	386.7	정신병적장애	54.8 ▲	7.8 ▲	18.7 ▲	57.0 ▼
알코올 사용장애	682.7	704.6	692.7	613.0	695.7	알코올 사용장애	21.9 ▲	11.8 ▼	79.7 ▼	82.7 ▲
양극성장애	697.6	569.4	599.5	594.9	446.4	양극성장애	128.2 ▼	30.1 ▲	4.5 ▼	148.5 ▼
치매	117.8	106.5	121.4	90.5	96.9	치매	11.3 ▼	15.0 ▲	30.9 ▼	6.4 ▲
기타 장애	237.6	166.1	217.8	161.3	156.4	기타 장애	71.6 ▼	51.7 ▲	56.5 ▼	4.9 ▼
간질	170.8	219.3	163.3	158.2	114.8	간질	48.5 ▲	56.0 ▼	5.1 ▼	43.4 ▼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1448.4	1069.9	1048.8	1605.6	1459.3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378.4 ▼	21.2 ▼	556.8 ▲	146.3 ▼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92.2	126.1	118.4	116.6	142.4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33.9 ▲	7.7 ▼	1.8 ▼	25.8 ▲
성격장애	891.1	734.8	1076.4	856.1	840.6	성격장애	156.3 ▼	341.6 ▲	220.2 ▼	15.5 ▼
행태 증후군	615.8	590.2	667.9	820.2	599.2	행태 증후군	25.5 ▼	77.6 ▲	152.3 ▲	220.9 ▼
발달장애	104.9	79.1	66.7	94.8	93.0	발달장애	25.8 ▼	12.4 ▼	28.1 ▲	1.8 ▼
정신지연	156.9	218.0	96.3	184.0	152.3	정신지연	61.1 ▲	121.7 ▼	87.7 ▲	31.7 ▼

표 15. 5년간(2013~2017년) 신체질환별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률 변화 추이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체질환별 5년간(2013년~2017년) 자살사망자 수와 5년치 자살사망률 평균을 분석하여 그림 26에 제시하였다.

○ 신체질환별로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의 수를 살펴보면, 신경계질환이 4,4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절염(4,000명), 고혈압(3,225명), 간질환(2,690명), 심장질환(2,569명)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의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호흡기결핵의 자살사망률이 477.5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심장질환(188.3명), 간질환(180.0명), 신경계질환(166.7명), 대뇌혈관질환(142.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 수와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 평균을 고려했을 때, 신경계질환과 간질환, 심장질환, 암의 경우 자살사망자 수가 많고 자살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으로 파악된다.

○ 신체질환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암을 포함해 신경계질환, 관절염, 고혈압, 심장질환 등 대부분의 신체질환에서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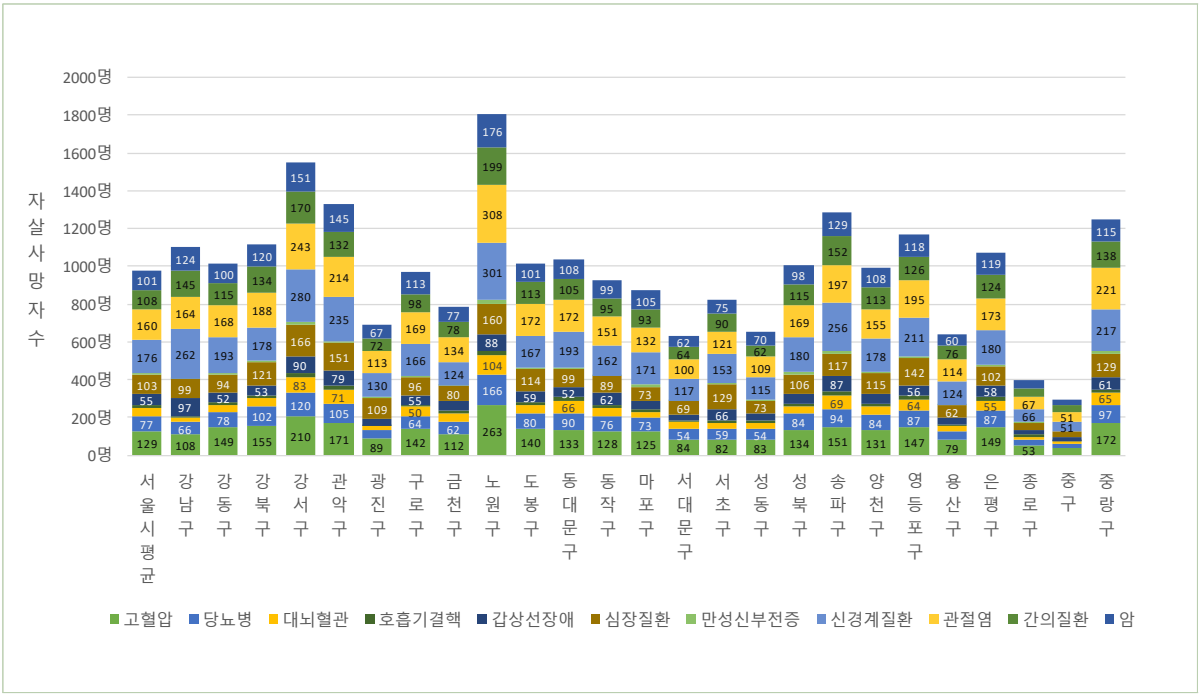


그림27 .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를 신체질환별로 구분 후, 구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27에 제시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수의 5년치(2013~2017년) 평균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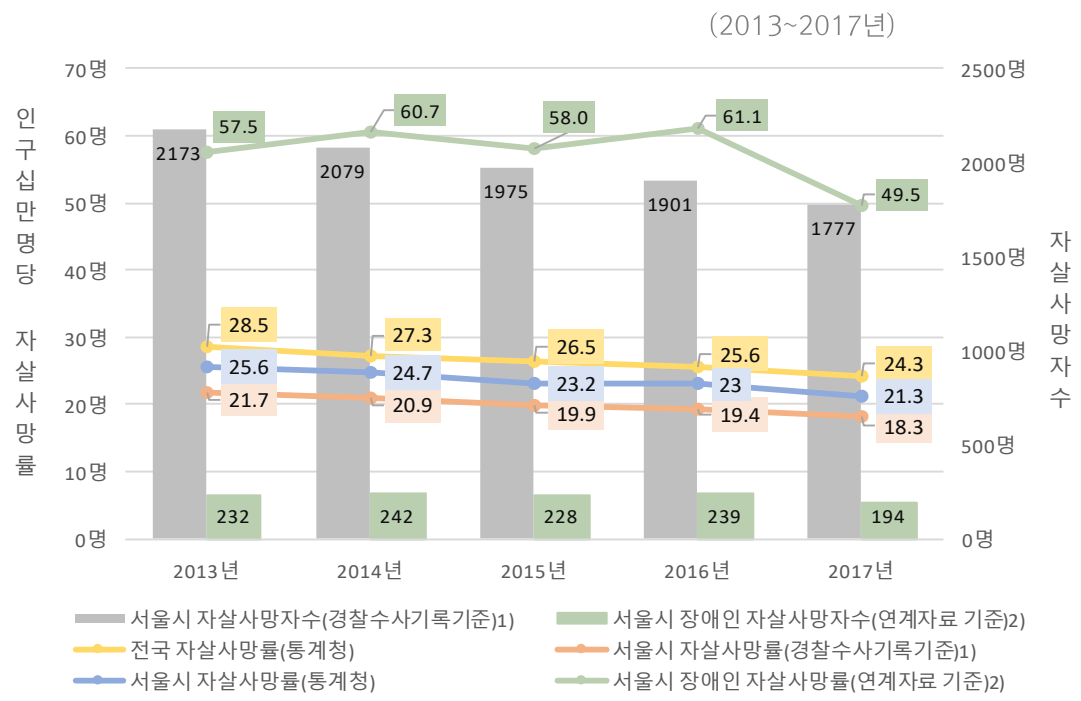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신체질환 유형을 구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구에서 신경계질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관절염, 고혈압 순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신체질환 유형은 대체로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다.

52) 부록 2-4-3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1) 연도별 서울시 등록장애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53)]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자살사망률(통계청)	28.5	27.3	26.5	25.6	24.3
서울시 자살사망률(통계청)	25.6	24.7	23.2	23	21.3
서울시 자살사망률(경찰수사기록기준)[1)]	21.7	20.9	19.9	19.4	18.3
서울시 장애인 자살사망률(연계자료 기준)[2)]	57.5	60.7	58.0	61.1	49.5
서울시 자살사망자수(경찰수사기록기준)[1)]	2,173	2,079	1,975	1,901	1,777
서울시 장애인 자살사망자수(연계자료 기준)[2)]	232	242	228	239	194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3)]	403,435	398,908	393,245	391,027	391,753

※ 자살사망률은 인구십만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1)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2) 경찰 수사기록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3) 행복e음 등록장애인 수를 근거로 함

그림 28. 연도별 서울시 등록장애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53) 부록 2-5-1 '연도별 서울시 등록장애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참고

① 통계청 기준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B}{A}$ ×100,000

A= 연도별(2013~2017) 연앙인구 수
B= 통계청 제시 연도별(2013~2017) 자살사망자 수

② 경찰 수사기록 기준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frac{C}{A}$ ×100,000

A= 연도별(2013~2017) 연앙인구 수
C= 경찰 수사기록 상 연도별(2013~2017) 자살사망자 수

③ 연계자료 기분 인구십만명당 장애인 자살사망률= $\frac{E}{D}$ ×100,000

D= 연도별(2013~2017)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
E= 연계자료 기준 연도별(2013~2017) 서울시 장애인 자살사망자 수

◆ D는 행복e음 등록장애인 자료를 활용함.

◆ 인구십만명당 장애인 자살사망률의 경우,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 수를 참고함. 이에 연앙인구 수를 사용하는 통계청 기준 및 경찰 수사기록 기준 자살사망률 산출과 차이가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자살사망률을 파악하는 것에 함의를 두어 제시하는 바,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한 후 산출하였음.

연계자료를 통해 집계된 서울시의 5년간(2013~2017년) 장애인 자살사망자 수는 총 1,135명이었다.

○ 서울시 전체 인구와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그림 28에 제시하였다.

○ 연계자료 기준 장애인 자살사망률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률에 비해 2.5~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자살사망자 수는 2013~2016년까지 매년 유사한 수를 보이다 2017년에는 다소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역시 2013년 57.5명에서 2017년 49.5명으로 감소하였다.

2)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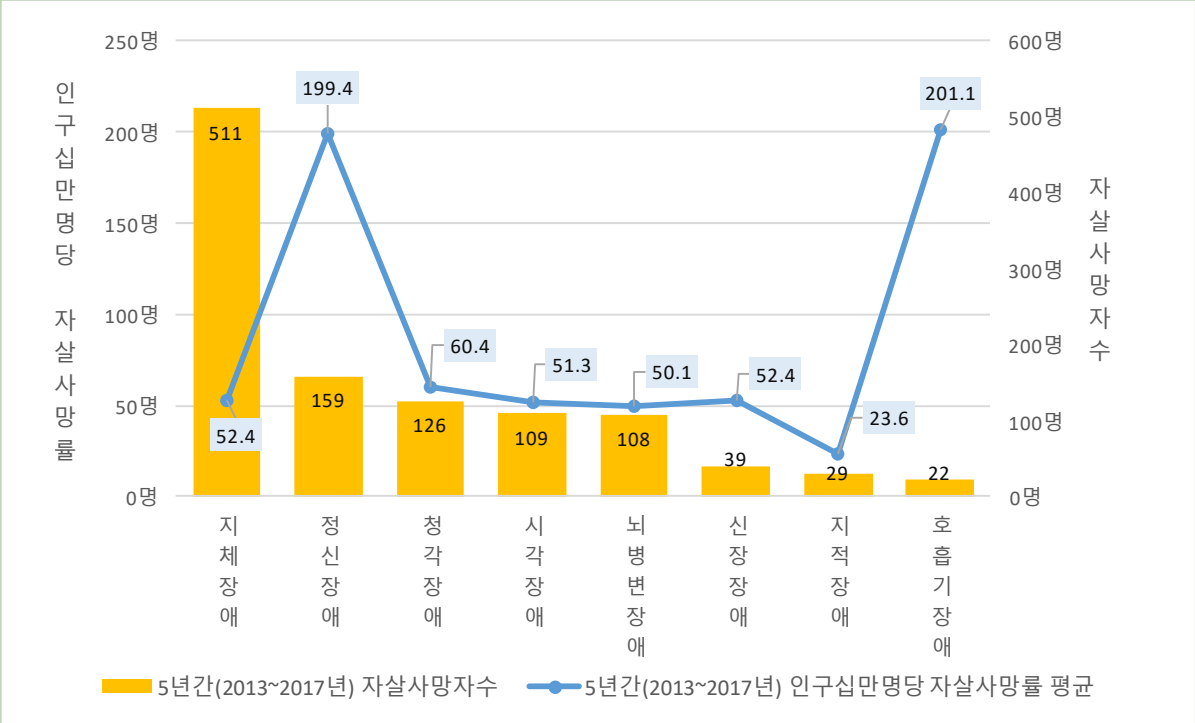


그림 29.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단위 : 명)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						서울시 장애인 자살사망자 수					
서울시 전체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 사망자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체장애	204,168	199,943	194,843	189,777	185,424	지체장애	111	109	102	102	87
정신장애	15,537	15,728	15,943	16,139	16,326	정신장애	22	36	34	37	30
청각장애	41,375	40,518	39,598	41,887	45,244	청각장애	24	19	25	32	26
시각장애	43,027	42,731	42,533	42,203	41,995	시각장애	27	18	23	21	20
뇌병변장애	44,236	43,594	42,826	42,212	42,287	뇌병변장애	27	26	17	23	15
신장장애	13,841	14,340	14,851	15,424	16,131	신장장애	7	7	10	8	7
지적장애	23,739	24,342	24,686	25,215	25,654	지적장애	7	7	4	7	4
호흡기장애	2,336	2,211	2,156	2,157	2,130	호흡기장애	3	6	6	2	5
장루요루장애	2,748	2,783	2,789	2,760	2,794	장루요루장애	4	7	4	4	-
언어장애	2,856	2,928	3,014	3,097	3,252	언어장애	-	4	-	3	-
간질장애	1,346	1,303	1,286	1,264	1,240	간질장애	-	3	-	-	0
심장장애	1,615	1,491	1,345	1,205	1,154	심장장애	0	-	3	0	0
간장애	2,021	2,099	2,192	2,236	2,323	간장애	-	-	-	-	0
자폐성장애	4,164	4,466	4,761	5,043	5,401	자폐성장애	0	0	-	-	0
안면장애	426	431	422	408	398	안면장애	0	0	0	0	-

표 16. 5년간(2013~2017년) 서울시 전체 등록장애인 수 및 자살사망자 수

54) 부록 2-5-2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참고

(단위 : 명)

장애종류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전년도 대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변화				
자살사망률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살사망률 변화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2017
지체장애	54.4	54.5	52.3	53.7	46.9	지체장애	0.1 ▲	2.2 ▼	1.4 ▲	6.8 ▼
정신장애	141.6	228.9	213.3	229.3	183.8	정신장애	87.3 ▲	15.6 ▼	16.0 ▲	45.5 ▼
청각장애	58.0	46.9	63.1	76.4	57.5	청각장애	11.1 ▼	16.2 ▲	13.3 ▲	18.9 ▼
시각장애	62.8	42.1	54.1	49.8	47.6	시각장애	20.6 ▼	12.0 ▲	4.3 ▼	2.1 ▼
뇌병변장애	61.0	59.6	39.7	54.5	35.5	뇌병변장애	1.4 ▼	19.9 ▼	14.8 ▲	19.0 ▼
신장장애	50.6	48.8	67.3	51.9	43.4	신장장애	1.8 ▼	18.5 ▲	15.5 ▼	8.5 ▲
지적장애	29.5	28.8	16.2	27.8	15.6	지적장애	0.7 ▼	12.6 ▼	11.6 ▲	12.2 ▼
호흡기장애	128.4	271.4	278.3	92.7	234.7	호흡기장애	142.9 ▲	6.9 ▲	185.6 ▼	142.0 ▲
장루요루장애	145.6	251.5	143.4	144.9	-	장루요루장애	106.0 ▲	108.1 ▼	1.5 ▲	- -
언어장애	-	136.6	-	96.9	-	언어장애	- -	- -	- -	- -
간질장애	-	230.2	-	-	0	간질장애	- -	- -	- -	- -
심장장애	0	-	223.0	0	0	심장장애	- -	- -	- -	- -
간장애	-	-	-	-	0	간장애	- -	- -	- -	- -
자폐성장애	0	0	-	-	0	자폐성장애	- -	- -	- -	- -
안면장애	0	0	0	0	-	안면장애	- -	- -	- -	- -

표 17. 5년간(2013~2017년) 장애종류별 자살사망률 및 자살사망률 변화 추이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종류별 5년간(2013년~2017년) 자살사망자 수와 5년치 자살사망률 평균을 분석하여 그림 29에 제시하였다.

※ 장애종류 중 연간 자살사망자 수가 적어 개인식별의 우려가 있는 경우(장루·요루장애, 언어장애, 간질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자폐성장애, 안면장애),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장애종류별로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자의 수를 살펴보았을 때, 지체장애 자살사망자 수가 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신장애(159명), 청각장애(126명), 시각장애(109명), 뇌병변장애(108명)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호흡기장애의 자살사망률이 201.1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신장애(199.4명), 장루·요루장애(171.4명) 순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 수와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 평균을 모두 고려했을 때, 정신장애와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가 자살사망자 수가 많고 자살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으로 파악되었다.

○ 장애종류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의 경우 5년간(2013~2017년) 자살사망률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반면 정신장애과 호흡기장애의 경우 자살사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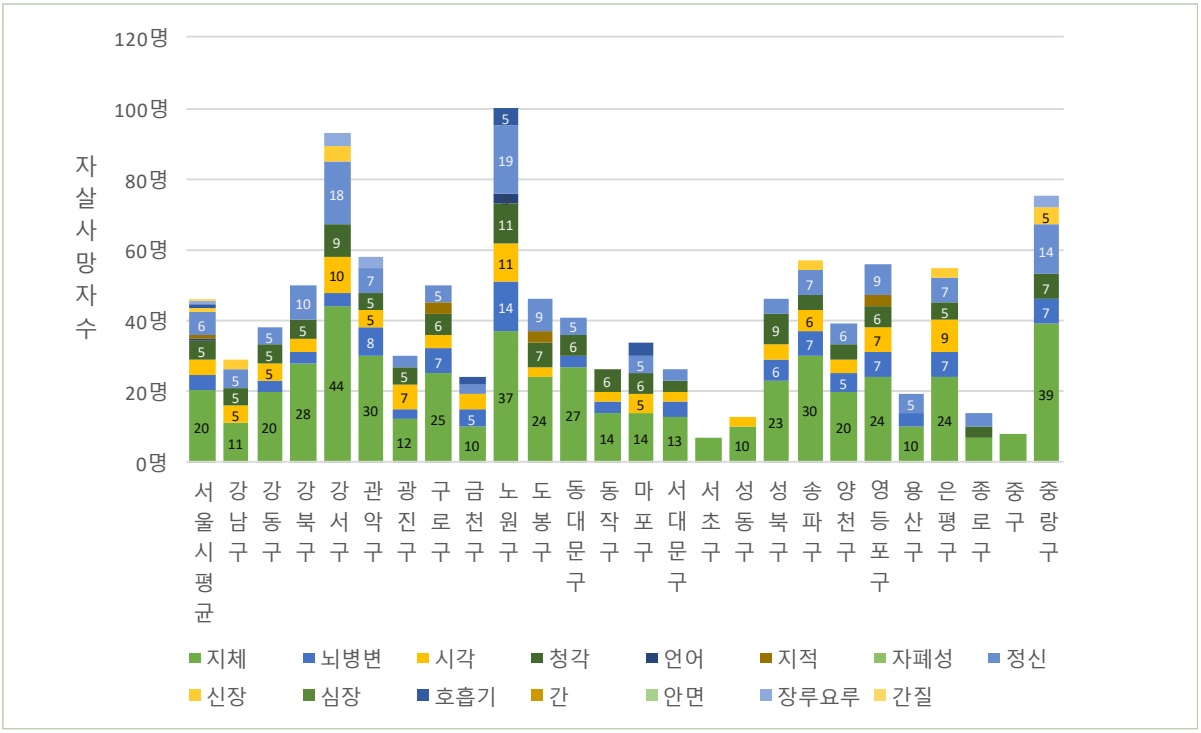


그림 30.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구별 장애종류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그림 30에 제시하였다. **서울시 평균**은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수의 5년치(2013~2017년) 평균을 의미한다.

○ 5년간(2013~2017년) 서울시에서 발견된 자살사망자의 장애종류를 구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구에서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구에서 정신장애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 이어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로구(4명, 28.6%), 용산구(5명, 26.3%), 강북구(10명, 20.0%), 강서구(18명, 19.4%), 도봉구(9명, 19.6%)에서 정신장애인의 자살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서울시 평균: 6명, 13.9%). 이어 동작구(6명, 23.1%), 광진구(5명, 16.7%)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이(서울시 평균: 5명, 11.0%), 광진구(7명, 23.3%), 강남구(5명, 17.2%)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서울시 평균: 4명, 9.5%)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금천구(5명, 20.8%), 용산구(4명, 21.1%), 구로구(7명, 14.0%)에서 자살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서울시 평균: 4명, 9.5%).

55) 부록 2-5-3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1) 한강변 익사자의 시도지 확인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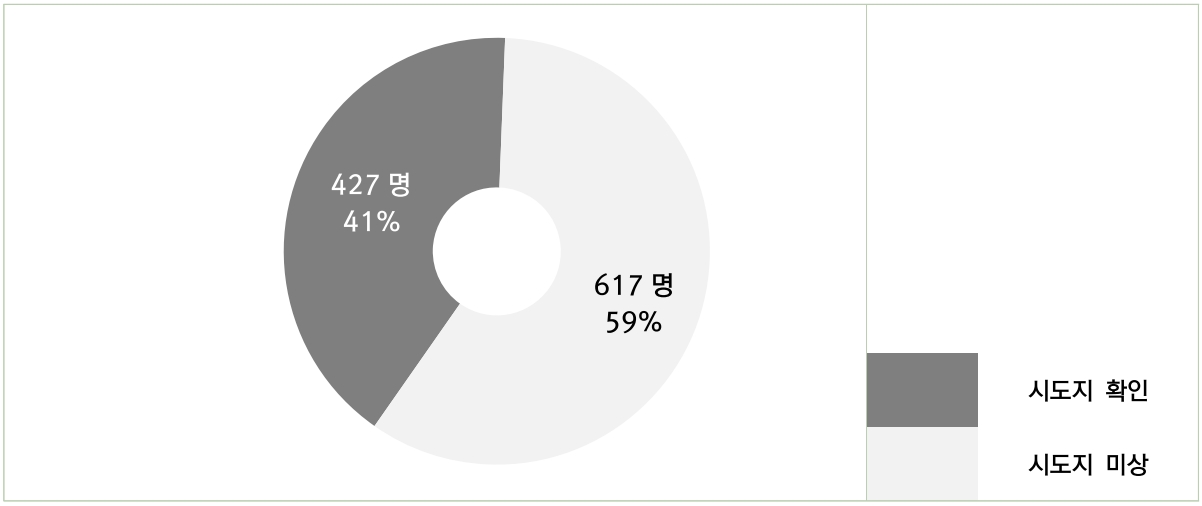


그림 31. 한강변 익사자의 시도지 확인 여부

5년간(2013~2017년) 한강변에서 익사하여 발견된 자살사망자 수는 총 1,044명이었다. 한강변에서 일어난 익사의 경우, 여타 자살방법과는 달리 자살사망자의 자살사망 시도지와 발견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강이라는 지형적 특성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동시에 장소 이동을 야기하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자살사망 시도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즉, 시도지 확인 건과 시도지 미상 건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 시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살사망자의 수는 427명(41.0%)으로 확인되었다. 대교 혹은 한강변에서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CCTV 기록, 사망 직전 전화 통화내용,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해 시도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 시도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살사망자의 수는 617명(59.0%)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자살사망 시도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기존 지역별 자살사망 분석 보고서의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임을 밝힌다.

2) 한강변 익사자의 발견장소 분석[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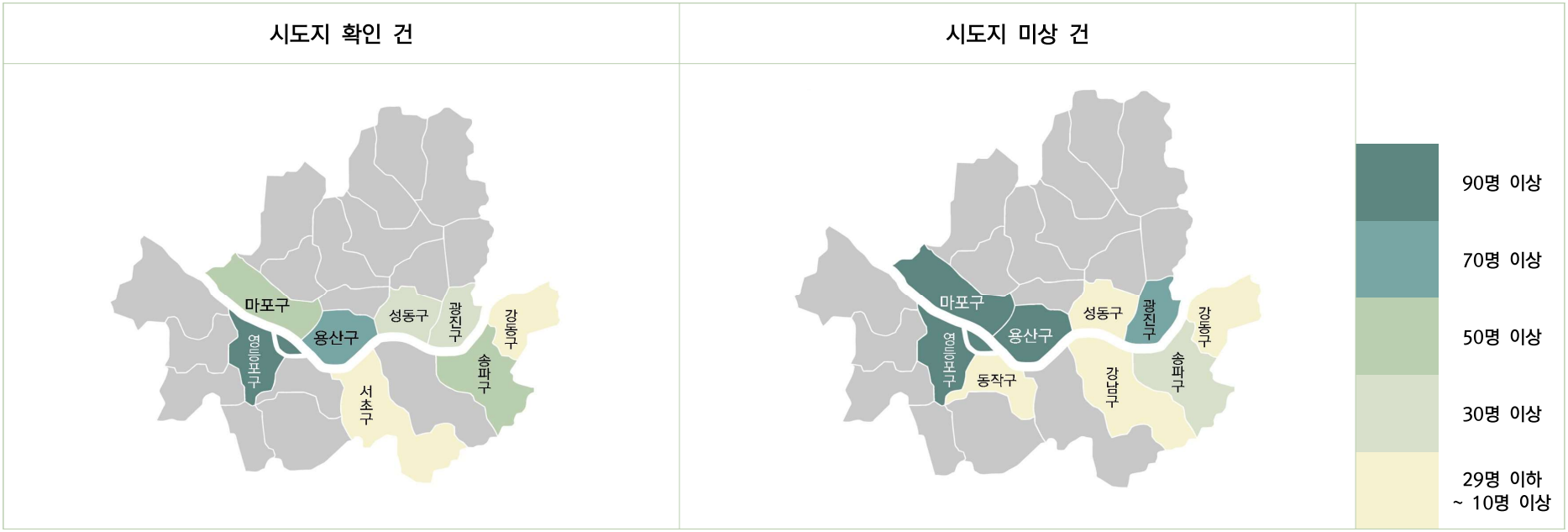


그림 32. 한강변 익사자의 발견장소 분석

한강변 익사자의 구별 발견지 현황을 시도지 확인 여부 별로 구분하여 그림 32에 제시하였다.

시도지 확인 건은 해당 구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발견된 것을 의미하고(예: 마포구에서 자살시도 후 자살사망하여 마포구에서 발견된 건), 시도지 미상 건은 해당 구에서 발견되었으나 어느 구에서 자살을 시도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예: 마포구에서 자살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나 자살시도 장소는 어느 구인지 알 수 없음)

56) 부록 2-6-1 '한강변 익사자의 발견장소 분석' 참고

○ 시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등포구(141명, 33.0%), 용산구(70명, 16.4%), 송파구(52명, 12.2%) 순으로 많은 수의 자살사망자가 발견되었다.

○ 시도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용산구(156명, 25.3%), 영등포구(143명, 25.3%), 마포구(109명, 17.7%) 순으로 많은 수의 자살사망자가 발견되었다.

○ 위 현황을 통해 영등포구는 시도지 확인 건과 시도지 미상 건 모두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송파구는 시도지 미상 건에 비해 시도지 확인 건이 더 많았던 반면, 광진구는 시도지 확인 건에 비해 시도지 미상 건이 더 많았다.

3) 한강변 익사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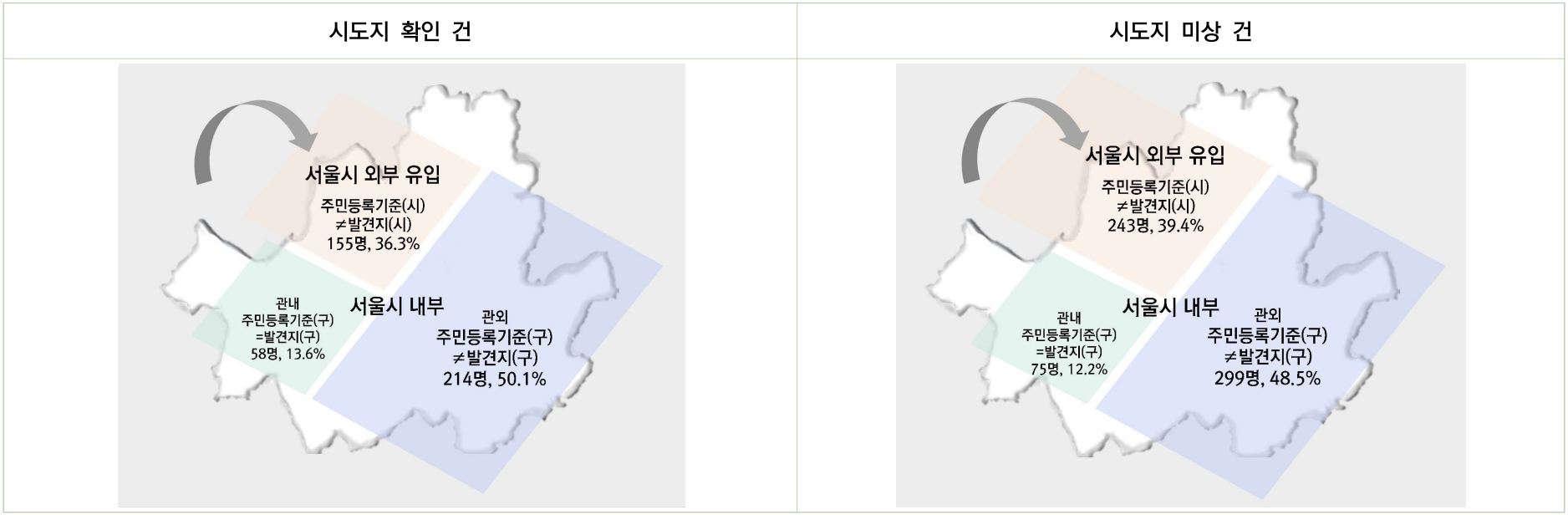


그림 33. 한강변 익사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분석

한강변 익사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현황을 시도지 확인 여부 별로 구분하여 그림 33에 제시하였다.

○ 한강변 익사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분석 결과, 시도지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발견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시도지 확인 건: 58명, 13.6%; 시도지 미상 건: 75명, 12.2%).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시이나, 거주지와 다른 구에서 발견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시도지 확인 건: 214명, 50.1%; 시도지 미상 건: 299명, 48.5%). 서울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유입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시도지 확인 건: 155명, 36.3%; 시도지 미상 건: 253명, 39.4%).

4) 한강변 익사자의 생애주기/주원인 분석[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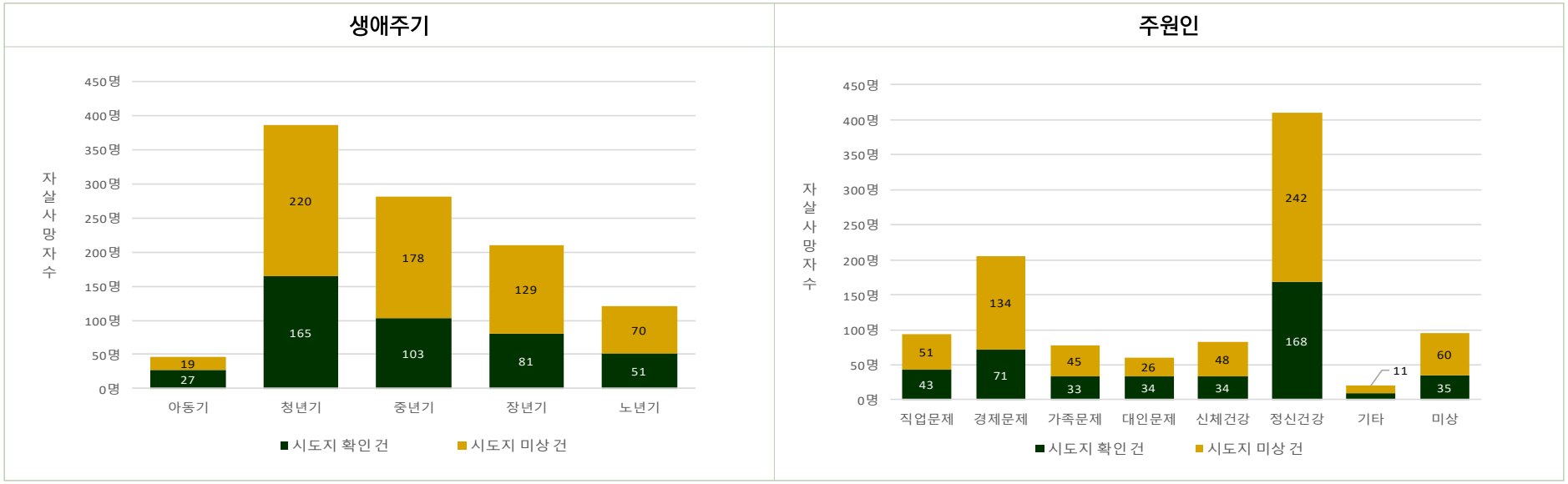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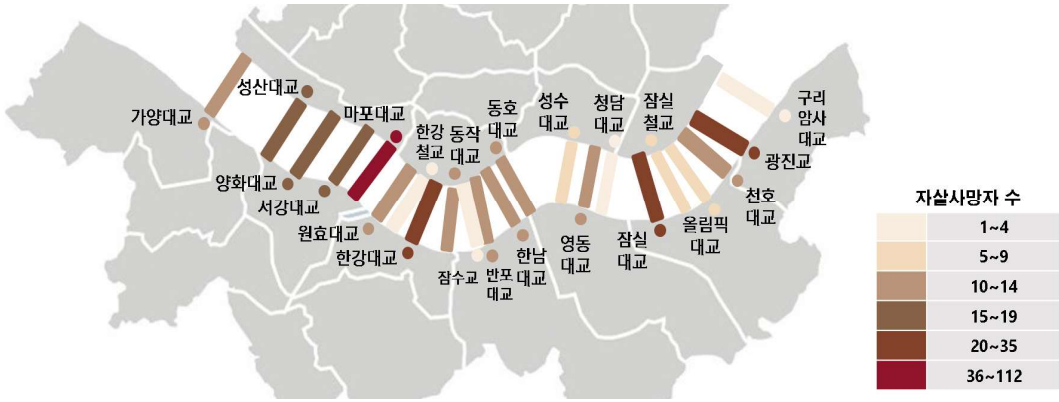
그림 34. 한강변 익사자의 생애주기/주원인 분석

한강변 익사자의 생애주기 및 주원인 현황을 시도지 확인 여부 별로 구분하여 그림 34에 제시하였다.

- 생애주기를 살펴보면, 시도지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기(시도지 확인 건: 165명, 38.6%; 시도지 미상 건: 220명, 35.7%)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는 장년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 비해, 한강변 익사에 의한 자살사망은 청년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주원인을 살펴보면, 시도지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신건강문제(시도지 확인 건: 168명, 39.3%; 시도지 미상 건: 242명, 39.2%)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경제문제, 직업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57) 부록 2-6-2 '한강변 익사자의 생애주기 현황', 2-6-3 '한강변 익사자의 주원인 현황' 참고

5) 교량별 자살사망자 수



구 분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잠수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잠실대교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구리암사대교	익사 기타[58]	합계
자살사망자 수 (명)	12	16	17	15	113	12	2	36	13	2	10	14	14	5	12	1	20	6	6	15	30	2	54	427
비율(%)	2.8	3.7	4.0	3.5	26.5	2.8	0.5	8.4	3.0	0.5	2.3	3.3	3.3	1.2	2.8	0.2	4.7	1.4	1.4	3.5	7.0	0.5	12.6	100

그림 35. 교량별 자살사망자 수

시도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교량별 자살사망자 수를 분석하여 그림 35에 제시하였다.

○ 교량별 자살사망자의 수를 분석한 결과, 마포대교(113명, 26.5%). 한강대교(36명, 8.4%), 광진교 (30명, 7.0%), 잠실대교 20명(4.7%) 순으로 나타났다.

58) 익사 기타는 자살 시도 장소는 명확하나 그 장소를 교량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석촌호수(9명)와 한강변(광나루 한강공원, 뚝섬유원지, 선유도 공원, 잠실선착장, 대교 인근) 등 총 54건이 이에 해당한다.

6) 교량별 자살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분석

(단위: 명)

지역	경기권(김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경기권(구리)	
자살사망자 수 (명)	0	0	1	1	1	3	5	2	0	1	0	0	2	0	0	2	0	0	1	0	2	1	6	0	0
교량	방화대교	마곡대교	가양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잠수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청담대교	잠실대교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구리암사	강동대교
자살사망자 수 (명)	0	0	4	0	1	4	4	3	0	3	3	0	1	1	0	0	2	0	0	0	0	1	0	0	0
지역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18. 교량별 자살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분석

시도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의 자살사망 시도장소인 교량과 주민등록 주소지를 분석하여 표 18에 제시하였다. 각 교량이 면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상하에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 마포대교의 5년간(2013~2017년) 한강변 익사자 총 113명 중, 마포구가 주민등록 주소지인 자살사망자 수는 5명, 영등포구인 수는 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포대교 전체 자살사망자 수의 10%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 마포대교 외의 교량에서도 해당 교량이 위치한 구를 주민등록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살사망자의 수는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강변 익사에 의한 자살사망자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7) 교량별/연도별 자살사망자 수[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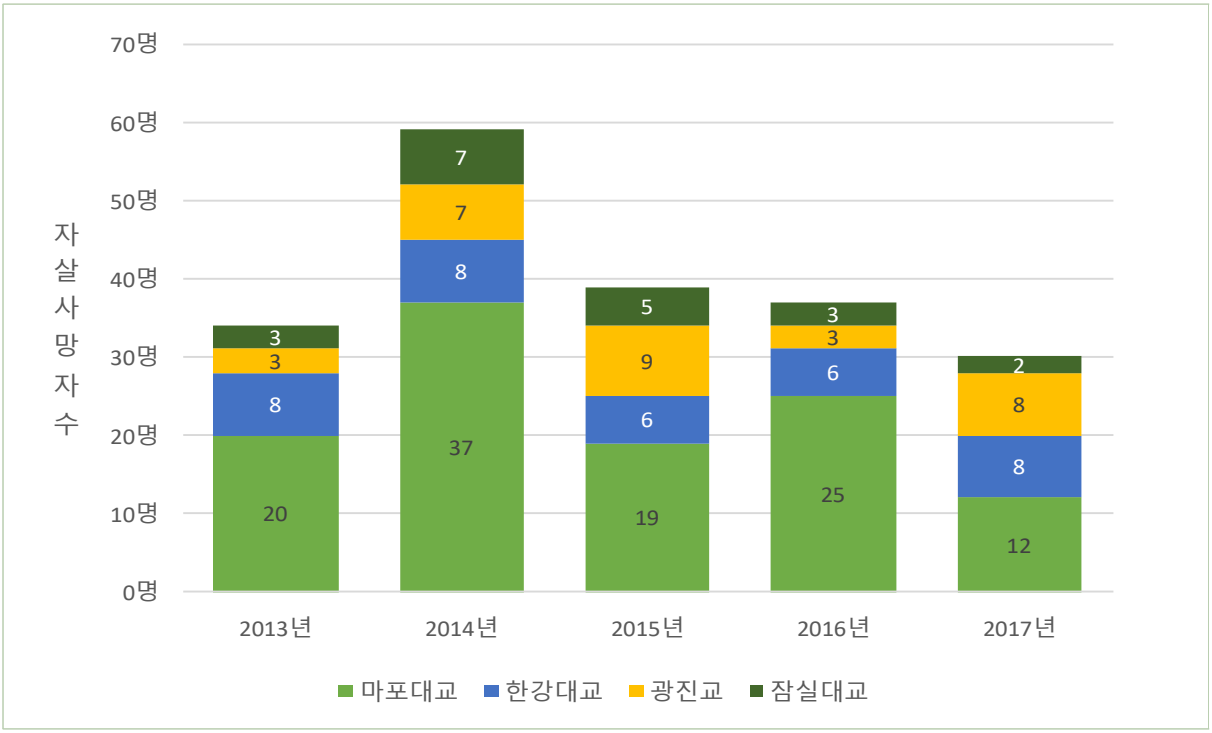


그림 36. 교량별/연도별 자살사망자 수

시도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자살사망자 수가 많았던 상위 4개 교량(마포대교, 한강대교, 광진교, 잠실대교)의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를 그림 36에 제시하였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강변 익사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4년(104명,24.4%)이었다. 2014년 이후 한강변 익사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마포대교: 가장 많은 자살사망이 발생한 연도는 2014년으로 37건(32.7%)이었다.
- 한강대교: 2013, 2014, 2017년에 각각 8건(22.2%), 2015~6년에 6건(16.7%)의 자살사망이 발생하였다.
- 광진교: 가장 많은 자살사망이 발생한 연도는 2015년으로 9건(30.0%)이었다.
- 잠실대교: 가장 많은 자살사망이 발생한 연도는 2014년으로 7건(35.0%)이었다.

59) 부록 2-6-4 '교량별/연도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8) 교량별/월별 자살사망자 수[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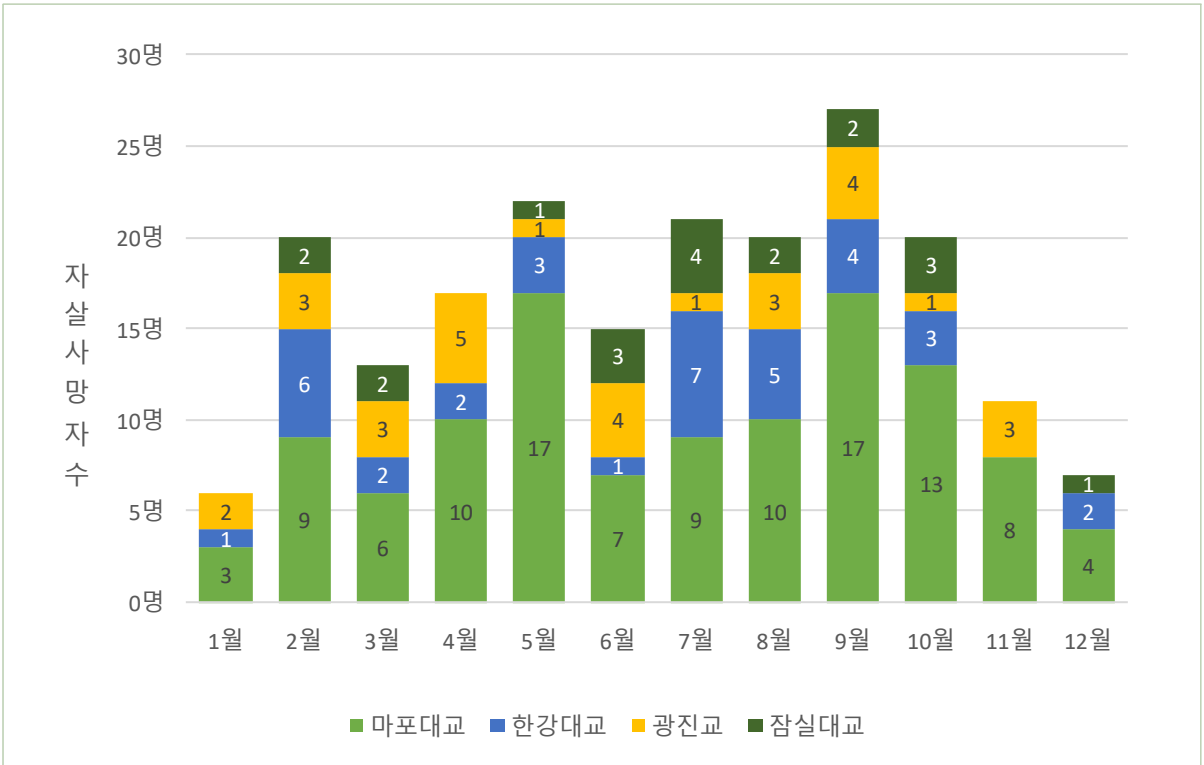


그림 37. 교량별/월별 자살사망자 수

시도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자살사망자 수가 많았던 상위 4개 교량(마포대교, 한강대교, 광진교, 잠실대교)의 월별 자살사망자 수를 그림 37에 제시하였다.

○ 한강변 익사에 의한 자살사망의 경우 하절기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가장 많은 자살사망자가 나타나는 기간은 3분기로 8월에 51명(11.9%), 9월 50명(11.7%), 7월 47명(11.0%)이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의 월별 분포가 평균적으로 12개월에 거쳐 8~9% 정도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 마포대교: 5월과 9월에 각 17건으로 가장 많은 자살사망이 발생했다.

○ 한강대교: 7월에 7명으로 가장 많은 자살사망이 발생했다.

○ 광진교: 4월에 5명으로 가장 많은 자살사망이 발생했다.

○ 잠실대교: 7월에 4명으로 가장 많은 자살사망이 발생했다.

60) 부록 2-6-5 '교량별/월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9) 교량별/성별 자살사망자 수[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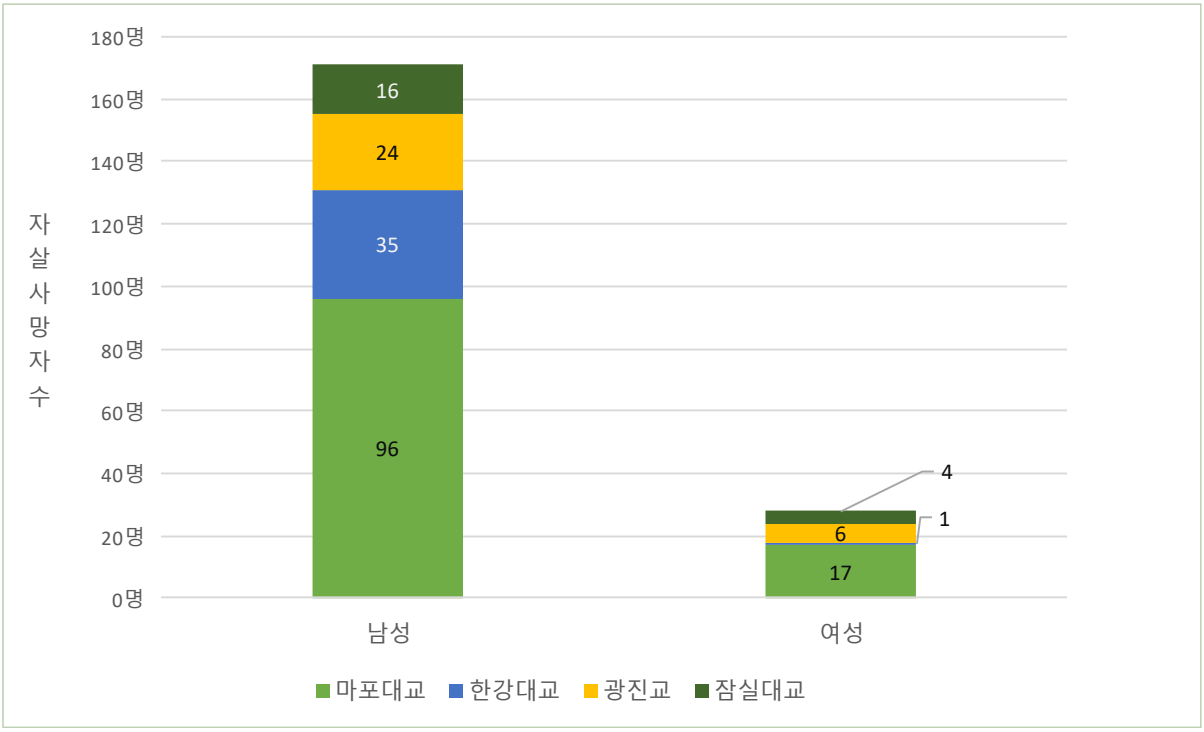


그림 38. 교량별/성별 자살사망자 수

시도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의 성별을 교량별로 분석하여 그림 40에 제시하였다. 또한, 자살사망자 수가 많은 상위 4개 교량, 마포대교, 한강대교, 광진교, 잠실대교 자살사망자의 성별 현황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 분석 결과, 시도지가 확인 가능한 자살사망자 전체 427명 중, 남성이 348명(81.5%), 여성이 79명(18.5%)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남녀 비율(남성: 6,640명, 67.0%; 여성: 3,263명, 32.9%)과 비교해보았을 때,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 중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마포대교: 남성이 95명(85.0%), 여성이 17명(15.0%)이었다.

○ 한강대교: 남성이 35명(97.2%), 여성이 1명(2.8%)이었다.

○ 광진교: 남성이 24명(80.0%), 여성이 6명(20.0%)이었다.

○ 잠실대교: 남성이 16명(80.0%), 여성이 4명(20.0%)이었다.

61) 부록 2-6-6 '교량별/성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10) 교량별/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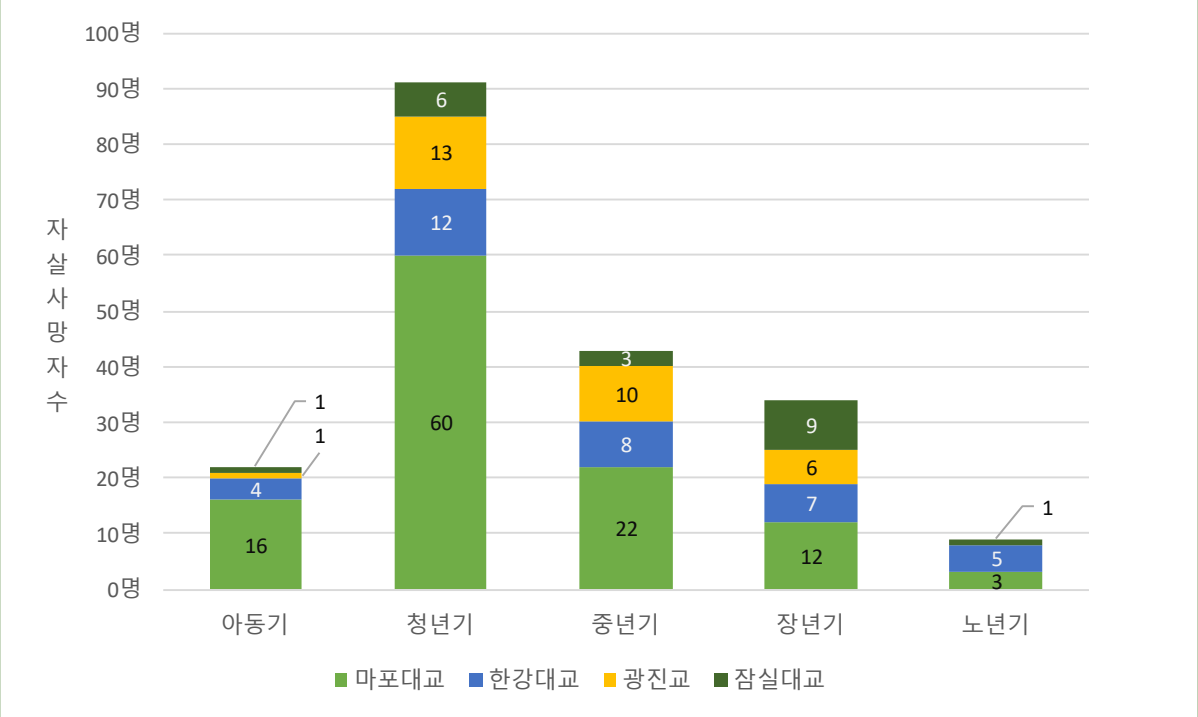


그림 39. 교량별/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시도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를 교량별로 분석하여 그림 39에 제시하였다. 또한, 자살사망자 수가 많은 상위 4개 교량, 마포대교, 한강대교, 광진교, 잠실대교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 특성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 분석 결과, 시도지가 확인 가능한 자살사망자 전체 427명 중, 청년기 자살사망자가 165명(38.6%), 중년기 103명(24.1%), 장년기 81명(19.0%), 노년기 51명(11.9%), 아동기 27명(6.3%) 순으로 나타났다.

○ 마포대교: 청년기 자살사망자가 60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하였다.

○ 한강대교: 청년기 자살사망자가 12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였다.

○ 광진교: 청년기 자살사망자가 13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다.

○ 잠실대교: 장년기 자살사망자가 9명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하였다.

62) 부록 2-6-7 '교량별/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11)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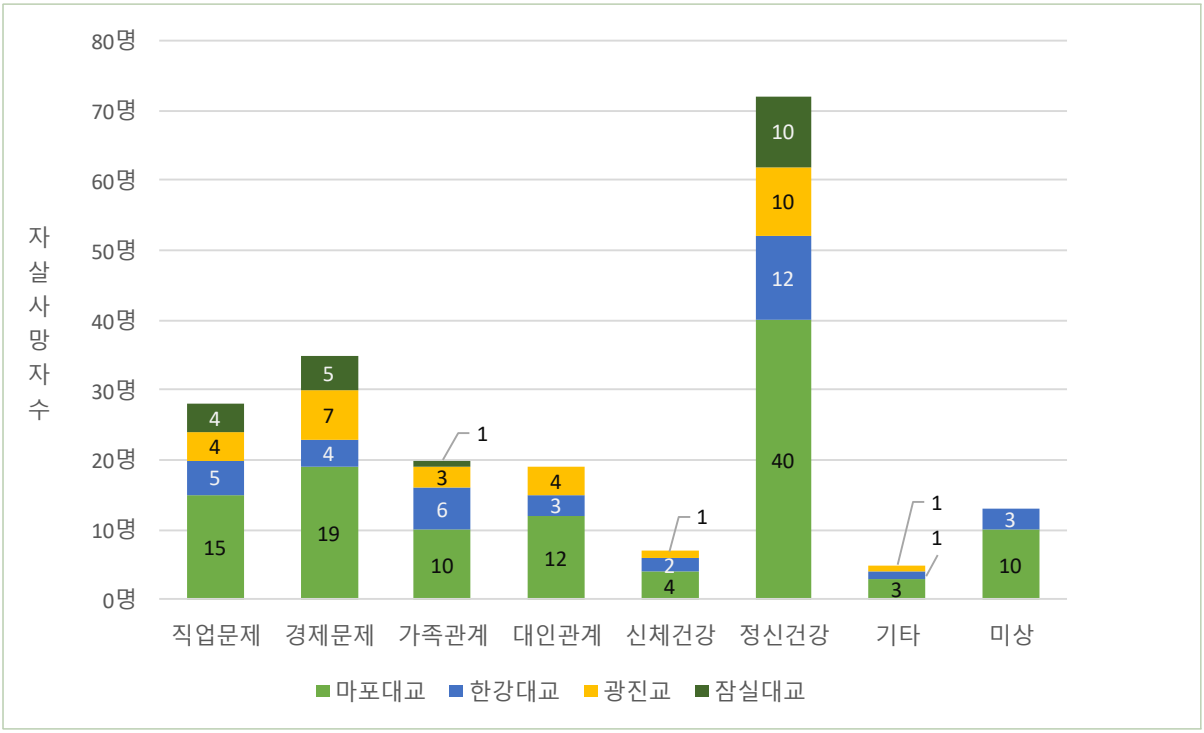


그림 40.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시도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강변 익사 자살사망자의 주원인을 교량별로 분석하여 그림 40에 제시하였다. 또한, 자살사망자 수가 많은 상위 4개 교량, 마포대교, 한강대교, 광진교, 잠실대교 자살사망자의 주원인 특성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 분석 결과, 시도지가 확인 가능한 자살사망자 전체 427명 중, 자살사망의 주원인이 정신건강문제인 경우가 168명(39.3%), 경제문제가 71명(1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 직업문제(43명, 10.1%), 신체건강문제(34명, 8.0%), 대인관계문제(34명, 8.0%), 가족관계문제(33명, 7.7%)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 마포대교: 정신건강문제가 40명(35.4%)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 한강대교: 정신건강문제가 12명(33.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 광진교: 정신건강문제가 10명(33.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 잠실대교: 정신건강문제가 10명(50.0%)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63) 부록 2-6-8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참고

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료구간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2. 생활상태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3.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4.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5.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6.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 제4장 요약 ※

항목별 총합은 데이터의 특성(필수·선택·중복 응답 문항 혼재, 데이터 연계 시 누락값 발생 등)에 의거, 서로 상이함

▹ 건강보험료구간별 대상자 분석

의료급여구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공장소 (266명/총 716명, 37.2%)	투신 (226명/총 718명, 31.5%)	지속적 빈곤 (227명/총 465명, 48.8%)
	노년기 (244명/총 719명, 33.9%)	정신병적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 (155명 10.4% / 110명 7.4% 총 1,492명)	고혈압 (373명/총 2,587명, 14.4%)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1~6분위)	자택 (1,308명/총 2,112명, 61.9%)	가스중독 (273명/총 2,130명, 12.8%)	무직·구직 (351명/총 1,395명, 25.2%)
	장년기 (609명/총 2,130명, 28.6%)	수면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 (573명, 20.3% / 154명, 5.5% 총 2,822명)	당뇨병 (456명/총 5,578명, 8.2%)

▹ 생활상태별 대상자 분석

실업자	알코올 사용장애 (134명/총1,926명, 7.0%)	청년기 (447명/총 1,681명, 26.6%)	무직/구직 (968명/총 1,874명, 51.7%)
	가스중독 (261명/총1,681명, 15.5%)	하위구간 / 의료급여구간 (433명, 32.3% / 109명, 8.1% 총 1,340명)	간질환 (456명/총 3,155명, 14.5%)
독거자	수면장애 (716명/총 3,364명, 21.3%)	중년기 (849명/총 2,756명, 30.8%)	지역세대주 (1,191명/총 2,686명, 44.3%)
	가스중독 (515명/총 2,756명, 18.7%)	이혼 / 미혼 (725명, 26.3% / 1,283명, 46.6% 총 2,756명)	신경계질환 (1,143명/총 5,905명, 19.4%)

▹ 정신질환별 대상자 분석

수면장애	노년기 (967명/총 2,453명, 39.4%)	신경계질환 (2,099명/ 총 9,316명, 22.5%)	의료급여구간 (267명/총 2,453명, 10.9%)
	자택 (1,591명/총 2,471명, 64.4%)	약물음독 (94명/총 2,471명, 3.8%)	직장피부양자 (973명/총 2,453명, 39.7%)
우울장애	공공장소 (799명/총 2,932명, 27.3%)	투신 (754명/총 2,932명, 25.7%)	상위구간 / 의료급여구간 (1,187명, 40.8% / 302명, 10.4% 총 2,908명)
	노년기 (899명/총 2,908명, 30.9%)	직장피부양자 (1,119명/총 2,908명, 38.5%)	신경계질환 (1,839명/ 총 9,646명, 19.1%)
정신병적장애	투신 (400명/총 821명, 48.7%)	의료급여구간 (155명/총 814명, 19.0%)	의료급여세대주 (114명/총 814명, 14.0%)
	공공장소 (383명/총 821명, 46.7%)	중년기 (295명/총 814명, 36.2%)	심장질환 (248명/총 1,888명, 13.1%)

▹ 신체질환별 대상자 분석

고혈압	남성 (2,248명/총 3,190명, 70.5%)	노년기 (1,802명/총 3,188명, 56.5%)	수면장애 (1,169명/총 5,245명, 22.3%)
	자택 (2,037명/총 3,225명, 63.2%)	상위구간 (1,297명/총 3,190명, 40.7%)	직장피부양자 (1,369명/총 3,190명, 42.9%)
당뇨병	남성 (1,372명/총 1,902명, 72.1%)	노년기 (991명/총 1,902명, 52.1%)	의료급여구간 (223명/총 1,902명, 11.7%)
	농약음독 (60명/총 1,921명, 3.1%)	치매 (151명/총 3,152명, 4.8%)	직장피부양자 (780명/총 1,902, 41.0%)
암	노년기 (1,169명/총 2,484명, 47.1%)	불안장애 / 신체형장애 (739명, 16.8% / 644명, 14.7% 총 4,392명)	상위구간 (1,072명/총 2,484명, 43.2%)
	자택 (1,609명/총 2,515명, 64.0%)	투신 (543명/총 2,515명, 21.6%)	직장피부양자 (1,085명/총 2,484명, 43.7%)

▹ 장애종류별 대상자 분석

지체장애	자택 (315명/총 487명, 64.7%)	노년기 (236명/총 488명, 48.4%)	의료급여구간 (93명/총 489명, 19.0%)
	농약음독 (23명/총 488명, 4.7%)	직장피부양자 / 의료급여세대주 (198명, 40.5% / 77명, 15.7% 총 489명)	남성 (389명/총 489명, 79.6%)
정신장애	여성 (59명/총 145명, 40.7%	중년기 (71명/총 145명, 49.0%)	의료급여구간 (79명/총 135명, 58.5%)
	투신 (81명/총 142명, 57.0%)	의료급여세대주 / 의료급여세대원 (63명, 43.4% / 16명, 11.0% 총 145명)	공공장소 (77명/총 141명, 54.6%)
호흡기장애	남성 (18명/총 21명, 85.7%)	직장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10명, 52.6% / 0명, 0% 총 19명)	투신 (7명/총 19명, 36.8%)
	노년기 (16명/총 21명, 76.2%)	하위구간 (4명/총 7명, 57.1%)	자택 (16명/총 16명, 100%)

▹ 생애주기별 대상자 분석

아동기	투신 / 익사 (98명, 54.1% / 27명, 14.9% 총 181명)	고등학교 재학 / 학업중단 청소년 (90명, 48.9% / 26명, 14.1% 총 184명)	양극성장애 / 아동청소년 장애 (11명, 7.5% / 35명, 23.8% 총 147명)
	공공장소 (97명/총 181명, 53.6%)	상위구간 (73명/총 129명, 56.6%)	여성 (69명/총 184명, 37.5%)
청년기	익사 (165명/총 1,970명, 8.4%)	양극성장애 / 정신병적장애 (167명, 7.3% / 229명, 10% 총 2,291명)	신경계질환 (621명/총 2,223명, 27.9%)
	숙박업소 (142명/총 1,971명, 7.2%)	지역세대원 (584명/총 1,935명, 30.2%)	여성 (860명/총 1,971명, 43.6%)
중년기	간질환 (675명/총 4,197명, 16.1%)	지역세대주 (738명/총 2,548명, 29.0%)	부채 (815명/총 2,163명, 37.7%)
	정신병적장애 (298명/총 2,879명, 10.4%)	의료급여구간 (159명/총 2,050명, 7.8%)	미혼 (1,029명/총 2,598명, 39.6%)
장년기	알코올 사용장애 (251명/총 3,180명, 7.9%)	소득감소 / 지속적 빈곤 (336명, 16.3% / 437명, 21.2% 총 2,062명)	의료급여구간 (245명/총 2,264명, 10.8%)
	학교·직장 (117명/총 2,605명, 4.5%)	지역세대주 (684명/총 2,555명, 26.8%)	이혼 (600명/총 2,605명, 23.0%)
노년기	교외·야산 / 병원 (102명, 4.0% / 53명 2.1% 총 2,542명)	농약음독 / 투신 (111명, 4.4% / 594명, 23.4% 총 2,542명)	치매 (272명/총 4,046명, 6.7%)
	지속적 빈곤 (153명/총 548명, 27.9%)	직장피부양자 / 의료급여세대주 (1,418명, 56.5% / 200명 8.0% 총 2,510명)	대뇌혈관질환 (794명/총 10,994명, 7.2%)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1. 건강보험료구간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의료급여구간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분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1-1장에서는 의료급여구간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5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의료급여구간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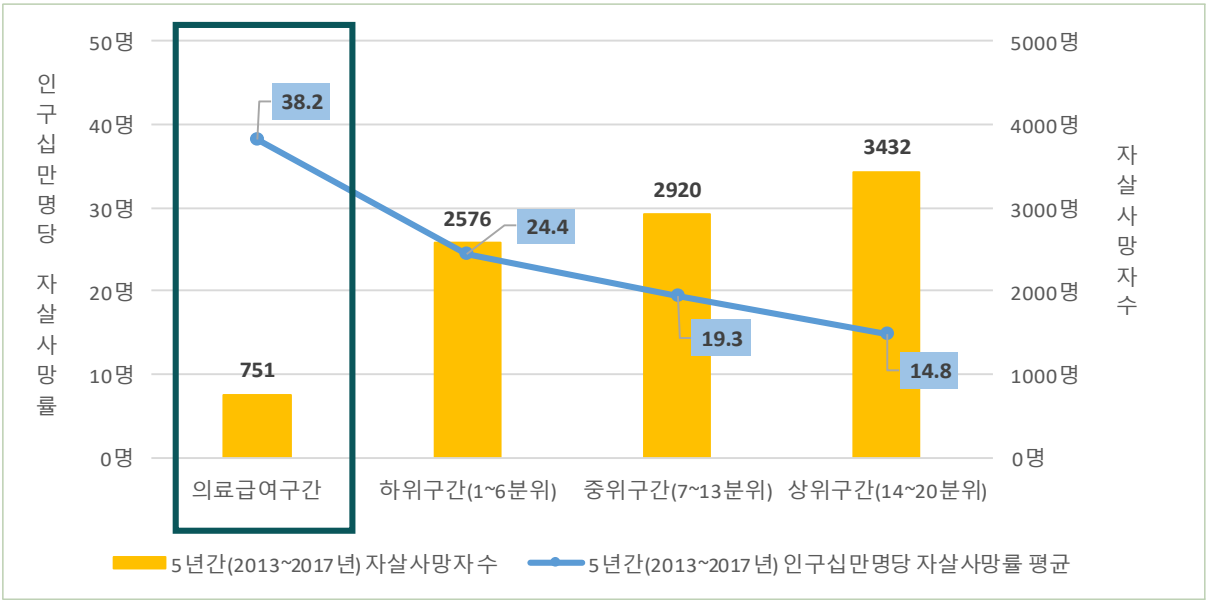


그림41.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그림41은 본 보고서 3-1-2)에서 제시한 건강보험료 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4개 구간으로 분류한 건강보험료 분위 구간 중 가장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인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38.2명)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의료급여구간에 속하는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의료급여구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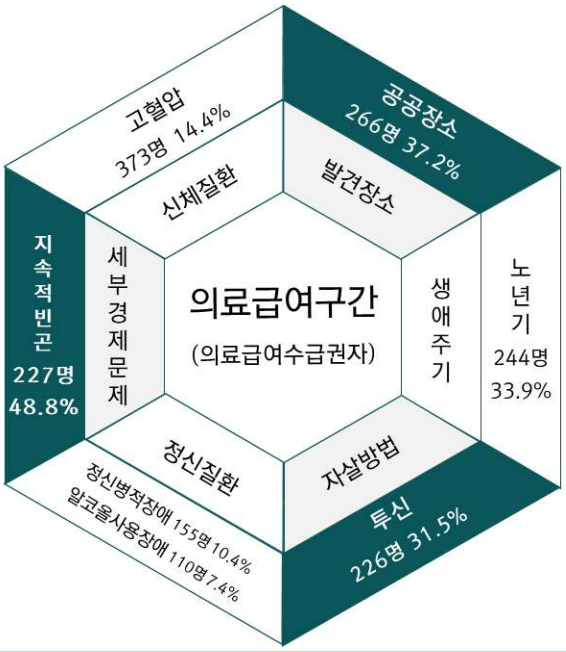
의료급여구간	서울시 전체	
	발견장소	공공장소
		2,756명 / 27.8%
	생애주기	노년기
		2,542명 / 25.7%
	자살방법	투신
		1,979명 / 20.0%
	정신질환	정신병적장애
		821명 / 6.5%
		알코올 사용장애
		603명 / 4.8%
	세부경제 문제	지속적 빈곤
		1,090명 / 19.2%
	신체질환	고혈압
		3,225명 / 13.2%

그림42. 의료급여구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42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발견장소, 생애주기, 자살방법, 정신질환, 세부경제문제, 신체질환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살사망을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자살방법과 발견장소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투신 비율이 20.0%인데 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투신으로 사망한 비율이 31.5%로 높았고, 발견장소 역시 서울시 전체의 공공장소 발견 비율이 27.8%인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공공장소 발견 비율이 37.2%에 달했다. 아울러 사망 당시 지속적 빈곤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19.2%인데 반해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48.8%에 달했다.

○ 생애주기 상 노년기 비율이 33.9%로 서울시 전체(25.7%)보다 높았고, 정신병적장애와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각 10.4%, 7.4%로 서울시 전체(각 6.5%, 4.8%)보다 높았다. 또한 과거 고혈압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가 14.4%로 서울시 전체(13.2%)에 비해 다소 높았다.

64) 부록 3-1-1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 특성: 의료급여구간' 참고

1-2. 건강보험료구간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분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1-1장에서는 건강보험료 하위구간으로 파악된 2,57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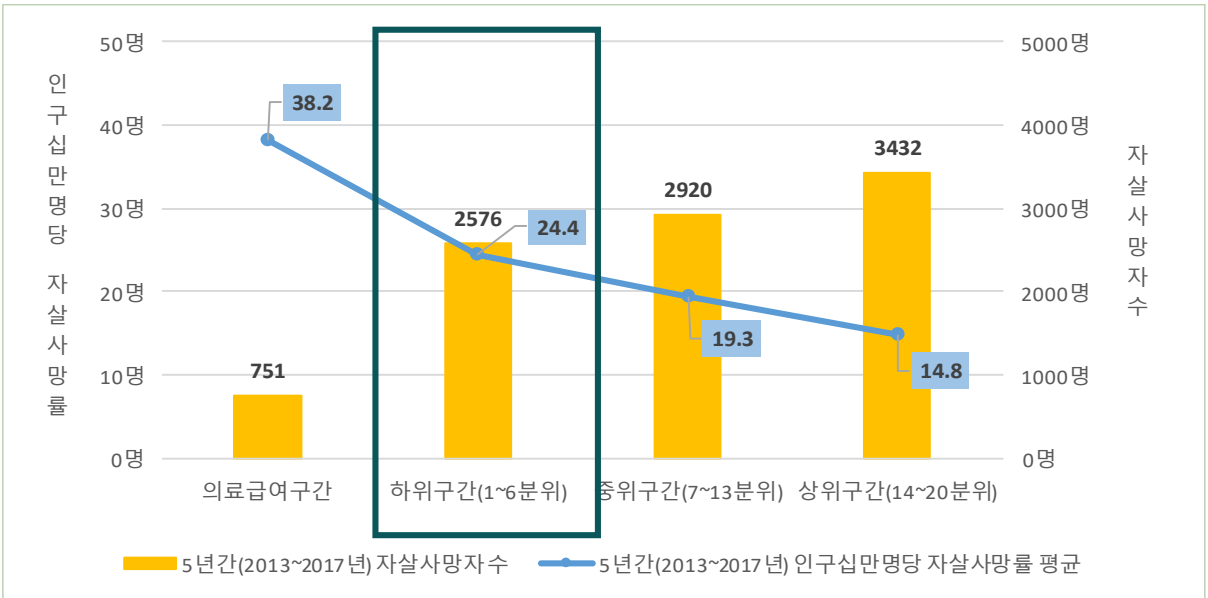


그림43.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그림43은 본 보고서 3-1-2)에서 제시한 건강보험료 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4개 구간으로 분류한 건강보험료구간 중 두 번째로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인 대상은 건강보험료분위 중 하위구간(24.4명)이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건강보험료 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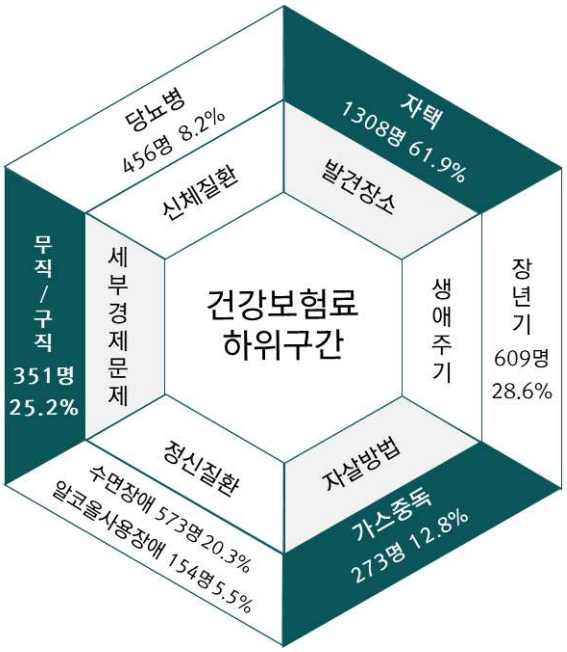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서울시 전체	
	발견장소	자택
		5,865명 / 59.2%
	생애주기	장년기
		2,605명 / 26.3%
	자살방법	가스중독
		1,104명 / 11.1%
	정신질환	수면장애
		2,471명 / 19.7%
		알코올 사용장애
		603명 / 4.8%
	세부경제 문제	무직·구직
		1,264명 / 22.3%
	신체질환	당뇨병
		1,921명 / 7.9%

그림44.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42에는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자살사망자의 발견장소, 생애주기, 자살방법, 정신질환, 세부경제문제, 신체질환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건강보험료 하위구간의 자살사망을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발견장소와 자살방법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자택 발견 비율이 59.2%인데 비해 건강보험료 하위구간의 자택 발견 비율은 61.9%로 높았고, 자살방법 역시 서울시 전체 가스중독 비율이 11.1%인데 비해 건강보험료 하위분위는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비율이 12.8%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 당시 무직/구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22.3%인데 반해 건강보험료 하위구간의 경우 25.2%였다.

○ 생애주기 상 장년기 비율이 28.6%로 높았고(서울시 전체: 26.3%), 수면장애와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각 20.3%, 5.5%로 서울시 전체(각 19.7%, 4.8%)보다 높았다. 또한 과거 당뇨병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가 8.2%로 서울시 전체(7.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5) 부록 3-1-2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 특성: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참고

2-1. 생활상태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실업자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분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1장에서는 전수조사 상 실업자로 추정되는 1,68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고용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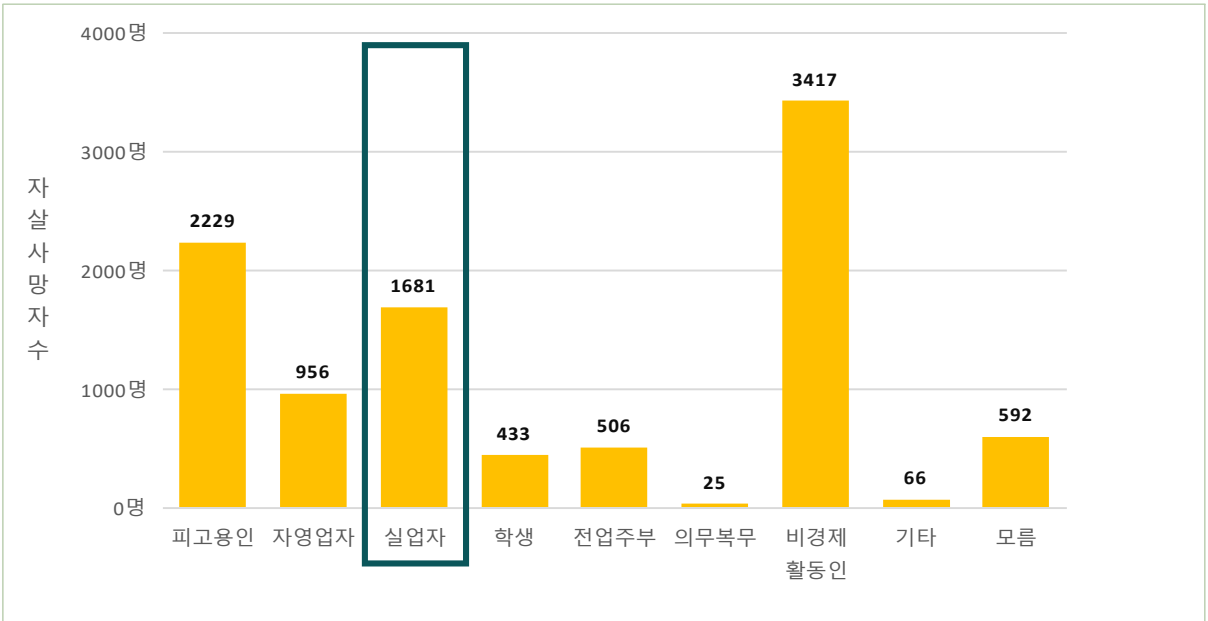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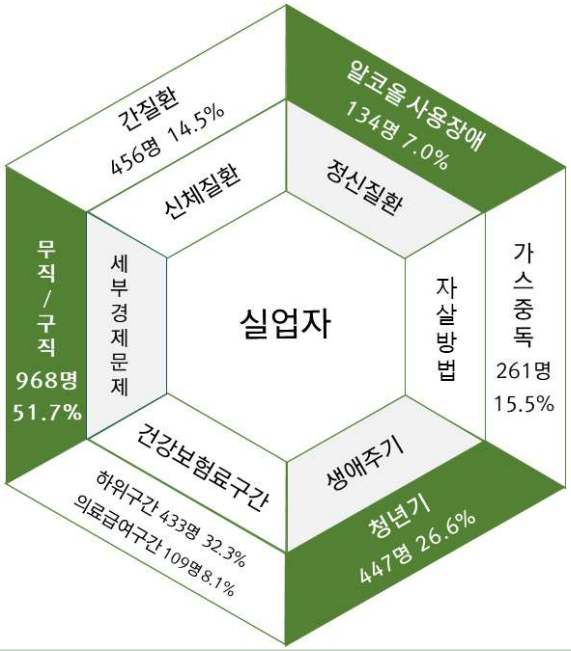
그림45. 고용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 그림45는 5년간(2013~2017년) 전수조사 자료의 고용상태별 자살사망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이 중 실업자는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자, 즉, 경제활동인구 연보상 사망 당시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으나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 본 장에서는 자살사망 당시 실업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실업 추정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66)]



실업자	서울시 전체	
	정신질환	알코올 사용장애
		603명 / 4.8%
	자살방법	가스중독
		1,104명 / 11.1%
	생애주기	청년기
		1,971명 / 19.9%
	건강보험료 구간	하위구간
		2,576명 / 26.6%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세부경제 문제	무직·구직
		1,264명 / 22.3%
	신체질환	간질환
		2,690명 / 11.0%

그림46. 실업 추정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46에는 실업 추정 자살사망자의 정신질환, 자살방법, 생애주기, 건강보험료구간, 세부경제문제, 신체질환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실업 추정자의 자살사망을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과 생애주기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알코올 사용장애로 한 번이라도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7.0%로 서울시 전체 비율인 4.8%에 비해 높았고, 청년기의 비율은 26.6%로 서울시 전체 비율인 19.9%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사망 당시 무직/구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51.7%로 서울시 전체 22.3%에 비해 높았다.

○ 자살방법 중 가스중독의 비율이 15.5%로 서울시 전체(11.1%)보다 높았고, 건강보험료분위 4개 구간 중 하위구간과 의료급여구간이 각 32.3%, 8.1%로 서울시 전체(각 26.6%, 7.8%)보다 높았다. 신체질환의 경우 간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가 14.5%로 서울시 전체(11.0%)에 비해 높았다.

66) 부록 3-2-1 '생활상태별 자살사망 특성: 실업자' 참고

2-2. 생활상태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독거자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2-2장에서는 전수조사 상 독거자로 파악된 2,75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전체 총 수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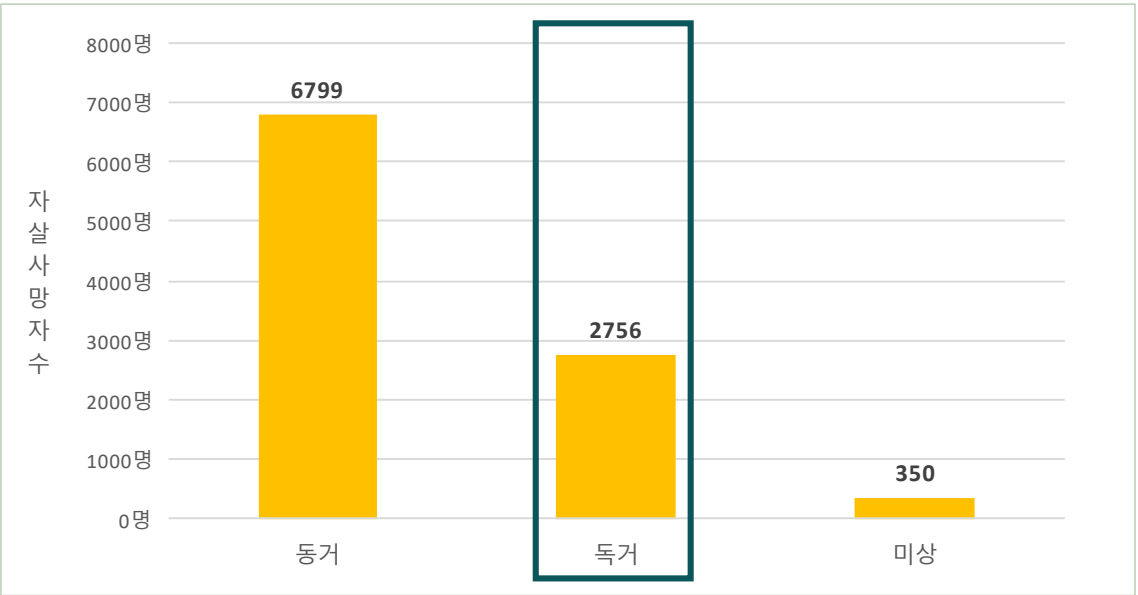


그림47.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 그림47은 5년간(2013~2017년) 전수조사 자료의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이 중 독거자가 2,756명으로 27.8%를 차지하였다. 독거는 개인의 위험신호 탐지, 개입 가능성 등의 자살예방 측면에서 비교적 취약한 위험요인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바, 본 장에서는 독거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독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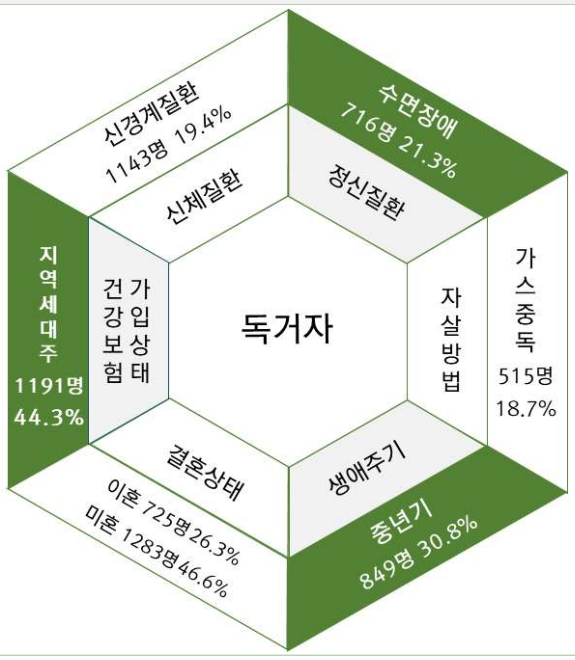
독거자	서울시 전체	
	정신질환	수면장애
		2,471명 / 19.7%
	자살방법	가스중독
		1,104명 / 11.1%
	생애주기	중년기
		2,598명 / 26.2%
	결혼상태	이혼
		1,287명 / 13.0%
		미혼
		3,237명 / 32.7%
	건강보험 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104명 / 20.7%
	신체질환	신경계질환
		4,410명 / 18.1%

그림48. 독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48에는 독거자의 정신질환, 자살방법, 생애주기, 결혼상태, 건강보험가입상태, 신체질환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독거자의 자살사망을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과 생애주기 및 건강보험가입상태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서울시 전체 비율이 19.7%인데 비해 독거 자살사망자는 21.3%로 높았고, 생애주기 역시 서울시 전체 중년기 비율이 26.2%인데 비해 독거 자살사망자의 비율은 30.8%에 달하였다. 아울러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지역세대주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20.7%인데 반해 독거 자살사망자의 경우 44.3%에 달했다.

○ 자살방법 중 가스중독으로 사망한 비율이 18.7%로 서울시 전체(11.1%)에 비해 높았고, 결혼상태 중 이혼과 미혼 상태가 각 26.3%, 46.6%로 서울시 전체(각 13.0%, 32.7%)보다 높았다. 신체질환의 경우 신경계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가 19.4%로 서울시 전체(18.1%)에 비해 다소 높았다.

67) 부록 3-2-2 '생활상태별 자살사망 특성: 독거자' 참고

3-1.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수면장애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1장에서는 수면장애 치료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2,471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수면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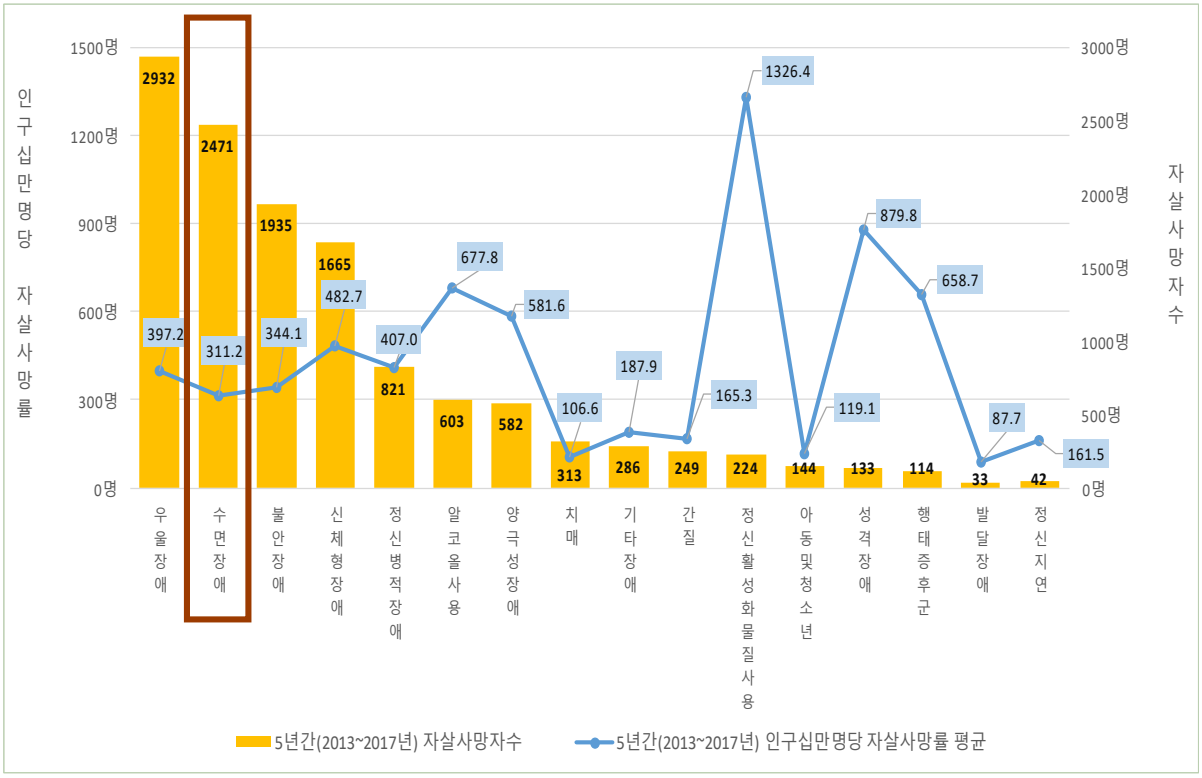


그림 49.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 그림49은 본 보고서 3-3-3)에서 제시한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수면장애(2,471명)는 16개의 정신질환 분류 중 자살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이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자살사망자 중 수면장애를 진단 받은 대상자들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수면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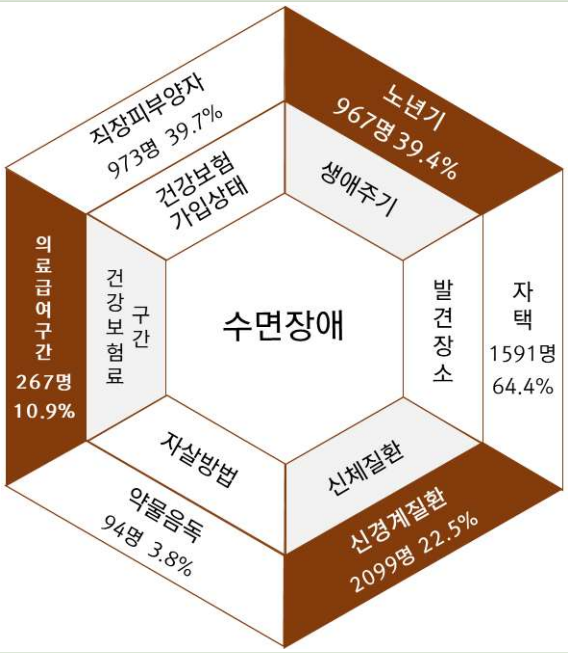
수면장애	서울시 전체	
	생애주기	노년기
		2,542명 / 25.7%
	발견장소	자택
		5,865명 / 59.2%
	신체질환	신경계질환
		4,410명 / 18.1%
	자살방법	약물음독
		222명 / 2.2%
	건강보험료 구간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건강보험 가입상태	직장피부양자
		3,292명 / 33.8%

그림50. 수면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50에는 수면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 발견장소, 신체질환, 자살방법, 건강보험료 구간, 건강보험가입상태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 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수면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생애주기와 신체질환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생애주기 중 노년기의 비율이 39.4%로 서울시 전체 노년기 비율 25.7%보다 높았고, 신경계 질환 진단을 받았던 경우는 22.5%로 서울시 전체 18.1%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사망 당시 의료급여구간이었던 비율이 10.9%로 서울시 전체인 7.8%에 비해 높았다.

○ 자택 발견 비율이 64.4%로 서울시 전체(59.2%)보다 높았고, 자살방법 중 약물음독의 비율이 3.8%로 서울시 전체(2.2%)보다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직장피부양자로 확인된 경우는 39.7%로 서울시 전체인 33.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8) 부록 3-3-1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수면장애' 참고

3-2.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우울장애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2장에서는 우울장애 치료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2,932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우울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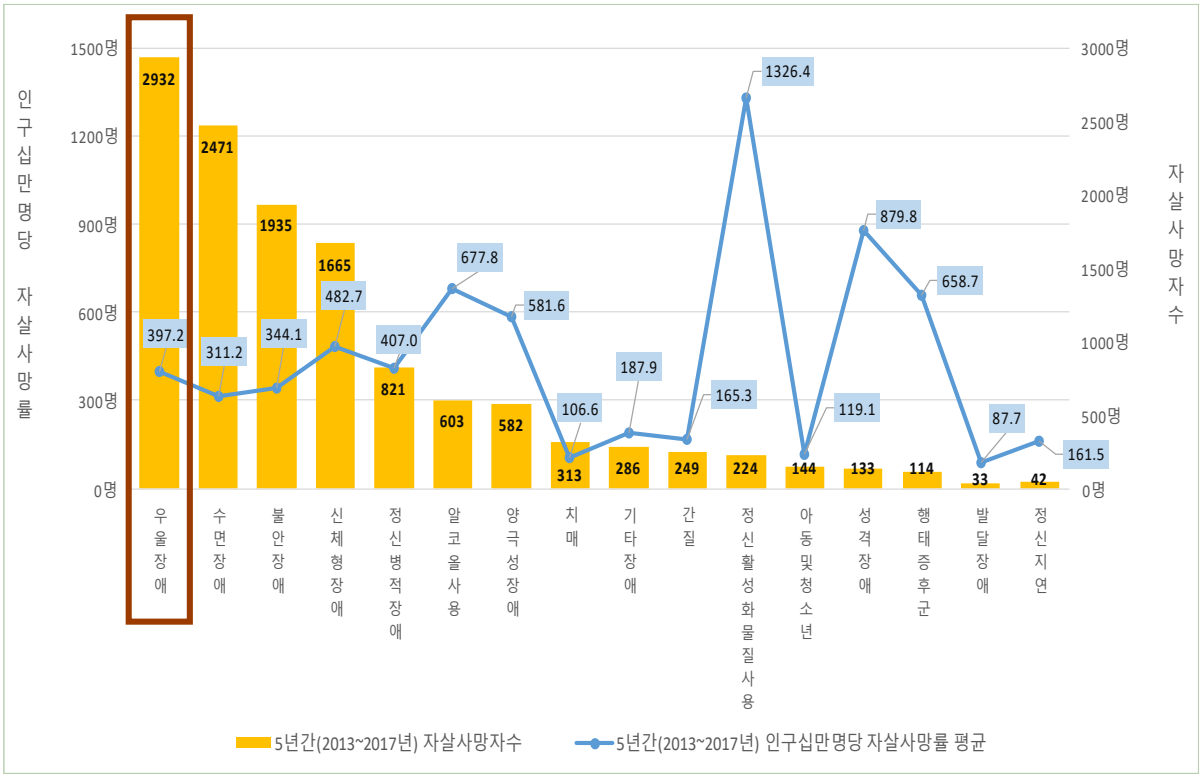


그림 51.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 그림51은 본 보고서 3-3-3)에서 제시한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우울장애는 16개의 정신질환 중 자살사망자 수(2932명)와 자살사망률(319.0명) 모두 비교적 높은 질환으로, 자살사망자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요 질환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자살사망자 중 우울장애를 진단 받은 대상자들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우울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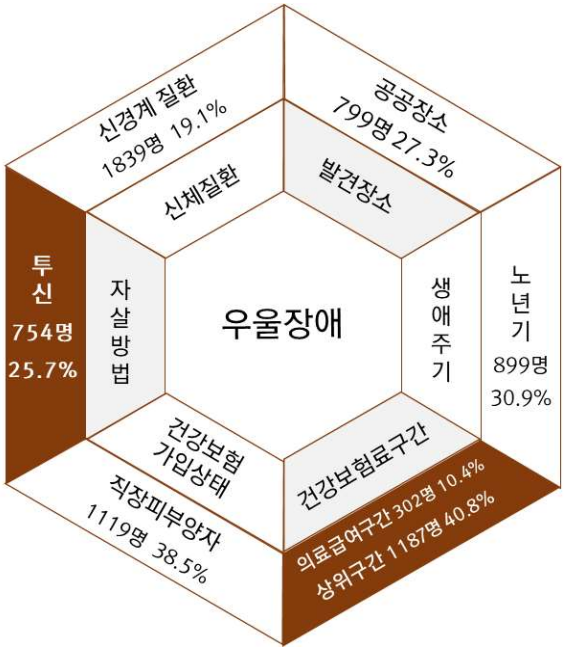
우울장애	서울시 전체	
	발견장소	공공장소
		2,756명 / 27.8%
	생애주기	노년기
		2,542명 / 25.7%
	건강보험료 구간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상위구간
		3,432명 / 35.5%
	건강보험 가입상태	직장피부양자
		3,292명 / 33.8%
	자살방법	투신
		1,979명 / 20.0%
	신체질환	신경계질환
		4,410명 / 18.1%

그림52. 우울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52에는 우울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발견장소, 생애주기, 건강보험료구간, 건강보험가입상태, 자살방법, 신체질환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우울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자살방법과 건강보험료구간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투신으로 사망한 비율이 25.7%로 서울시 전체(20.0%)보다 높았고, 의료급여구간과 건강보험료 상위구간이었던 경우가 각 10.4%, 40.8%로 서울시 전체(각 7.8%, 35.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생애주기 상 노년기 비율이 30.9%로 서울시 전체(25.7%)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직장피부양자로 확인된 경우가 38.5%였으며(서울시 전체 33.8%), 신경계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는 19.1%로 서울시 전체(18.1%)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한편, 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비율은 27.3%로 서울시 전체인 27.8%와 비교적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69) 부록 3-3-2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우울장애' 참고

3-3.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정신병적장애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 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3장에서는 정신병적장애 치료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821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정신병적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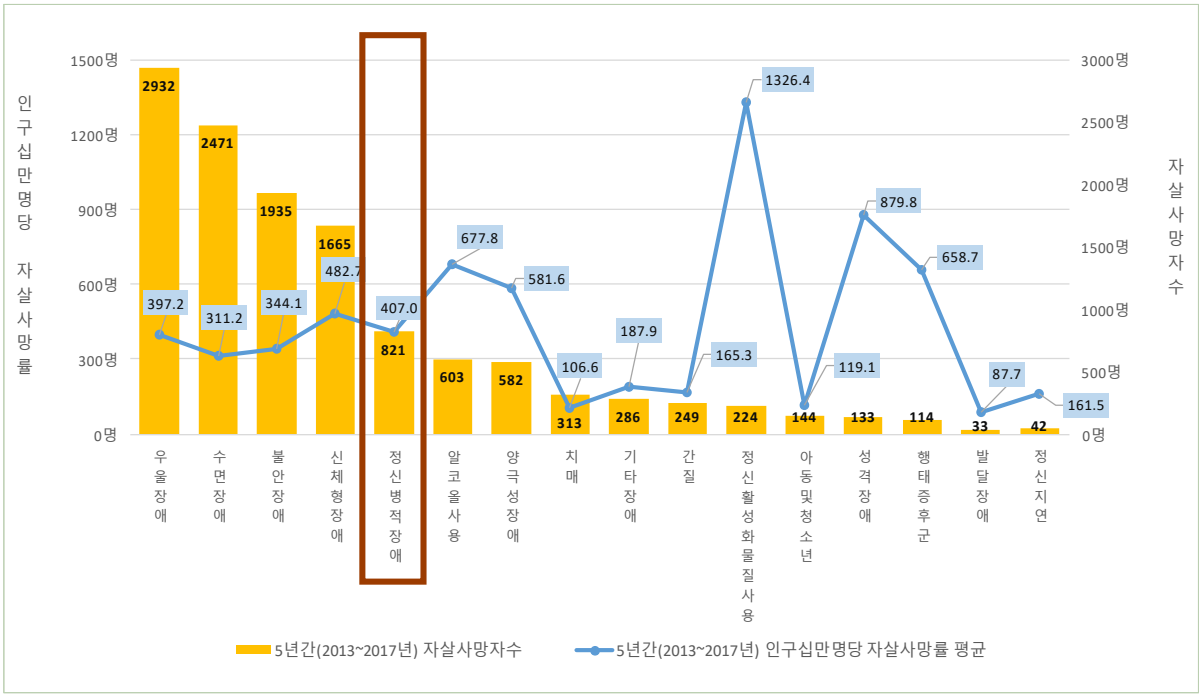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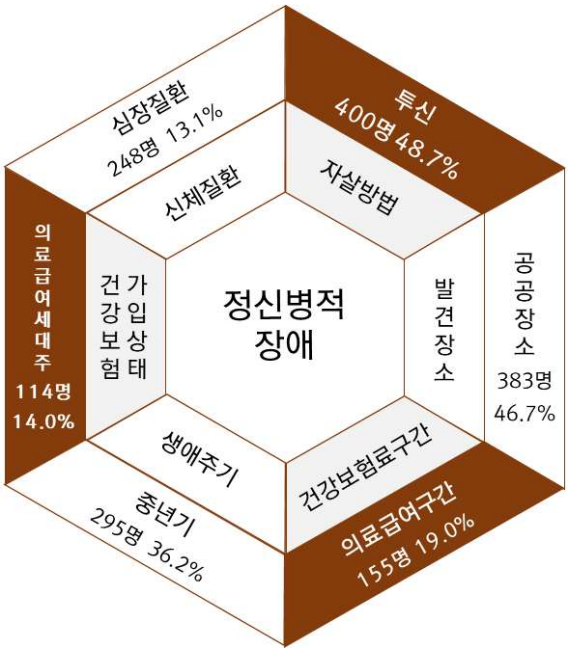
그림 5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 그림53은 본 보고서 3-3-3)에서 제시한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현병(정신병적장애) 환자의 사망원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70] 이에 본 장에서는 자살사망자 중 정신병적장애를 진단 받은 대상자들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70) Sartorius, N., Jablensky, A., Korten, A., Ernberg, G., Anker, M., Cooper, J. E., & Day, R. (1986). Early manifestations and first -contact incidence of schizophrenia in different cultures. A preliminary report on the initial evaluation ph ase of the WHO Collaborative Study on determinants of outcome of severe mental disorders. Psychological medici ne, 16(4), 909-928.

2) 정신병적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71)]



정신병적장애		서울시 전체	
	자살방법	투신	1,979명 / 20.0%
	발견장소	공공장소	2,756명 / 27.8%
	건강보험료 구간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생애주기	중년기	2,598명 / 26.2%
	건강보험 가입상태	의료급여세대주	536명 / 5.5%
	신체질환	심장질환	2,569명 / 10.5%

그림54. 정신병적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54에는 정신병적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자살방법, 발견장소, 건강보험료구간, 생애주기, 건강보험가입상태, 신체질환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정신병적장애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자살방법과 건강보험료구간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자살방법 중 투신의 비율이 48.7%로 서울시 전체(20.0%)보다 높았고 의료급여구간이었던 비율이 19.0%로 서울시 전체(7.8%)보다 높았다. 아울러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의료급여세대주로 확인된 비율이 14.0%로 서울시 전체(5.5%)보다 높았다.

○ 이어 자살사망자가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비율이 46.7%로 서울시 전체(27.8%)보다 높았고, 중년기의 비율이 36.2%로 서울시 전체(2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신체질환의 경우 심장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가 13.1%로 서울시 전체(10.5%)에 비해 높았다.

71) 부록 3-3-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정신병적 장애' 참고

4-1.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고혈압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 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1장에서는 고혈압 치료자로 파악된 3,225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고혈압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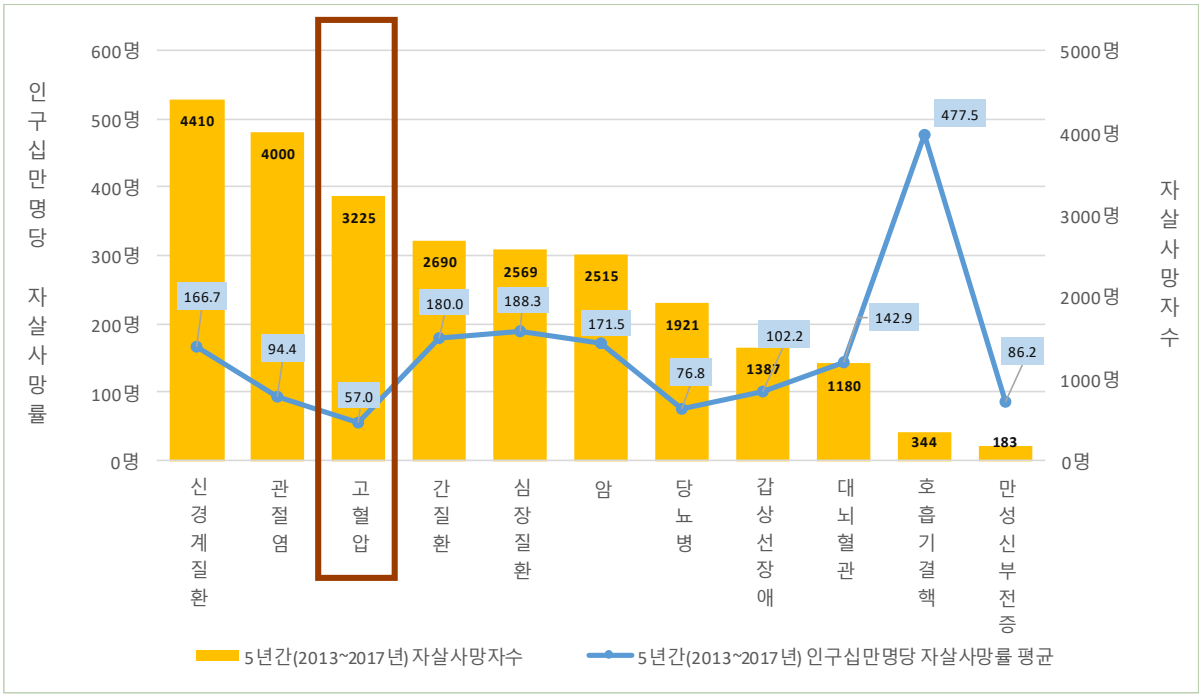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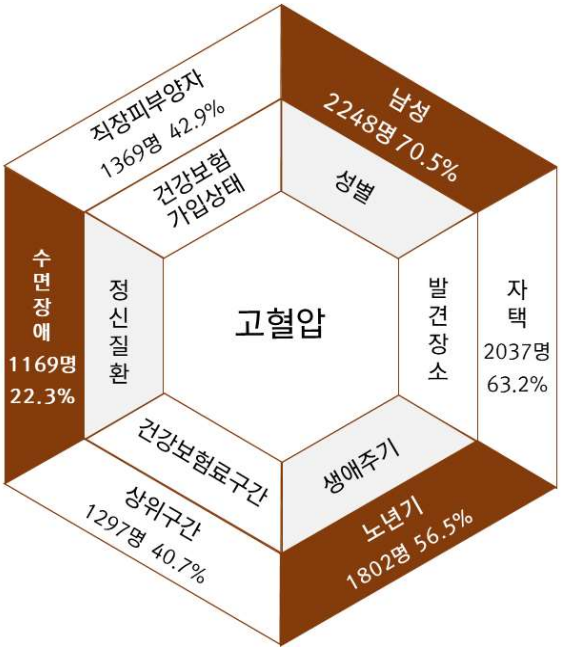
그림 55.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 그림55는 본 보고서 3-4-2)에서 제시한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고혈압은 만성질환의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만성질환에 의한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이 심리적 긴장, 우울감, 자살사고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72] 이에 본 장에서는 자살사망자 중 고혈압을 진단 받은 대상자들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72) 박소희, 황병덕 (2013).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관리적 특성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4), 221-232.

2) 고혈압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73)]



고혈압	서울시 전체	
	성별	남성
		6,640명 / 67.0%
	발견장소	자택
		5,865명 / 59.2%
	생애주기	노년기
		2,542명 / 25.7%
	건강보험료 구간	상위구간
		3,432명 / 35.5%
	정신질환	수면장애
		2,471명 / 19.7%
	건강보험 가입상태	직장피부양자
		3,292명 / 33.8%

그림56. 고혈압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56에는 고혈압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발견장소, 생애주기, 건강보험료구간, 정신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고혈압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성별과 생애주기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남성의 비율이 67.0%인데 비해 고혈압 자살사망자 남성 비율은 70.5%로 높았고, 서울시 전체 노년기 비율이 25.7%인데 비해 고혈압 자살사망자 노년기의 비율은 56.5%에 달하였다. 아울러 수면장애로 한 번이라도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22.3%로 서울시 전체(19.7%)보다 높았다.

○ 이어 자택에서 발견된 비율이 63.2%로 서울시 전체(59.2%)에 비해 높았고, 건강보험료분위 4개 구간 중 상위구간인 경우가 40.7%로 서울시 전체(35.5%)보다 높았다.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직장피부양자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33.8%인데 반해 고혈압 자살사망자의 경우 42.9%로 나타났다.

73) 부록 3-4-1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고혈압' 참고

4-2.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당뇨병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2장에서는 당뇨병 치료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1,921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당뇨병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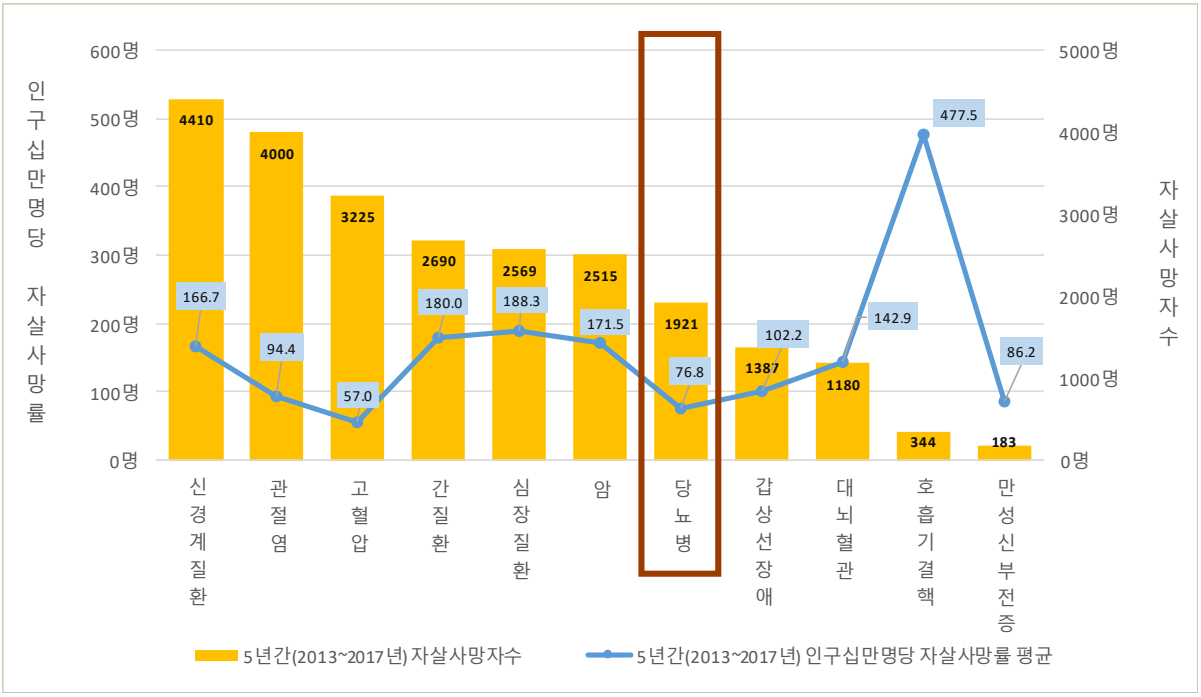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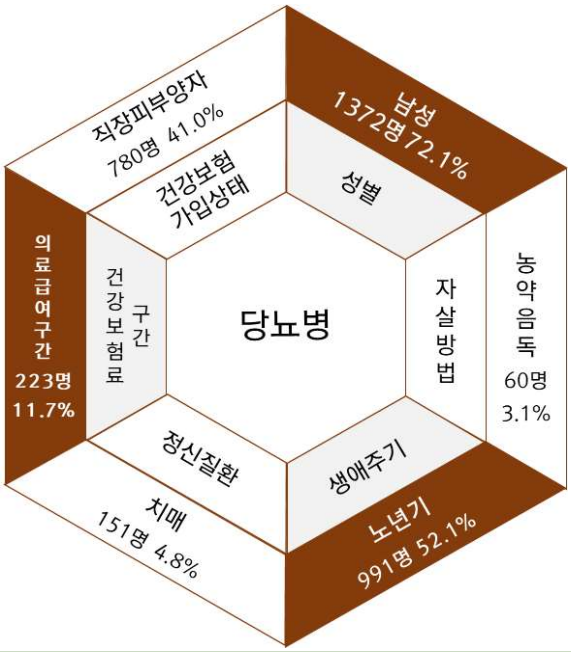
그림 57.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 그림57은 본 보고서 3-4-2)에서 제시한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당뇨병은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만성질환에 의한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 경험이 심리적 긴장, 우울감, 자살사고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74] 이에 본 장에서는 자살사망자 중 당뇨를 진단받은 대상자들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74) 박소희, 황병덕 (2013).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관리적 특성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7(4), 221-232.

2)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75]



당뇨	서울시 전체	
성별	남성	
	6,640명 / 67.0%	
자살방법	농약음독	
	173명 / 1.7%	
생애주기	노년기	
	2,542명 / 25.7%	
정신질환	치매	
	313명 / 2.5%	
건강보험료 구간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건강보험 가입상태	직장피부양자	
	3,292명 / 33.8%	

그림58.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58에는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자살방법, 생애주기, 정신질환, 건강보험료구간, 건강보험가입상태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성별, 생애주기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남성의 비율이 67.0%인데 비해 당뇨 자살사망자 남성 비율이 72.1%로 높았고, 생애주기 역시 서울시 전체 노년기 비율이 25.7%인데 비해 당뇨 자살사망자 노년기의 비율은 52.1%에 달하였다. 아울러 사망 당시 건강보험료분위 4개 구간 중 의료급여구간인 경우가 11.7%로 서울시 전체(7.8%)보다 높았다.

○ 이어 자살방법 중 농약음독 사망의 비율이 3.1%로 서울시 평균(1.7%)보다 높았고, 정신질환 중에서도 치매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4.8%로 서울시 전체(2.5%)보다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직장피부양자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33.8%인데 비해 당뇨병 자살사망자의 경우 41.0%에 달했다.

75) 부록 3-4-2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당뇨병' 참고

4-3.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암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4-3장에서는 암 치료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2,515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 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암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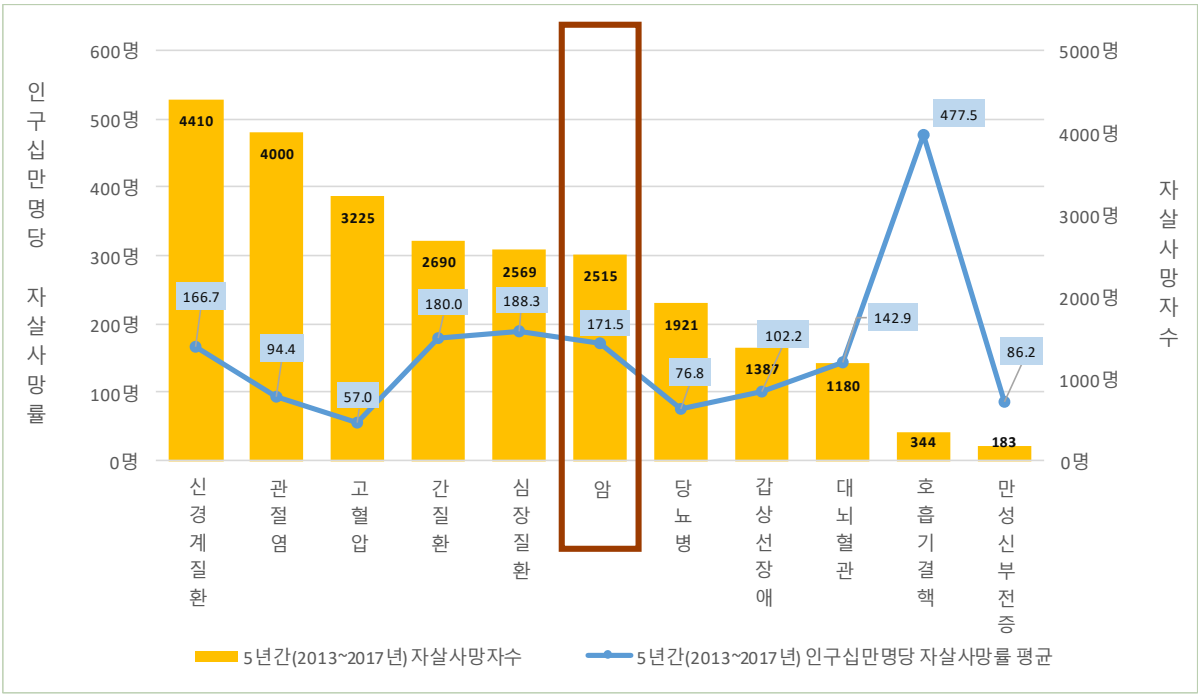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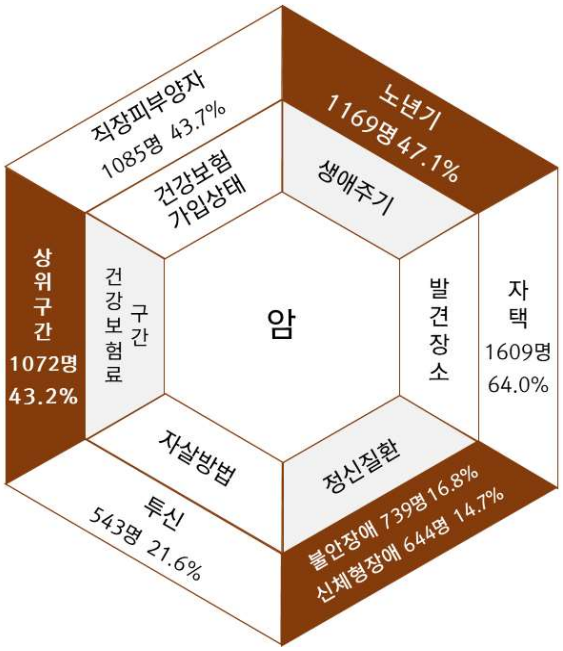
그림 59.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 그림59는 본 보고서 3-4-2)에서 제시한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암은 우울증, 무망감 등의 정신건강 문제 및 운동상실, 감각상실과 같은 신체장애와 연관성이 깊은 질환으로, 자살에 대한 취약성 또한 높은 질환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76] 이에 본 장에서는 자살사망자 중 암을 진단 받은 대상자들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76) 조성진 (2007). 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정신의학적· 심리사회적 개입. 신경정신의학, 46, 430-446.

2) 암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77)]



암	서울시 전체	
	생애주기	노년기
		2,542명 / 25.7%
	발견장소	자택
		5,865명 / 59.2%
	정신질환	불안장애
		1,935명 / 15.4%
		신체형장애
		1,665명 / 13.3%
	자살방법	투신
		1,979명 / 20.0%
	건강보험료 구간	상위구간
		3,432명 / 35.5%
	건강보험 가입상태	직장피부양자
		3,292명 / 33.8%

그림60. 암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60에는 암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의 생애주기, 발견장소, 정신질환, 자살방법, 건강보험료구간, 건강보험가입상태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암 치료력이 있는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생애주기와 정신질환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생애주기 중 노년기의 경우 서울시 전체 비율이 25.7%인데 비해 암 자살사망자 노년기는 47.1%로 높았고, 불안장애와 신체형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각 16.8%, 14.7%로 서울시 전체(각 15.4%, 13.3%)보다 높았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분위 4개 구간 중 상위구간의 경우, 서울시 전체는 35.5%인데 비해 암 자살사망자는 상위구간의 비율이 43.2%로 서울시 전체보다 높았다.

○ 또한 자택 발견의 비율이 64.0%로 서울시 전체(59.2%)보다 높았고, 자살방법 중 투신 비율이 21.6%로 서울시 전체(20.0%)보다 높았다.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직장피부양자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33.8%인데 비해 암 자살사망자의 경우 43.7%로 높게 나타났다.

77) 부록 3-4-3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암' 참고

5-1.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지체장애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1장에서는 지체장애인으로 파악된 511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지체장애 자살사망자의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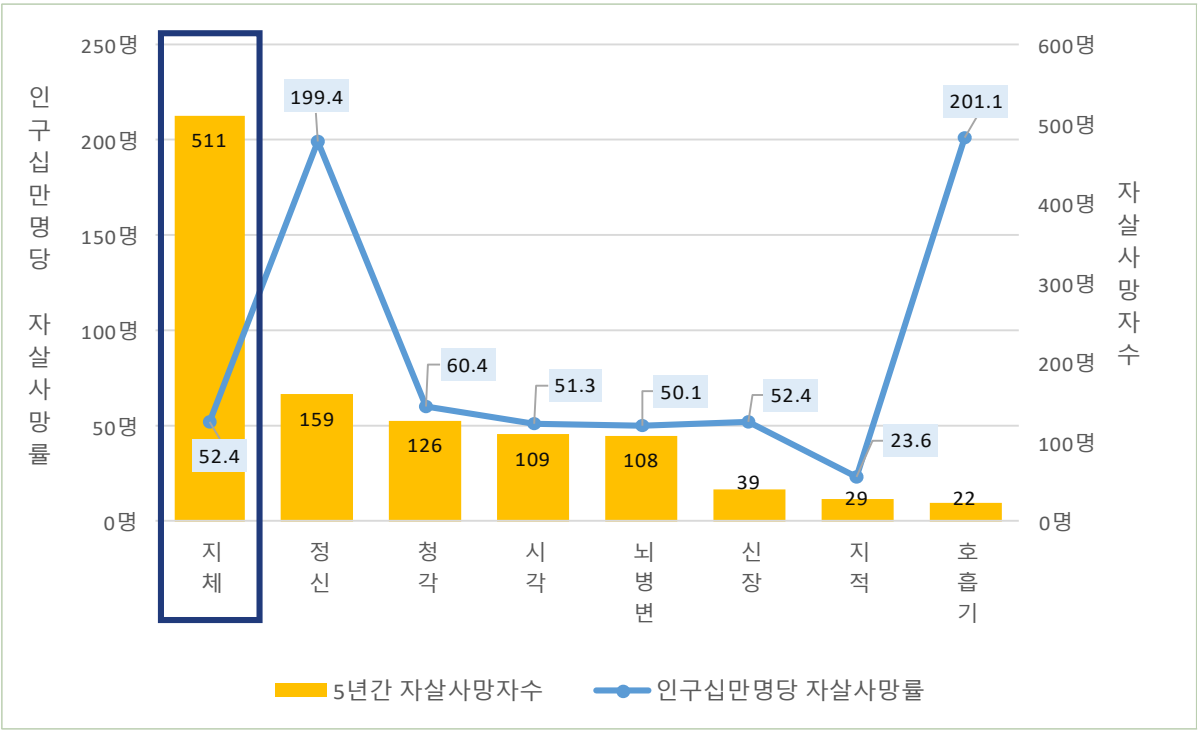


그림 61.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 그림61은 본 보고서 3-5-2)에서 제시한 장애종류별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15개의 장애종류 중 지체장애의 자살사망자 수(511명)가 가장 많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자살사망자 중 지체장애인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와 비교 제시하였다.

2) 지체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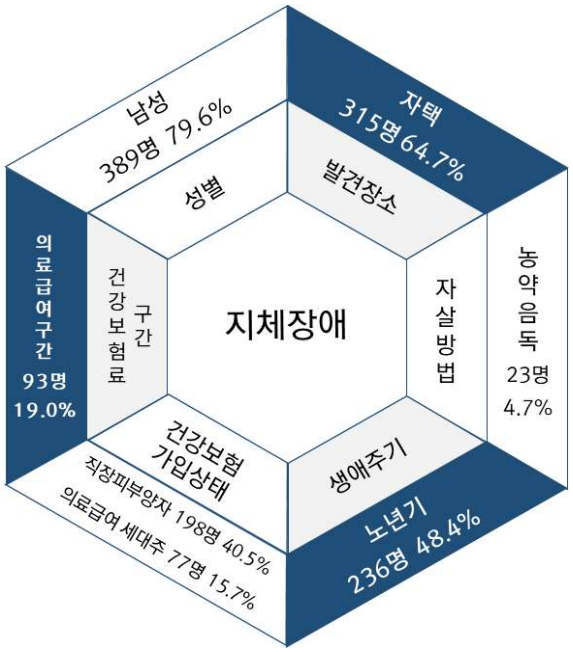
지체장애	서울시 전체	
	발견장소	자택
		5,865명 / 59.2%
	자살방법	농약음독
		173명 / 1.7%
	생애주기	노년기
		2,542명 / 25.7%
	건강보험 가입상태	직장피부양자
		3,292명 / 33.8%
		의료급여세대주
		536명 / 5.5%
	건강보험료 구간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성별	남성
		6,640명 / 67.0%

그림62. 지체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62에는 지체장애 자살사망자의 발견장소, 자살방법, 생애주기,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성별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지체장애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발견장소와 생애주기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자택 발견 비율이 59.2%인데 비해 지체장애인 자살사망자 자택 발견의 비율이 64.7%로 높았고, 생애주기 역시 서울시 전체 노년기 비율이 25.7%인데 비해 지체장애인 자살사망자 노년기 비율은 48.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료구간 중 의료급여구간인 경우가 19.0%로 서울시 전체(7.8%)보다 높았다.

○ 자살방법 중 농약음독 사망의 비율이 4.7%로 서울시 전체(1.7%)보다 높았고,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각 33.8%, 5.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지체장애 각 40.5%, 15.7%). 성별이 남성인 경우 또한 79.6%로 서울시 전체(67.0%)에 비해 높았다.

78) 부록 3-5-1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특성: 지체장애' 참고

5-2.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정신장애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2장에서는 정신장애인 자살사망자로 파악된 159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정신장애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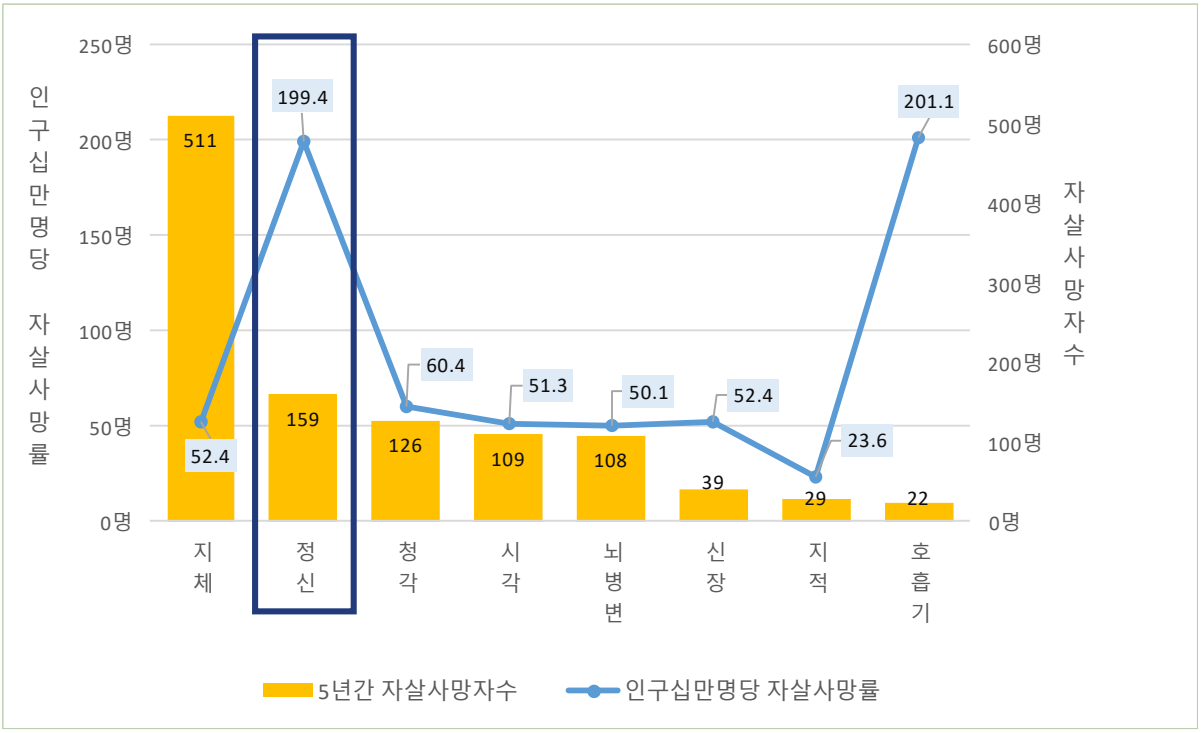


그림63.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그림63은 본 보고서 3-5-2)에서 제시한 장애종류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15개의 장애종류 중 정신장애인(199.4명)은 호흡기장애인(201.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신장애인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정신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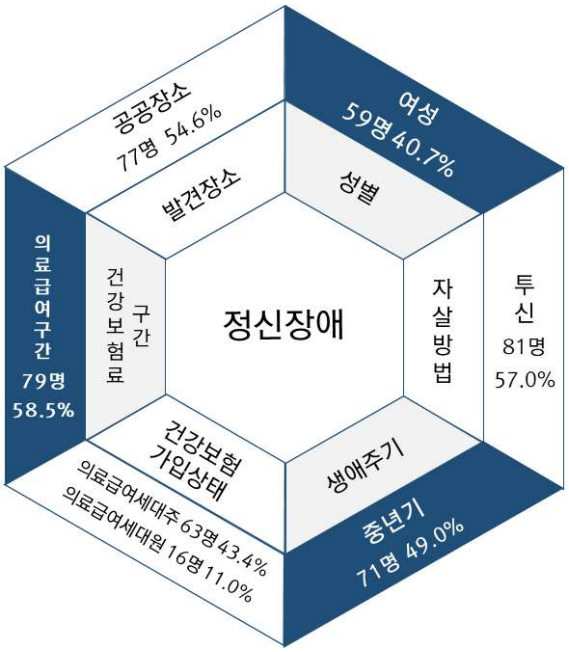
정신장애	서울시 전체	
	성별	여성
		3,263명 / 32.9%
	자살방법	투신
		1,979명 / 20.0%
	생애주기	중년기
		2,598명 / 26.2%
	건강보험 가입상태	의료급여세대주
		536명 / 5.5%
		의료급여세대원
		112명 / 1.3%
	건강보험료 구간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발견장소	공공장소
		2,756명 / 27.8%

그림64. 정신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64에는 정신장애 자살사망자의 성별, 자살방법, 생애주기,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발견장소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정신장애인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성별과 생애주기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여성의 비율이 32.9%인데 비해 정신장애인 자살사망자는 40.7%로 높았고, 서울시 전체 중년기의 비율이 26.2%인데 비해 정신장애인 자살사망자는 49.0%로 서울시 전체보다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료구간이 의료급여구간인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7.8%인데 비해 정신장애인 자살사망자의 경우 58.5%에 달했다.

○ 자살방법 중 투신 사망의 비율이 57.0%로 서울시 전체(20.0%)보다 높았고,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으로 확인된 경우가 각 43.4%, 11.0%로 서울시 전체(각 5.5%, 1.3%)보다 높았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비율이 54.6%로 서울시 전체(27.8%)보다 높게 나타났다.

79) 부록 3-5-2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특성: 정신장애' 참고

5-3.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호흡기장애인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3장에서는 호흡기장애인 자살사망자로 파악된 22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호흡기장애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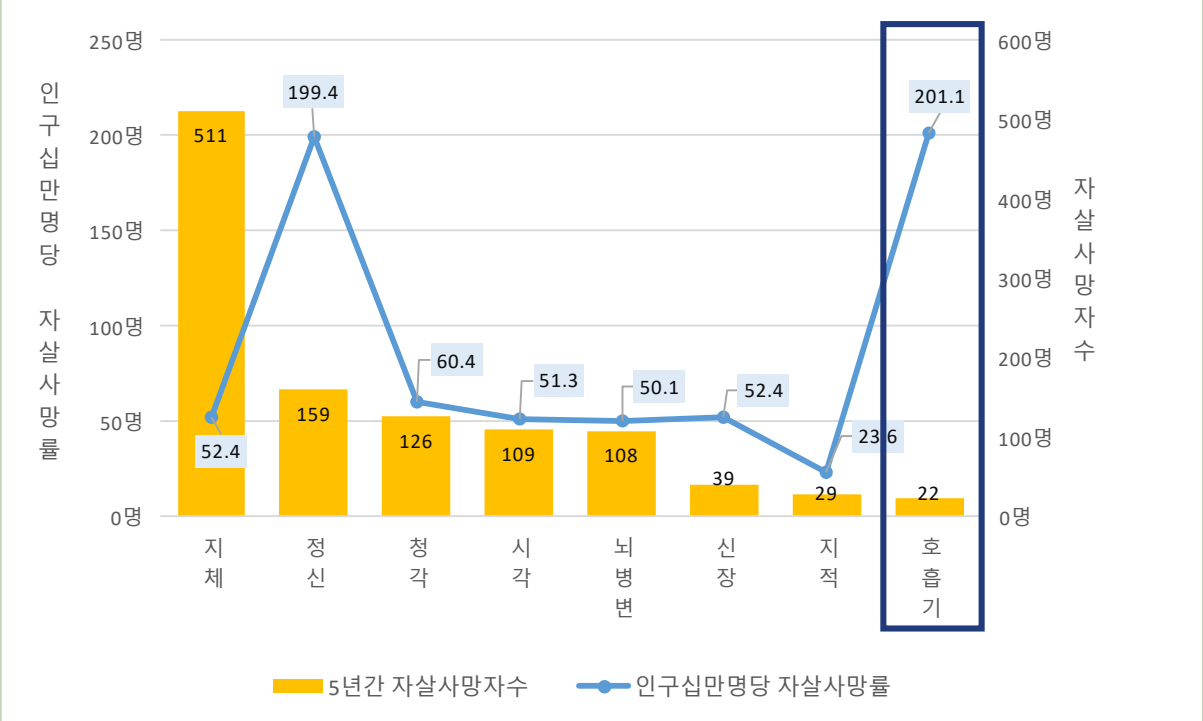


그림6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 그림65는 본 보고서 3-5-2)에서 제시한 장애종류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분석 결과이다.

○ 15개의 장애종류 중 호흡기장애인(201.1명)은 가장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호흡기장애인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호흡기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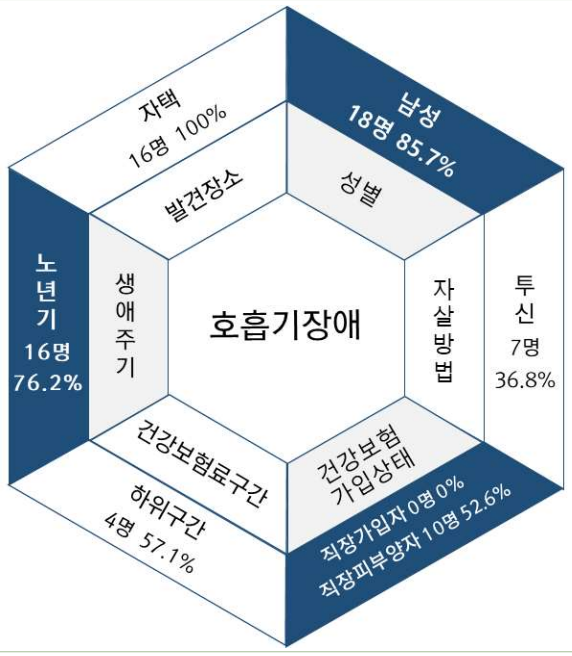
호흡기장애		서울시 전체	
		성별	남성
			6,640명 / 67.0%
		자살방법	투신
			1,979명 / 20.0%
		건강보험 가입상태	직장가입자
			1,494명 / 17.9%
			직장피부양자
			3,292명 / 33.8%
		건강보험료 구간	하위구간
			2,576명 / 26.6%
		생애주기	노년기
			2,542명 / 25.7%
		발견장소	자택
			5,865명 / 59.2%

그림66. 호흡기장애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66에는 호흡기장애 자살사망자의 성별, 자살방법,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생애주기, 발견장소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호흡기장애인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성별과 생애주기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남성의 비율(67.0%)에 비해 호흡기장애인 자살사망자 남성의 비율이 85.7%로 높았고, 서울시 전체 노년기의 비율(25.7%)에 비해 호흡기장애인 자살사망자 노년기의 비율이 76.2%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자상태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각 17.9%, 33.8% 인데 비해 호흡기장애인 자살사망자의 경우 각 0%, 52.6%로 차이를 보였다.

○ 자살방법 중 투신 사망의 비율이 36.8%로 서울시 전체(20.0%)보다 높았고, 건강보험료구간 중 하위구간의 경우가 57.1%로 서울시 전체(26.6%)보다 높았다. 또한 자택 발견의 비율이 서울시 전체는 59.2%인데 비해 호흡기장애인 자살사망자의 경우 100%로 나타났다.

80) 부록 3-5-3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특성: 호흡기장애' 참고

6-1.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아동기(아동·청소년)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1장에서는 아동기(18세 이하) 자살사망자로 파악된 184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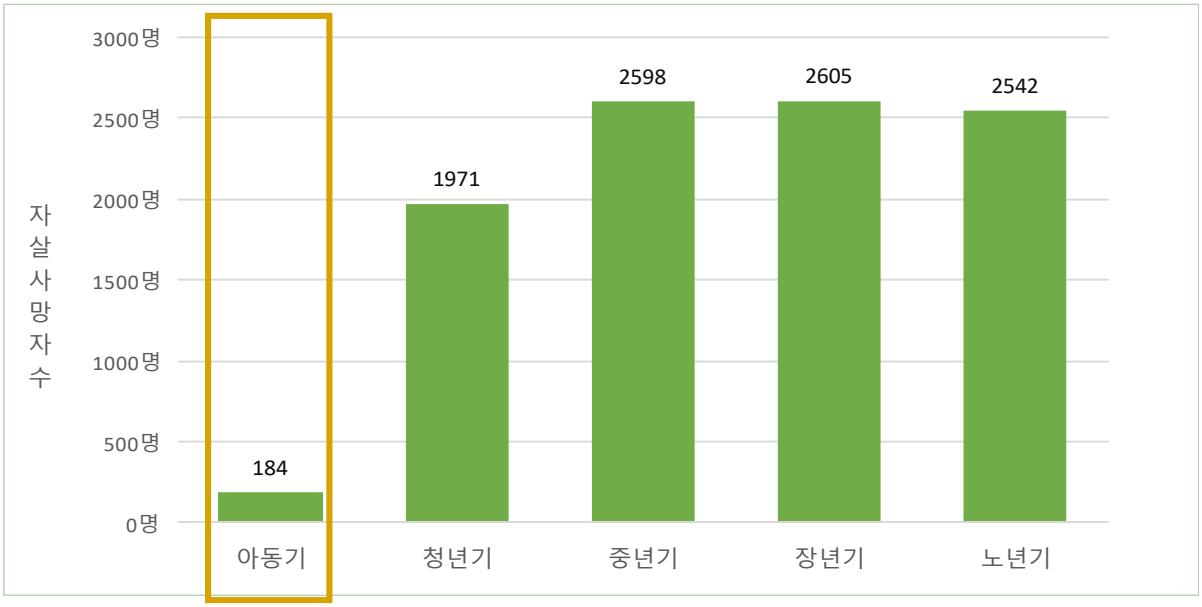


그림67.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 그림67은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를 생애주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 본 장에서는 생애주기 중 아동기(아동·청소년)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아동기(아동·청소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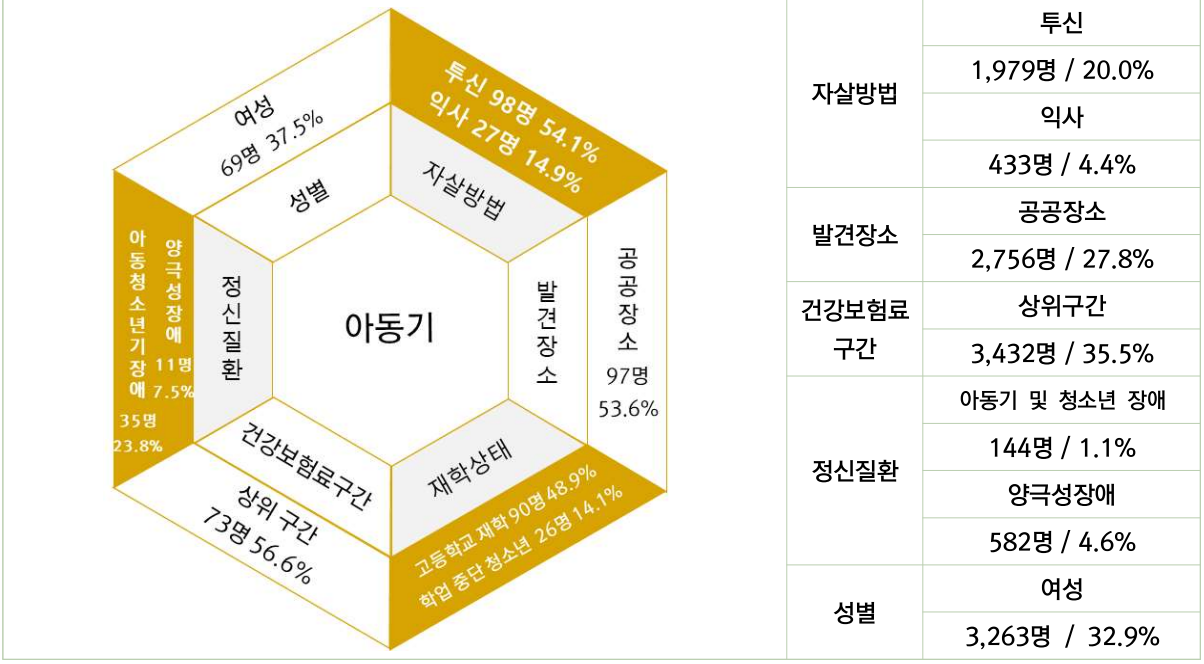


그림68. 아동기(아동·청소년)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68에는 아동기(아동·청소년) 자살사망자의 자살방법, 발견장소, 재학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정신질환, 성별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아동기(아동·청소년)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자살방법과 정신질환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투신, 익사 비율이 각 20.0%, 4.4%인데 비해 아동기 자살사망자의 경우 각 54.1%, 14.9%로 높았고, 정신질환 역시 아동기 및 청소년장애와 양극성장애로 한 번이라도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각 23.8%, 7.5%로 서울시 전체(각 1.1%, 4.6%)보다 높았다.

○ 자살사망자가 공공장소에서 발견된 비율이 53.6%로 서울시 전체(27.8%)보다 높았고, 건강보험료구간 중 상위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35.5%인데 비해 아동기 자살사망자의 경우 56.6%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자살사망자 여성의 비율은 37.5%로 서울시 전체(32.9%)보다 높았다. 한편, 아동기 자살사망자의 재학 상태를 살펴봤을 때 고등학교 재학은 48.9%였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은 14.1%로 확인되었다.

81) 부록 3-6-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아동기(아동·청소년)' 참고

6-2.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청년기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 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2장에서는 청년기(19~34세) 자살사망자로 파악된 1,971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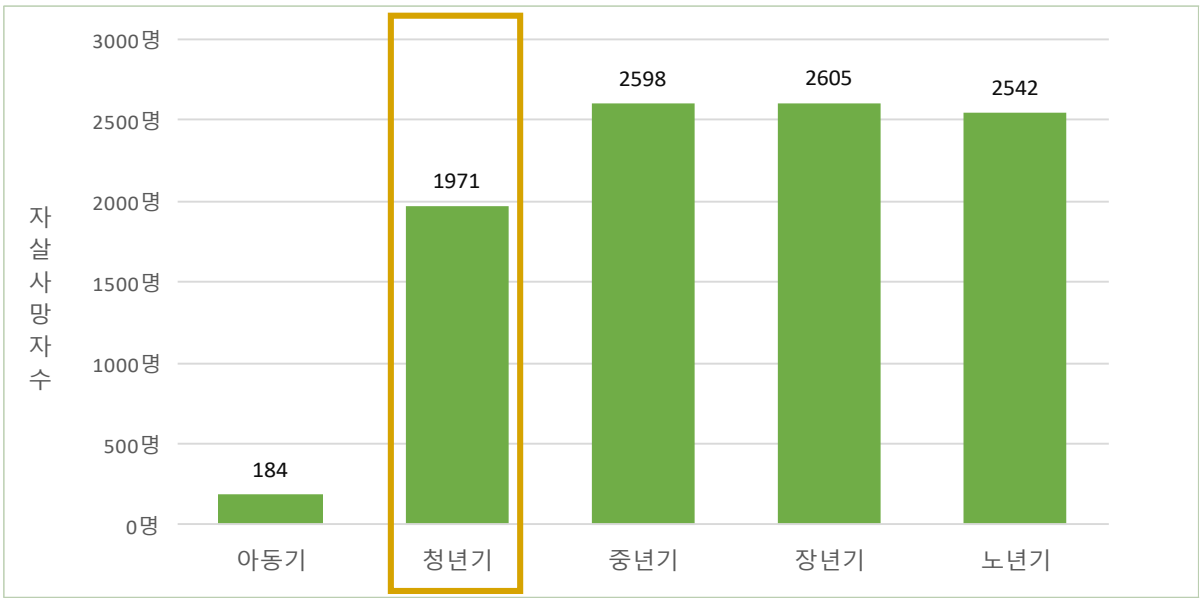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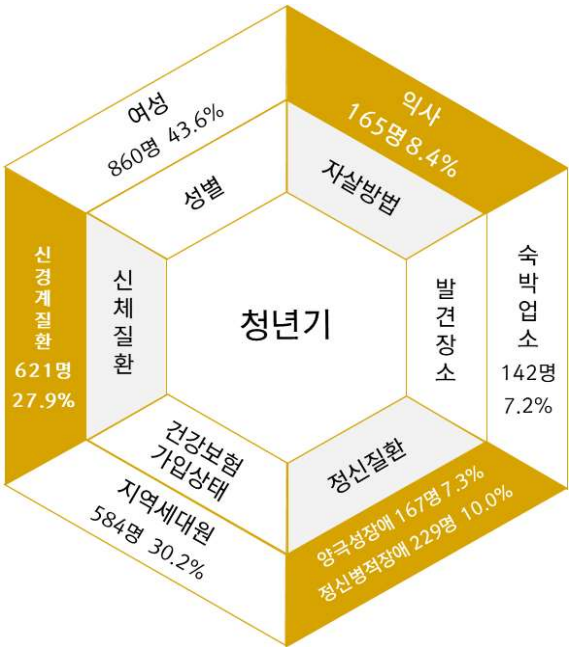


그림69.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 그림69는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를 생애주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 본 장에서는 생애주기 중 청년기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제시하였다.

2) 청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82)]



청년기	서울시 전체	
	자살방법	익사
		433명 / 4.4%
	발견장소	숙박업소
		411명 / 4.1%
	정신질환	양극성장애
		582명 / 4.6%
		정신병적장애
		821명 / 6.5%
	건강보험 가입상태	지역세대원
		1,773명 / 21.2%
	신체질환	신경계질환
		4,410명 / 18.1%
	성별	여성
		3,263명 / 32.9%

그림70. 청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70에는 청년기 자살사망자의 자살방법, 발견장소, 정신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신체질환, 성별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청년기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자살방법과 정신질환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전체 익사 비율이 4.4%인데 비해 청년기 자살사망자의 경우 8.4%로 높았고, 정신질환 역시 양극성장애와 정신병적장애로 한 번이라도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각 7.3%, 10.0%로 서울시 전체(각 4.6%, 6.5%)보다 높았다. 신체질환의 경우 과거 신경계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18.1%인데 비해 청년기 자살사망자의 경우 27.9%로 높게 나타났다.

○ 이어 숙박업소 발견의 비율이 7.2%로 서울시 전체(4.1%)보다 높았고,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지역세대원으로 확인된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21.2%인데 비해 청년기 자살사망자의 경우 30.2%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기 자살사망자 여성의 비율은 43.6%로 서울시 전체인 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82) 부록 3-6-2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청년기' 참고

6-3.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중년기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가입 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3장에서는 중년기(35~49세) 자살사망자로 파악된 2,598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특성(중복응답) 및 분석과정 중 결측치 발생 등의 이유로 각 항목별 자살사망자 수의 합계가 서로 다름을 밝힌다.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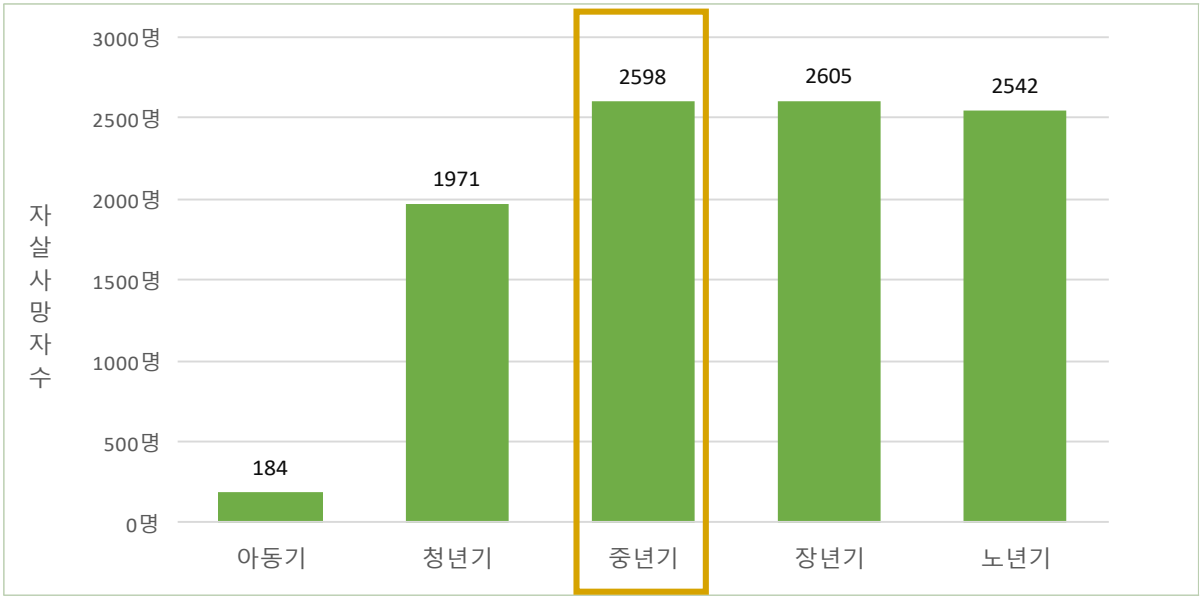


그림7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 그림71은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를 생애주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 본 장에서는 생애주기 중 중년기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경향과 비교 분석하였다.

2) 중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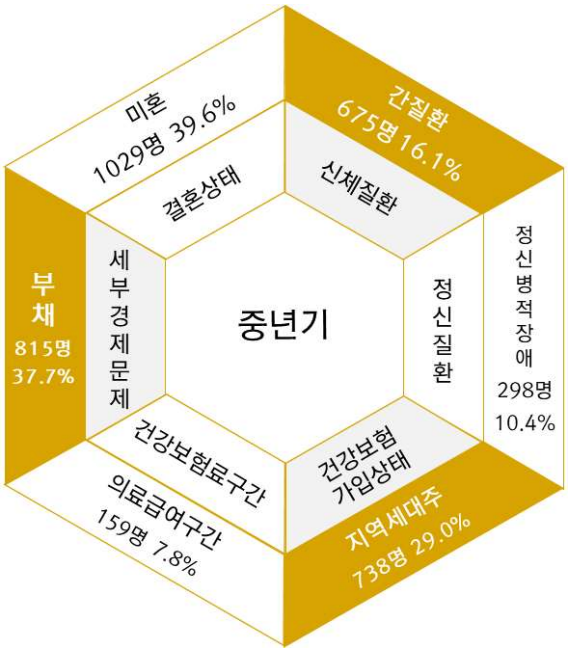
중년기	서울시 전체	
	신체질환	간질환
		2,690명 / 11.0%
	정신질환	정신병적장애
		821명 / 6.5%
	건강보험 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104명 / 20.7%
	건강보험료 구간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세부경제문제	부채
		1,951명 / 34.4%
	결혼상태	미혼
		3,237명 / 32.7%

그림72. 중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72에는 중년기 자살사망자의 신체질환, 정신질환,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세부경제문제, 결혼상태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중년기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신체질환과 가입자 상태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과거 간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가 16.1%로 서울시 전체(11.0%)에 비해 높았고,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지역세대주로 확인된 경우는 29.0%로 서울시 전체(20.7%)에 비해 높았다. 또한 사망 당시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경우가 37.7%로 서울시 전체(34.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이어 정신병적장애로 한 번이라도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10.4%로 서울시 전체(6.5%)에 비해 높았고, 사망 당시 미혼 상태였던 경우가 39.6%로 서울시 전체(3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료급여구간이었던 비율은 7.8%로 서울시 전체(7.8%)와 같게 나타났다.

83) 부록 3-6-3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중년기' 참고

6-4.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장년기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4장에서는 장년기(50~64세)의 자살사망자 2,605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연계자료의 특성 상 분석 요인에 따라 분석 대상자 총 수가 다를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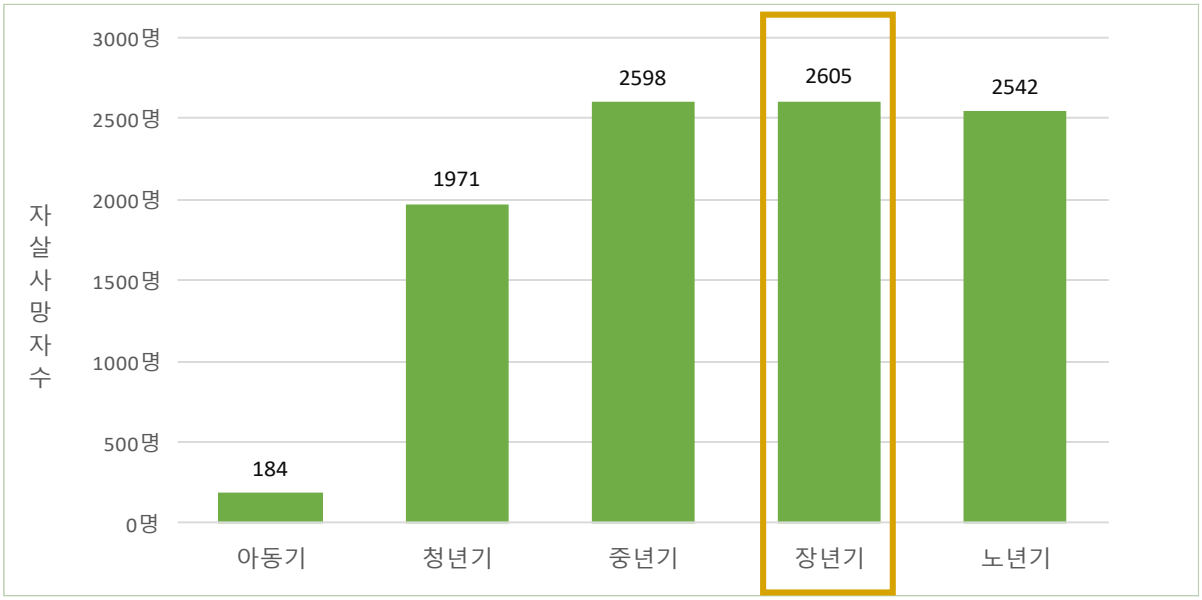


그림73.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 그림73은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를 생애주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 본 장에서는 생애주기 중 장년기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와 비교 제시하였다.

2) 장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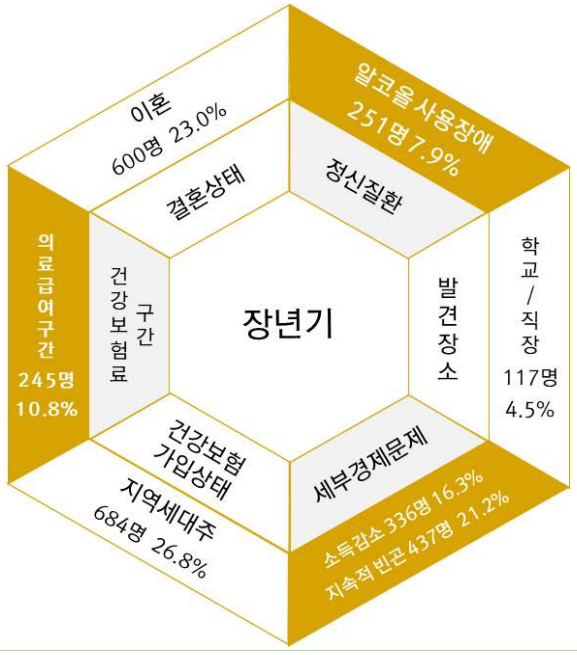
장년기	서울시 전체	
	정신질환	알코올 사용장애
		603명 / 4.8%
	발견장소	학교/직장
		286명 / 2.9%
	세부 경제문제	소득감소
		839명 / 14.8%
		지속적빈곤
		1,090명 / 19.2%
	건강보험 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104명 / 20.7%
	건강보험료 구간	의료급여구간
		751명 / 7.8%
	결혼상태	이혼
		1,287명 / 13.0%

그림74. 장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74에는 장년기 자살사망자의 정신질환, 발견장소, 세부경제문제, 건강보험가입상태, 건강보험료구간, 결혼상태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장년기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한 결과, 정신질환과 세부경제문제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알코올 사용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7.9%로 서울시 전체(4.8%)보다 높았고, 사망 당시 소득감소와 지속적 빈곤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가 각 16.3%, 21.2%로 서울시 전체(각 14.8%, 19.2%)보다 높았다. 의료급여구간에 해당하는 비율은 10.8%로 서울시 전체(7.8%)보다 높게 나타났다.

○ 이어 학교/직장에서 발견된 비율이 4.5%로 서울시 전체(2.9%)보다 높았고, 사망 당시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지역세대주로 확인된 경우가 26.8%로 서울시 전체(20.7%)보다 높았다. 또한 사망 당시 이혼 상태였던 비율은 23.0%로 서울시 전체(13.0%)보다 높았다.

84) 부록 3-6-4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장년기' 참고

6-5.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노년기

제4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분석'에서는, 제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그 특성을 제공한다. 각 대상자의 자살사망 발견장소, 자살방법, 정신질환, 신체질환, 건강보험료구간, 세부 경제문제를 비롯한 생애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상자의 자살사망에 관한 이해를 돕고, 다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5장에서는 노년기 자살사망자로 파악된 2,542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만, 연계자료의 특성 상 분석 요인에 따라 분석 대상자 총 수가 다를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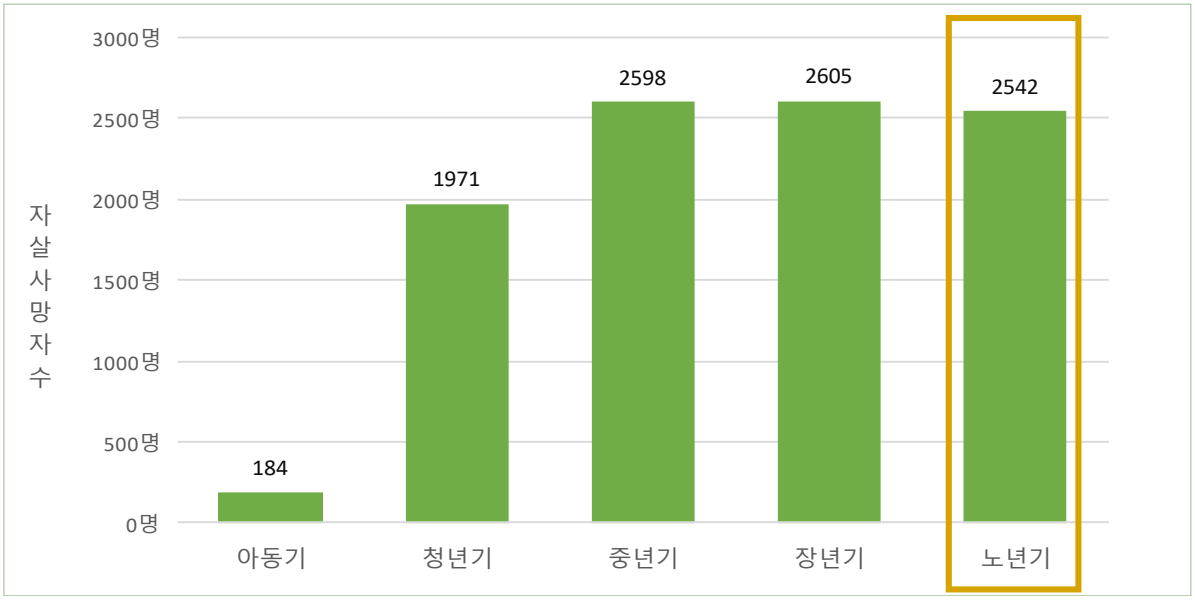


그림75.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 그림75는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 수를 생애주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 본 장에서는 생애주기 중 노년기 자살사망자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와 비교 제시하였다.

2) 노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85]

노년기	서울시 전체	
	발견장소	교외/야산
		268명 / 2.7%
		병원
		98명 / 1.0%
	세부 경제문제	지속적 빈곤
		1,090명 / 19.2%
	자살방법	농약음독
		173명 / 1.7%
	건강보험 가입상태	직장피부양자
		3,292명 / 33.8%
		의료급여세대주
		536명 / 5.5%
	정신질환	치매
		313명 / 2.5%
	신체질환	대뇌혈관질환
		1,180명 / 4.8%

그림76. 노년기 자살사망자의 요인별 수와 비율

본 장에서는 특정 대상자의 요인별 자살사망 현황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체와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자에 비해 특정 대상자 집단이 각 요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분포차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76에는 노년기 자살사망자의 발견장소, 세부경제문제, 자살방법, 건강보험가입상태, 정신질환, 신체질환에 대해 분석 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비율의 차이가 주목할만한 경우 음영 표시하였다.

○ 노년기 자살사망자를 서울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발견장소와 자살방법에서 주목할만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교외/야산과 병원 발견의 비율이 각 4.0%, 2.1%로 서울시 전체(각 2.7%, 1.0%)보다 높았고, 농약음독으로 사망한 비율은 4.4%로 서울시 전체(1.7%)보다 높았다. 아울러 정신질환 중 치매로 한 번이라도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가 서울시 전체는 2.5%인데 비해 노년기 자살사망자는 6.7%로 높게 나타났다.

○ 이어 사망 당시 지속적 빈곤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27.9%로 서울시 전체(19.2%)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상태가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로 확인된 경우는 각 56.8%, 8.0%로 서울시 전체(각 33.8%, 5.5%)에 비해 높았다. 또한 대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경우는 7.2%로 서울시 전체(4.8%)보다 높았다.

85) 부록 3-6-5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노년기' 참고

부 록

1장. 서울특별시 자살사망자 현황 분석

2장. 서울특별시 주제별 자살사망 분석

3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Contents

부록 목차

제1장. 서울특별시 자살사망자 현황 분석

1.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현황 및 추이 1

1)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1

2) 연도별/요인별 자살사망자 현황 2

3) 연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6

4) 5년간 구별 자살사망률 평균 8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10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10

2) 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12

3)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14

4)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16

5)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19

6) 발견장소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21

7) 생애주기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22

8) 생애주기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23

3.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현황 24

1) 구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수 24

2) 요인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 현황 세부 분석 26

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 28

제2장. 서울특별시 주제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 분석 31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31

2)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34

3) 건강보험료구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35

4)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 현황 38

5) 건강보험료분위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40

6) 건강보험료분위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현황 42

2. 건강보험료가입상태별 자살사망 분석 44

1)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44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45

3) 건강보험가입상태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49

4) 건강보험가입상태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51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53

1) 정신질환별 치료력과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과 증상 비교 53

2) 연도별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54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55

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58

5) 정신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62

6) 정신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65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68

1) 연도별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68

2)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69

3)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71

4) 신체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75

5) 신체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78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81
1) 연도별 서울시 등록장애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81
2)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82
3)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83
4) 장애종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88
5) 장애종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90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92
1) 한강변 익사자의 발견장소 분석 92
2) 한강변 익사자의 생애주기 현황 93
3) 한강변 익사자의 주원인 현황 94
4) 교량별/연도별 자살사망자 수 95
5) 교량별/월별 자살사망자 수 96
6) 교량별/성별 자살사망자 수 97
7) 교량별/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99
8)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101

제3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료구간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04
1) 의료급여수급권자 구간 107
2)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100
2. 생활상태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10
1) 실업자 110
2) 독거자 113
3.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16
1) 수면장애 116
2) 우울장애 118
3) 정신병적장애 120

4.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22**

1) 고혈압 122

2) 당뇨 124

3) 암 126

5.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28**

1) 지체장애 128

2) 정신장애 130

3) 호흡기장애 132

6.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34**

1) 아동기(아동·청소년) 134

2) 청년기 136

3) 중년기 139

4) 장년기 142

5) 노년기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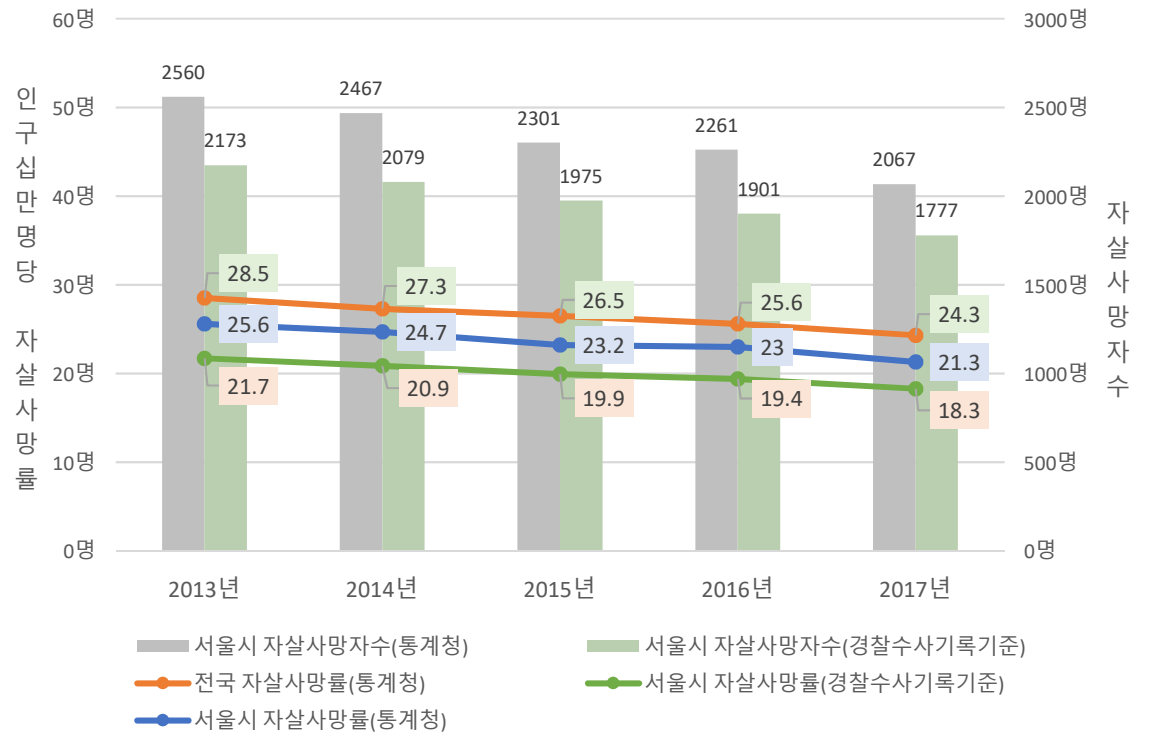
부록 1장. 서울특별시 자살사망자 현황 분석

1.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현황 및 추이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3.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현황

1.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현황 및 추이

1)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연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자살사망률(통계청)	28.5	27.3	26.5	25.6	24.3
서울시 자살사망률(통계청)	25.6	24.7	23.2	23	21.3
서울시 자살사망률(경찰수사기록기준)[1]	21.7	20.9	19.9	19.4	18.3
서울시 자살사망자수(통계청)	2,560	2,467	2,301	2,261	2,067
서울시 자살사망자수(경찰수사기록기준)[1]	2,173	2,079	1,975	1,901	1,777
① - ②[2]	387	388	326	360	290

※ 자살사망률은 인구십만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1)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2) 통계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사망자를 집계하고 본조사에서는 사망자 발견지 기준으로 집계함.

1. 서울시 전체 자살사망 현황 및 추이

2) 연도별/요인별 자살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살사망자		9,905 (100%)	2,173 (21.9%)	2,079 (21.0%)	1,975 (19.9%)	1,901 (19.2%)	1,777 (17.9%)
성별	남성	6,640 (100%)	1,443 (21.7%)	1,410 (21.2%)	1,298 (19.5%)	1,278 (19.2%)	1,211 (18.2%)
	여성	3263 (100%)	730 (22.4%)	668 (20.5%)	677 (20.7%)	622 (19.1%)	566 (17.3%)
	미상	2 (100%)	0 (0.0%)	1 (50.0%)	0 (0.0%)	1 (50.0%)	0 (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00%)	40 (21.7%)	35 (19.0%)	32 (17.4%)	35 (19.0%)	42 (22.8%)
	청년기	1,971 (100%)	459 (23.3%)	422 (21.4%)	365 (18.5%)	390 (19.8%)	335 (17.0%)
	중년기	2,598 (100%)	565 (21.7%)	557 (21.4%)	521 (20.1%)	465 (17.9%)	490 (18.9%)
	장년기	2,605 (100%)	574 (22.0%)	560 (21.5%)	495 (19.0%)	518 (19.9%)	458 (17.6%)
	노년기	2,542 (100%)	535 (21.0%)	502 (19.7%)	562 (22.1%)	492 (19.4%)	451 (17.7%)
	미상	5 (100%)	0 (0.0%)	3 (60.0%)	0 (0.0%)	1 (20.0%)	1 (20.0%)
발견장소	자택	5,865 (100%)	1,331 (22.7%)	1,277 (21.8%)	1,143 (19.5%)	1,097 (18.7%)	1,017 (17.3%)
	공공장소	2,756 (100%)	577 (20.9%)	549 (19.9%)	588 (21.3%)	532 (19.3%)	510 (18.5%)
	학교/직장	286 (100%)	64 (22.4%)	56 (19.6%)	42 (14.7%)	62 (21.7%)	62 (21.7%)
	숙박업소	411 (100%)	94 (22.9%)	80 (19.5%)	81 (19.7%)	83 (20.2%)	73 (17.8%)
	교외/야산	268 (100%)	39 (14.6%)	49 (18.3%)	53 (19.8%)	72 (26.9%)	55 (20.5%)
	병원	98 (100%)	20 (20.4%)	27 (27.6%)	19 (19.4%)	16 (16.3%)	16 (16.3%)
	친척집	88 (100%)	14 (15.9%)	17 (19.3%)	20 (22.7%)	13 (14.8%)	24 (27.3%)
	지인집	73 (100%)	16 (21.9%)	12 (16.4%)	17 (23.3%)	14 (19.2%)	14 (19.2%)
	기타	60 (100%)	18 (30.0%)	12 (20.0%)	12 (20.0%)	12 (20.0%)	6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100%)	1,249 (22.2%)	1,180 (21.0%)	1,089 (19.4%)	1,091 (19.4%)	1,011 (18.0%)
	가스중독	1,104 (100%)	228 (20.7%)	248 (22.5%)	251 (22.7%)	190 (17.2%)	187 (16.9%)
	농약음독	173 (100%)	40 (23.1%)	37 (21.4%)	31 (17.9%)	39 (22.5%)	26 (15.0%)
	투신	1,979 (100%)	435 (22.0%)	385 (19.5%)	415 (21.0%)	366 (18.5%)	378 (19.1%)
	약물음독	222 (100%)	54 (24.3%)	44 (19.8%)	39 (17.6%)	52 (23.4%)	33 (14.9%)
	익사	433 (100%)	93 (21.5%)	106 (24.5%)	84 (19.4%)	77 (17.8%)	73 (16.9%)
	상해	203 (100%)	45 (22.2%)	44 (21.7%)	32 (15.8%)	44 (21.7%)	38 (18.7%)
	기타	161 (100%)	25 (15.5%)	33 (20.5%)	32 (19.9%)	41 (25.5%)	30 (18.6%)
	미상	10 (100%)	4 (40.0%)	2 (20.0%)	2 (20.0%)	1 (10.0%)	1 (10.0%)
	직업문제	515 (100%)	109 (21.2%)	133 (25.8%)	76 (14.8%)	105 (20.4%)	92 (17.9%)
	경제문제	1,925 (100%)	439 (22.8%)	414 (21.5%)	360 (18.7%)	353 (18.3%)	359 (18.6%)
	가족관계	874 (100%)	212 (24.3%)	178 (20.4%)	180 (20.6%)	160 (18.3%)	144 (16.5%)

2) 연도별/요인별 자살사망자 현황(계속)

(단위 : 명)

구 분		총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주원인	대인관계	463 (100%)	100 (21.6%)	91 (19.7%)	96 (20.7%)	93 (20.1%)	83 (17.9%)
	신체건강	1,688 (100%)	349 (20.7%)	313 (18.5%)	389 (23.0%)	354 (21.0%)	283 (16.8%)
	정신건강	3,914 (100%)	855 (21.8%)	845 (21.6%)	774 (19.8%)	737 (18.8%)	703 (18.0%)
	기타	133 (100%)	22 (16.5%)	28 (21.1%)	22 (16.5%)	23 (17.3%)	38 (28.6%)
	미상	393 (100%)	87 (22.1%)	77 (19.6%)	78 (19.8%)	76 (19.3%)	75 (19.1%)
건강보험료분위	의료급여	751 (100%)	147 (19.6%)	151 (20.1%)	148 (19.7%)	152 (20.2%)	153 (20.4%)
	1분위	370 (100%)	74 (20.0%)	75 (20.3%)	98 (26.5%)	53 (14.3%)	70 (18.9%)
	2분위	412 (100%)	77 (18.7%)	78 (18.9%)	87 (21.1%)	84 (20.4%)	86 (20.9%)
	3분위	432 (100%)	101 (23.4%)	90 (20.8%)	84 (19.4%)	75 (17.4%)	82 (19.0%)
	4분위	471 (100%)	133 (28.2%)	89 (18.9%)	106 (22.5%)	82 (17.4%)	61 (13.0%)
	5분위	345 (100%)	93 (27.0%)	66 (19.1%)	40 (11.6%)	68 (19.7%)	78 (22.6%)
	6분위	546 (100%)	122 (22.3%)	121 (22.2%)	100 (18.3%)	119 (21.8%)	84 (15.4%)
	7분위	544 (100%)	107 (19.7%)	108 (19.9%)	120 (22.1%)	111 (20.4%)	98 (18.0%)
	8분위	460 (100%)	93 (20.2%)	111 (24.1%)	85 (18.5%)	89 (19.3%)	82 (17.8%)
	9분위	427 (100%)	85 (19.9%)	104 (24.4%)	78 (18.3%)	67 (15.7%)	93 (21.8%)
	10분위	376 (100%)	83 (22.1%)	70 (18.6%)	80 (21.3%)	73 (19.4%)	70 (18.6%)
	11분위	346 (100%)	74 (21.4%)	88 (25.4%)	55 (15.9%)	69 (19.9%)	60 (17.3%)
	12분위	398 (100%)	100 (25.1%)	72 (18.1%)	92 (23.1%)	73 (18.3%)	61 (15.3%)
	13분위	369 (100%)	72 (19.5%)	86 (23.3%)	69 (18.7%)	90 (24.4%)	52 (14.1%)
	14분위	392 (100%)	92 (23.5%)	83 (21.2%)	88 (22.4%)	71 (18.1%)	58 (14.8%)
	15분위	406 (100%)	90 (22.2%)	81 (20.0%)	78 (19.2%)	71 (17.5%)	86 (21.2%)
	16분위	443 (100%)	96 (21.7%)	84 (19.0%)	86 (19.4%)	90 (20.3%)	87 (19.6%)
	17분위	458 (100%)	99 (21.6%)	103 (22.5%)	100 (21.8%)	76 (16.6%)	80 (17.5%)
	18분위	511 (100%)	108 (21.1%)	102 (20.0%)	127 (24.9%)	94 (18.4%)	80 (15.7%)
	19분위	532 (100%)	123 (23.1%)	106 (19.9%)	93 (17.5%)	121 (22.7%)	89 (16.7%)
	20분위	690 (100%)	144 (20.9%)	159 (23.0%)	122 (17.7%)	132 (19.1%)	133 (19.3%)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100%)	459 (22.8%)	423 (21.0%)	373 (18.5%)	390 (19.4%)	369 (18.3%)
	지역 세대원	2,335 (100%)	536 (23.0%)	519 (22.2%)	465 (19.9%)	432 (18.5%)	383 (16.4%)
	직장 가입자	1,392 (100%)	293 (21.0%)	291 (20.9%)	255 (18.3%)	280 (20.1%)	268 (19.3%)
	직장 피부양자	3,292 (100%)	702 (21.3%)	664 (20.2%)	715 (21.7%)	624 (19.0%)	587 (17.8%)
	의료급여 세대주	536 (100%)	97 (18.1%)	114 (21.3%)	103 (19.2%)	111 (20.7%)	111 (20.7%)
	의료급여 세대원	121 (100%)	23 (19.0%)	19 (15.7%)	26 (21.5%)	27 (22.3%)	26 (21.5%)

2) 연도별/요인별 자살사망자 현황(계속)

(단위 : 명)

구 분		총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정신질환	치매	313 (100%)	59 (18.8%)	58 (18.5%)	72 (23.0%)	58 (18.5%)	66 (21.1%)
	알코올	603 (100%)	123 (20.4%)	126 (20.9%)	124 (20.6%)	108 (17.9%)	122 (20.2%)
	정신활성화 물질사용	224 (100%)	47 (21.0%)	41 (18.3%)	43 (19.2%)	53 (23.7%)	40 (17.9%)
	정신병적	821 (100%)	142 (17.3%)	166 (20.2%)	172 (21.0%)	182 (22.2%)	159 (19.4%)
	양극성	582 (100%)	129 (22.2%)	109 (18.7%)	120 (20.6%)	125 (21.5%)	99 (17.0%)
	우울	2,932 (100%)	596 (20.3%)	591 (20.2%)	598 (20.4%)	585 (20.0%)	562 (19.2%)
	불안	1,935 (100%)	396 (20.5%)	358 (18.5%)	424 (21.9%)	388 (20.1%)	369 (19.1%)
	신체형	1,677 (100%)	338 (20.2%)	316 (18.8%)	350 (20.9%)	358 (21.3%)	315 (18.8%)
	정신지연	32 (100%)	6 (18.8%)	9 (28.1%)	4 (12.5%)	8 (25.0%)	5 (15.6%)
	행태증후군	114 (100%)	20 (17.5%)	19 (16.7%)	22 (19.3%)	28 (24.6%)	25 (21.9%)
	수면	3,194 (100%)	604 (18.9%)	586 (18.3%)	639 (20.0%)	689 (21.6%)	676 (21.2%)
	성격	133 (100%)	27 (20.3%)	22 (16.5%)	32 (24.1%)	26 (19.5%)	26 (19.5%)
	발달	33 (100%)	8 (24.2%)	6 (18.2%)	5 (15.2%)	7 (21.2%)	7 (21.2%)
	아동청소년	144 (100%)	25 (17.4%)	31 (21.5%)	27 (18.8%)	27 (18.8%)	34 (23.6%)
	기타	286 (100%)	52 (18.2%)	43 (15.0%)	66 (23.1%)	59 (20.6%)	66 (23.1%)
	간질	249 (100%)	51 (20.5%)	64 (25.7%)	49 (19.7%)	49 (19.7%)	36 (14.5%)
신체질환	고혈압	3,225 (100%)	677 (21.0%)	666 (20.7%)	691 (21.4%)	618 (19.2%)	573 (17.8%)
	당뇨병	1,921 (100%)	401 (20.9%)	396 (20.6%)	420 (21.9%)	357 (18.6%)	347 (18.1%)
	대뇌혈관질환	1,180 (100%)	247 (20.9%)	237 (20.1%)	250 (21.2%)	239 (20.3%)	207 (17.5%)
	호흡기결핵	344 (100%)	77 (22.4%)	68 (19.8%)	76 (22.1%)	64 (18.6%)	59 (17.2%)
	갑상선	1,387 (100%)	246 (17.7%)	290 (20.9%)	296 (21.3%)	283 (20.4%)	272 (19.6%)
	심장	2,569 (100%)	501 (19.5%)	507 (19.7%)	532 (20.7%)	518 (20.2%)	511 (19.9%)
	만성신부전증	183 (100%)	31 (16.9%)	36 (19.7%)	34 (18.6%)	39 (21.3%)	43 (23.5%)
	신경계	5,417 (100%)	1,059 (19.5%)	1,022 (18.9%)	1,083 (20.0%)	1,170 (21.6%)	1,083 (20.0%)
	관절염	4,000 (100%)	821 (20.5%)	761 (19.0%)	859 (21.5%)	784 (19.6%)	775 (19.4%)
	간	2,690 (100%)	528 (19.6%)	546 (20.3%)	540 (20.1%)	546 (20.3%)	530 (19.7%)
	암	2,125 (100%)	471 (22.2%)	444 (20.9%)	447 (21.0%)	405 (19.1%)	358 (16.8%)
	비장애	8,573 (100%)	1,892 (22.1%)	1,794 (20.9%)	1,711 (20.0%)	1,627 (19.0%)	1,549 (18.1%)
	지체	511 (100%)	111 (21.7%)	109 (21.3%)	102 (20.0%)	102 (20.0%)	87 (17.0%)
	뇌병변	108 (100%)	27 (25.0%)	26 (24.1%)	17 (15.7%)	23 (21.3%)	15 (13.9%)
	시각	109 (100%)	27 (24.8%)	18 (16.5%)	23 (21.1%)	21 (19.3%)	20 (18.3%)
	청각	126 (100%)	24 (19.0%)	19 (15.1%)	25 (19.8%)	32 (25.4%)	26 (20.6%)

2) 연도별/요인별 자살사망자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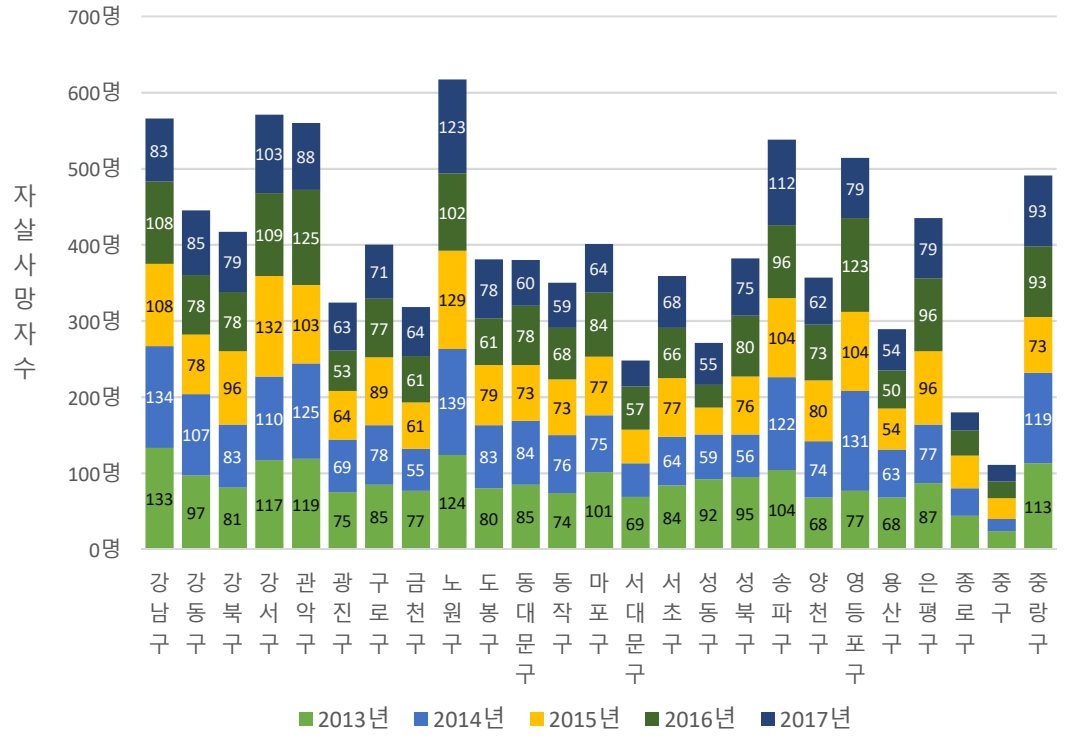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총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장애종류	언어	11 (100%)	2 (18.2%)	4 (36.4%)	1 (9.1%)	3 (27.3%)	1 (9.1%)
	지적	29 (100%)	7 (24.1%)	7 (24.1%)	4 (13.8%)	7 (24.1%)	4 (13.8%)
	자폐	2 (100%)	- -	- -	1 (50.0%)	1 (50.0%)	- -
	정신	159 (100%)	22 (13.8%)	36 (22.6%)	34 (21.4%)	37 (23.3%)	30 (18.9%)
	신장	39 (100%)	7 (17.9%)	7 (17.9%)	10 (25.6%)	8 (20.5%)	7 (17.9%)
	심장	4 (100%)	- -	1 (25.0%)	3 (75.0%)	- -	- -
	호흡기	22 (100%)	3 (13.6%)	6 (27.3%)	6 (27.3%)	2 (9.1%)	5 (22.7%)
	간	4 (100%)	1 (25.0%)	1 (25.0%)	1 (25.0%)	1 (25.0%)	- -
	안면	1 (100%)	1 (100.0%)	- -	- -	- -	- -
	장루요루	21 (100%)	4 (19.0%)	7 (33.3%)	4 (19.0%)	4 (19.0%)	2 (9.5%)
	간질	7 (100%)	2 (28.6%)	3 (42.9%)	1 (14.3%)	1 (14.3%)	0 (0.0%)

1.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현황 및 추이

3) 연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연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계
서울시	2,173	2,079	1,975	1,901	1,777	9,905
강남구	133	134	108	108	83	566
강동구	97	107	78	78	85	445
강북구	81	83	96	78	79	417
강서구	117	110	132	109	103	571
관악구	119	125	103	125	88	560
광진구	75	69	64	53	63	324
구로구	85	78	89	77	71	400
금천구	77	55	61	61	64	318
노원구	124	139	129	102	123	617
도봉구	80	83	79	61	78	381
동대문구	85	84	73	78	60	380
동작구	74	76	73	68	59	350
마포구	101	75	77	84	64	401

3) 연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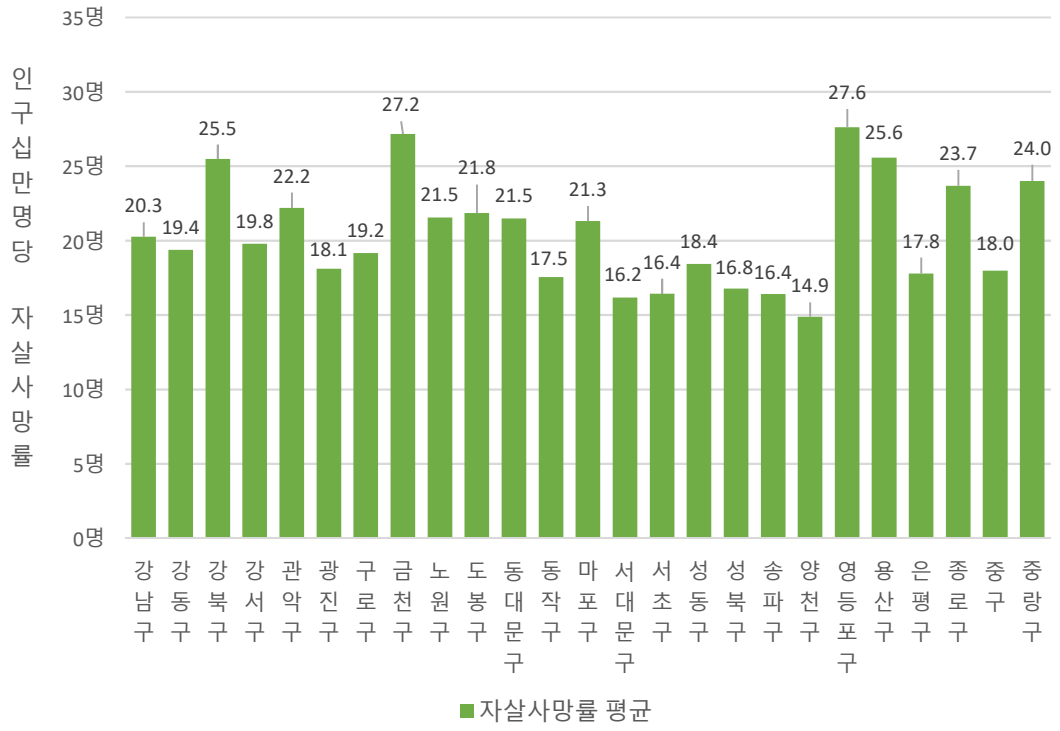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계
서대문구	69	44	44	57	34	248
서초구	84	64	77	66	68	359
성동구	92	59	35	30	55	271
성북구	95	56	76	80	75	382
송파구	104	122	104	96	112	538
양천구	68	74	80	73	62	357
영등포구	77	131	104	123	79	514
용산구	68	63	54	50	54	289
은평구	87	77	96	96	79	435
종로구	44	36	43	33	24	180
중구	24	16	27	22	22	111
중랑구	113	119	73	93	93	491

1. 서울특별시 전체 자살사망자의 현황 및 추이

4) 5년간 구별 자살사망률 평균

5년간 구별 자살사망률 평균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살사망률 평균
서울특별시	21.7	20.9	19.9	19.4	18.3	20.0
강남구	24.0	23.9	19.0	19.3	15.1	20.3
강동구	20.2	22.6	16.9	17.5	19.6	19.4
강북구	24.2	25.1	29.3	24.1	24.7	25.5
강서구	20.8	19.3	22.7	18.6	17.4	19.8
관악구	23.2	24.6	20.4	25.0	17.7	22.2
광진구	20.6	19.1	17.9	15.0	17.9	18.1
구로구	20.1	18.5	21.2	18.5	17.3	19.2
금천구	32.4	23.3	26.1	26.3	27.7	27.2
노원구	21.1	23.9	22.5	18.0	22.2	21.5
도봉구	22.5	23.6	22.7	17.7	22.8	21.8
동대문구	23.8	23.5	20.5	22.2	17.3	21.5
동작구	18.4	18.8	18.3	17.2	15.0	17.5
마포구	26.8	19.9	20.3	22.3	17.3	21.3

4) 5년간 구별 자살사망률 평균(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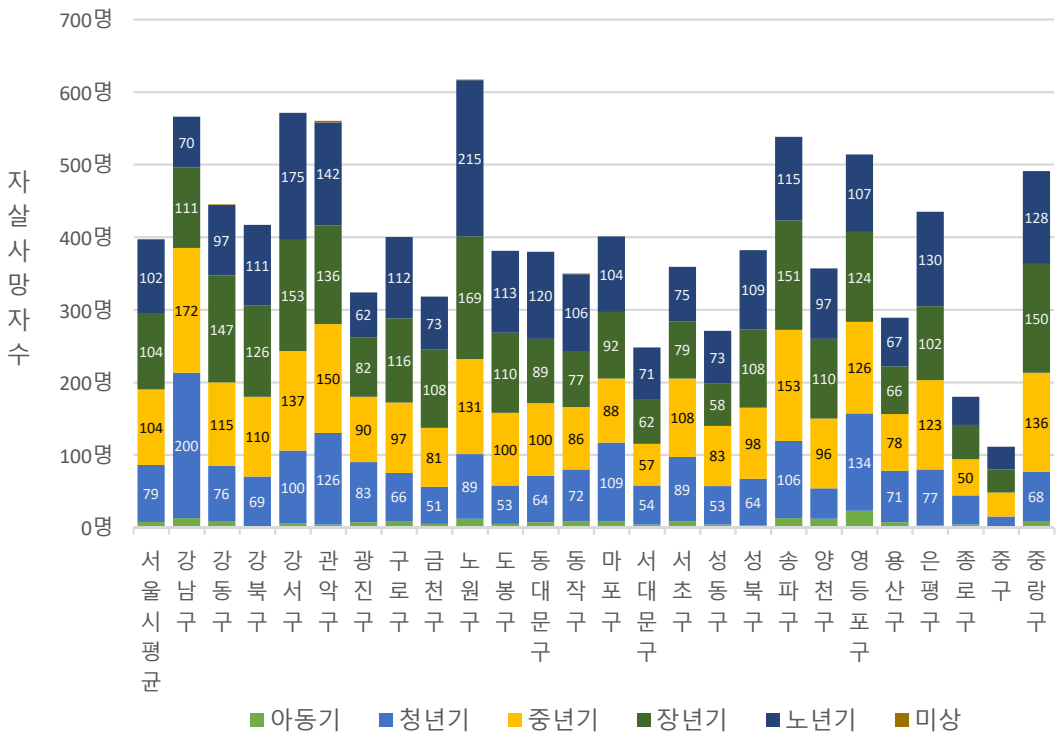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살사망률 평균
서대문구	22.4	14.4	14.4	18.6	11.1	16.2
서초구	19.5	14.6	17.4	15.0	15.6	16.4
성동구	31.2	20.2	12.0	10.2	18.5	18.4
성북구	20.1	12.1	16.7	17.9	17.1	16.8
송파구	15.7	18.5	15.9	14.8	17.2	16.4
양천구	13.9	15.3	16.7	15.3	13.2	14.9
영등포구	20.2	34.7	27.9	33.5	21.8	27.6
용산구	29.2	27.5	24.0	22.5	24.6	25.6
은평구	17.6	15.6	19.6	19.7	16.4	17.8
종로구	27.9	23.5	28.5	22.2	16.2	23.7
중구	18.8	12.8	22.0	18.2	18.2	18.0
중랑구	27.4	28.9	17.8	22.9	23.0	24.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미상	총합계
서울시 평균	7 (1.9%)	79 (19.9%)	104 (26.2%)	104 (26.3%)	102 (25.7%)	1 (0.3%)	396 (100%)
강남구	13 (2.3%)	200 (35.3%)	172 (30.4%)	111 (19.6%)	70 (12.4%)	0 (0.0%)	566 (100%)
강동구	9 (2.0%)	76 (17.1%)	115 (25.8%)	147 (33.0%)	97 (21.8%)	1 (0.2%)	445 (100%)
강북구	1 (0.2%)	69 (16.5%)	110 (26.4%)	126 (30.2%)	111 (26.6%)	0 (0.0%)	417 (100%)
강서구	6 (1.1%)	100 (17.5%)	137 (24.0%)	153 (26.8%)	175 (30.6%)	0 (0.0%)	571 (100%)
관악구	4 (0.7%)	126 (22.5%)	150 (26.8%)	136 (24.3%)	142 (25.4%)	2 (0.4%)	560 (100%)
광진구	7 (2.2%)	83 (25.6%)	90 (27.8%)	82 (25.3%)	62 (19.1%)	0 (0.0%)	324 (100%)
구로구	9 (2.3%)	66 (16.5%)	97 (24.3%)	116 (29.0%)	112 (28.0%)	0 (0.0%)	400 (100%)
금천구	5 (1.6%)	51 (16.0%)	81 (25.5%)	108 (34.0%)	73 (23.0%)	0 (0.0%)	31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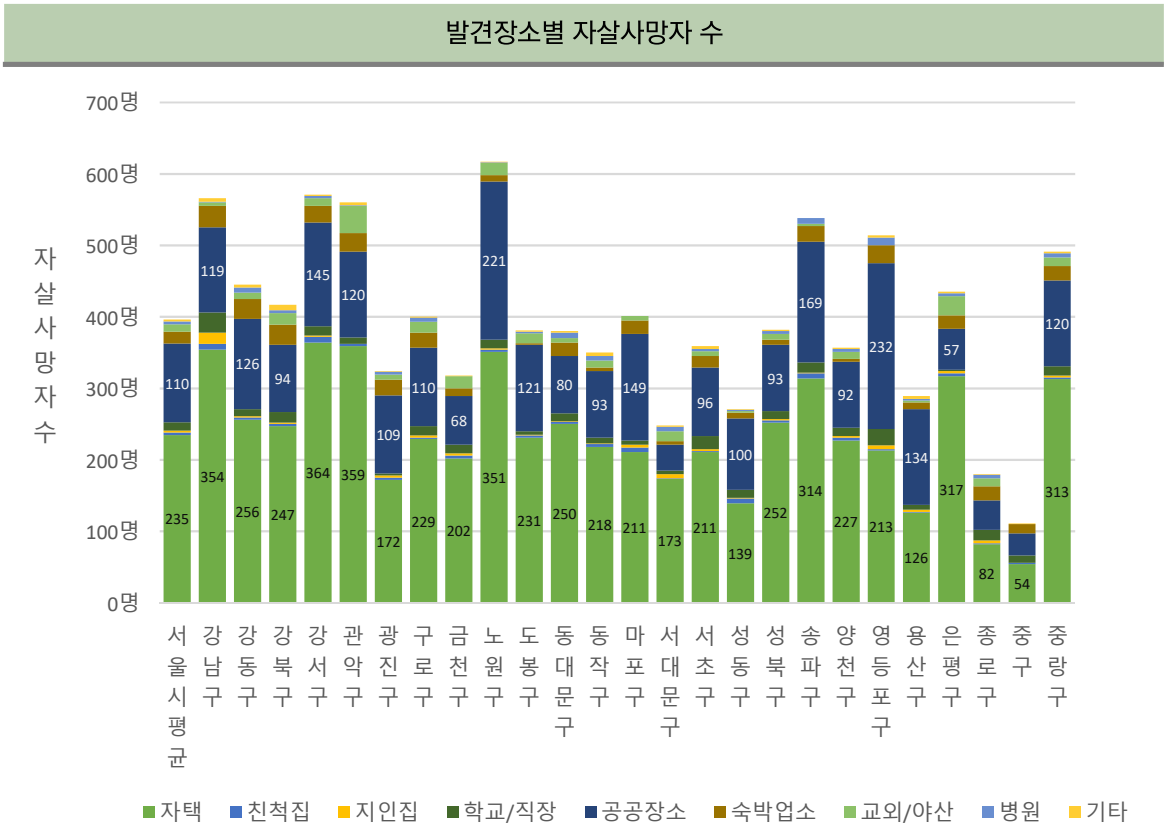
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미상	총합계
노원구	12 (1.9%)	89 (14.4%)	131 (21.2%)	169 (27.4%)	215 (34.8%)	1 (0.2%)	617 (100%)
도봉구	5 (1.3%)	53 (13.9%)	100 (26.2%)	110 (28.9%)	113 (29.7%)	0 (0.0%)	381 (100%)
동대문구	7 (1.8%)	64 (16.8%)	100 (26.3%)	89 (23.4%)	120 (31.6%)	0 (0.0%)	380 (100%)
동작구	8 (2.3%)	72 (20.6%)	86 (24.6%)	77 (22.0%)	106 (30.3%)	1 (0.3%)	350 (100%)
마포구	8 (2.0%)	109 (27.2%)	88 (21.9%)	92 (22.9%)	104 (25.9%)	0 (0.0%)	401 (100%)
서대문구	4 (1.6%)	54 (21.8%)	57 (23.0%)	62 (25.0%)	71 (28.6%)	0 (0.0%)	248 (100%)
서초구	8 (2.2%)	89 (24.8%)	108 (30.1%)	79 (22.0%)	75 (20.9%)	0 (0.0%)	359 (100%)
성동구	4 (1.5%)	53 (19.6%)	83 (30.6%)	58 (21.4%)	73 (26.9%)	0 (0.0%)	271 (100%)
성북구	3 (0.8%)	64 (16.8%)	98 (25.7%)	108 (28.3%)	109 (28.5%)	0 (0.0%)	382 (100%)
송파구	13 (2.4%)	106 (19.7%)	153 (28.4%)	151 (28.1%)	115 (21.4%)	0 (0.0%)	538 (100%)
양천구	12 (3.4%)	42 (11.8%)	96 (26.9%)	110 (30.8%)	97 (27.2%)	0 (0.0%)	357 (100%)
영등포구	23 (4.5%)	134 (26.1%)	126 (24.5%)	124 (24.1%)	107 (20.8%)	0 (0.0%)	514 (100%)
용산구	7 (2.4%)	71 (24.6%)	78 (27.0%)	66 (22.8%)	67 (23.2%)	0 (0.0%)	289 (100%)
은평구	3 (0.7%)	77 (17.7%)	123 (28.3%)	102 (23.4%)	130 (29.9%)	0 (0.0%)	435 (100%)
종로구	4 (2.2%)	40 (22.2%)	50 (27.8%)	47 (26.1%)	39 (21.7%)	0 (0.0%)	180 (100%)
중구	0 (0.0%)	15 (13.5%)	33 (29.7%)	32 (28.8%)	31 (27.9%)	0 (0.0%)	111 (100%)
중랑구	9 (1.8%)	68 (13.8%)	136 (27.7%)	150 (30.5%)	128 (26.1%)	0 (0.0%)	491 (100%)
서울시 합계	184 (1.9%)	1,971 (19.9%)	2,598 (26.2%)	2,605 (26.3%)	2,542 (25.7%)	5 (0.1%)	9,905 (10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2) 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자택	친척집	지인집	학교/직장	공공장소	숙박업소	교외/야산	병원	기타	총합계
서울시 평균	235 (59.2%)	4 (0.9%)	3 (0.7%)	11 (2.9%)	110 (27.8%)	16 (4.1%)	11 (2.7%)	4 (1.0%)	2 (0.6%)	396 (100%)
강남구	354 (62.5%)	8 (1.4%)	16 (2.8%)	28 (4.9%)	119 (21.0%)	30 (5.3%)	5 (0.9%)	1 (0.2%)	5 (0.9%)	566 (100%)
강동구	256 (57.5%)	3 (0.7%)	2 (0.4%)	10 (2.2%)	126 (28.3%)	28 (6.3%)	9 (2.0%)	7 (1.6%)	4 (0.9%)	445 (100%)
강북구	247 (59.2%)	3 (0.7%)	2 (0.5%)	15 (3.6%)	94 (22.5%)	28 (6.7%)	16 (3.8%)	4 (1.0%)	8 (1.9%)	417 (100%)
강서구	364 (63.7%)	8 (1.4%)	2 (0.4%)	13 (2.3%)	145 (25.4%)	23 (4.0%)	11 (1.9%)	3 (0.5%)	2 (0.4%)	571 (100%)
관악구	359 (64.1%)	3 (0.5%)	0 (0.0%)	9 (1.6%)	120 (21.4%)	26 (4.6%)	38 (6.8%)	1 (0.2%)	4 (0.7%)	560 (100%)
광진구	172 (53.1%)	3 (0.9%)	3 (0.9%)	3 (0.9%)	109 (33.6%)	22 (6.8%)	7 (2.2%)	4 (1.2%)	1 (0.3%)	324 (100%)
구로구	229 (57.3%)	2 (0.5%)	3 (0.8%)	13 (3.3%)	110 (27.5%)	21 (5.3%)	15 (3.8%)	6 (1.5%)	1 (0.3%)	400 (100%)
금천구	202 (63.5%)	4 (1.3%)	3 (0.9%)	12 (3.8%)	68 (21.4%)	11 (3.5%)	17 (5.3%)	0 (0.0%)	1 (0.3%)	318 (100%)

2) 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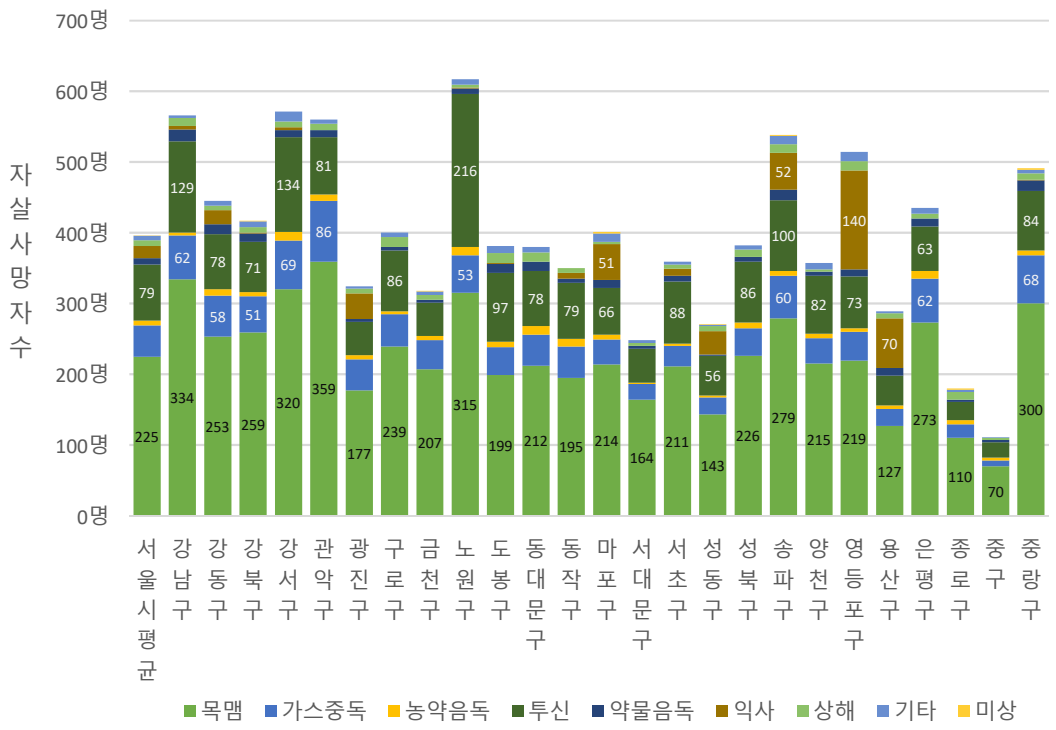
(단위 : 명)

	자택	친척집	지인집	학교/직장	공공장소	숙박업소	교외/야산	병원	기타	총합계
노원구	351 (56.9%)	3 (0.5%)	2 (0.3%)	12 (1.9%)	221 (35.8%)	9 (1.5%)	17 (2.8%)	1 (0.2%)	1 (0.2%)	617 (100%)
도봉구	231 (60.6%)	3 (0.8%)	1 (0.3%)	5 (1.3%)	121 (31.8%)	2 (0.5%)	14 (3.7%)	2 (0.5%)	2 (0.5%)	381 (100%)
동대문구	250 (65.8%)	3 (0.8%)	1 (0.3%)	11 (2.9%)	80 (21.1%)	19 (5.0%)	6 (1.6%)	8 (2.1%)	2 (0.5%)	380 (100%)
동작구	218 (62.3%)	4 (1.1%)	1 (0.3%)	8 (2.3%)	93 (26.6%)	5 (1.4%)	10 (2.9%)	6 (1.7%)	5 (1.4%)	350 (100%)
마포구	211 (52.6%)	6 (1.5%)	4 (1.0%)	6 (1.5%)	149 (37.2%)	19 (4.7%)	6 (1.5%)	0 (0.0%)	0 (0.0%)	401 (100%)
서대문구	173 (69.8%)	1 (0.4%)	6 (2.4%)	5 (2.0%)	36 (14.5%)	5 (2.0%)	14 (5.6%)	6 (2.4%)	2 (0.8%)	248 (100%)
서초구	211 (58.8%)	1 (0.3%)	3 (0.8%)	18 (5.0%)	96 (26.7%)	16 (4.5%)	7 (1.9%)	3 (0.8%)	4 (1.1%)	359 (100%)
성동구	139 (51.3%)	7 (2.6%)	1 (0.4%)	11 (4.1%)	100 (36.9%)	8 (3.0%)	2 (0.7%)	2 (0.7%)	1 (0.4%)	271 (100%)
성북구	252 (66.0%)	3 (0.8%)	2 (0.5%)	11 (2.9%)	93 (24.3%)	7 (1.8%)	8 (2.1%)	4 (1.0%)	2 (0.5%)	382 (100%)
송파구	314 (58.4%)	7 (1.3%)	1 (0.2%)	14 (2.6%)	169 (31.4%)	22 (4.1%)	3 (0.6%)	8 (1.5%)	0 (0.0%)	538 (100%)
양천구	227 (63.6%)	4 (1.1%)	2 (0.6%)	12 (3.4%)	92 (25.8%)	4 (1.1%)	10 (2.8%)	4 (1.1%)	2 (0.6%)	357 (100%)
영등포구	213 (41.4%)	2 (0.4%)	5 (1.0%)	23 (4.5%)	232 (45.1%)	25 (4.9%)	0 (0.0%)	11 (2.1%)	3 (0.6%)	514 (100%)
용산구	126 (43.6%)	1 (0.3%)	3 (1.0%)	7 (2.4%)	134 (46.4%)	9 (3.1%)	3 (1.0%)	2 (0.7%)	4 (1.4%)	289 (100%)
은평구	317 (72.9%)	4 (0.9%)	3 (0.7%)	2 (0.5%)	57 (13.1%)	19 (4.4%)	27 (6.2%)	4 (0.9%)	2 (0.5%)	435 (100%)
종로구	82 (45.6%)	1 (0.6%)	4 (2.2%)	15 (8.3%)	41 (22.8%)	20 (11.1%)	11 (6.1%)	5 (2.8%)	1 (0.6%)	180 (100%)
중구	54 (48.6%)	2 (1.8%)	0 (0.0%)	10 (9.0%)	31 (27.9%)	13 (11.7%)	0 (0.0%)	0 (0.0%)	1 (0.9%)	111 (100%)
중랑구	313 (63.7%)	2 (0.4%)	3 (0.6%)	13 (2.6%)	120 (24.4%)	20 (4.1%)	12 (2.4%)	6 (1.2%)	2 (0.4%)	491 (100%)
서울시 합계	5,865 (59.2%)	88 (0.9%)	73 (0.7%)	286 (2.9%)	2,756 (27.8%)	411 (4.1%)	268 (2.7%)	98 (1.0%)	60 (0.6%)	9,905 (10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3)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목맴	가스중독	농약음독	투신	약물음독	익사	상해	기타	미상	총합계
서울시 평균	225 (56.7%)	44 (11.2%)	7 (1.7%)	79 (20.0%)	9 (2.2%)	17 (4.4%)	8 (2.0%)	6 (1.6%)	0 (0.1%)	396 (100%)
강남구	334 (59.0%)	62 (11.0%)	4 (0.7%)	129 (22.8%)	17 (3.0%)	5 (0.9%)	11 (1.9%)	4 (0.7%)	0 (0.0%)	566 (100%)
강동구	253 (56.9%)	58 (13.0%)	9 (2.0%)	78 (17.5%)	14 (3.1%)	20 (4.5%)	6 (1.3%)	7 (1.6%)	0 (0.0%)	445 (100%)
강북구	259 (62.1%)	51 (12.2%)	6 (1.4%)	71 (17.0%)	12 (2.9%)	1 (0.2%)	8 (1.9%)	8 (1.9%)	1 (0.2%)	417 (100%)
강서구	320 (56.0%)	69 (12.1%)	12 (2.1%)	134 (23.5%)	10 (1.8%)	4 (0.7%)	8 (1.4%)	14 (2.5%)	0 (0.0%)	571 (100%)
관악구	359 (64.1%)	86 (15.4%)	9 (1.6%)	81 (14.5%)	10 (1.8%)	0 (0.0%)	9 (1.6%)	6 (1.1%)	0 (0.0%)	560 (100%)
광진구	177 (54.6%)	44 (13.6%)	6 (1.9%)	47 (14.5%)	4 (1.2%)	36 (11.1%)	7 (2.2%)	3 (0.9%)	0 (0.0%)	324 (100%)
구로구	239 (59.8%)	46 (11.5%)	4 (1.0%)	86 (21.5%)	5 (1.3%)	0 (0.0%)	14 (3.5%)	6 (1.5%)	0 (0.0%)	400 (100%)
금천구	207 (65.1%)	41 (12.9%)	6 (1.9%)	47 (14.8%)	4 (1.3%)	0 (0.0%)	7 (2.2%)	5 (1.6%)	1 (0.3%)	318 (100%)

3) 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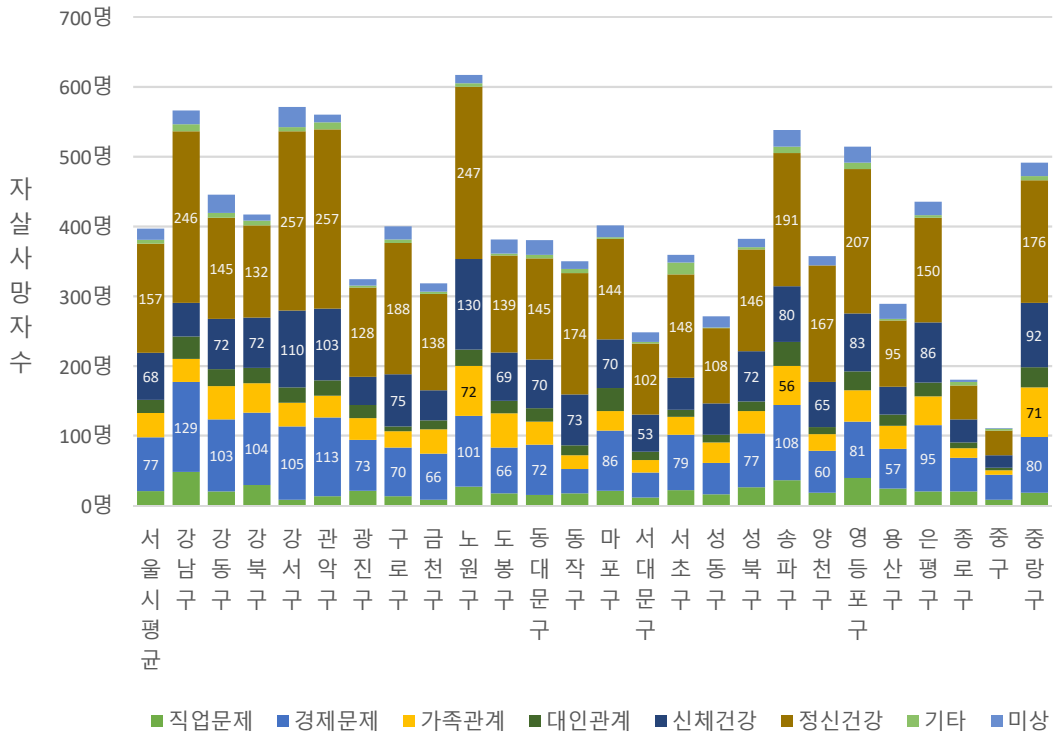
(단위 : 명)

	목맴	가스중독	농약음독	투신	약물음독	익사	상해	기타	미상	총합계
노원구	315 (51.1%)	53 (8.6%)	12 (1.9%)	216 (35.0%)	8 (1.3%)	1 (0.2%)	4 (0.6%)	8 (1.3%)	0 (0.0%)	617 (100%)
도봉구	199 (52.2%)	39 (10.2%)	8 (2.1%)	97 (25.5%)	13 (3.4%)	1 (0.3%)	14 (3.7%)	10 (2.6%)	0 (0.0%)	381 (100%)
동대문구	212 (55.8%)	44 (11.6%)	12 (3.2%)	78 (20.5%)	13 (3.4%)	0 (0.0%)	13 (3.4%)	8 (2.1%)	0 (0.0%)	380 (100%)
동작구	195 (55.7%)	44 (12.6%)	11 (3.1%)	79 (22.6%)	6 (1.7%)	8 (2.3%)	7 (2.0%)	0 (0.0%)	0 (0.0%)	350 (100%)
마포구	214 (53.4%)	35 (8.7%)	7 (1.7%)	66 (16.5%)	11 (2.7%)	51 (12.7%)	3 (0.7%)	12 (3.0%)	2 (0.5%)	401 (100%)
서대문구	164 (66.1%)	22 (8.9%)	2 (0.8%)	48 (19.4%)	4 (1.6%)	0 (0.0%)	4 (1.6%)	4 (1.6%)	0 (0.0%)	248 (100%)
서초구	211 (58.8%)	29 (8.1%)	3 (0.8%)	88 (24.5%)	8 (2.2%)	10 (2.8%)	6 (1.7%)	4 (1.1%)	0 (0.0%)	359 (100%)
성동구	143 (52.8%)	24 (8.9%)	3 (1.1%)	56 (20.7%)	2 (0.7%)	33 (12.2%)	7 (2.6%)	2 (0.7%)	1 (0.4%)	271 (100%)
성북구	226 (59.2%)	39 (10.2%)	8 (2.1%)	86 (22.5%)	7 (1.8%)	0 (0.0%)	10 (2.6%)	6 (1.6%)	0 (0.0%)	382 (100%)
송파구	279 (51.9%)	60 (11.2%)	7 (1.3%)	100 (18.6%)	15 (2.8%)	52 (9.7%)	12 (2.2%)	12 (2.2%)	1 (0.2%)	538 (100%)
양천구	215 (60.2%)	36 (10.1%)	6 (1.7%)	82 (23.0%)	6 (1.7%)	0 (0.0%)	3 (0.8%)	9 (2.5%)	0 (0.0%)	357 (100%)
영등포구	219 (42.6%)	41 (8.0%)	5 (1.0%)	73 (14.2%)	10 (1.9%)	140 (27.2%)	13 (2.5%)	13 (2.5%)	0 (0.0%)	514 (100%)
용산구	127 (43.9%)	24 (8.3%)	5 (1.7%)	42 (14.5%)	11 (3.8%)	70 (24.2%)	7 (2.4%)	3 (1.0%)	0 (0.0%)	289 (100%)
은평구	273 (62.8%)	62 (14.3%)	11 (2.5%)	63 (14.5%)	11 (2.5%)	0 (0.0%)	7 (1.6%)	8 (1.8%)	0 (0.0%)	435 (100%)
종로구	110 (61.1%)	19 (10.6%)	6 (3.3%)	26 (14.4%)	3 (1.7%)	0 (0.0%)	11 (6.1%)	3 (1.7%)	2 (1.1%)	180 (100%)
중구	70 (63.1%)	8 (7.2%)	4 (3.6%)	22 (19.8%)	3 (2.7%)	0 (0.0%)	3 (2.7%)	1 (0.9%)	0 (0.0%)	111 (100%)
중랑구	300 (61.1%)	68 (13.8%)	7 (1.4%)	84 (17.1%)	15 (3.1%)	1 (0.2%)	9 (1.8%)	5 (1.0%)	2 (0.4%)	491 (100%)
서울시 합계	5,620 (56.7%)	1,104 (11.1%)	173 (1.7%)	1,979 (20.0%)	222 (2.2%)	433 (4.4%)	203 (2.0%)	161 (1.6%)	10 (0.1%)	9,905 (10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4)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4)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직업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	대인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	기타	미상	총합계
서울시평균	21 (5.2%)	77 (19.4%)	35 (8.8%)	19 (4.7%)	68 (17.0%)	157 (39.5%)	6 (1.4%)	16 (4.0%)	396 (100%)
강남구	48 (8.5%)	129 (22.8%)	33 (5.8%)	32 (5.7%)	48 (8.5%)	246 (43.5%)	10 (1.8%)	20 (3.5%)	566 (100%)
강동구	20 (4.5%)	103 (23.1%)	48 (10.8%)	24 (5.4%)	72 (16.2%)	145 (32.6%)	7 (1.6%)	26 (5.8%)	445 (100%)
강북구	29 (7.0%)	104 (24.9%)	42 (10.1%)	22 (5.3%)	72 (17.3%)	132 (31.7%)	7 (1.7%)	9 (2.2%)	417 (100%)
강서구	8 (1.4%)	105 (18.4%)	34 (6.0%)	22 (3.9%)	110 (19.3%)	257 (45.0%)	6 (1.1%)	29 (5.1%)	571 (100%)
관악구	13 (2.3%)	113 (20.2%)	31 (5.5%)	22 (3.9%)	103 (18.4%)	257 (45.9%)	10 (1.8%)	11 (2.0%)	560 (100%)
광진구	21 (6.5%)	73 (22.5%)	31 (9.6%)	19 (5.9%)	40 (12.3%)	128 (39.5%)	3 (0.9%)	9 (2.8%)	324 (100%)
구로구	13 (3.3%)	70 (17.5%)	23 (5.8%)	7 (1.8%)	75 (18.8%)	188 (47.0%)	5 (1.3%)	19 (4.8%)	400 (100%)
금천구	8 (2.5%)	66 (20.8%)	35 (11.0%)	13 (4.1%)	43 (13.5%)	138 (43.4%)	3 (0.9%)	12 (3.8%)	318 (100%)
노원구	27 (4.4%)	101 (16.4%)	72 (11.7%)	23 (3.7%)	130 (21.1%)	247 (40.0%)	5 (0.8%)	12 (1.9%)	617 (100%)
도봉구	17 (4.5%)	66 (17.3%)	49 (12.9%)	18 (4.7%)	69 (18.1%)	139 (36.5%)	3 (0.8%)	20 (5.2%)	381 (100%)
동대문구	15 (3.9%)	72 (18.9%)	33 (8.7%)	19 (5.0%)	70 (18.4%)	145 (38.2%)	5 (1.3%)	21 (5.5%)	380 (100%)
동작구	17 (4.9%)	35 (10.0%)	20 (5.7%)	14 (4.0%)	73 (20.9%)	174 (49.7%)	6 (1.7%)	11 (3.1%)	350 (100%)
마포구	21 (5.2%)	86 (21.4%)	28 (7.0%)	33 (8.2%)	70 (17.5%)	144 (35.9%)	2 (0.5%)	17 (4.2%)	401 (100%)
서대문구	11 (4.4%)	36 (14.5%)	18 (7.3%)	12 (4.8%)	53 (21.4%)	102 (41.1%)	2 (0.8%)	14 (5.6%)	248 (100%)
서초구	22 (6.1%)	79 (22.0%)	26 (7.2%)	10 (2.8%)	46 (12.8%)	148 (41.2%)	17 (4.7%)	11 (3.1%)	359 (100%)
성동구	16 (5.9%)	45 (16.6%)	29 (10.7%)	11 (4.1%)	45 (16.6%)	108 (39.9%)	1 (0.4%)	16 (5.9%)	271 (100%)
성북구	26 (6.8%)	77 (20.2%)	32 (8.4%)	14 (3.7%)	72 (18.8%)	146 (38.2%)	3 (0.8%)	12 (3.1%)	382 (100%)

4) 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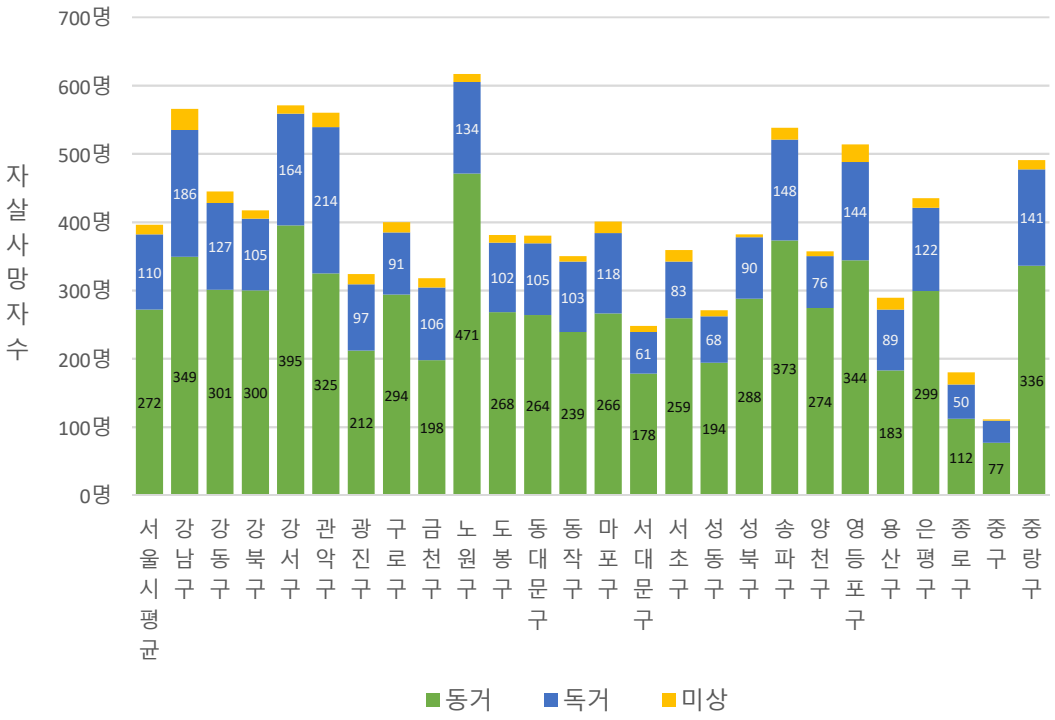
(단위 : 명)

	직업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	대인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	기타	미상	총합계
송파구	36 (6.7%)	108 (20.1%)	56 (10.4%)	34 (6.3%)	80 (14.9%)	191 (35.5%)	9 (1.7%)	24 (4.5%)	538 (100%)
양천구	18 (5.0%)	60 (16.8%)	24 (6.7%)	10 (2.8%)	65 (18.2%)	167 (46.8%)	0 (0.0%)	13 (3.6%)	357 (100%)
영등포구	39 (7.6%)	81 (15.8%)	45 (8.8%)	27 (5.3%)	83 (16.1%)	207 (40.3%)	9 (1.8%)	23 (4.5%)	514 (100%)
용산구	24 (8.3%)	57 (19.7%)	33 (11.4%)	16 (5.5%)	40 (13.8%)	95 (32.9%)	2 (0.7%)	22 (7.6%)	289 (100%)
은평구	20 (4.6%)	95 (21.8%)	41 (9.4%)	20 (4.6%)	86 (19.8%)	150 (34.5%)	4 (0.9%)	19 (4.4%)	435 (100%)
종로구	20 (11.1%)	48 (26.7%)	14 (7.8%)	8 (4.4%)	33 (18.3%)	49 (27.2%)	5 (2.8%)	3 (1.7%)	180 (100%)
중구	8 (7.2%)	36 (32.4%)	6 (5.4%)	4 (3.6%)	18 (16.2%)	35 (31.5%)	3 (2.7%)	1 (0.9%)	111 (100%)
중랑구	18 (3.7%)	80 (16.3%)	71 (14.5%)	29 (5.9%)	92 (18.7%)	176 (35.8%)	6 (1.2%)	19 (3.9%)	491 (100%)
서울시합계	515 (5.2%)	1,925 (19.4%)	874 (8.8%)	463 (4.7%)	1,688 (17.0%)	3,914 (39.5%)	133 (1.3%)	393 (4.0%)	9,905 (10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5)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동거	독거	미상	총합계
서울시 평균	272 (68.6%)	110 (27.8%)	14 (3.5%)	396 (100%)
강남구	349 (61.7%)	186 (32.9%)	31 (5.5%)	566 (100%)
강동구	301 (67.6%)	127 (28.5%)	17 (3.8%)	445 (100%)
강북구	300 (71.9%)	105 (25.2%)	12 (2.9%)	417 (100%)
강서구	395 (69.2%)	164 (28.7%)	12 (2.1%)	571 (100%)
관악구	325 (58.0%)	214 (38.2%)	21 (3.8%)	560 (100%)
광진구	212 (65.4%)	97 (29.9%)	15 (4.6%)	324 (100%)
구로구	294 (73.5%)	91 (22.8%)	15 (3.8%)	400 (100%)
금천구	198 (62.3%)	106 (33.3%)	14 (4.4%)	318 (100%)

5) 독거 여부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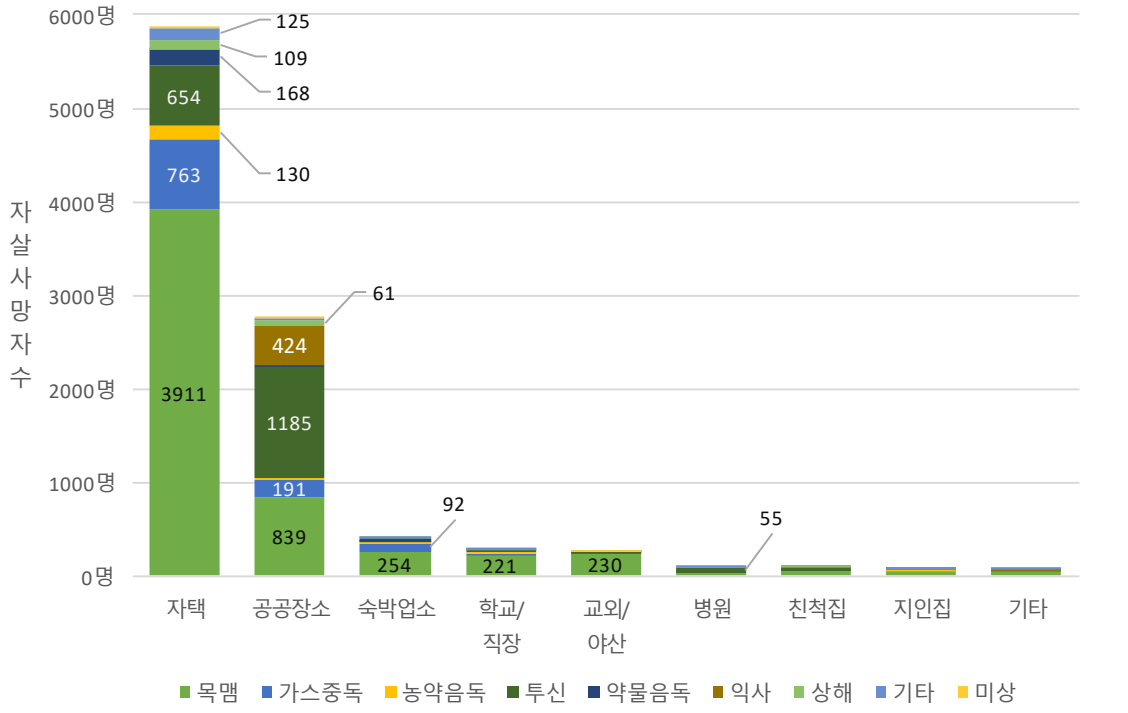
(단위 : 명)

	동거	독거	미상	총합계
노원구	471 (76.3%)	134 (21.7%)	12 (1.9%)	617 (100%)
도봉구	268 (70.3%)	102 (26.8%)	11 (2.9%)	381 (100%)
동대문구	264 (69.5%)	105 (27.6%)	11 (2.9%)	380 (100%)
동작구	239 (68.3%)	103 (29.4%)	8 (2.3%)	350 (100%)
마포구	266 (66.3%)	118 (29.4%)	17 (4.2%)	401 (100%)
서대문구	178 (71.8%)	61 (24.6%)	9 (3.6%)	248 (100%)
서초구	259 (72.1%)	83 (23.1%)	17 (4.7%)	359 (100%)
성동구	194 (71.6%)	68 (25.1%)	9 (3.3%)	271 (100%)
성북구	288 (75.4%)	90 (23.6%)	4 (1.0%)	382 (100%)
송파구	373 (69.3%)	148 (27.5%)	17 (3.2%)	538 (100%)
양천구	274 (76.8%)	76 (21.3%)	7 (2.0%)	357 (100%)
영등포구	344 (66.9%)	144 (28.0%)	26 (5.1%)	514 (100%)
용산구	183 (63.3%)	89 (30.8%)	17 (5.9%)	289 (100%)
은평구	299 (68.7%)	122 (28.0%)	14 (3.2%)	435 (100%)
종로구	112 (62.2%)	50 (27.8%)	18 (10.0%)	180 (100%)
중구	77 (69.4%)	32 (28.8%)	2 (1.8%)	111 (100%)
중랑구	336 (68.4%)	141 (28.7%)	14 (2.9%)	491 (100%)
서울시 합계	6,799 (68.6%)	2,756 (27.8%)	350 (3.5%)	9,905 (10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6) 발견장소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발견장소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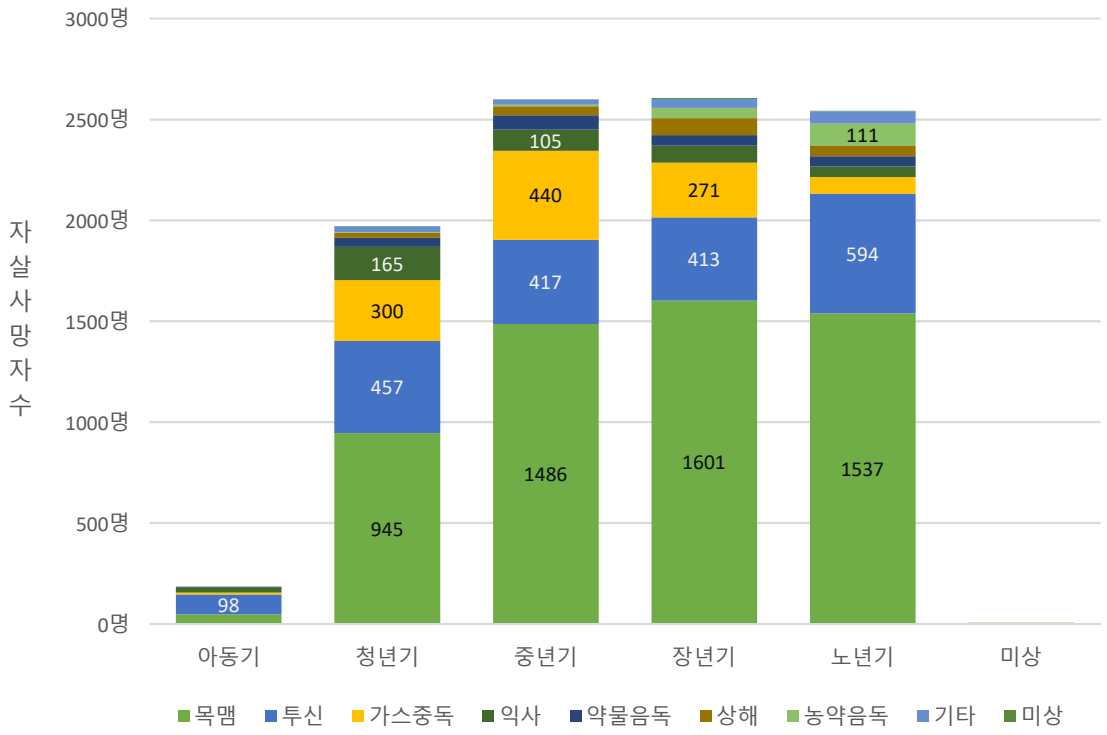
(단위 : 명)

	자택	공공장소	숙박업소	학교/직장	교외/야산	병원	친척집	지인집	기타
목맴	3,911 (66.7%)	839 (30.4%)	254 (61.8%)	221 (77.3%)	230 (85.8%)	36 (36.7%)	48 (54.5%)	42 (57.5%)	39 (65.0%)
가스중독	763 (13.0%)	191 (6.9%)	92 (22.4%)	24 (8.4%)	6 (2.2%)	0 (0.0%)	6 (6.8%)	15 (20.5%)	7 (11.7%)
농약음독	130 (2.2%)	21 (0.8%)	10 (2.4%)	4 (1.4%)	5 (1.9%)	0 (0.0%)	1 (1.1%)	1 (1.4%)	1 (1.7%)
투신	654 (11.2%)	1,185 (43.0%)	11 (2.7%)	24 (8.4%)	9 (3.4%)	55 (56.1%)	27 (30.7%)	11 (15.1%)	3 (5.0%)
약물음독	168 (2.9%)	18 (0.7%)	24 (5.8%)	2 (0.7%)	5 (1.9%)	0 (0.0%)	1 (1.1%)	2 (2.7%)	2 (3.3%)
익사	1 (0.0%)	424 (15.4%)	0 (0.0%)	0 (0.0%)	2 (0.7%)	0 (0.0%)	0 (0.0%)	0 (0.0%)	6 (10.0%)
상해	109 (1.9%)	61 (2.2%)	6 (1.5%)	8 (2.8%)	6 (2.2%)	6 (6.1%)	5 (5.7%)	1 (1.4%)	1 (1.7%)
기타	125 (2.1%)	14 (0.5%)	14 (3.4%)	3 (1.0%)	2 (0.7%)	1 (1.0%)	0 (0.0%)	1 (1.4%)	1 (1.7%)
미상	4 (0.1%)	3 (0.1%)	0 (0.0%)	0 (0.0%)	3 (1.1%)	0 (0.0%)	0 (0.0%)	0 (0.0%)	0 (0.0%)
총합계	5,865 (100%)	2,756 (100%)	411 (100%)	286 (100%)	268 (100%)	98 (100%)	88 (100%)	73 (100%)	60 (10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7) 생애주기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생애주기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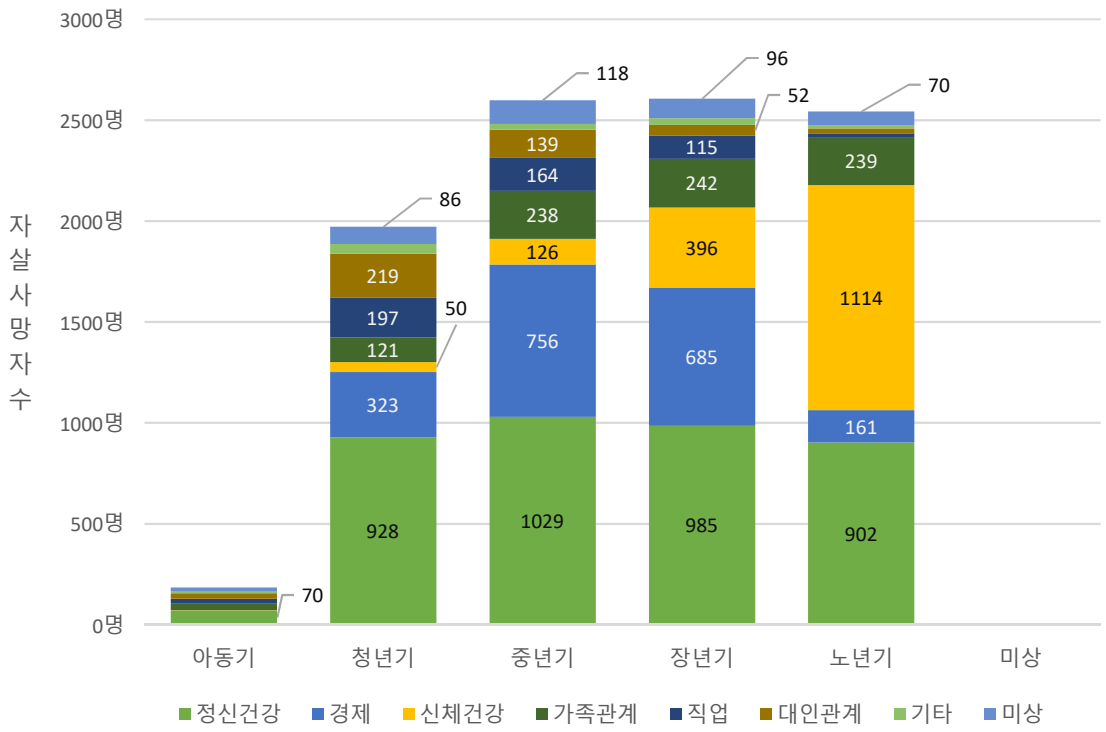
(단위 : 명)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미상
목맴	46 (25.0%)	945 (47.9%)	1,486 (57.2%)	1,601 (61.3%)	1,537 (60.4%)	5 (100.0%)
투신	98 (53.3%)	457 (23.2%)	417 (16.0%)	413 (15.8%)	594 (23.3%)	0 (0.0%)
가스중독	10 (5.4%)	300 (15.2%)	440 (16.9%)	271 (10.4%)	83 (3.3%)	0 (0.0%)
익사	27 (14.7%)	165 (8.4%)	105 (4.0%)	84 (3.2%)	52 (2.0%)	0 (0.0%)
약물음독	1 (0.5%)	45 (2.3%)	72 (2.8%)	53 (2.0%)	51 (2.0%)	0 (0.0%)
상해	0 (0.0%)	25 (1.3%)	45 (1.7%)	83 (3.2%)	50 (2.0%)	0 (0.0%)
농약음독	0 (0.0%)	4 (0.2%)	7 (0.3%)	51 (2.0%)	111 (4.4%)	0 (0.0%)
기타	2 (1.1%)	29 (1.5%)	25 (1.0%)	44 (1.7%)	61 (2.4%)	0 (0.0%)
미상	0 (0.0%)	1 (0.1%)	1 (0.0%)	5 (0.2%)	3 (0.1%)	0 (0.0%)
총합계	184 (100%)	1,971 (100%)	2,598 (100%)	2,605 (100%)	2,542 (100%)	5 (100%)

2. 서울특별시 구별 자살사망자 현황

8) 생애주기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생애주기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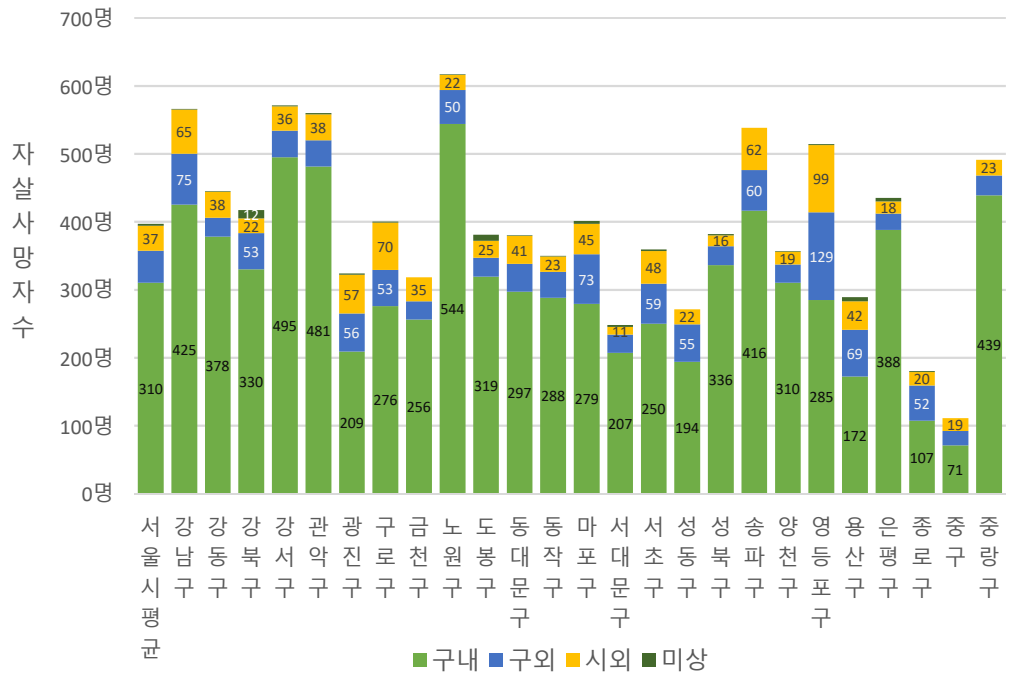
(단위 : 명)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미상
정신건강 문제	70 (38.0%)	928 (47.1%)	1,029 (39.6%)	985 (37.8%)	902 (35.5%)	0 (0.0%)
경제문제	0 (0.0%)	323 (16.4%)	756 (29.1%)	685 (26.3%)	161 (6.3%)	0 (0.0%)
신체건강 문제	2 (1.1%)	50 (2.5%)	126 (4.8%)	396 (15.2%)	1,114 (43.8%)	0 (0.0%)
가족관계 문제	34 (18.5%)	121 (6.1%)	238 (9.2%)	242 (9.3%)	239 (9.4%)	0 (0.0%)
직업문제	23 (12.5%)	197 (10.0%)	164 (6.3%)	115 (4.4%)	16 (0.6%)	0 (0.0%)
대인관계 문제	26 (14.1%)	219 (11.1%)	139 (5.4%)	52 (2.0%)	27 (1.1%)	0 (0.0%)
기타	11 (6.0%)	47 (2.4%)	28 (1.1%)	34 (1.3%)	13 (0.5%)	0 (0.0%)
미상	18 (9.8%)	86 (4.4%)	118 (4.5%)	96 (3.7%)	70 (2.8%)	5 (100.0%)
총합계	184 (100%)	1,971 (100%)	2,598 (100%)	2,605 (100%)	2,542 (100%)	5 (100%)

3.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현황

1) 구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수

구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서울시 내		서울시 외	미상	총합계
	구내 (발견구=주민등록구)	구외 (발견구≠주민등록구)	시외 (발견시≠주민등록시)		
서울시 평균	310 (78.3%)	47 (11.9%)	37 (9.2%)	3 (0.7%)	396 (100%)
강남구	425 (75.1%)	75 (13.3%)	65 (11.5%)	1 (0.2%)	566 (100%)
강동구	378 (84.9%)	28 (6.3%)	38 (8.5%)	1 (0.2%)	445 (100%)
강북구	330 (79.1%)	53 (12.7%)	22 (5.3%)	12 (2.9%)	417 (100%)
강서구	495 (86.7%)	39 (6.8%)	36 (6.3%)	1 (0.2%)	571 (100%)
관악구	481 (85.9%)	39 (7.0%)	38 (6.8%)	2 (0.4%)	560 (100%)
광진구	209 (64.5%)	56 (17.3%)	57 (17.6%)	2 (0.6%)	324 (100%)
구로구	276 (69.0%)	53 (13.3%)	70 (17.5%)	1 (0.3%)	400 (100%)
금천구	256 (80.5%)	27 (8.5%)	35 (11.0%)	0 (0.0%)	318 (100%)
노원구	544 (88.2%)	50 (8.1%)	22 (3.6%)	1 (0.2%)	617 (100%)
도봉구	319 (83.7%)	28 (7.3%)	25 (6.6%)	9 (2.4%)	381 (100%)
동대문구	297 (78.2%)	41 (10.8%)	41 (10.8%)	1 (0.3%)	380 (100%)
동작구	288 (82.3%)	38 (10.9%)	23 (6.6%)	1 (0.3%)	350 (100%)

1) 구별 주민등록지 관련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서울시 내		서울시 외	미상	총합계
	구내 (발견구=주민등록구)	구외 (발견구≠주민등록구)	시외 (발견시≠주민등록시)		
마포구	279 (69.6%)	73 (18.2%)	45 (11.2%)	4 (1.0%)	401 (100%)
서대문구	207 (83.5%)	27 (10.9%)	11 (4.4%)	3 (1.2%)	248 (100%)
서초구	250 (69.6%)	59 (16.4%)	48 (13.4%)	2 (0.6%)	359 (100%)
성동구	194 (71.6%)	55 (20.3%)	22 (8.1%)	0 (0.0%)	271 (100%)
성북구	336 (88.0%)	28 (7.3%)	16 (4.2%)	2 (0.5%)	382 (100%)
송파구	416 (77.3%)	60 (11.2%)	62 (11.5%)	0 (0.0%)	538 (100%)
양천구	310 (86.8%)	27 (7.6%)	19 (5.3%)	1 (0.3%)	357 (100%)
영등포구	285 (55.4%)	129 (25.1%)	99 (19.3%)	1 (0.2%)	514 (100%)
용산구	172 (59.5%)	69 (23.9%)	42 (14.5%)	6 (2.1%)	289 (100%)
은평구	388 (89.2%)	24 (5.5%)	18 (4.1%)	5 (1.1%)	435 (100%)
종로구	107 (59.4%)	52 (28.9%)	20 (11.1%)	1 (0.6%)	180 (100%)
중구	71 (64.0%)	21 (18.9%)	19 (17.1%)	0 (0.0%)	111 (100%)
중랑구	439 (89.4%)	29 (5.9%)	23 (4.7%)	0 (0.0%)	491 (100%)
서울시 합계	7,752 (78.3%)	1,180 (11.9%)	916 (9.2%)	57 (0.6%)	9,905 (100%)

3.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현황

2) 요인별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 현황 세부 분석

(단위 : 명)

	서울시 내		서울시 외	미상	총합계
	구내 (발견구=주민등록구)	구외 (발견구≠주민등록구)	시외 (발견시≠주민등록시)		
목맴	4,683 (60.4%)	510 (43.2%)	388 (42.4%)	39 (68.4%)	5620 (56.7%)
가스중독	865 (11.2%)	125 (10.6%)	113 (12.3%)	1 (1.8%)	1104 (11.1%)
농약음독	150 (1.9%)	11 (0.9%)	12 (1.3%)	0 (0.0%)	173 (1.7%)
투신	1,544 (19.9%)	238 (20.2%)	189 (20.6%)	8 (14.0%)	1979 (20.0%)
약물음독	174 (2.2%)	26 (2.2%)	21 (2.3%)	1 (1.8%)	222 (2.2%)
익사	61 (0.8%)	216 (18.3%)	152 (16.6%)	4 (7.0%)	433 (4.4%)
상해	137 (1.8%)	33 (2.8%)	29 (3.2%)	4 (7.0%)	203 (2.0%)
미상	134 (1.7%)	18 (1.5%)	9 (1.0%)	0 (0.0%)	161 (1.6%)
기타	4 (0.1%)	3 (0.3%)	3 (0.3%)	0 (0.0%)	10 (0.1%)
총합계	7,752 (100%)	1,180 (100%)	916 (100%)	57 (100%)	9905 (100%)
자택	5,513 (71.1%)	154 (13.1%)	181 (19.8%)	17 (29.8%)	5865 (59.2%)
친척집	28 (0.4%)	26 (2.2%)	34 (3.7%)	0 (0.0%)	88 (0.9%)
지인집	27 (0.3%)	28 (2.4%)	18 (2.0%)	0 (0.0%)	73 (0.7%)
학교/직장	123 (1.6%)	106 (9.0%)	56 (6.1%)	1 (1.8%)	286 (2.9%)
숙박업소	1699 (21.9%)	597 (50.6%)	436 (47.6%)	24 (42.1%)	2756 (27.8%)
공공장소	149 (1.9%)	136 (11.5%)	118 (12.9%)	8 (14.0%)	411 (4.1%)
교외/야산	142 (1.8%)	82 (6.9%)	38 (4.1%)	6 (10.5%)	268 (2.7%)
병원	35 (0.5%)	38 (3.2%)	24 (2.6%)	1 (1.8%)	98 (1.0%)
기타	36 (0.5%)	13 (1.1%)	11 (1.2%)	0 (0.0%)	60 (0.6%)
총합계	7,752 (100%)	1,180 (100%)	916 (100%)	57 (100%)	9905 (100%)
직업문제	360 (4.6%)	91 (7.7%)	63 (6.9%)	1 (1.8%)	515 (5.2%)
경제문제	1,378 (17.8%)	326 (27.6%)	212 (23.1%)	9 (15.8%)	1925 (19.4%)
가족관계	730 (9.4%)	88 (7.5%)	53 (5.8%)	3 (5.3%)	874 (8.8%)
대인관계	323 (4.2%)	76 (6.4%)	62 (6.8%)	2 (3.5%)	463 (4.7%)
신체건강	1,470 (19.0%)	114 (9.7%)	93 (10.2%)	11 (19.3%)	1688 (17.0%)
정신건강	3,150 (40.6%)	396 (33.6%)	353 (38.5%)	15 (26.3%)	3914 (39.5%)
기타	79 (1.0%)	27 (2.3%)	25 (2.7%)	2 (3.5%)	133 (1.3%)
미상	262 (3.4%)	62 (5.3%)	55 (6.0%)	14 (24.6%)	393 (4.0%)
총합계	7,752 (100%)	1,180 (100%)	916 (100%)	57 (100%)	9905 (100%)

2) 요인별 주민등록지 내·외 현황 세부 분석(계속)

	서울시 내		서울시 외	미상	총합계
	구내 (발견구=주민등록구)	구외 (발견구≠주민등록구)	시외 (발견시≠주민등록시)		
아동기	139 (1.8%)	22 (1.9%)	23 (2.5%)	0 (0.0%)	184 (1.9%)
청년기	1,365 (17.6%)	312 (26.4%)	286 (31.2%)	8 (14.0%)	1971 (19.9%)
중년기	1,955 (25.2%)	364 (30.8%)	264 (28.8%)	15 (26.3%)	2598 (26.2%)
장년기	2,052 (26.5%)	313 (26.5%)	224 (24.5%)	16 (28.1%)	2605 (26.3%)
노년기	2,240 (28.9%)	169 (14.3%)	119 (13.0%)	14 (24.6%)	2542 (25.7%)
미상	1 (0.0%)	0 (0.0%)	0 (0.0%)	4 (7.0%)	5 (0.1%)
총합계	7,752 (100%)	1,180 (100%)	916 (100%)	57 (100%)	#### (100%)

3. 주민등록지 관련 자살사망자 현황

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

(단위 : 명)

등록지 \ 발견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425	1	2	1	2	3	1	0	0	1	1	2	1	0	13	6	2	7	0	7	1	1	2	2	1
강동구	2	378	0	0	0	5	0	0	0	1	1	0	0	0	3	1	0	18	0	3	2	2	4	0	1
강북구	3	0	330	1	1	2	0	0	7	8	0	0	1	0	0	0	8	0	0	3	3	1	4	1	2
강서구	2	0	0	495	3	0	1	0	1	1	0	1	8	1	1	0	1	2	7	10	1	1	2	0	1
관악구	3	0	1	3	481	1	4	10	1	2	2	10	4	1	3	0	1	2	2	14	10	1	1	0	2
광진구	0	5	1	0	0	210	1	0	2	1	9	0	2	0	0	6	0	4	0	2	1	2	0	0	3
구로구	1	1	0	5	2	0	276	7	0	0	2	3	5	0	1	0	0	0	8	10	0	1	0	0	0
금천구	0	0	0	0	3	0	5	256	0	1	0	4	2	0	2	0	0	2	2	5	3	0	0	0	0
노원구	4	1	6	0	1	3	1	0	544	2	5	0	3	1	4	1	4	3	1	4	2	0	0	1	3
도봉구	3	1	22	0	0	0	0	0	11	319	2	1	1	1	0	4	0	0	0	0	2	0	1	0	1
동대문구	2	2	3	0	0	4	2	0	3	2	297	0	0	2	2	7	3	2	1	3	3	0	2	1	7
동작구	4	1	1	0	8	2	0	2	2	0	1	288	2	1	5	2	0	2	0	8	8	1	0	1	1
마포구	2	0	0	1	0	0	4	0	1	0	0	0	279	8	1	0	1	0	0	11	3	3	3	4	1
서대문구	2	1	0	2	0	1	2	0	1	0	2	1	9	207	1	1	2	1	0	10	5	4	1	0	0
서초구	12	0	0	0	4	0	1	0	1	0	0	1	1	0	250	1	0	3	0	3	3	0	1	2	0
성동구	4	2	1	1	0	6	3	0	0	0	3	0	0	0	3	194	0	3	0	2	2	0	6	1	0
성북구	0	0	10	1	1	3	1	0	9	2	2	0	3	0	4	3	336	2	0	2	6	1	10	1	2
송파구	14	11	0	3	2	8	3	0	0	1	1	0	0	0	5	3	0	416	0	3	3	0	0	1	1

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계속)

(단위 : 명)

등록지 \ 발견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양천구	2	0	2	16	1	1	9	2	1	0	0	4	5	0	1	1	0	2	310	11	1	1	2	0	0
영등포구	2	1	1	4	4	0	7	5	0	1	0	5	7	1	1	1	0	2	4	285	0	0	2	1	0
용산구	3	0	0	0	0	2	2	0	1	1	1	1	3	3	3	2	2	0	0	6	172	2	2	2	1
은평구	4	0	1	0	2	0	1	1	1	0	2	1	10	6	0	2	1	0	1	8	2	388	5	2	1
종로구	2	0	0	0	2	1	3	0	0	1	2	2	3	1	2	2	3	1	0	2	3	1	108	1	1
중구	1	1	2	0	2	2	1	0	1	0	0	1	2	1	1	5	0	1	0	0	2	2	2	71	0
중랑구	3	0	0	1	1	11	1	0	7	3	5	1	1	0	3	7	0	3	1	2	3	0	0	0	439
강원도	4	3	0	1	1	5	3	1	1	2	1	0	0	0	2	2	0	1	0	1	1	0	2	0	3
경기도	27	25	12	23	21	26	31	18	14	18	14	13	19	4	28	14	10	35	9	63	28	14	10	9	12
경상남도	1	1	1	1	1	2	3	1	1	0	4	3	4	2	1	0	2	1	0	1	1	1	0	0	0
경상북도	3	0	0	1	1	1	7	1	0	0	6	1	2	1	0	1	1	3	1	2	2	0	0	1	3
광주광역시	5	0	0	0	2	1	1	0	0	0	0	0	0	0	1	0	0	1	0	3	0	0	1	1	0
대구광역시	1	0	0	0	0	2	1	0	0	0	0	0	1	0	5	0	0	0	0	2	0	0	1	1	1
대전광역시	3	0	0	0	2	2	2	1	0	0	0	0	2	0	2	0	1	2	1	1	1	1	0	1	0
부산광역시	2	1	1	0	1	1	1	4	0	0	2	0	2	0	0	0	0	2	0	1	1	1	2	0	0
세종특별자치시	0	0	0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울산광역시	1	1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1	0	0	0	0	0
인천광역시	2	1	1	3	4	4	3	6	2	4	0	1	4	2	1	2	0	5	6	14	5	0	3	4	2
전라남도	7	1	0	1	2	1	4	1	0	0	2	0	1	0	3	1	0	1	0	1	0	0	1	0	2
전라북도	2	2	1	0	2	2	2	1	0	0	3	2	4	1	2	0	1	2	0	2	0	0	0	0	0

3) 주민등록지·자살사망 발견지 불일치 현황(계속)

(단위 : 명)

발견지 / 등록지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제주특별자치도	0	1	0	1	0	0	1	0	1	0	0	1	1	0	0	0	0	1	1	0	0	1	0	0	0
청주시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청남도	3	1	3	2	0	6	8	1	0	1	2	2	2	1	0	1	1	7	0	5	1	0	0	2	0
충청북도	4	1	3	2	1	4	3	0	1	0	6	0	2	0	3	1	0	1	1	2	1	0	0	0	0
미상	1	1	12	1	2	2	1	0	1	9	1	1	4	3	2	0	2	0	1	1	6	5	2	0	0
총합계	136	66	85	569	557	314	399	318	610	371	378	348	399	248	343	264	372	513	357	501	283	431	170	108	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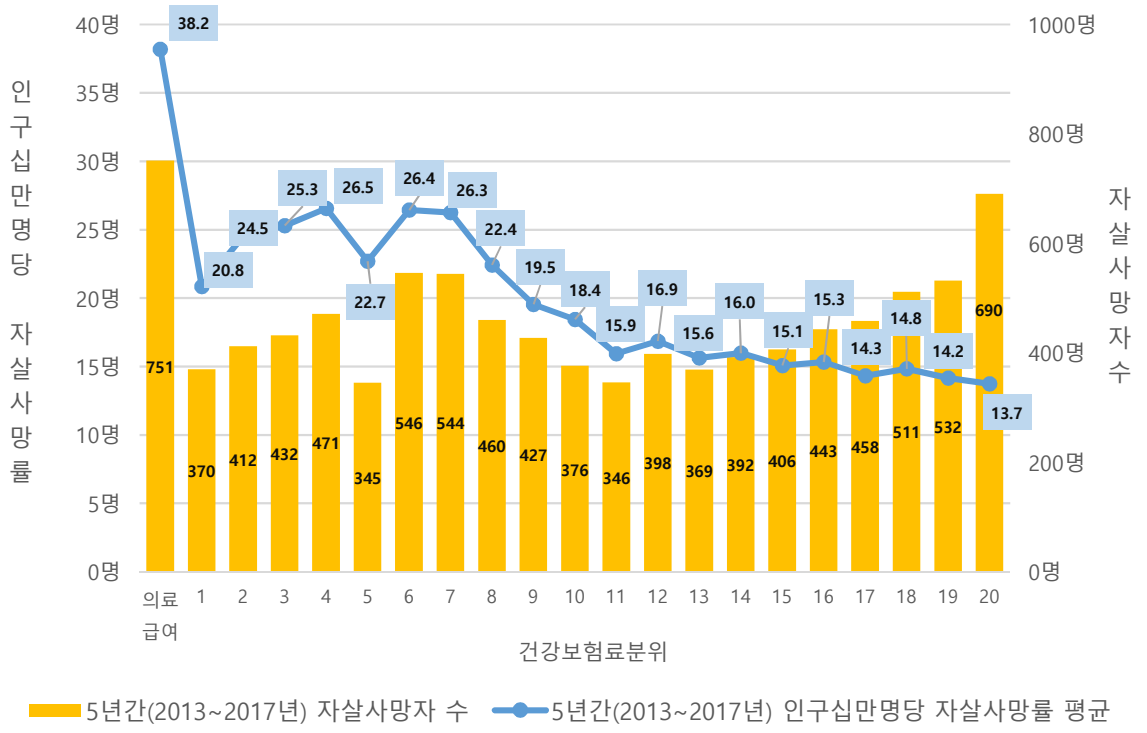
부록 2장. 서울특별시 주제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 분석
2. 건강보험료가입상태별 자살사망 분석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1.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료분위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분위별 인구 수	의료급여	440,837	373,610	383,426	392,283	384,084	1,974,240
	1분위	333,422	339,369	383,397	362,392	354,355	1,772,935
	2분위	303,465	357,892	318,787	352,004	355,622	1,687,770
	3분위	338,448	317,644	325,109	330,779	414,054	1,726,034
	4분위	403,830	350,862	411,657	309,184	275,218	1,750,751
	5분위	266,504	311,637	264,619	357,416	334,994	1,535,170
	6분위	407,289	471,859	411,803	401,873	370,708	2,063,532
	7분위	426,584	362,987	458,495	417,955	413,561	2,079,582
	8분위	396,338	436,138	371,264	444,794	403,782	2,052,316
	9분위	454,833	490,836	438,932	385,460	409,620	2,179,681
	10분위	416,217	361,842	424,954	427,987	410,467	2,041,467
	11분위	426,935	440,865	438,674	440,216	424,175	2,170,865
	12분위	468,086	469,271	479,349	469,188	475,428	2,361,322
	13분위	472,563	476,513	475,747	468,395	463,865	2,357,083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계속)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4분위	492,104	490,561	491,427	492,458	485,715	2,452,265
	15분위	540,296	542,720	539,693	530,025	539,068	2,691,802
	16분위	591,217	582,935	580,752	578,258	556,874	2,890,036
	17분위	653,237	646,207	640,044	631,941	621,172	3,192,601
	18분위	710,983	693,661	688,497	677,256	670,754	3,441,151
	19분위	764,351	755,610	746,912	745,396	739,975	3,752,244
	20분위	1,000,773	1,015,833	1,011,996	994,654	1,000,310	5,023,566
서울시 건강보험료 분위별 자살사망자 수	의료급여	147	151	148	152	153	751
	1분위	74	75	98	53	70	370
	2분위	77	78	87	84	86	412
	3분위	101	90	84	75	82	432
	4분위	133	89	106	82	61	471
	5분위	93	66	40	68	78	345
	6분위	122	121	100	119	84	546
	7분위	107	108	120	111	98	544
	8분위	93	111	85	89	82	460
	9분위	85	104	78	67	93	427
	10분위	83	70	80	73	70	376
	11분위	74	88	55	69	60	346
	12분위	100	72	92	73	61	398
	13분위	72	86	69	90	52	369
	14분위	92	83	88	71	58	392
	15분위	90	81	78	71	86	406
	16분위	96	84	86	90	87	443
	17분위	99	103	100	76	80	458
	18분위	108	102	127	94	80	511
	19분위	123	106	93	121	89	532
	20분위	144	159	122	132	133	690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의료급여	33.3	40.4	38.6	38.7	39.8	38.2
	1분위	22.2	22.1	25.6	14.6	19.8	20.8
	2분위	25.4	21.8	27.3	23.9	24.2	24.5

1) 건강보험료분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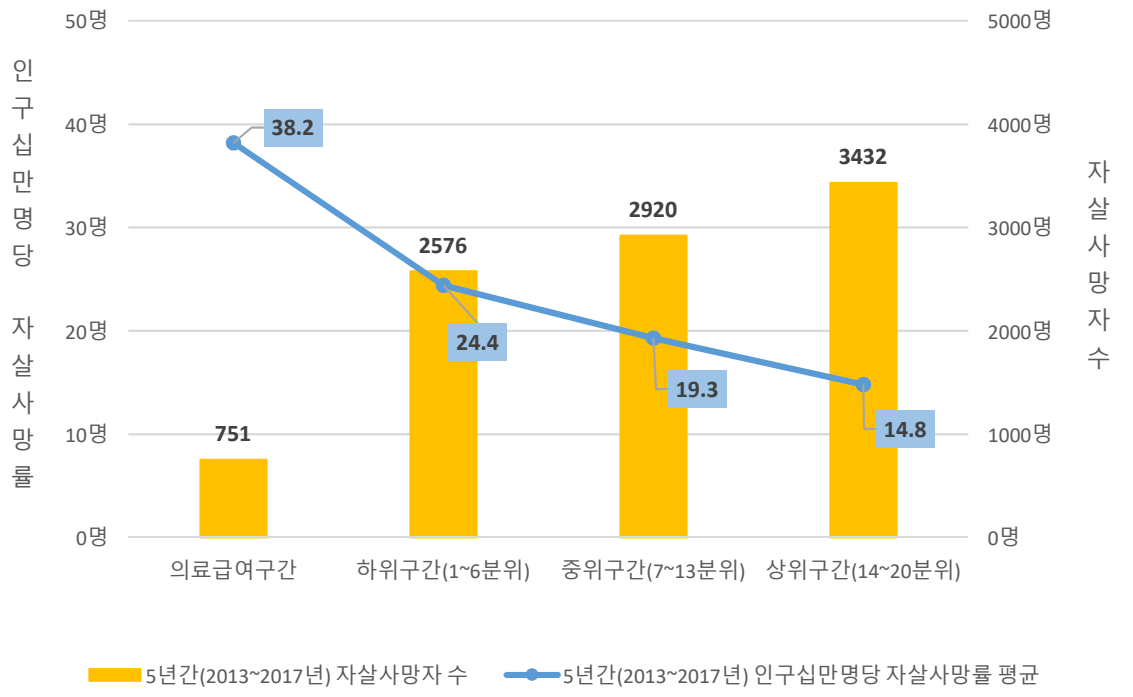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건강보험료 분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3분위	29.8	28.3	25.8	22.7	19.8	25.3
	4분위	32.9	25.4	25.7	26.5	22.2	26.5
	5분위	34.9	21.2	15.1	19.0	23.3	22.7
	6분위	30.0	25.6	24.3	29.6	22.7	26.4
	7분위	25.1	29.8	26.2	26.6	23.7	26.3
	8분위	23.5	25.5	22.9	20.0	20.3	22.4
	9분위	18.7	21.2	17.8	17.4	22.7	19.5
	10분위	19.9	19.3	18.8	17.1	17.1	18.4
	11분위	17.3	20.0	12.5	15.7	14.1	15.9
	12분위	21.4	15.3	19.2	15.6	12.8	16.9
	13분위	15.2	18.0	14.5	19.2	11.2	15.6
	14분위	18.7	16.9	17.9	14.4	11.9	16.0
	15분위	16.7	14.9	14.5	13.4	16.0	15.1
	16분위	16.2	14.4	14.8	15.6	15.6	15.3
	17분위	15.2	15.9	15.6	12.0	12.9	14.3
	18분위	15.2	14.7	18.4	13.9	11.9	14.8
	19분위	16.1	14.0	12.5	16.2	12.0	14.2
	20분위	14.4	15.7	12.1	13.3	13.3	13.7

1.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료분위

2)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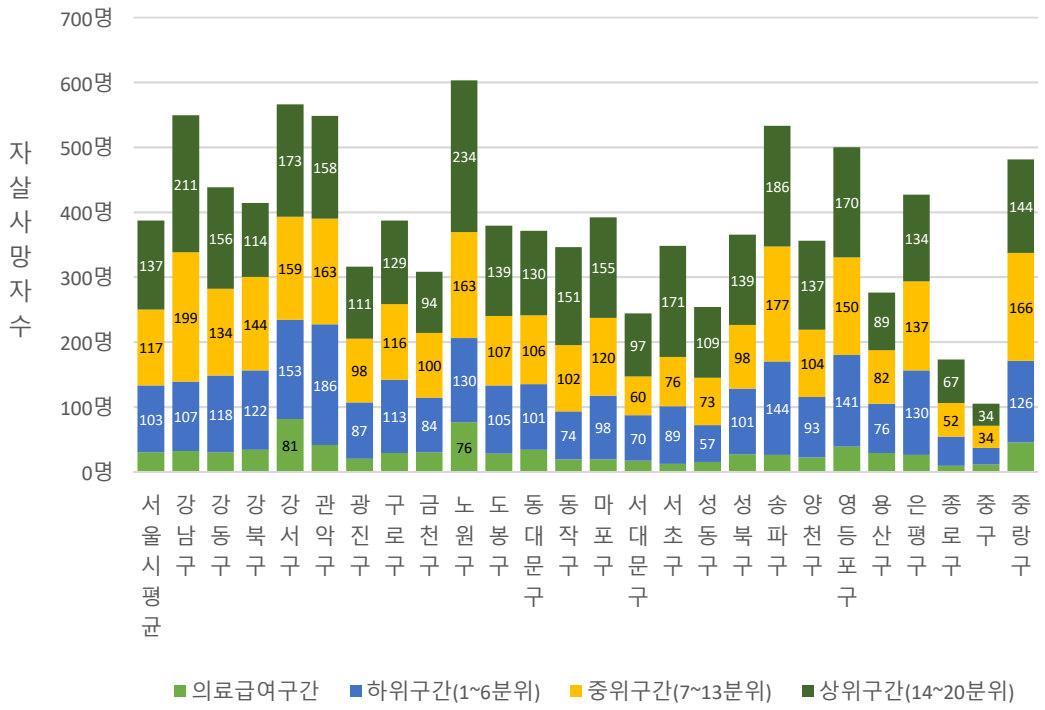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구간별 인구 수	의료급여구간	440,837	373,610	383,426	392,283	384,084	1,974,240
	하위구간(1~6분위)	2,052,958	2,149,263	2,115,372	2,113,648	2,104,951	10,536,192
	중위구간(7~13분위)	3,061,556	3,038,452	3,087,415	3,053,995	3,000,898	15,242,316
	상위구간(14~20분위)	4,752,961	4,727,527	4,699,321	4,649,988	4,613,868	23,443,665
서울시 건강보험료 구간별 자살사망자 수	의료급여구간	147	151	148	152	153	751
	하위구간(1~6분위)	600	519	515	481	461	2,576
	중위구간(7~13분위)	614	639	579	572	516	2,920
	상위구간(14~20분위)	752	718	694	655	613	3,432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건강보험료 구간별 인구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의료급여구간	33.3	40.4	38.6	38.7	39.8	38.2
	하위구간(1~6분위)	29.2	24.1	24.0	22.7	22.0	24.4
	중위구간(7~13분위)	20.2	21.3	18.8	18.8	17.4	19.3
	상위구간(14~20분위)	16.1	15.2	15.1	14.1	13.4	14.8

1.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료분위

3) 건강보험료구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건강보험료분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3) 건강보험료분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의료급여구간	하위구간 (1~6분위)	중위구간 (7~13분위)	상위구간 (14~20분위)	총합계
서울시 평균	30 (7.8%)	103 (26.6%)	117 (30.2%)	137 (35.5%)	387 (100%)
강남구	32 (5.8%)	107 (19.5%)	199 (36.2%)	211 (38.4%)	549 (100%)
강동구	30 (6.8%)	118 (26.9%)	134 (30.6%)	156 (35.6%)	438 (100%)
강북구	34 (8.2%)	122 (29.5%)	144 (34.8%)	114 (27.5%)	414 (100%)
강서구	81 (14.3%)	153 (27.0%)	159 (28.1%)	173 (30.6%)	566 (100%)
관악구	41 (7.5%)	186 (33.9%)	163 (29.7%)	158 (28.8%)	548 (100%)
광진구	20 (6.3%)	87 (27.5%)	98 (31.0%)	111 (35.1%)	316 (100%)
구로구	29 (7.5%)	113 (29.2%)	116 (30.0%)	129 (33.3%)	387 (100%)
금천구	30 (9.7%)	84 (27.3%)	100 (32.5%)	94 (30.5%)	308 (100%)
노원구	76 (12.6%)	130 (21.6%)	163 (27.0%)	234 (38.8%)	603 (100%)
도봉구	28 (7.4%)	105 (27.7%)	107 (28.2%)	139 (36.7%)	379 (100%)
동대문구	34 (9.2%)	101 (27.2%)	106 (28.6%)	130 (35.0%)	371 (100%)
동작구	19 (5.5%)	74 (21.4%)	102 (29.5%)	151 (43.6%)	346 (100%)
마포구	19 (4.8%)	98 (25.0%)	120 (30.6%)	155 (39.5%)	392 (100%)
서대문구	17 (7.0%)	70 (28.7%)	60 (24.6%)	97 (39.8%)	244 (100%)
서초구	12 (3.4%)	89 (25.6%)	76 (21.8%)	171 (49.1%)	348 (100%)
성동구	15 (5.9%)	57 (22.4%)	73 (28.7%)	109 (42.9%)	254 (100%)

2) 건강보험료분위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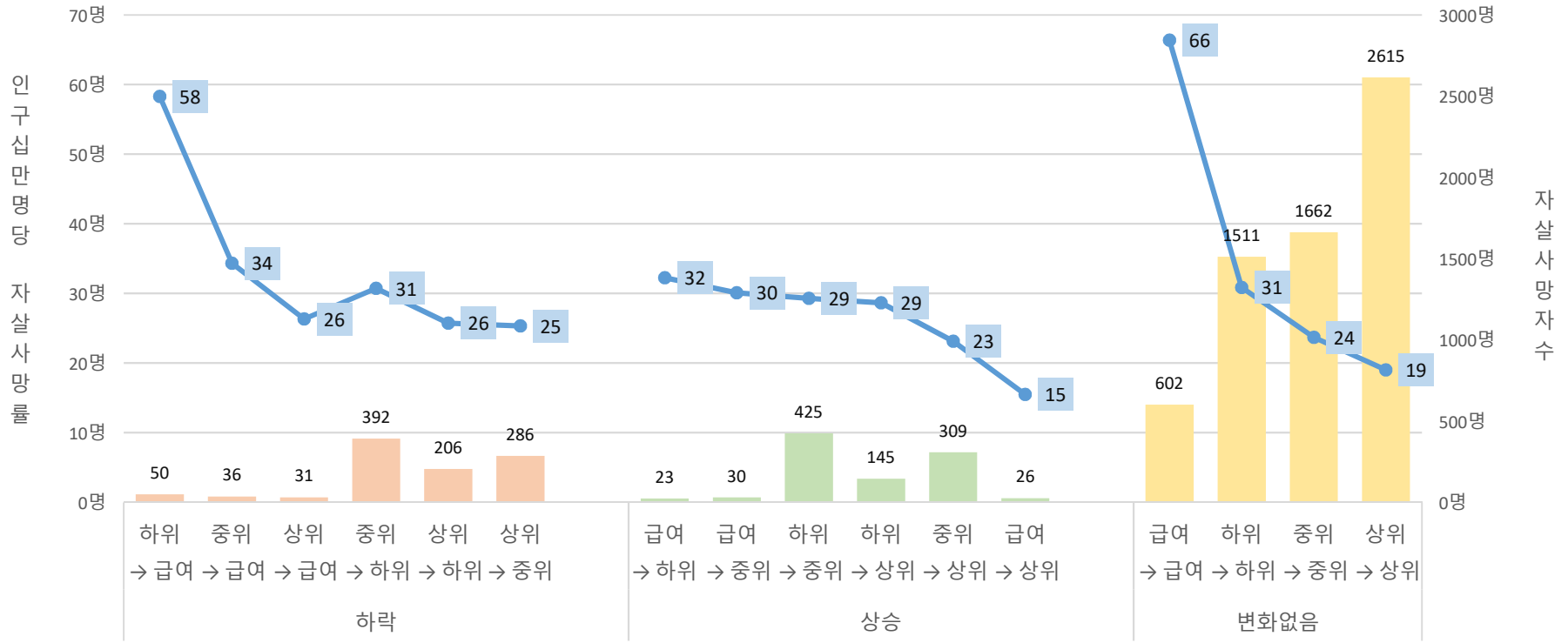
(단위 : 명)

	의료급여구간	하위구간 (1~6분위)	중위구간 (7~13분위)	상위구간 (14~20분위)	총합계
성북구	27 (7.4%)	101 (27.7%)	98 (26.8%)	139 (38.1%)	365 (100%)
송파구	26 (4.9%)	144 (27.0%)	177 (33.2%)	186 (34.9%)	533 (100%)
양천구	22 (6.2%)	93 (26.1%)	104 (29.2%)	137 (38.5%)	356 (100%)
영등포구	39 (7.8%)	141 (28.2%)	150 (30.0%)	170 (34.0%)	500 (100%)
용산구	29 (10.5%)	76 (27.5%)	82 (29.7%)	89 (32.2%)	276 (100%)
은평구	26 (6.1%)	130 (30.4%)	137 (32.1%)	134 (31.4%)	427 (100%)
종로구	9 (5.2%)	45 (26.0%)	52 (30.1%)	67 (38.7%)	173 (100%)
중구	11 (10.5%)	26 (24.8%)	34 (32.4%)	34 (32.4%)	105 (100%)
중랑구	45 (9.4%)	126 (26.2%)	166 (34.5%)	144 (29.9%)	481 (100%)
서울시 총합	751 (7.8%)	2,576 (26.6%)	2,920 (30.2%)	3,432 (35.5%)	9,679 (100%)

1.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료분위

4)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 현황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4)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에 따른 자살사망 현황(계속)

(단위 : 명)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구간 변화자 수		기준년도			
		상위구간	중위구간	하위구간	의료급여
기준 전년도	상위구간	13,760,939	1,129,720	799,963	117,795
	중위구간	1,336,114	7,016,914	1,276,028	104,863
	하위구간	505,817	1,450,280	4,895,971	85,760
	의료급여	167,849	99,662	71,269	906,980

서울시 건강보험료구간 변화별 자살사망자 수		기준년도			
		상위구간	중위구간	하위구간	의료급여
기준 전년도	상위구간	2,615	286	206	31
	중위구간	309	1,662	392	36
	하위구간	145	425	1,511	50
	의료급여	26	30	23	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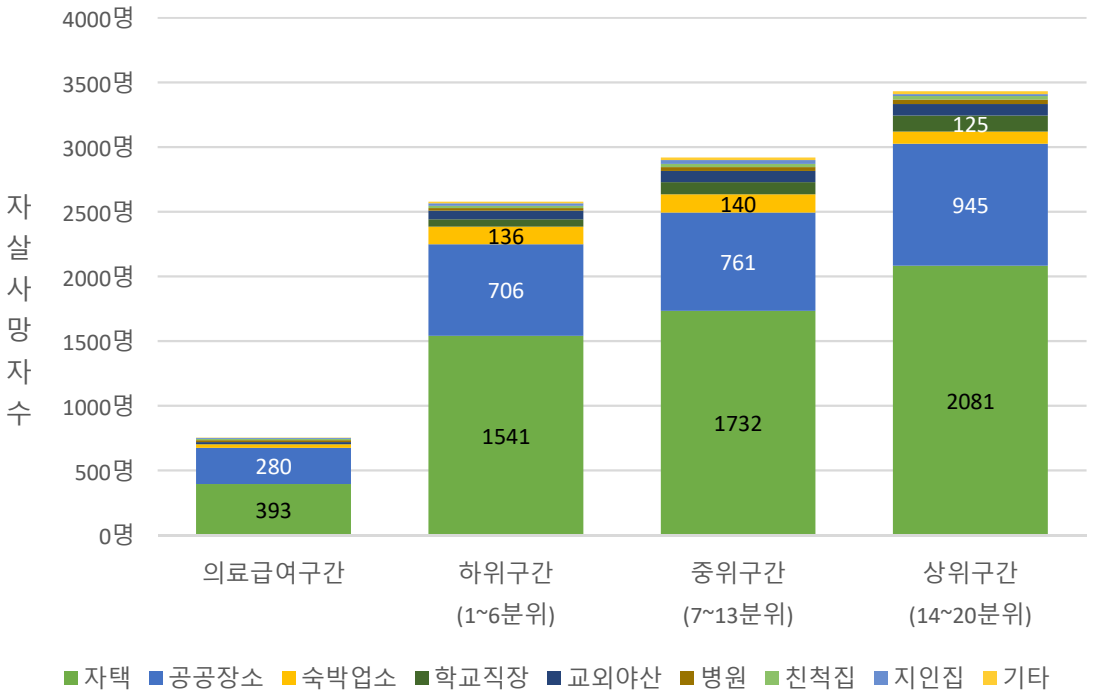
건강보험료구간 변화별 자살사망률		기준년도			
		상위구간	중위구간	하위구간	의료급여
기준 전년도	상위구간	19	25	26	26
	중위구간	23	24	31	34
	하위구간	29	29	31	58
	의료급여	15	30	32	66

	: 건강보험료분위 하락		: 건강보험료분위 상승		: 변화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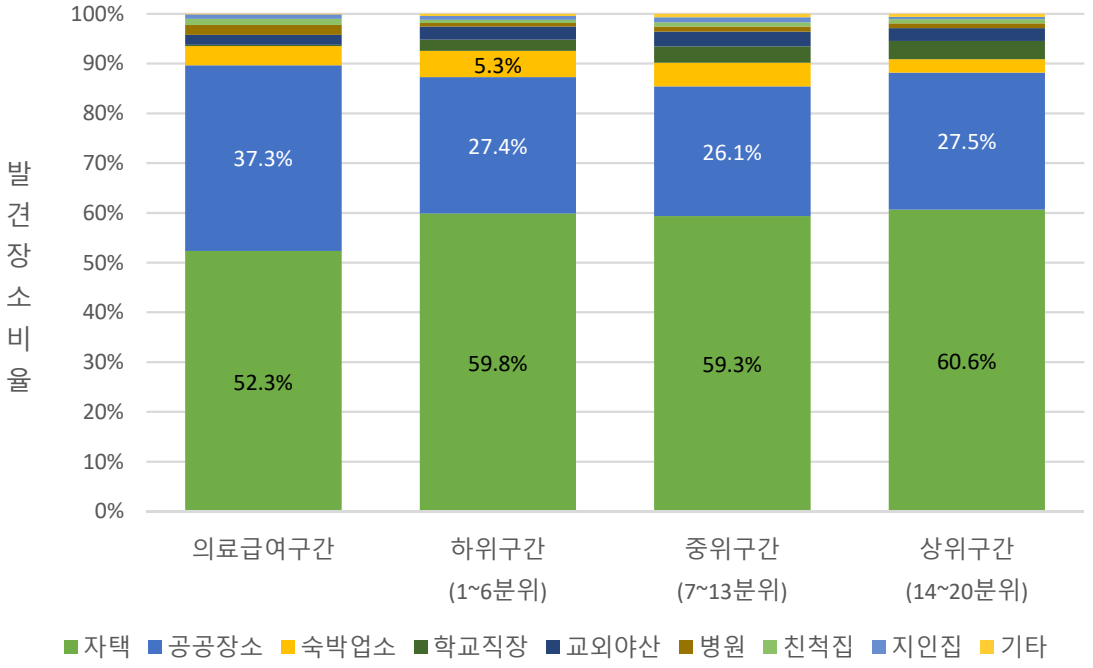
1.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료분위

5) 건강보험료분위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건강보험료분위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건강보험료분위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비율



5) 건강보험료분위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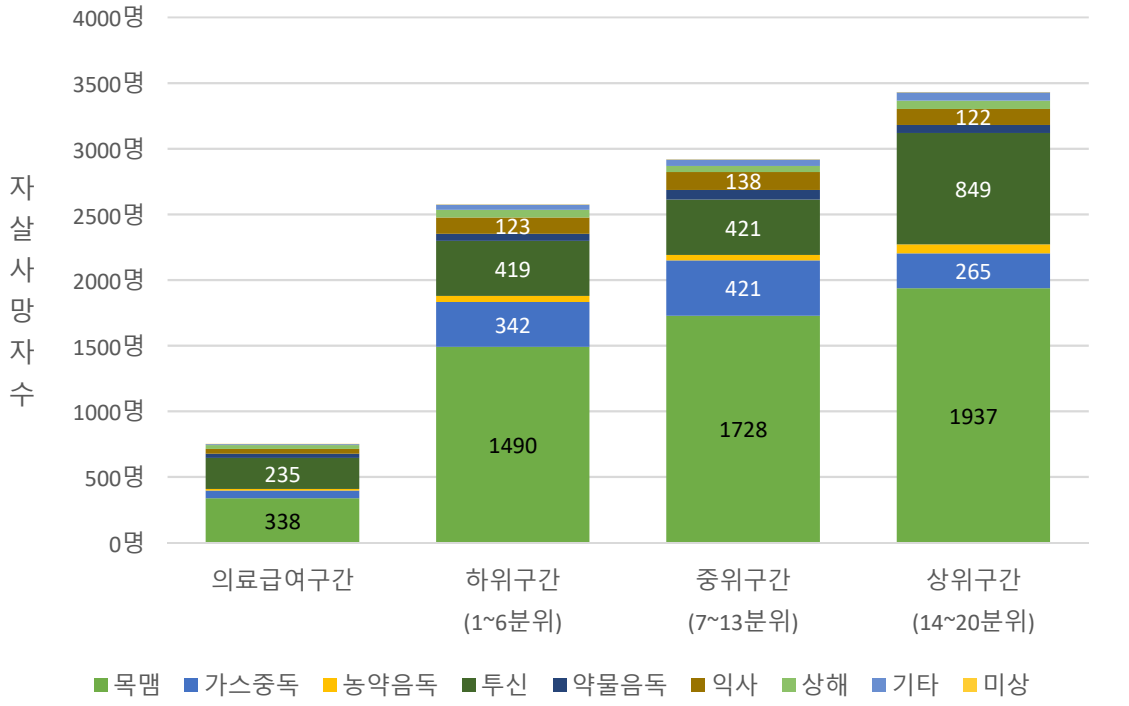
(단위 : 명)

	의료급여구간	하위구간 (1~6분위)	중위구간 (7~13분위)	상위구간 (14~20분위)
자택	393 (52.3%)	1541 (59.8%)	1732 (59.3%)	2081 (60.6%)
공공장소	280 (37.3%)	706 (27.4%)	761 (26.1%)	945 (27.5%)
숙박업소	29 (3.9%)	136 (5.3%)	140 (4.8%)	93 (2.7%)
학교/직장	2 (0.3%)	58 (2.3%)	95 (3.3%)	125 (3.6%)
교외/야산	15 (2.0%)	68 (2.6%)	86 (2.9%)	88 (2.6%)
병원	15 (2.0%)	18 (0.7%)	30 (1.0%)	34 (1.0%)
친척집	9 (1.2%)	18 (0.7%)	26 (0.9%)	29 (0.8%)
지인집	7 (0.9%)	20 (0.8%)	30 (1.0%)	15 (0.4%)
기타	1 (0.1%)	11 (0.4%)	20 (0.7%)	22 (0.6%)
총합계	751 (100%)	2576 (100%)	2920 (100%)	343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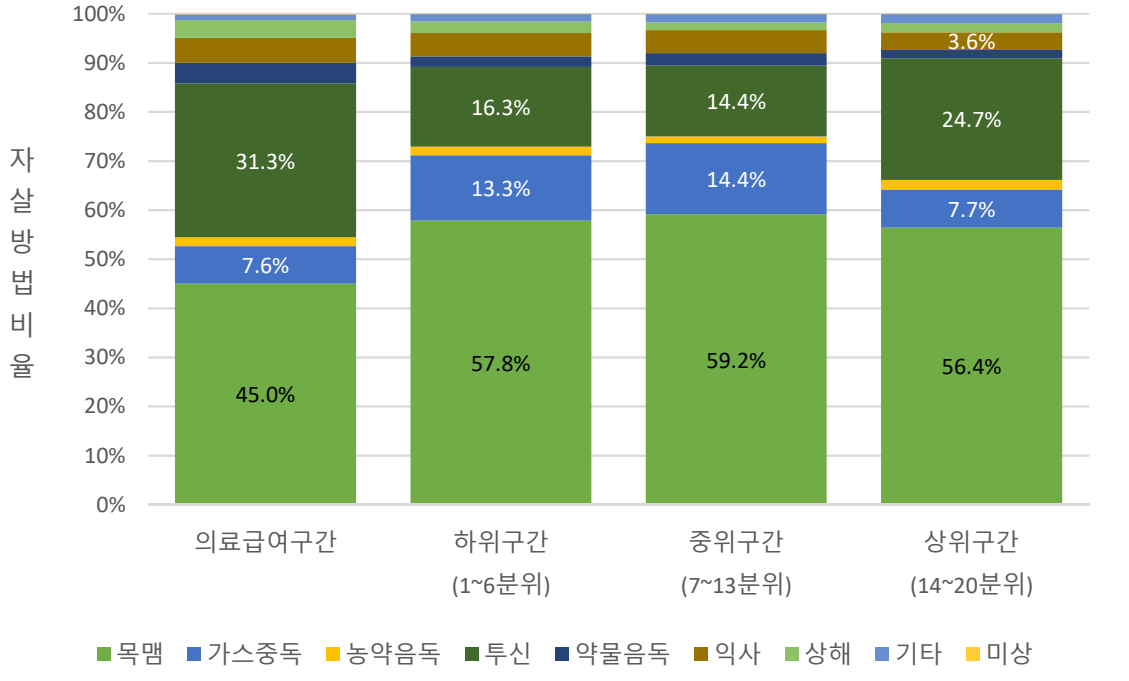
1.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료분위

6) 건강보험료분위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건강보험료분위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건강보험료분위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비율



6) 건강보험료분위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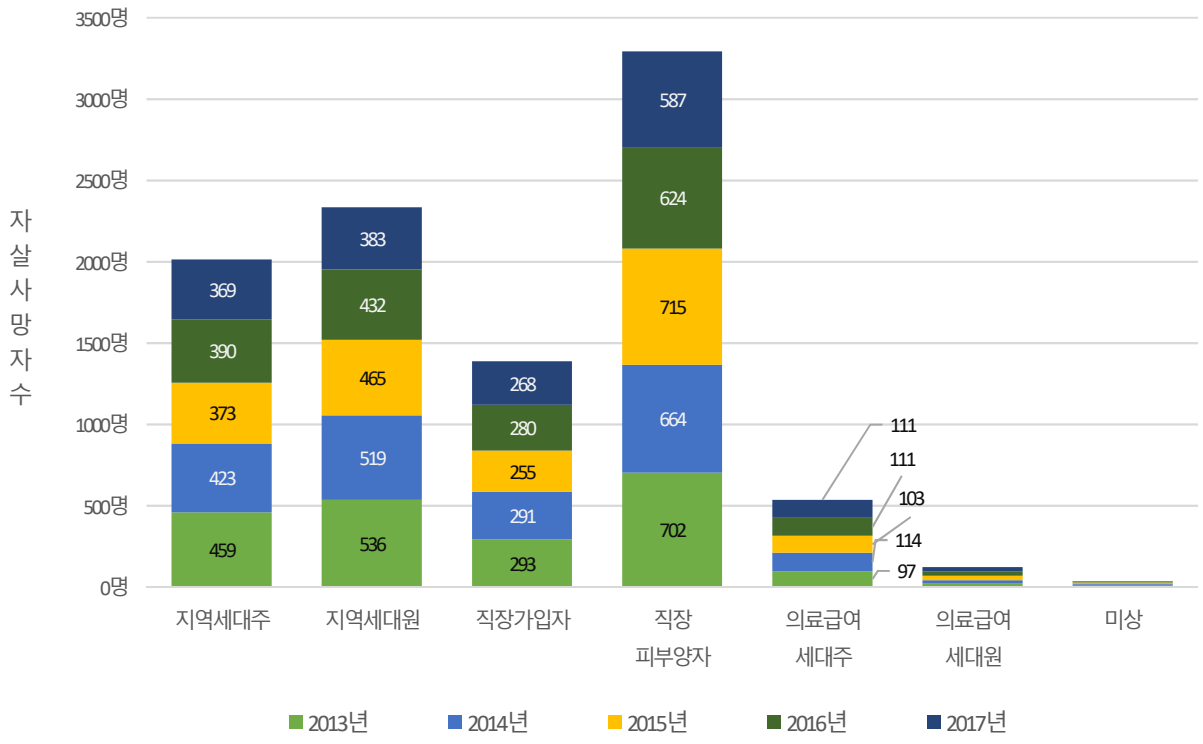
(단위 : 명)

	의료급여구간	하위구간 (1~6분위)	중위구간 (7~13분위)	상위구간 (14~20분위)
목맴	338 (45.0%)	1,490 (57.8%)	1,728 (59.2%)	1,937 (56.4%)
가스중독	57 (7.6%)	342 (13.3%)	421 (14.4%)	265 (7.7%)
농약음독	14 (1.9%)	46 (1.8%)	41 (1.4%)	68 (2.0%)
투신	235 (31.3%)	419 (16.3%)	421 (14.4%)	849 (24.7%)
약물음독	32 (4.3%)	55 (2.1%)	73 (2.5%)	60 (1.7%)
익사	38 (5.1%)	123 (4.8%)	138 (4.7%)	122 (3.6%)
상해	27 (3.6%)	60 (2.3%)	45 (1.5%)	64 (1.9%)
기타	9 (1.2%)	38 (1.5%)	50 (1.7%)	64 (1.9%)
미상	1 (0.1%)	3 (0.1%)	3 (0.1%)	3 (0.1%)
총합계	751 (100%)	2,576 (100%)	2,920 (100%)	3,432 (100%)

2.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가입상태

1)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건강보험가입상태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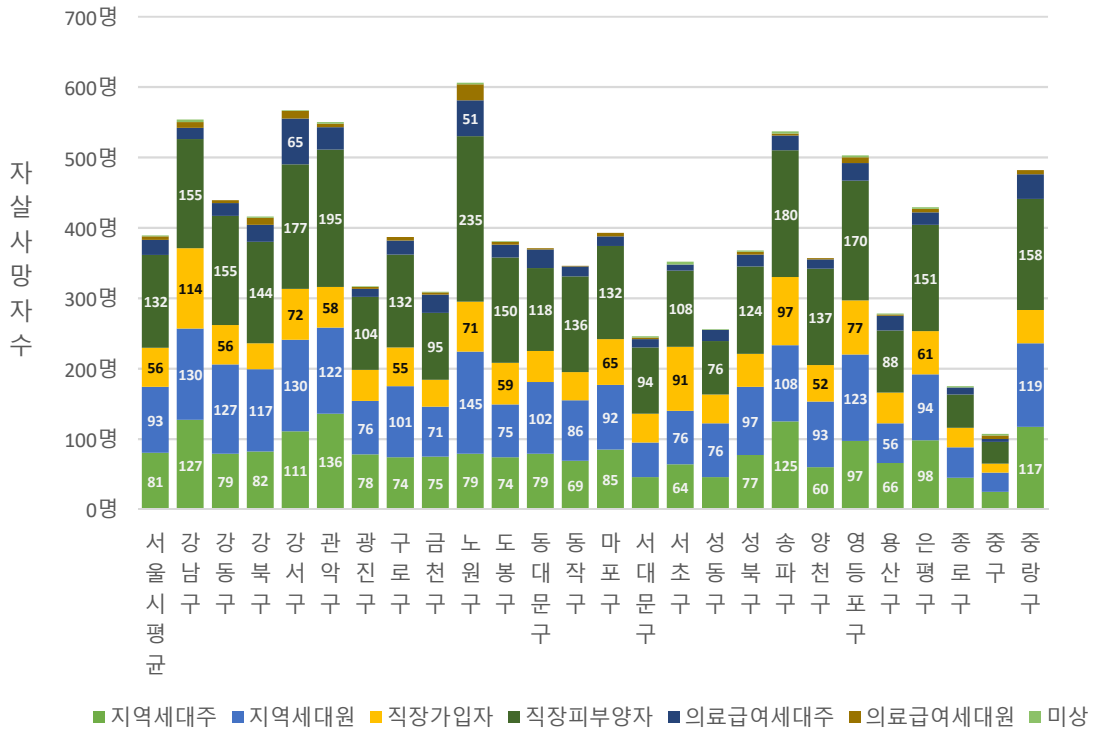
(단위 : 명)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미상	합계
2013년	459 (21.6%)	536 (25.2%)	298 (14.0%)	702 (33.0%)	97 (4.6%)	23 (1.1%)	14 (0.7%)	2,129 (100%)
2014년	423 (20.8%)	519 (25.5%)	291 (14.3%)	664 (32.6%)	114 (5.6%)	19 (0.9%)	08 (0.4%)	2,038 (100%)
2015년	373 (19.2%)	465 (23.9%)	255 (13.1%)	715 (36.8%)	103 (5.3%)	26 (1.3%)	06 (0.3%)	1,943 (100%)
2016년	390 (20.9%)	432 (23.1%)	280 (15.0%)	624 (33.4%)	111 (5.9%)	27 (1.4%)	05 (0.3%)	1,869 (100%)
2017년	369 (21.1%)	383 (21.9%)	268 (15.3%)	587 (33.6%)	111 (6.4%)	26 (1.5%)	03 (0.2%)	1,747 (100%)
총합계	2,014 (20.7%)	2,335 (24.0%)	1,392 (14.3%)	3,292 (33.8%)	536 (5.5%)	121 (1.2%)	36 (0.4%)	9,726 (100%)

2.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가입상태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미상	총합계
서울시 평균	81 (20.7%)	93 (24.0%)	56 (14.3%)	132 (33.8%)	21 (5.5%)	5 (1.2%)	1 (0.4%)	389 (100%)
강남구	127 (22.9%)	130 (23.5%)	114 (20.6%)	155 (28.0%)	16 (2.9%)	8 (1.4%)	4 (0.7%)	554 (100%)
강동구	79 (18.0%)	127 (28.9%)	56 (12.8%)	155 (35.3%)	18 (4.1%)	4 (0.9%)	0 (0.0%)	439 (100%)
강북구	82 (19.7%)	117 (28.1%)	37 (8.9%)	144 (34.6%)	24 (5.8%)	10 (2.4%)	2 (0.5%)	416 (100%)
강서구	111 (19.6%)	130 (22.9%)	72 (12.7%)	177 (31.2%)	65 (11.5%)	11 (1.9%)	1 (0.2%)	567 (100%)
관악구	136 (24.7%)	122 (22.2%)	58 (10.5%)	195 (35.5%)	32 (5.8%)	5 (0.9%)	2 (0.4%)	550 (100%)
광진구	78 (24.6%)	76 (24.0%)	44 (13.9%)	104 (32.8%)	11 (3.5%)	3 (0.9%)	1 (0.3%)	317 (100%)
구로구	74 (19.1%)	101 (26.1%)	55 (14.2%)	132 (34.1%)	20 (5.2%)	5 (1.3%)	0 (0.0%)	387 (100%)
금천구	75 (24.3%)	71 (23.0%)	38 (12.3%)	95 (30.7%)	26 (8.4%)	3 (1.0%)	1 (0.3%)	309 (100%)
노원구	79 (13.0%)	145 (23.9%)	71 (11.7%)	235 (38.8%)	51 (8.4%)	23 (3.8%)	2 (0.3%)	606 (100%)
도봉구	74 (19.4%)	75 (19.7%)	59 (15.5%)	150 (39.4%)	18 (4.7%)	4 (1.0%)	1 (0.3%)	381 (100%)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미상	총합계
동대문구	79 (21.3%)	102 (27.5%)	44 (11.9%)	118 (31.8%)	26 (7.0%)	2 (0.5%)	0 (0.0%)	371 (100%)
동작구	69 (19.9%)	86 (24.9%)	40 (11.6%)	136 (39.3%)	14 (4.0%)	1 (0.3%)	0 (0.0%)	346 (100%)
마포구	85 (21.6%)	92 (23.4%)	65 (16.5%)	132 (33.6%)	14 (3.6%)	5 (1.3%)	0 (0.0%)	393 (100%)
서대문구	46 (18.7%)	49 (19.9%)	41 (16.7%)	94 (38.2%)	12 (4.9%)	2 (0.8%)	2 (0.8%)	246 (100%)
서초구	64 (18.2%)	76 (21.6%)	91 (25.9%)	108 (30.7%)	9 (2.6%)	0 (0.0%)	4 (1.1%)	352 (100%)
성동구	46 (18.0%)	76 (29.7%)	41 (16.0%)	76 (29.7%)	16 (6.3%)	0 (0.0%)	1 (0.4%)	256 (100%)
성북구	77 (20.9%)	97 (26.4%)	47 (12.8%)	124 (33.7%)	17 (4.6%)	4 (1.1%)	2 (0.5%)	368 (100%)
송파구	125 (23.3%)	108 (20.1%)	97 (18.1%)	180 (33.5%)	21 (3.9%)	3 (0.6%)	3 (0.6%)	537 (100%)
양천구	60 (16.8%)	93 (26.1%)	52 (14.6%)	137 (38.4%)	13 (3.6%)	2 (0.6%)	0 (0.0%)	357 (100%)
영등포구	97 (19.3%)	123 (24.5%)	77 (15.3%)	170 (33.8%)	25 (5.0%)	8 (1.6%)	3 (0.6%)	503 (100%)
용산구	66 (23.7%)	56 (20.1%)	44 (15.8%)	88 (31.7%)	21 (7.6%)	2 (0.7%)	1 (0.4%)	278 (100%)

2) 건강보험가입상태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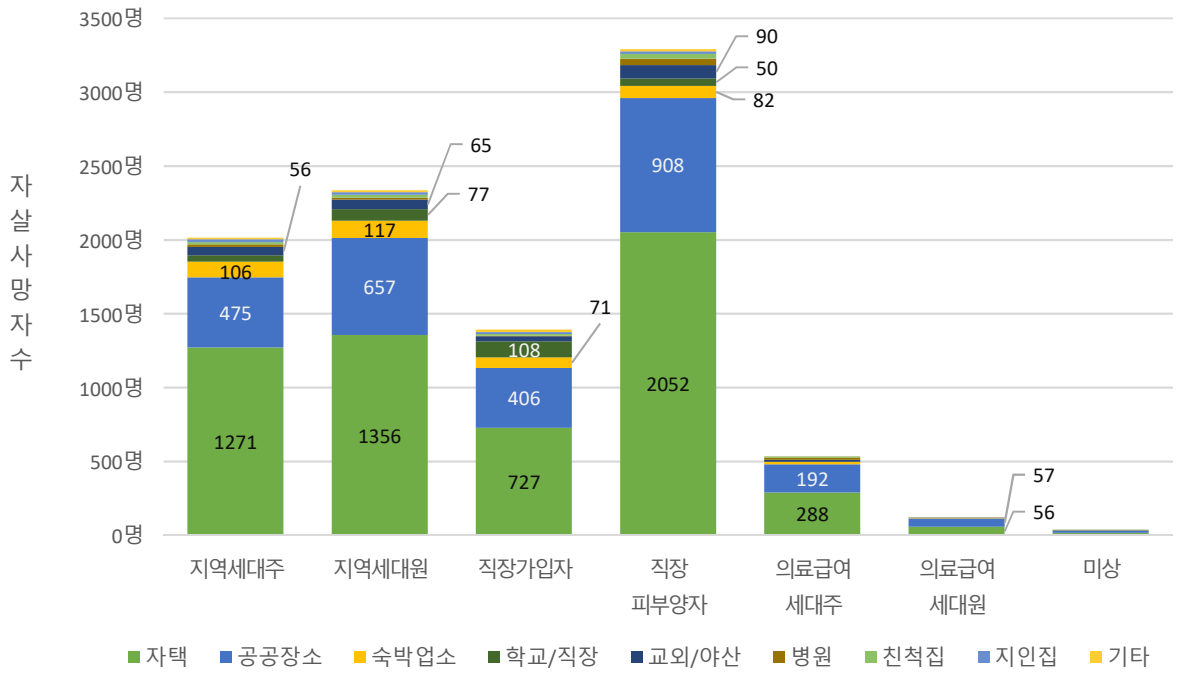
(단위 : 명)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미상	총합계
은평구	98 (22.8%)	94 (21.9%)	61 (14.2%)	151 (35.2%)	18 (4.2%)	5 (1.2%)	2 (0.5%)	429 (100%)
종로구	45 (25.7%)	43 (24.6%)	28 (16.0%)	47 (26.9%)	10 (5.7%)	0 (0.0%)	2 (1.1%)	175 (100%)
중구	25 (23.4%)	27 (25.2%)	13 (12.1%)	31 (29.0%)	4 (3.7%)	5 (4.7%)	2 (1.9%)	107 (100%)
중랑구	117 (24.3%)	119 (24.7%)	47 (9.8%)	158 (32.8%)	35 (7.3%)	6 (1.2%)	0 (0.0%)	482 (100%)
서울시 합계	2,014 (20.7%)	2,335 (24.0%)	1,392 (14.3%)	3,292 (33.8%)	536 (5.5%)	121 (1.2%)	36 (0.4%)	9,7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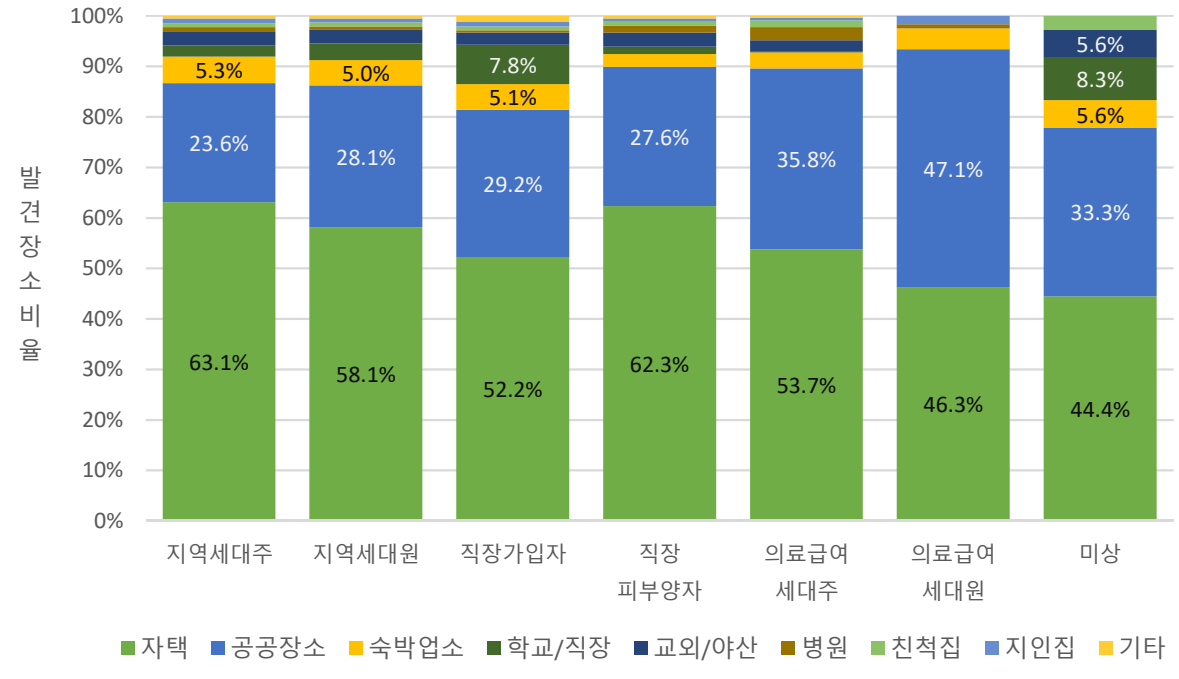
2.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가입상태

3) 건강보험가입상태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건강보험가입상태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건강보험가입상태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비율



3) 건강보험가입상태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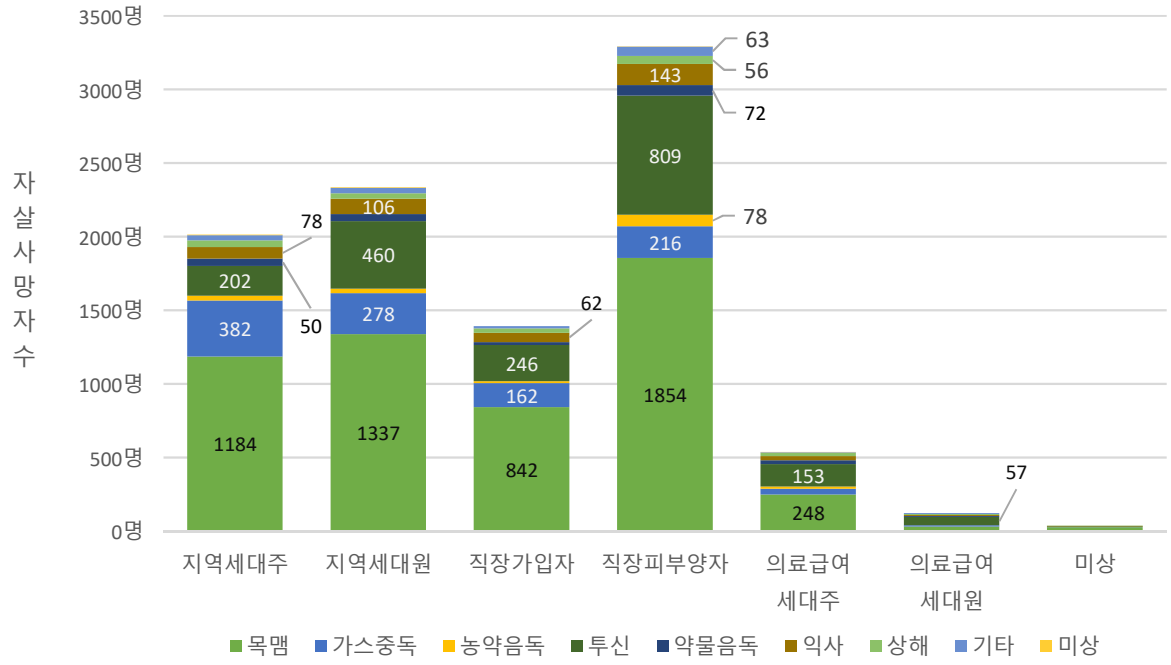
(단위 : 명)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미상
자택	1,271 (63.1%)	1,356 (58.1%)	727 (52.2%)	2,052 (62.3%)	288 (53.7%)	56 (46.3%)	16 (44.4%)
공공장소	475 (23.6%)	657 (28.1%)	406 (29.2%)	908 (27.6%)	192 (35.8%)	57 (47.1%)	12 (33.3%)
숙박업소	106 (5.3%)	117 (5.0%)	71 (5.1%)	82 (2.5%)	17 (3.2%)	5 (4.1%)	2 (5.6%)
학교/직장	44 (2.2%)	77 (3.3%)	108 (7.8%)	50 (1.5%)	1 (0.2%)	0 (0.0%)	3 (8.3%)
교외/야산	56 (2.8%)	65 (2.8%)	34 (2.4%)	90 (2.7%)	12 (2.2%)	0 (0.0%)	2 (5.6%)
병원	17 (0.8%)	14 (0.6%)	6 (0.4%)	45 (1.4%)	14 (2.6%)	1 (0.8%)	0 (0.0%)
친척집	15 (0.7%)	19 (0.8%)	11 (0.8%)	31 (0.9%)	7 (1.3%)	0 (0.0%)	1 (2.8%)
지인집	20 (1.0%)	18 (0.8%)	12 (0.9%)	17 (0.5%)	3 (0.6%)	2 (1.7%)	0 (0.0%)
기타	10 (0.5%)	12 (0.5%)	17 (1.2%)	17 (0.5%)	2 (0.4%)	0 (0.0%)	0 (0.0%)
총합계	2,014 (100%)	2,335 (100%)	1,392 (100%)	3,292 (100%)	536 (100%)	121 (100%)	3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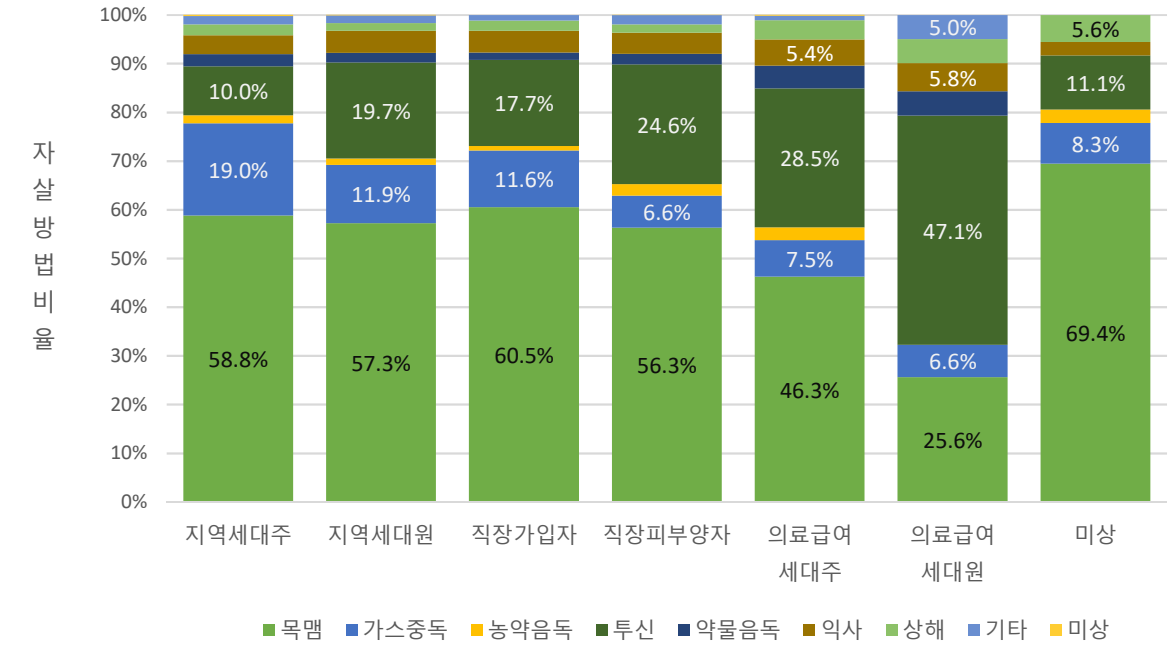
2. 주제별 분석: 건강보험가입상태

4) 건강보험가입상태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건강보험가입상태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건강보험가입상태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비율



4) 건강보험가입상태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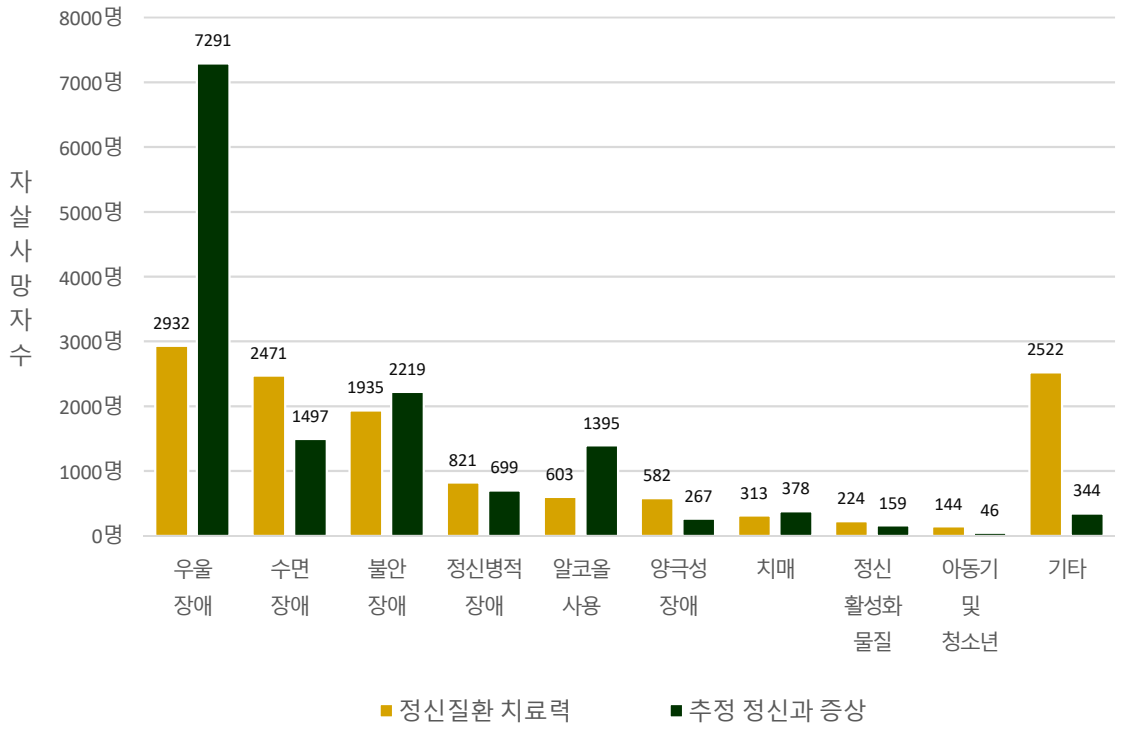
(단위 : 명)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세대원	미상
목맴	1,184 (58.8%)	1,337 (57.3%)	842 (60.5%)	1,854 (56.3%)	248 (46.3%)	31 (25.6%)	25 (69.4%)
가스중독	382 (19.0%)	278 (11.9%)	162 (11.6%)	216 (6.6%)	40 (7.5%)	8 (6.6%)	3 (8.3%)
농약음독	33 (1.6%)	31 (1.3%)	13 (0.9%)	78 (2.4%)	14 (2.6%)	0 (0.0%)	1 (2.8%)
투신	202 (10.0%)	460 (19.7%)	246 (17.7%)	809 (24.6%)	153 (28.5%)	57 (47.1%)	4 (11.1%)
약물음독	50 (2.5%)	46 (2.0%)	21 (1.5%)	72 (2.2%)	25 (4.7%)	6 (5.0%)	0 (0.0%)
익사	78 (3.9%)	106 (4.5%)	62 (4.5%)	143 (4.3%)	29 (5.4%)	7 (5.8%)	1 (2.8%)
상해	46 (2.3%)	37 (1.6%)	30 (2.2%)	56 (1.7%)	21 (3.9%)	6 (5.0%)	2 (5.6%)
기타	34 (1.7%)	37 (1.6%)	16 (1.1%)	63 (1.9%)	5 (0.9%)	6 (5.0%)	0 (0.0%)
미상	5 (0.2%)	3 (0.1%)	0 (0.0%)	1 (0.0%)	1 (0.2%)	0 (0.0%)	0 (0.0%)
총합계	2,014 (100%)	2,335 (100%)	1,392 (100%)	3,292 (100%)	536 (100%)	121 (100%)	36 (100%)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1) 정신질환별 치료력과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과 증상 비교

정신질환별 치료력과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상 추정 정신과 증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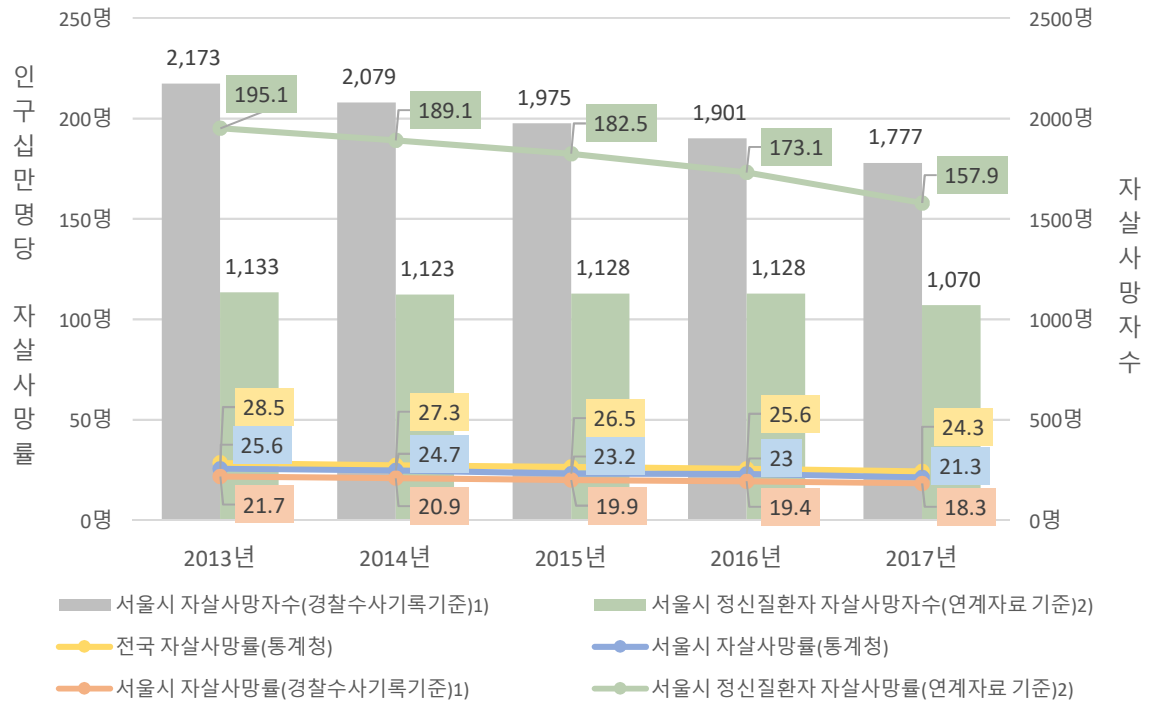
(단위 : 명)

	정신질환 치료력 (연계자료 기준)	정신건강 증상발현 (전수조사 기준)
우울장애	2,932 (23.4%)	7,291 (51.0%)
수면장애	2,471 (19.7%)	1,497 (10.5%)
불안장애	1,935 (15.4%)	2,219 (15.5%)
정신병적장애	821 (6.5%)	699 (4.9%)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1,395 (9.8%)
양극성장애	582 (4.6%)	267 (1.9%)
치매	313 (2.5%)	378 (2.6%)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224 (1.8%)	159 (1.1%)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46 (0.3%)
기타	2,522 (20.1%)	344 (2.4%)
합계	12,547 (100%)	14,295 (100%)

3. 주제별 분석: 정신질환

2) 연도별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연도별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자살사망률(통계청)	28.5	27.3	26.5	25.6	24.3
서울시 자살사망률(통계청)	25.6	24.7	23.2	23.0	21.3
서울시 자살사망률(경찰수사기록기준)[1]	21.7	20.9	19.9	19.4	18.3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살사망률(연계자료 기준)[2]	195.1	189.1	182.5	173.1	157.9
서울시 자살사망자수(경찰수사기록기준)[1]	2,173	2,079	1,975	1,901	1,777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살사망자수(연계자료 기준)[2]	1,133	1,123	1,128	1,128	1,070
서울시 정신질환자 수(연계자료 기준)[2]	580,739	593,920	618,181	651,740	677,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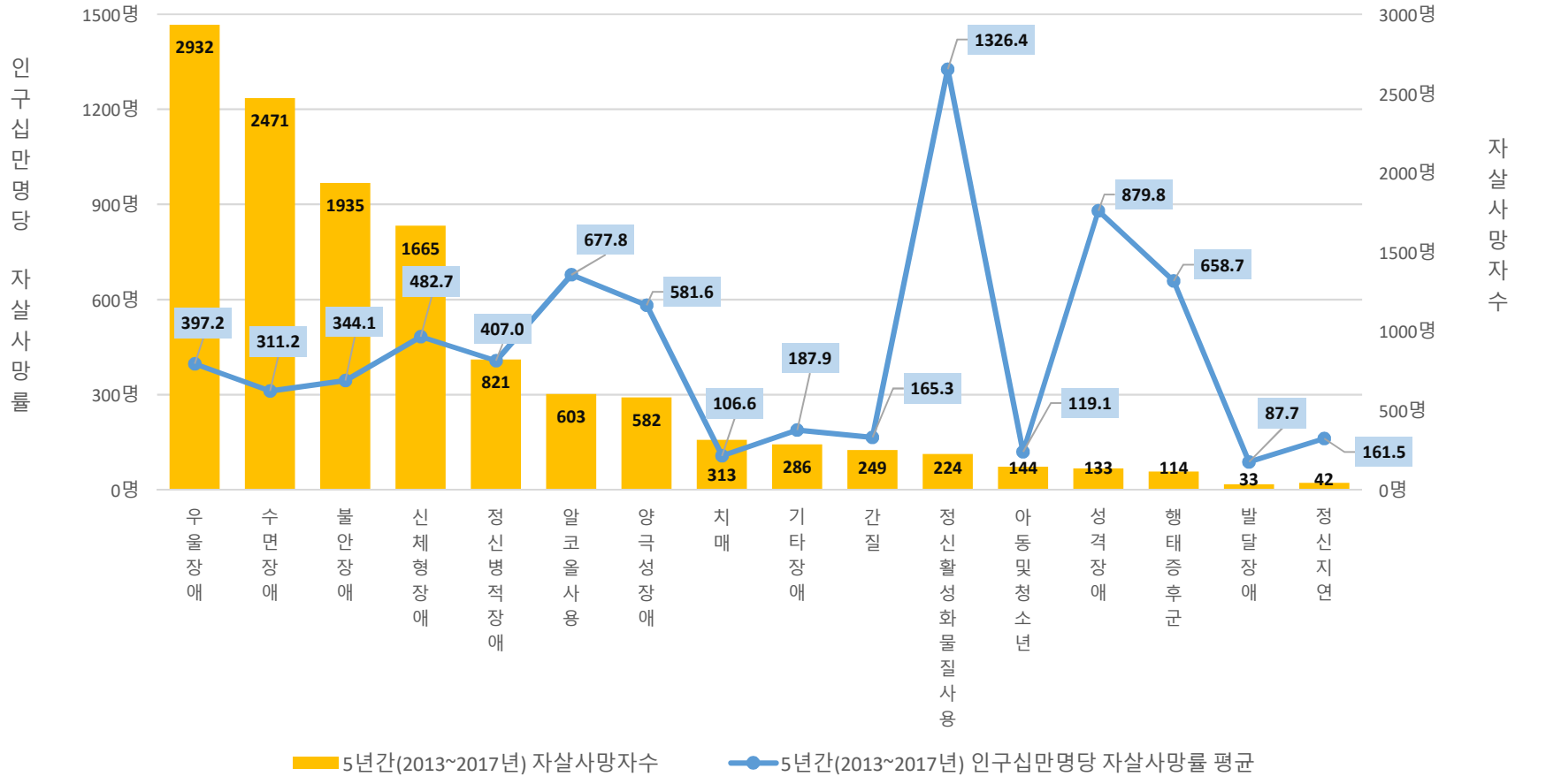
※ 자살사망률은 인구십만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1)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2) 경찰 수사기록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3. 주제별 분석: 정신질환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분석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계속)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시 전체 정신질환별 인구 수	수면장애	139,808	150,337	162,357	169,798	174,322	796,622
	우울장애	141,905	140,211	143,960	153,396	161,573	741,045
	불안장애	103,632	104,867	110,591	120,228	126,864	566,182
	신체형장애	70,633	69,290	67,952	68,842	68,275	344,992
	정신병적장애	39,186	39,792	40,478	41,024	41,119	201,599
	알코올 사용장애	18,016	17,883	17,900	17,618	17,536	88,953
	양극성장애	18,492	19,143	20,018	21,011	22,178	100,842
	치매	50,091	54,473	59,290	64,079	68,124	296,057
	기타 장애	21,882	25,890	30,298	36,571	42,202	156,843
	간질	29,858	29,183	30,005	30,967	31,349	151,362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3,245	3,832	4,100	3,301	2,741	17,219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27,129	24,586	22,802	23,147	23,874	121,538
	성격장애	3,030	2,994	2,973	3,037	3,093	15,127
	행태 증후군	3,248	3,219	3,294	3,414	4,172	17,347
	발달장애	7,626	7,585	7,492	7,383	7,529	37,615
	정신지연	5,099	5,047	5,194	5,435	5,254	26,029
서울시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	수면장애	468	468	503	520	512	2,471
	우울장애	596	591	598	585	562	2,932
	불안장애	396	358	424	388	369	1,935
	신체형장애	337	313	348	355	312	1,665
	정신병적장애	142	166	172	182	159	821
	알코올 사용장애	123	126	124	108	122	603
	양극성장애	129	109	120	125	99	582
	치매	59	58	72	58	66	313
	기타 장애	52	43	66	59	66	286
	간질	51	64	49	49	36	249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47	41	43	53	40	224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25	31	27	27	34	144
	성격장애	27	22	32	26	26	133
	행태 증후군	20	19	22	28	25	114
	발달장애	8	6	5	7	7	33
	정신지연	8	11	5	10	8	42

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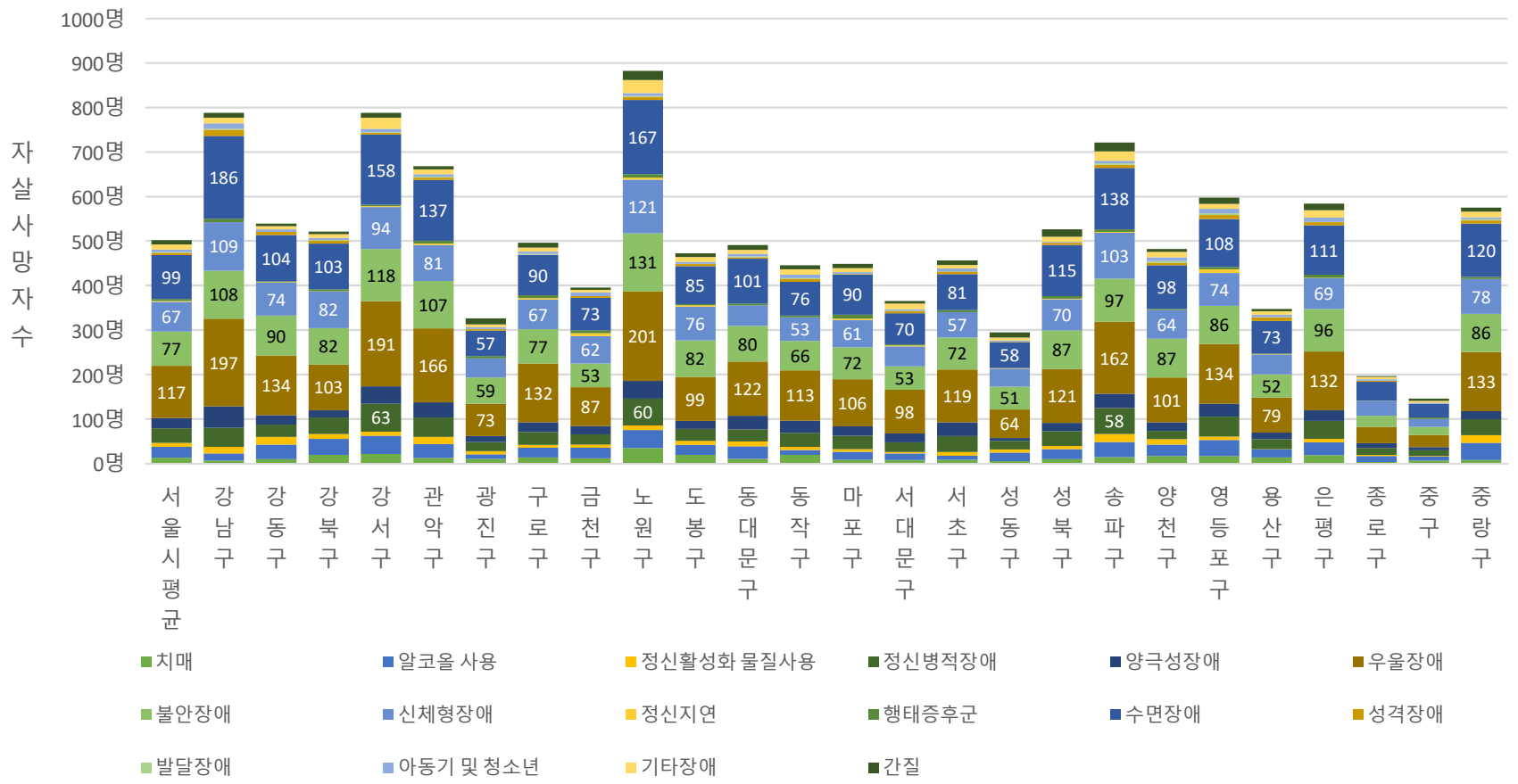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정신질환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수면장애	334.7	311.3	309.8	306.2	293.7	311.2
	우울장애	420.0	421.5	415.4	381.4	347.8	397.2
	불안장애	382.1	341.4	383.4	322.7	290.9	344.1
	신체형장애	477.1	451.7	512.1	515.7	457.0	482.7
	정신병적장애	362.4	417.2	424.9	443.6	386.7	407.0
	알코올 사용장애	682.7	704.6	692.7	613.0	695.7	677.8
	양극성장애	697.6	569.4	599.5	594.9	446.4	581.6
	치매	117.8	106.5	121.4	90.5	96.9	106.6
	기타 장애	237.6	166.1	217.8	161.3	156.4	187.9
	간질	170.8	219.3	163.3	158.2	114.8	165.3
	정신활성화물질 사용장애	1448.4	1069.9	1048.8	1605.6	1459.3	1326.4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92.2	126.1	118.4	116.6	142.4	119.1
	성격장애	891.1	734.8	1076.4	856.1	840.6	879.8
	행태 증후군	615.8	590.2	667.9	820.2	599.2	658.7
	발달장애	104.9	79.1	66.7	94.8	93.0	87.7
	정신지연	156.9	218.0	96.3	184.0	152.3	161.5

3. 주제별 분석: 정신질환

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치매	알코올 사용	정신 활성화 물질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신체형 장애	정신 지연	행태 증후군	수면 장애	성격 장애	발달 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기타 장애	간질	총합계
서울시 평균	13 (2.5%)	24 (4.8%)	9 (1.8%)	33 (6.5%)	23 (4.6%)	117 (23.4%)	77 (15.4%)	67 (13.3%)	2 (0.3%)	5 (0.9%)	99 (19.7%)	5 (1.1%)	1 (0.3%)	6 (1.1%)	11 (2.3%)	10 (2.0%)	502 (100%)
강남구	6 (0.8%)	16 (2.0%)	15 (1.9%)	43 (5.5%)	48 (6.1%)	197 (25.0%)	108 (13.7%)	109 (13.8%)	0 (0.0%)	8 (1.0%)	186 (23.6%)	14 (1.8%)	2 (0.3%)	12 (1.5%)	13 (1.6%)	11 (1.4%)	788 (100%)
강동구	9 (1.7%)	33 (6.1%)	17 (3.2%)	28 (5.2%)	21 (3.9%)	134 (24.9%)	90 (16.7%)	74 (13.7%)	1 (0.2%)	2 (0.4%)	104 (19.3%)	7 (1.3%)	0 (0.0%)	6 (1.1%)	7 (1.3%)	6 (1.1%)	539 (100%)
강북구	19 (3.6%)	36 (6.9%)	11 (2.1%)	37 (7.1%)	16 (3.1%)	103 (19.8%)	82 (15.7%)	82 (15.7%)	1 (0.2%)	4 (0.8%)	103 (19.8%)	7 (1.3%)	1 (0.2%)	5 (1.0%)	8 (1.5%)	6 (1.2%)	521 (100%)
강서구	21 (2.7%)	41 (5.2%)	9 (1.1%)	63 (8.0%)	39 (4.9%)	191 (24.2%)	118 (15.0%)	94 (11.9%)	2 (0.3%)	3 (0.4%)	158 (20.1%)	4 (0.5%)	1 (0.1%)	8 (1.0%)	25 (3.2%)	11 (1.4%)	788 (100%)
관악구	12 (1.8%)	31 (4.6%)	16 (2.4%)	44 (6.6%)	34 (5.1%)	166 (24.9%)	107 (16.0%)	81 (12.1%)	3 (0.4%)	6 (0.9%)	137 (20.5%)	5 (0.7%)	3 (0.4%)	5 (0.7%)	11 (1.6%)	7 (1.0%)	668 (100%)
광진구	10 (3.1%)	10 (3.1%)	7 (2.1%)	21 (6.4%)	13 (4.0%)	73 (22.4%)	59 (18.1%)	43 (13.2%)	0 (0.0%)	5 (1.5%)	57 (17.5%)	3 (0.9%)	1 (0.3%)	4 (1.2%)	6 (1.8%)	14 (4.3%)	326 (100%)
구로구	13 (2.6%)	22 (4.4%)	6 (1.2%)	29 (5.8%)	22 (4.4%)	132 (26.6%)	77 (15.5%)	67 (13.5%)	3 (0.6%)	7 (1.4%)	90 (18.1%)	1 (0.2%)	2 (0.4%)	5 (1.0%)	9 (1.8%)	11 (2.2%)	496 (100%)
금천구	11 (2.8%)	24 (6.1%)	7 (1.8%)	23 (5.8%)	19 (4.8%)	87 (22.0%)	53 (13.4%)	62 (15.7%)	6 (1.5%)	7 (1.8%)	73 (18.5%)	4 (1.0%)	0 (0.0%)	8 (2.0%)	6 (1.5%)	5 (1.3%)	395 (100%)
노원구	34 (3.9%)	41 (4.6%)	10 (1.1%)	60 (6.8%)	40 (4.5%)	201 (22.8%)	131 (14.9%)	121 (13.7%)	4 (0.5%)	8 (0.9%)	167 (18.9%)	7 (0.8%)	2 (0.2%)	6 (0.7%)	30 (3.4%)	20 (2.3%)	882 (100%)

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계속)

(단위 : 명)

	치매	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 활성화 물질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신체형 장애	정신 지연	행태 증후군	수면 장애	성격 장애	발달 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기타 장애	간질	총합계
도봉구	19 (4.0%)	22 (4.7%)	9 (1.9%)	27 (5.7%)	18 (3.8%)	99 (21.0%)	82 (17.4%)	76 (16.1%)	3 (0.6%)	3 (0.6%)	85 (18.0%)	5 (1.1%)	0 (0.0%)	5 (1.1%)	11 (2.3%)	8 (1.7%)	472 (100%)
동대문구	10 (2.0%)	28 (5.7%)	11 (2.2%)	27 (5.5%)	31 (6.3%)	122 (24.8%)	80 (16.3%)	46 (9.4%)	0 (0.0%)	4 (0.8%)	101 (20.6%)	3 (0.6%)	2 (0.4%)	6 (1.2%)	9 (1.8%)	11 (2.2%)	491 (100%)
동작구	19 (4.3%)	11 (2.5%)	7 (1.6%)	31 (7.0%)	28 (6.3%)	113 (25.4%)	66 (14.8%)	53 (11.9%)	0 (0.0%)	4 (0.9%)	76 (17.1%)	7 (1.6%)	1 (0.2%)	8 (1.8%)	12 (2.7%)	9 (2.0%)	445 (100%)
마포구	8 (1.8%)	18 (4.0%)	6 (1.3%)	30 (6.7%)	21 (4.7%)	106 (23.7%)	72 (16.1%)	61 (13.6%)	3 (0.7%)	9 (2.0%)	90 (20.1%)	1 (0.2%)	1 (0.2%)	4 (0.9%)	9 (2.0%)	9 (2.0%)	448 (100%)
서대문구	7 (1.9%)	15 (4.1%)	3 (0.8%)	22 (6.0%)	20 (5.5%)	98 (26.8%)	53 (14.5%)	45 (12.3%)	2 (0.5%)	2 (0.5%)	70 (19.2%)	5 (1.4%)	1 (0.3%)	3 (0.8%)	13 (3.6%)	6 (1.6%)	365 (100%)
서초구	8 (1.8%)	9 (2.0%)	8 (1.8%)	36 (7.9%)	31 (6.8%)	119 (26.1%)	72 (15.8%)	57 (12.5%)	0 (0.0%)	4 (0.9%)	81 (17.8%)	6 (1.3%)	0 (0.0%)	7 (1.5%)	8 (1.8%)	10 (2.2%)	456 (100%)
성동구	5 (1.7%)	19 (6.5%)	7 (2.4%)	19 (6.5%)	7 (2.4%)	64 (21.8%)	51 (17.3%)	41 (13.9%)	1 (0.3%)	0 (0.0%)	58 (19.7%)	1 (0.3%)	0 (0.0%)	3 (1.0%)	7 (2.4%)	11 (3.7%)	294 (100%)
성북구	9 (1.7%)	23 (4.4%)	7 (1.3%)	33 (6.3%)	19 (3.6%)	121 (23.0%)	87 (16.5%)	70 (13.3%)	1 (0.2%)	6 (1.1%)	115 (21.9%)	5 (1.0%)	0 (0.0%)	2 (0.4%)	11 (2.1%)	17 (3.2%)	526 (100%)
송파구	14 (1.9%)	34 (4.7%)	18 (2.5%)	58 (8.0%)	32 (4.4%)	162 (22.5%)	97 (13.5%)	103 (14.3%)	2 (0.3%)	6 (0.8%)	138 (19.1%)	7 (1.0%)	3 (0.4%)	6 (0.8%)	21 (2.9%)	20 (2.8%)	721 (100%)
양천구	16 (3.3%)	26 (5.4%)	12 (2.5%)	19 (3.9%)	19 (3.9%)	101 (21.0%)	87 (18.0%)	64 (13.3%)	0 (0.0%)	3 (0.6%)	98 (20.3%)	6 (1.2%)	4 (0.8%)	8 (1.7%)	12 (2.5%)	7 (1.5%)	482 (100%)

4) 정신질환별/구별 자살사망(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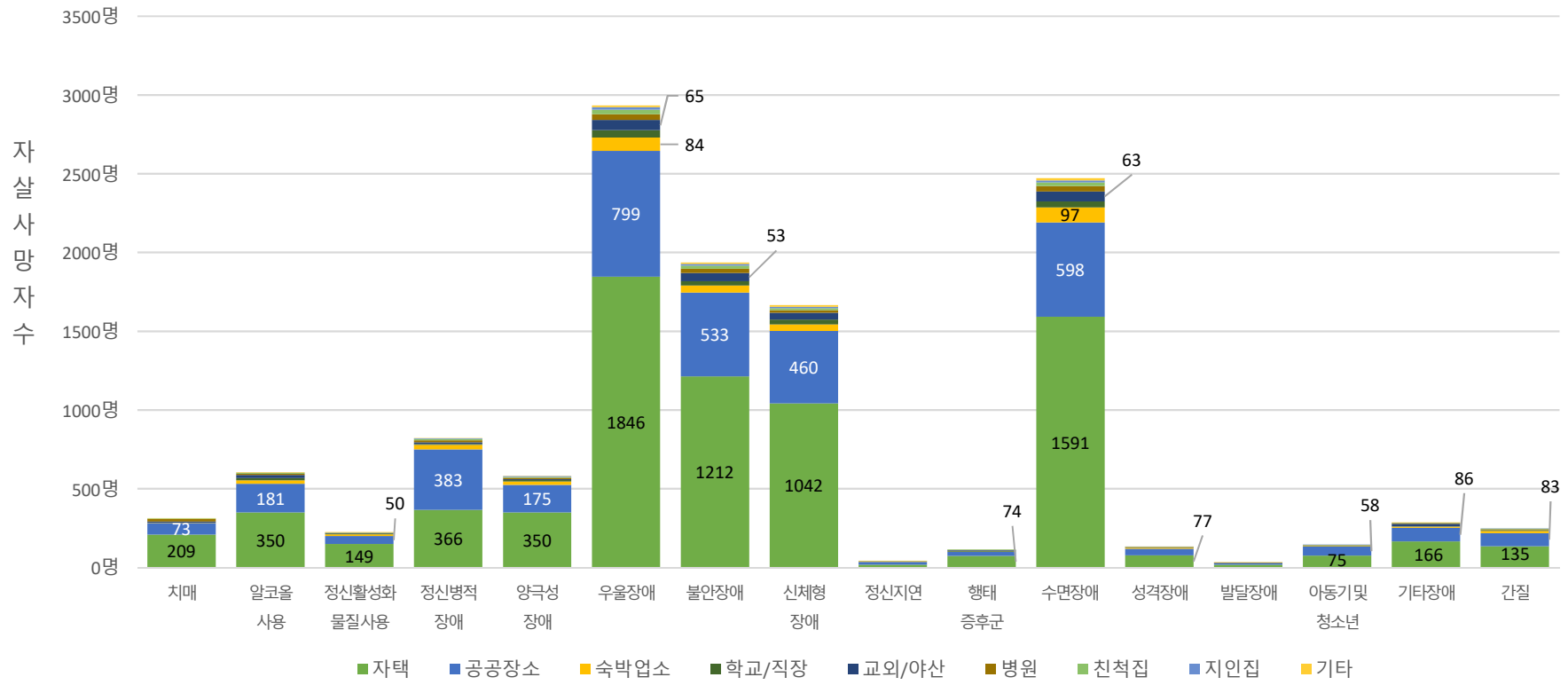
(단위 : 명)

	치매	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 활성화 물질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신체형 장애	정신 지연	행태 증후군	수면 장애	성격 장애	발달 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기타 장애	간질	총합계
영등포구	16 (2.7%)	36 (6.0%)	8 (1.3%)	45 (7.5%)	29 (4.9%)	134 (22.4%)	86 (14.4%)	74 (12.4%)	8 (1.3%)	5 (0.8%)	108 (18.1%)	9 (1.5%)	4 (0.7%)	10 (1.7%)	11 (1.8%)	14 (2.3%)	597 (100%)
용산구	13 (3.7%)	18 (5.2%)	1 (0.3%)	22 (6.3%)	15 (4.3%)	79 (22.8%)	52 (15.0%)	44 (12.7%)	1 (0.3%)	2 (0.6%)	73 (21.0%)	8 (2.3%)	1 (0.3%)	5 (1.4%)	8 (2.3%)	5 (1.4%)	347 (100%)
은평구	18 (3.1%)	29 (5.0%)	8 (1.4%)	40 (6.8%)	24 (4.1%)	132 (22.6%)	96 (16.4%)	69 (11.8%)	1 (0.2%)	7 (1.2%)	111 (19.0%)	7 (1.2%)	1 (0.2%)	9 (1.5%)	17 (2.9%)	15 (2.6%)	584 (100%)
종로구	3 (1.5%)	13 (6.6%)	3 (1.5%)	15 (7.7%)	11 (5.6%)	37 (18.9%)	25 (12.8%)	33 (16.8%)	0 (0.0%)	1 (0.5%)	42 (21.4%)	3 (1.5%)	0 (0.0%)	3 (1.5%)	5 (2.6%)	2 (1.0%)	196 (100%)
중구	6 (4.1%)	9 (6.2%)	1 (0.7%)	13 (9.0%)	7 (4.8%)	28 (19.3%)	18 (12.4%)	18 (12.4%)	0 (0.0%)	3 (2.1%)	30 (20.7%)	1 (0.7%)	0 (0.0%)	2 (1.4%)	4 (2.8%)	5 (3.4%)	145 (100%)
중랑구	7 (1.2%)	39 (6.8%)	17 (3.0%)	36 (6.3%)	18 (3.1%)	133 (23.1%)	86 (15.0%)	78 (13.6%)	0 (0.0%)	5 (0.9%)	120 (20.9%)	7 (1.2%)	3 (0.5%)	4 (0.7%)	13 (2.3%)	9 (1.6%)	575 (100%)
서울시 총합	313 (2.5%)	603 (4.8%)	224 (1.8%)	821 (6.5%)	582 (4.6%)	2,932 (23.4%)	1,935 (15.4%)	1,665 (13.3%)	42 (0.3%)	114 (0.9%)	2,471 (19.7%)	133 (1.1%)	33 (0.3%)	144 (1.1%)	286 (2.3%)	249 (2.0%)	12,547 (100%)

3. 주제별 분석: 정신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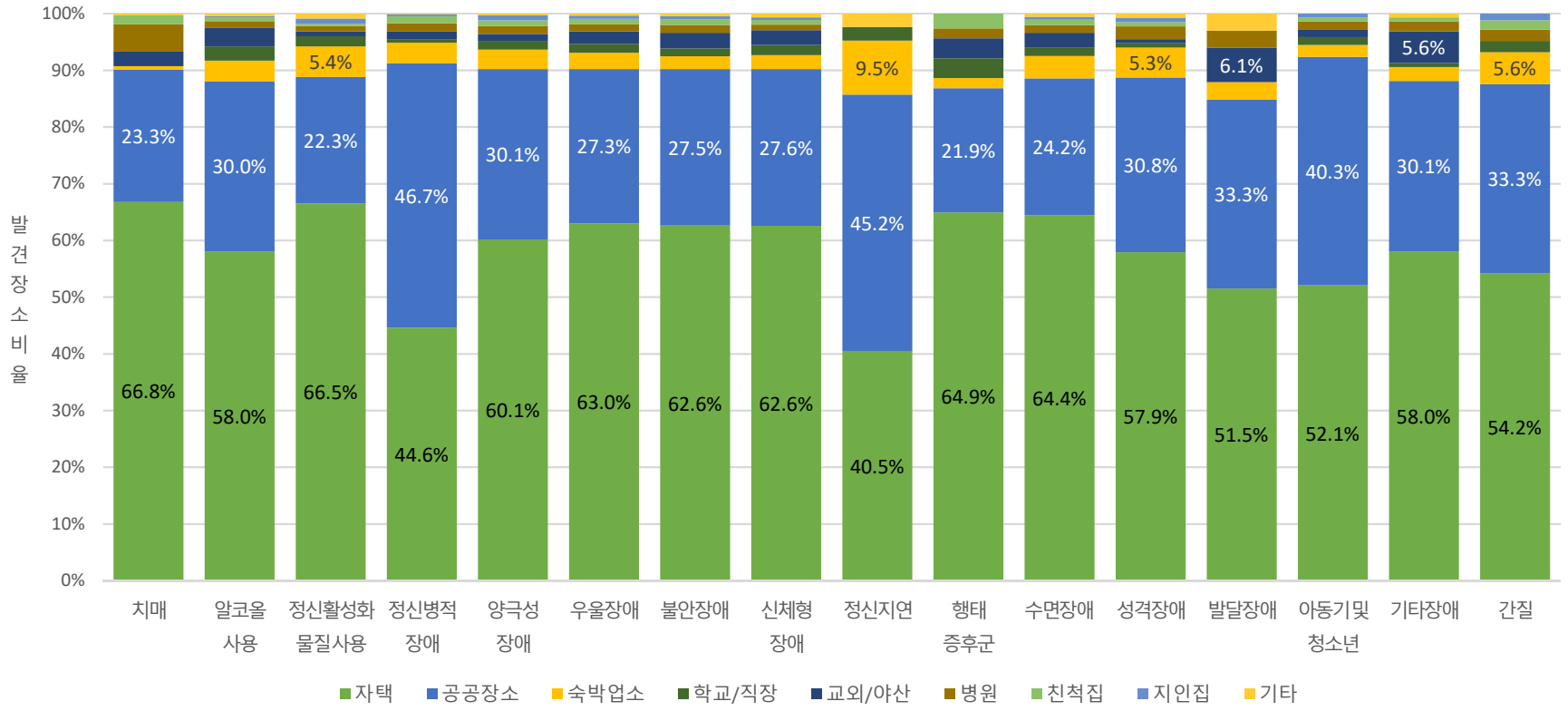
5) 정신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정신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5) 정신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정신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비율



5) 정신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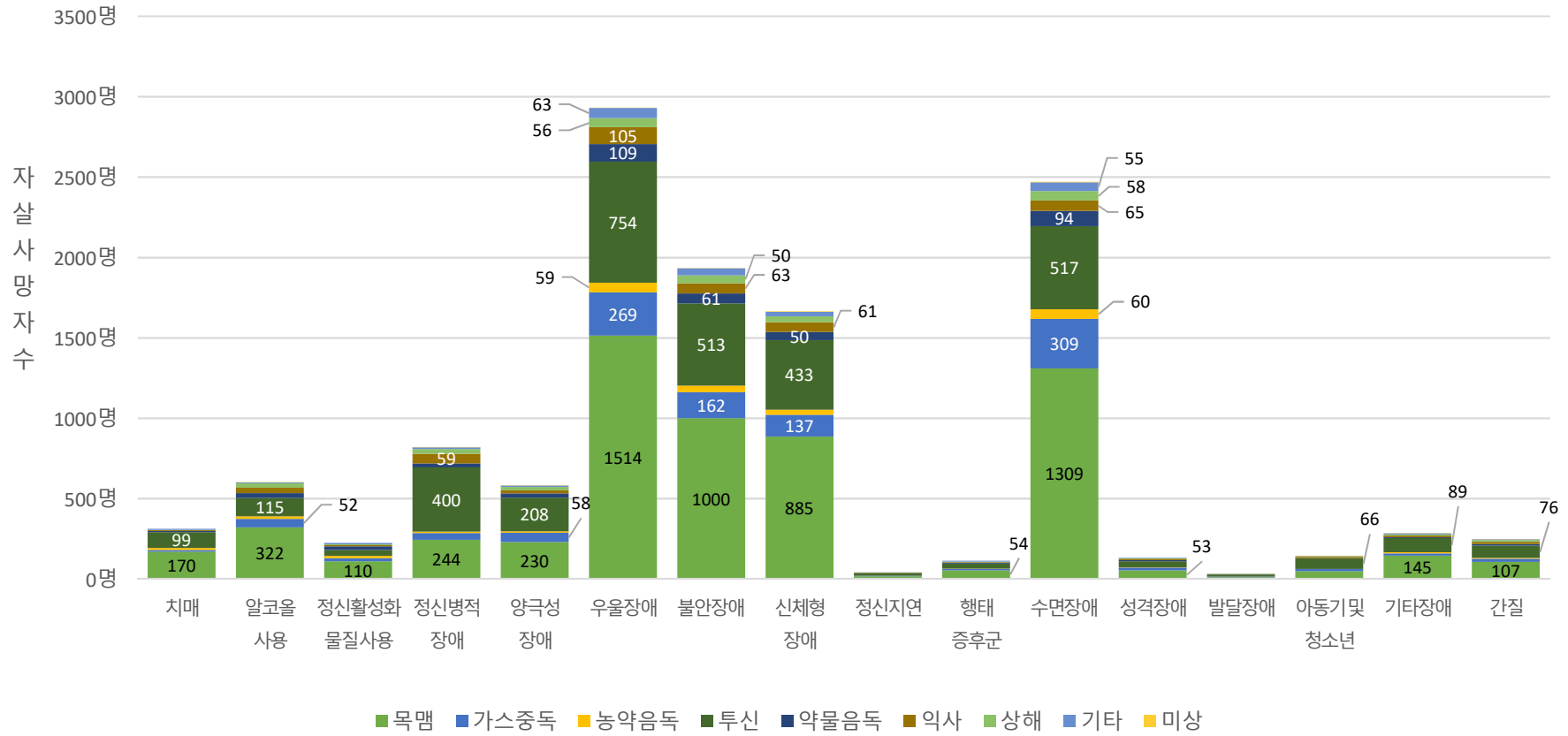
(단위 : 명)

	치매	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 활성화 물질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신체형 장애	정신 지연	행태 증후군	수면 장애	성격 장애	발달 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기타 장애	간질
자택	209 (66.8%)	350 (58.0%)	149 (66.5%)	366 (44.6%)	350 (60.1%)	1,846 (63.0%)	1,212 (62.6%)	1,042 (62.6%)	17 (40.5%)	74 (64.9%)	1,591 (64.4%)	77 (57.9%)	17 (51.5%)	75 (52.1%)	166 (58.0%)	135 (54.2%)
공공장소	73 (23.3%)	181 (30.0%)	50 (22.3%)	383 (46.7%)	175 (30.1%)	799 (27.3%)	533 (27.5%)	460 (27.6%)	19 (45.2%)	25 (21.9%)	598 (24.2%)	41 (30.8%)	11 (33.3%)	58 (40.3%)	86 (30.1%)	83 (33.3%)
숙박업소	2 (0.6%)	22 (3.6%)	12 (5.4%)	30 (3.7%)	20 (3.4%)	84 (2.9%)	44 (2.3%)	41 (2.5%)	4 (9.5%)	2 (1.8%)	97 (3.9%)	7 (5.3%)	1 (3.0%)	3 (2.1%)	7 (2.4%)	14 (5.6%)
학교/직장	0 (0.0%)	15 (2.5%)	4 (1.8%)	5 (0.6%)	9 (1.5%)	46 (1.6%)	27 (1.4%)	30 (1.8%)	1 (2.4%)	4 (3.5%)	38 (1.5%)	1 (0.8%)	0 (0.0%)	2 (1.4%)	2 (0.7%)	5 (2.0%)
교외/야산	8 (2.6%)	20 (3.3%)	2 (0.9%)	11 (1.3%)	7 (1.2%)	65 (2.2%)	53 (2.7%)	43 (2.6%)	0 (0.0%)	4 (3.5%)	63 (2.5%)	1 (0.8%)	2 (6.1%)	2 (1.4%)	16 (5.6%)	0 (0.0%)
병원	15 (4.8%)	7 (1.2%)	2 (0.9%)	12 (1.5%)	8 (1.4%)	36 (1.2%)	27 (1.4%)	16 (1.0%)	0 (0.0%)	2 (1.8%)	33 (1.3%)	3 (2.3%)	1 (3.0%)	2 (1.4%)	5 (1.7%)	5 (2.0%)
친척집	5 (1.6%)	4 (0.7%)	1 (0.4%)	10 (1.2%)	6 (1.0%)	29 (1.0%)	19 (1.0%)	14 (0.8%)	0 (0.0%)	3 (2.6%)	24 (1.0%)	1 (0.8%)	0 (0.0%)	1 (0.7%)	2 (0.7%)	4 (1.6%)
지인집	0 (0.0%)	1 (0.2%)	2 (0.9%)	3 (0.4%)	5 (0.9%)	16 (0.5%)	11 (0.6%)	8 (0.5%)	0 (0.0%)	0 (0.0%)	13 (0.5%)	1 (0.8%)	0 (0.0%)	1 (0.7%)	0 (0.0%)	3 (1.2%)
기타	1 (0.3%)	3 (0.5%)	2 (0.9%)	1 (0.1%)	2 (0.3%)	11 (0.4%)	9 (0.5%)	11 (0.7%)	1 (2.4%)	0 (0.0%)	14 (0.6%)	1 (0.8%)	1 (3.0%)	0 (0.0%)	2 (0.7%)	0 (0.0%)
총합계	313 (100%)	603 (100%)	224 (100%)	821 (100%)	582 (100%)	2,932 (100%)	1,935 (100%)	1,665 (100%)	42 (100%)	114 (100%)	2,471 (100%)	133 (100%)	33 (100%)	144 (100%)	286 (100%)	249 (100%)

3. 주제별 분석: 정신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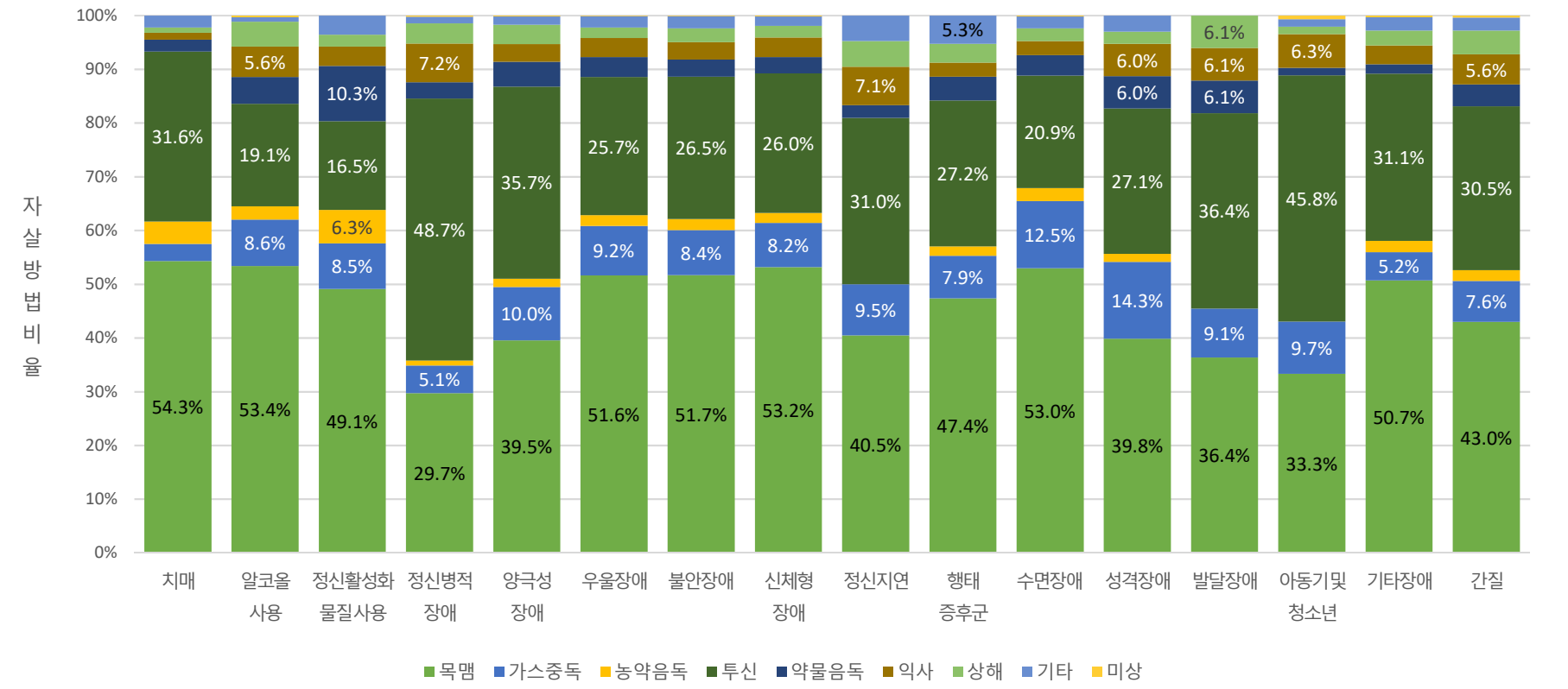
6) 정신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정신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6) 정신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정신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비율



6) 정신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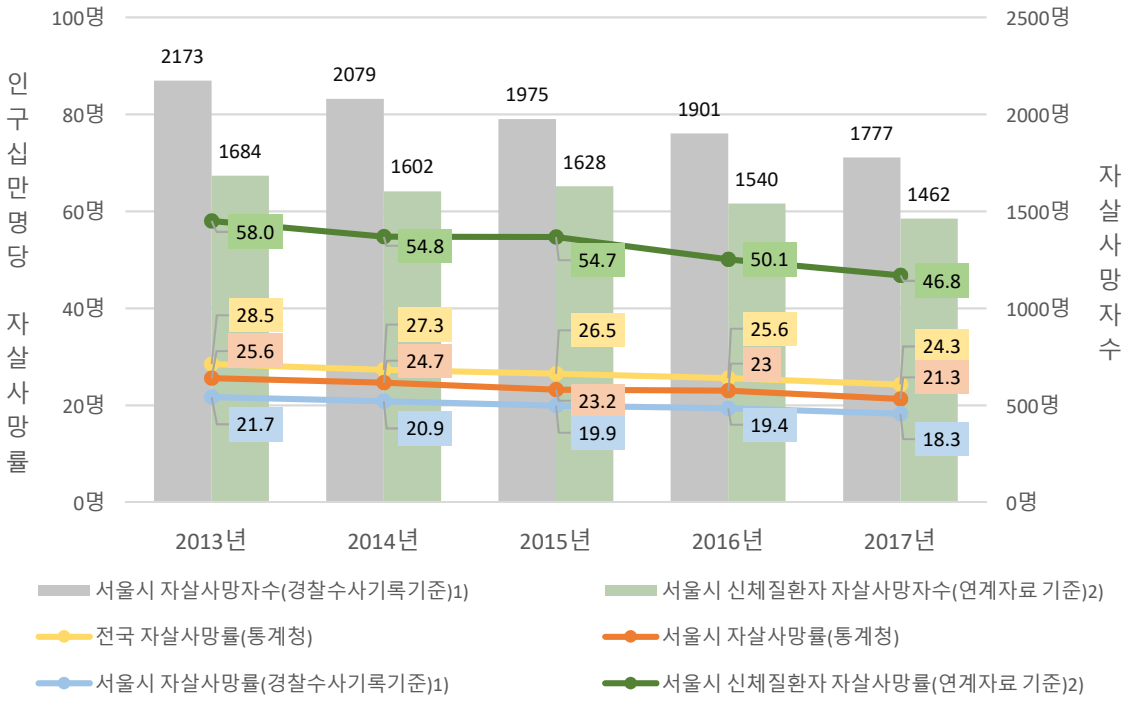
(단위 : 명)

	치매	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 활성화 물질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불안 장애	신체형 장애	정신 지연	행태 증후군	수면 장애	성격 장애	발달 장애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기타 장애	간질
목맴	170 (54.3%)	322 (53.4%)	110 (49.1%)	244 (29.7%)	230 (39.5%)	1,514 (51.6%)	1,000 (51.7%)	885 (53.2%)	17 (40.5%)	54 (47.4%)	1,309 (53.0%)	53 (39.8%)	12 (36.4%)	48 (33.3%)	145 (50.7%)	107 (43.0%)
가스중독	10 (3.2%)	52 (8.6%)	19 (8.5%)	42 (5.1%)	58 (10.0%)	269 (9.2%)	162 (8.4%)	137 (8.2%)	4 (9.5%)	9 (7.9%)	309 (12.5%)	19 (14.3%)	3 (9.1%)	14 (9.7%)	15 (5.2%)	19 (7.6%)
농약음독	13 (4.2%)	15 (2.5%)	14 (6.3%)	8 (1.0%)	9 (1.5%)	59 (2.0%)	40 (2.1%)	31 (1.9%)	0 (0.0%)	2 (1.8%)	60 (2.4%)	2 (1.5%)	0 (0.0%)	0 (0.0%)	6 (2.1%)	5 (2.0%)
투신	99 (31.6%)	115 (19.1%)	37 (16.5%)	400 (48.7%)	208 (35.7%)	754 (25.7%)	513 (26.5%)	433 (26.0%)	13 (31.0%)	31 (27.2%)	517 (20.9%)	36 (27.1%)	12 (36.4%)	66 (45.8%)	89 (31.1%)	76 (30.5%)
약물음독	7 (2.2%)	30 (5.0%)	23 (10.3%)	25 (3.0%)	27 (4.6%)	109 (3.7%)	61 (3.2%)	50 (3.0%)	1 (2.4%)	5 (4.4%)	94 (3.8%)	8 (6.0%)	2 (6.1%)	2 (1.4%)	5 (1.7%)	10 (4.0%)
익사	4 (1.3%)	34 (5.6%)	8 (3.6%)	59 (7.2%)	19 (3.3%)	105 (3.6%)	63 (3.3%)	61 (3.7%)	3 (7.1%)	3 (2.6%)	65 (2.6%)	8 (6.0%)	2 (6.1%)	9 (6.3%)	10 (3.5%)	14 (5.6%)
상해	3 (1.0%)	28 (4.6%)	5 (2.2%)	31 (3.8%)	21 (3.6%)	56 (1.9%)	50 (2.6%)	36 (2.2%)	2 (4.8%)	4 (3.5%)	58 (2.3%)	3 (2.3%)	2 (6.1%)	2 (1.4%)	8 (2.8%)	11 (4.4%)
기타	7 (2.2%)	5 (0.8%)	8 (3.6%)	10 (1.2%)	9 (1.5%)	63 (2.1%)	44 (2.3%)	29 (1.7%)	2 (4.8%)	6 (5.3%)	55 (2.2%)	4 (3.0%)	0 (0.0%)	2 (1.4%)	7 (2.4%)	6 (2.4%)
미상	0 (0.0%)	2 (0.3%)	0 (0.0%)	2 (0.2%)	1 (0.2%)	3 (0.1%)	2 (0.1%)	3 (0.2%)	0 (0.0%)	0 (0.0%)	4 (0.2%)	0 (0.0%)	0 (0.0%)	1 (0.7%)	1 (0.3%)	1 (0.4%)
총합계	313 (100%)	603 (100%)	224 (100%)	821 (100%)	582 (100%)	2,932 (100%)	1,935 (100%)	1,665 (100%)	42 (100%)	114 (100%)	2,471 (100%)	133 (100%)	33 (100%)	144 (100%)	286 (100%)	249 (100%)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1) 연도별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연도별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자살사망률(통계청)	28.5	27.3	26.5	25.6	24.3
서울시 자살사망률(통계청)	25.6	24.7	23.2	23.0	21.3
서울시 자살사망률(경찰수사기록기준)[1]	21.7	20.9	19.9	19.4	18.3
서울시 신체질환자 자살사망률(연계자료 기준)[2]	58.0	54.8	54.7	50.1	46.8
서울시 자살사망자수(경찰수사기록기준)[1]	2,173	2,079	1,975	1,901	1,777
서울시 신체질환자 자살사망자수(연계자료 기준)[2]	1,684	1,602	1,628	1,540	1,462
서울시 신체질환자 수(연계자료 기준)[2]	2,902,575	2,925,587	2,974,609	3,073,981	3,124,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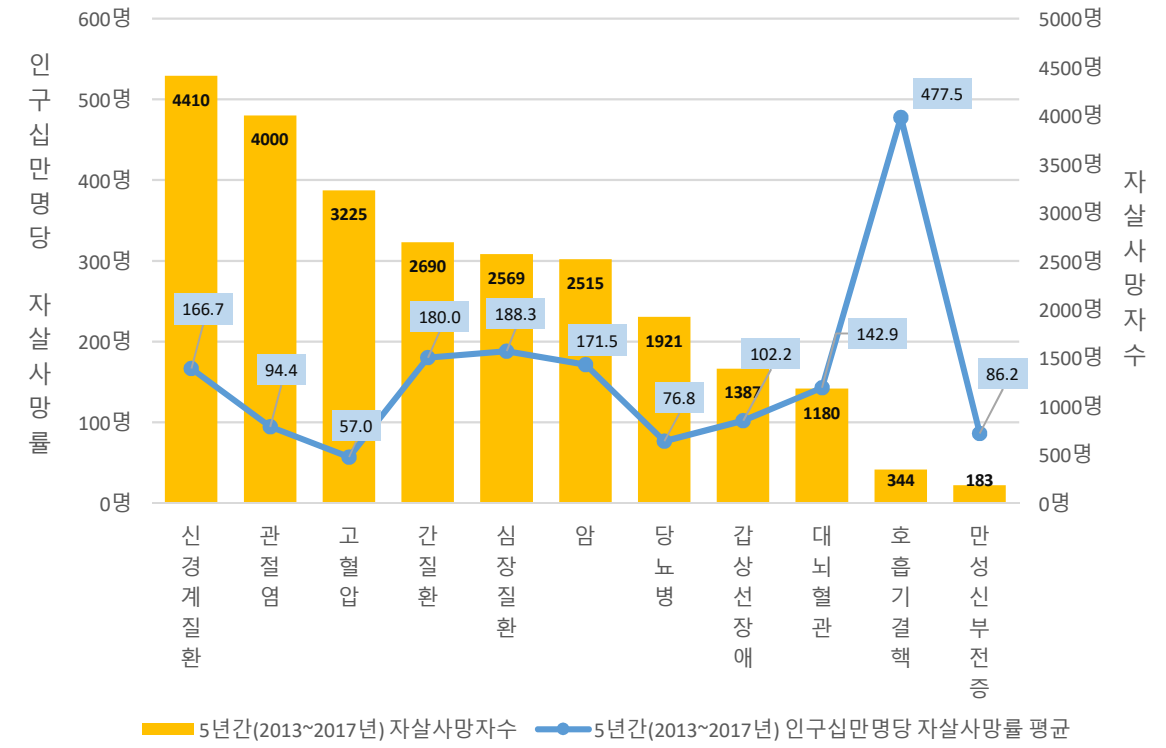
※ 자살사망률은 인구십만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1)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2) 경찰 수사기록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2)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시 전체 신체질환별 인구 수	신경계질환	494,602	503,078	523,504	559,864	571,598	2,652,646
	관절염	822,121	834,211	845,736	866,810	873,644	4,242,522
	고혈압	1,110,744	1,106,986	1,128,954	1,154,893	1,167,804	5,669,381
	간질환	300,091	288,464	288,508	309,914	309,148	1,496,125
	심장질환	257,438	262,456	268,840	282,906	295,917	1,367,557
	암	273,954	283,105	292,866	308,265	321,201	1,479,391
	당뇨병	468,323	478,938	496,760	525,773	546,514	2,516,308
	갑상선장애	289,330	268,540	260,188	270,156	274,118	1,362,332
	대뇌혈관질환	160,786	159,274	165,407	169,108	173,259	827,834
	호흡기결핵	16,434	15,239	14,165	13,794	12,500	72,132
	만성신부전증	37,312	38,496	41,899	46,230	48,500	212,437
	신경계질환	878	857	882	929	864	4,410
	관절염	821	761	859	784	775	4,000
	고혈압	677	666	691	618	573	3,225

2)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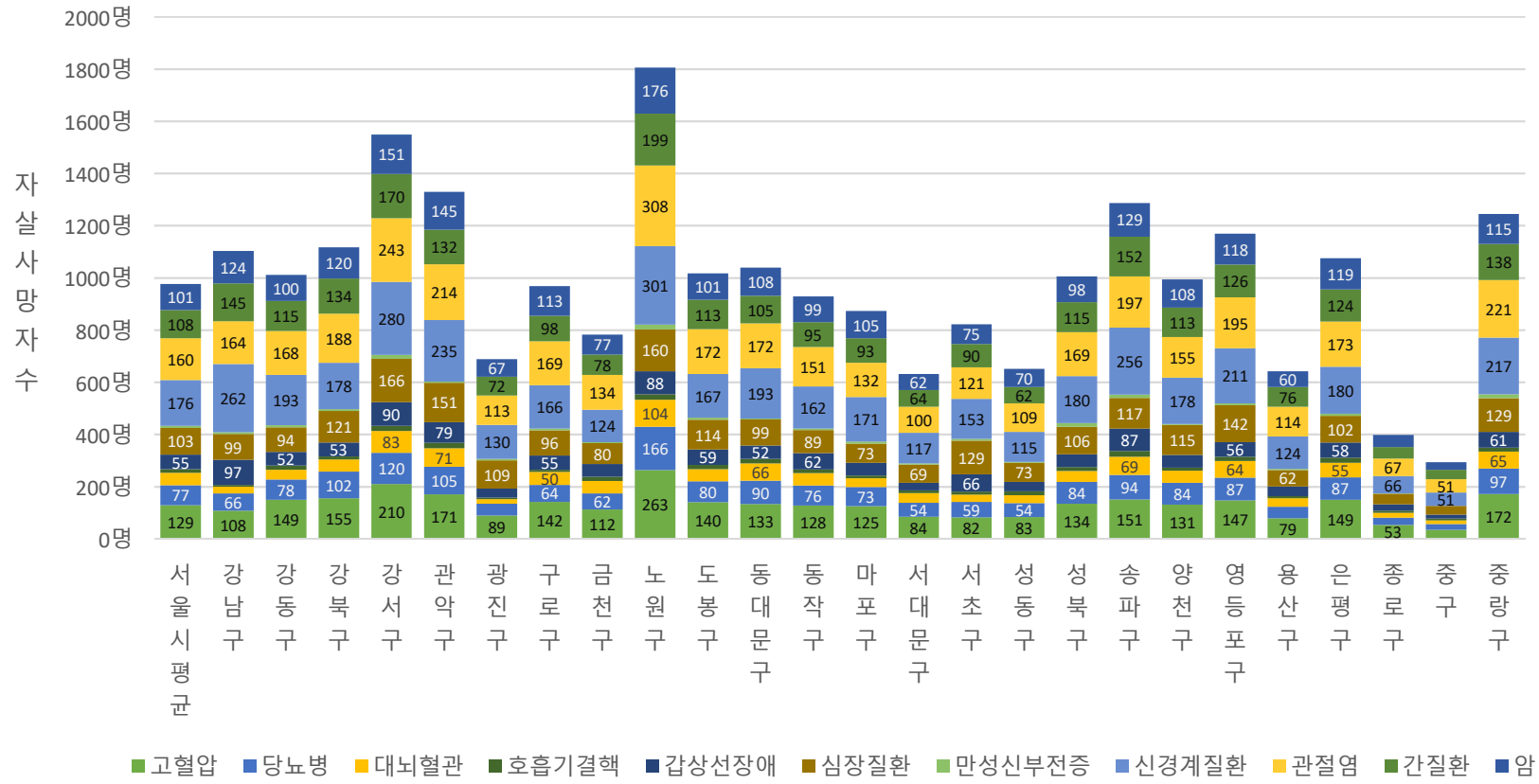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시 신체질환별 자살사망자 수	간질환	528	546	540	546	530	2,690
	심장질환	501	507	532	518	511	2,569
	암	566	533	521	465	430	2,515
	당뇨병	401	396	420	357	347	1,921
	갑상선장애	246	290	296	283	272	1,387
	대뇌혈관질환	247	237	250	239	207	1,180
	호흡기결핵	77	68	76	64	59	344
	만성신부전증	31	36	34	39	43	18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신체질환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신경계질환	177.5	170.4	168.5	165.9	151.2	166.7
	관절염	99.9	91.2	101.6	90.4	88.7	94.4
	고혈압	61.0	60.2	61.2	53.5	49.1	57.0
	간질환	175.9	189.3	187.2	176.2	171.4	180.0
	심장질환	194.6	193.2	197.9	183.1	172.7	188.3
	암	206.6	188.3	177.9	150.8	133.9	171.5
	당뇨병	85.6	82.7	84.5	67.9	63.5	76.8
	갑상선장애	85.0	108.0	113.8	104.8	99.2	102.2
	대뇌혈관질환	153.6	148.8	151.1	141.3	119.5	142.9
	호흡기결핵	468.5	446.2	536.5	464.0	472.0	477.5
	만성신부전증	83.1	93.5	81.1	84.4	88.7	86.2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3)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3)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고혈압	당뇨병	대뇌혈관 질환	호흡기 결핵	갑상선 장애	심장질환	만성 신부전증	신경계질환	관절염	간질환	암	총합계
서울시 평균	129 (13.2%)	77 (7.9%)	47 (4.8%)	14 (1.4%)	55 (5.7%)	103 (10.5%)	7 (0.7%)	176 (18.1%)	160 (16.4%)	108 (11.0%)	101 (10.3%)	977 (100%)
강남구	108 (9.8%)	66 (6.0%)	25 (2.3%)	7 (0.6%)	97 (8.8%)	99 (9.0%)	6 (0.5%)	262 (23.8%)	164 (14.9%)	145 (13.1%)	124 (11.2%)	1,103 (100%)
강동구	149 (14.7%)	78 (7.7%)	38 (3.8%)	16 (1.6%)	52 (5.1%)	94 (9.3%)	8 (0.8%)	193 (19.1%)	168 (16.6%)	115 (11.4%)	100 (9.9%)	1,011 (100%)
강북구	155 (13.9%)	102 (9.1%)	47 (4.2%)	12 (1.1%)	53 (4.7%)	121 (10.8%)	7 (0.6%)	178 (15.9%)	188 (16.8%)	134 (12.0%)	120 (10.7%)	1,117 (100%)
강서구	210 (13.6%)	120 (7.7%)	83 (5.4%)	20 (1.3%)	90 (5.8%)	166 (10.7%)	16 (1.0%)	280 (18.1%)	243 (15.7%)	170 (11.0%)	151 (9.7%)	1,549 (100%)
관악구	171 (12.9%)	105 (7.9%)	71 (5.3%)	21 (1.6%)	79 (5.9%)	151 (11.4%)	5 (0.4%)	235 (17.7%)	214 (16.1%)	132 (9.9%)	145 (10.9%)	1,329 (100%)
광진구	89 (12.9%)	45 (6.5%)	18 (2.6%)	6 (0.9%)	34 (4.9%)	109 (15.8%)	5 (0.7%)	130 (18.9%)	113 (16.4%)	72 (10.5%)	67 (9.7%)	688 (100%)
구로구	142 (14.7%)	64 (6.6%)	50 (5.2%)	8 (0.8%)	55 (5.7%)	96 (9.9%)	7 (0.7%)	166 (17.1%)	169 (17.5%)	98 (10.1%)	113 (11.7%)	968 (100%)
금천구	112 (14.3%)	62 (7.9%)	48 (6.1%)	16 (2.0%)	49 (6.3%)	80 (10.2%)	3 (0.4%)	124 (15.8%)	134 (17.1%)	78 (10.0%)	77 (9.8%)	783 (100%)
노원구	263 (14.6%)	166 (9.2%)	104 (5.8%)	21 (1.2%)	88 (4.9%)	160 (8.9%)	19 (1.1%)	301 (16.7%)	308 (17.1%)	199 (11.0%)	176 (9.8%)	1,805 (100%)

3)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고혈압	당뇨병	대뇌혈관 질환	호흡기 결핵	갑상선 장애	심장질환	만성 신부전증	신경계질환	관절염	간질환	암	총합계
도봉구	140 (13.8%)	80 (7.9%)	47 (4.6%)	16 (1.6%)	59 (5.8%)	114 (11.2%)	8 (0.8%)	167 (16.4%)	172 (16.9%)	113 (11.1%)	101 (9.9%)	1,017 (100%)
동대문구	133 (12.8%)	90 (8.7%)	66 (6.4%)	17 (1.6%)	52 (5.0%)	99 (9.5%)	4 (0.4%)	193 (18.6%)	172 (16.6%)	105 (10.1%)	108 (10.4%)	1,039 (100%)
동작구	128 (13.8%)	76 (8.2%)	48 (5.2%)	14 (1.5%)	62 (6.7%)	89 (9.6%)	5 (0.5%)	162 (17.4%)	151 (16.3%)	95 (10.2%)	99 (10.7%)	929 (100%)
마포구	125 (14.3%)	73 (8.4%)	34 (3.9%)	10 (1.1%)	49 (5.6%)	73 (8.4%)	8 (0.9%)	171 (19.6%)	132 (15.1%)	93 (10.7%)	105 (12.0%)	873 (100%)
서대문구	84 (13.3%)	54 (8.5%)	37 (5.9%)	10 (1.6%)	30 (4.7%)	69 (10.9%)	5 (0.8%)	117 (18.5%)	100 (15.8%)	64 (10.1%)	62 (9.8%)	632 (100%)
서초구	82 (10.0%)	59 (7.2%)	28 (3.4%)	12 (1.5%)	66 (8.0%)	129 (15.7%)	7 (0.9%)	153 (18.6%)	121 (14.7%)	90 (10.9%)	75 (9.1%)	822 (100%)
성동구	83 (12.7%)	54 (8.3%)	30 (4.6%)	15 (2.3%)	36 (5.5%)	73 (11.2%)	4 (0.6%)	115 (17.7%)	109 (16.7%)	62 (9.5%)	70 (10.8%)	651 (100%)
성북구	134 (13.3%)	84 (8.4%)	42 (4.2%)	15 (1.5%)	49 (4.9%)	106 (10.5%)	13 (1.3%)	180 (17.9%)	169 (16.8%)	115 (11.4%)	98 (9.8%)	1,005 (100%)
송파구	151 (11.7%)	94 (7.3%)	69 (5.4%)	22 (1.7%)	87 (6.8%)	117 (9.1%)	13 (1.0%)	256 (19.9%)	197 (15.3%)	152 (11.8%)	129 (10.0%)	1,287 (100%)
양천구	131 (13.2%)	84 (8.5%)	46 (4.6%)	12 (1.2%)	48 (4.8%)	115 (11.6%)	4 (0.4%)	178 (17.9%)	155 (15.6%)	113 (11.4%)	108 (10.9%)	994 (100%)

1)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3) 신체질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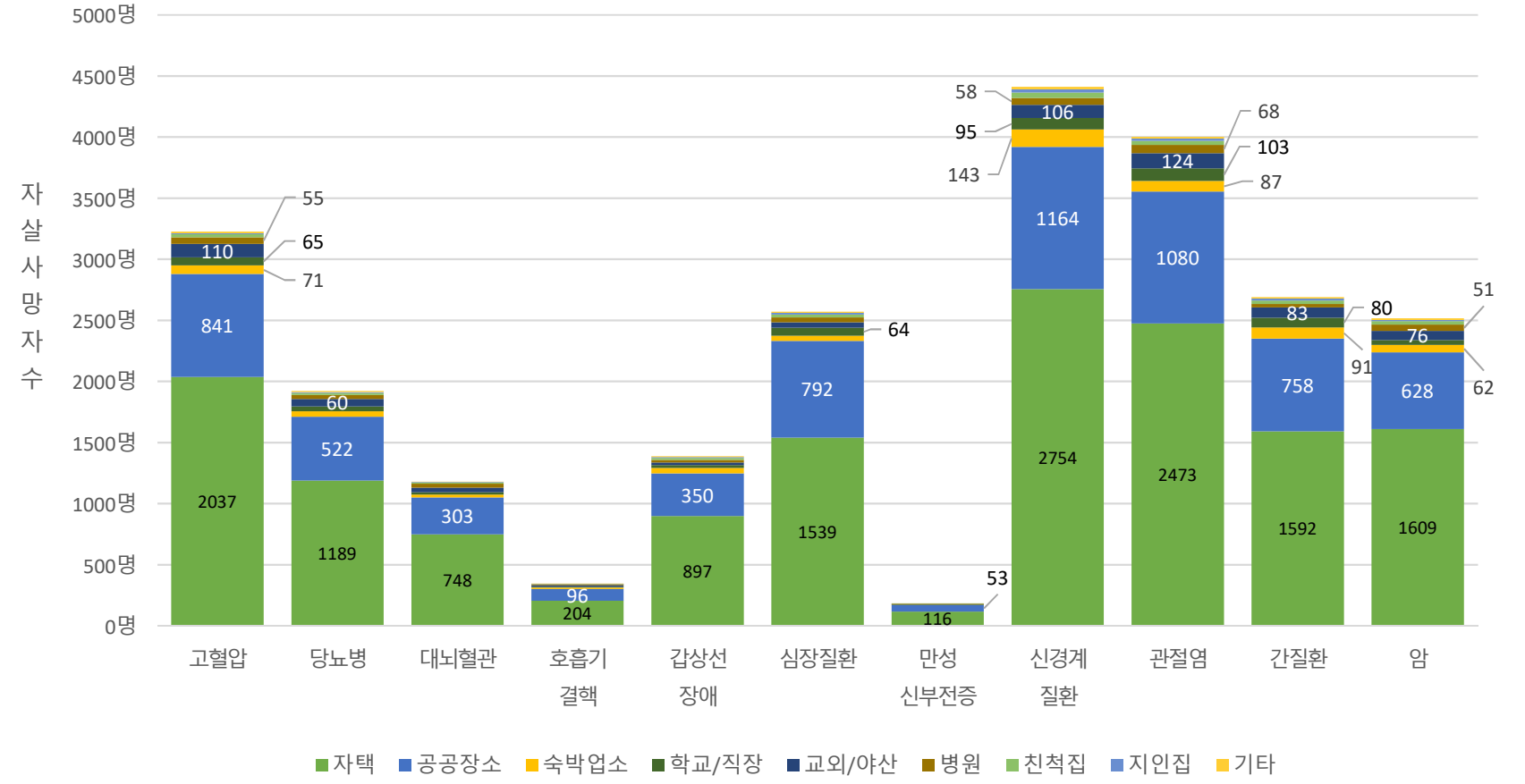
(단위 : 명)

	고혈압	당뇨병	대뇌혈관 질환	호흡기 결핵	갑상선 장애	심장질환	만성 신부전증	신경계질환	관절염	간질환	암	총합계
영등포구	147 (12.6%)	87 (7.4%)	64 (5.5%)	16 (1.4%)	56 (4.8%)	142 (12.1%)	7 (0.6%)	211 (18.0%)	195 (16.7%)	126 (10.8%)	118 (10.1%)	1,169 (100%)
용산구	79 (12.3%)	44 (6.9%)	32 (5.0%)	8 (1.2%)	38 (5.9%)	62 (9.7%)	5 (0.8%)	124 (19.3%)	114 (17.8%)	76 (11.8%)	60 (9.3%)	642 (100%)
은평구	149 (13.9%)	87 (8.1%)	55 (5.1%)	20 (1.9%)	58 (5.4%)	102 (9.5%)	8 (0.7%)	180 (16.7%)	173 (16.1%)	124 (11.5%)	119 (11.1%)	1,075 (100%)
종로구	53 (13.3%)	28 (7.0%)	19 (4.8%)	8 (2.0%)	24 (6.0%)	41 (10.3%)	1 (0.3%)	66 (16.6%)	67 (16.8%)	45 (11.3%)	46 (11.6%)	398 (100%)
중구	35 (11.9%)	22 (7.5%)	14 (4.8%)	7 (2.4%)	15 (5.1%)	33 (11.3%)	0 (0.0%)	51 (17.4%)	51 (17.4%)	36 (12.3%)	29 (9.9%)	293 (100%)
중랑구	172 (13.8%)	97 (7.8%)	65 (5.2%)	15 (1.2%)	61 (4.9%)	129 (10.4%)	15 (1.2%)	217 (17.4%)	221 (17.8%)	138 (11.1%)	115 (9.2%)	1245 (100%)
서울시 합계	3,225 (13.2%)	1,921 (7.9%)	1,180 (4.8%)	344 (1.4%)	1,387 (5.7%)	2,569 (10.5%)	183 (0.7%)	4,410 (18.1%)	4,000 (16.4%)	2,690 (11.0%)	2,515 (10.3%)	24,42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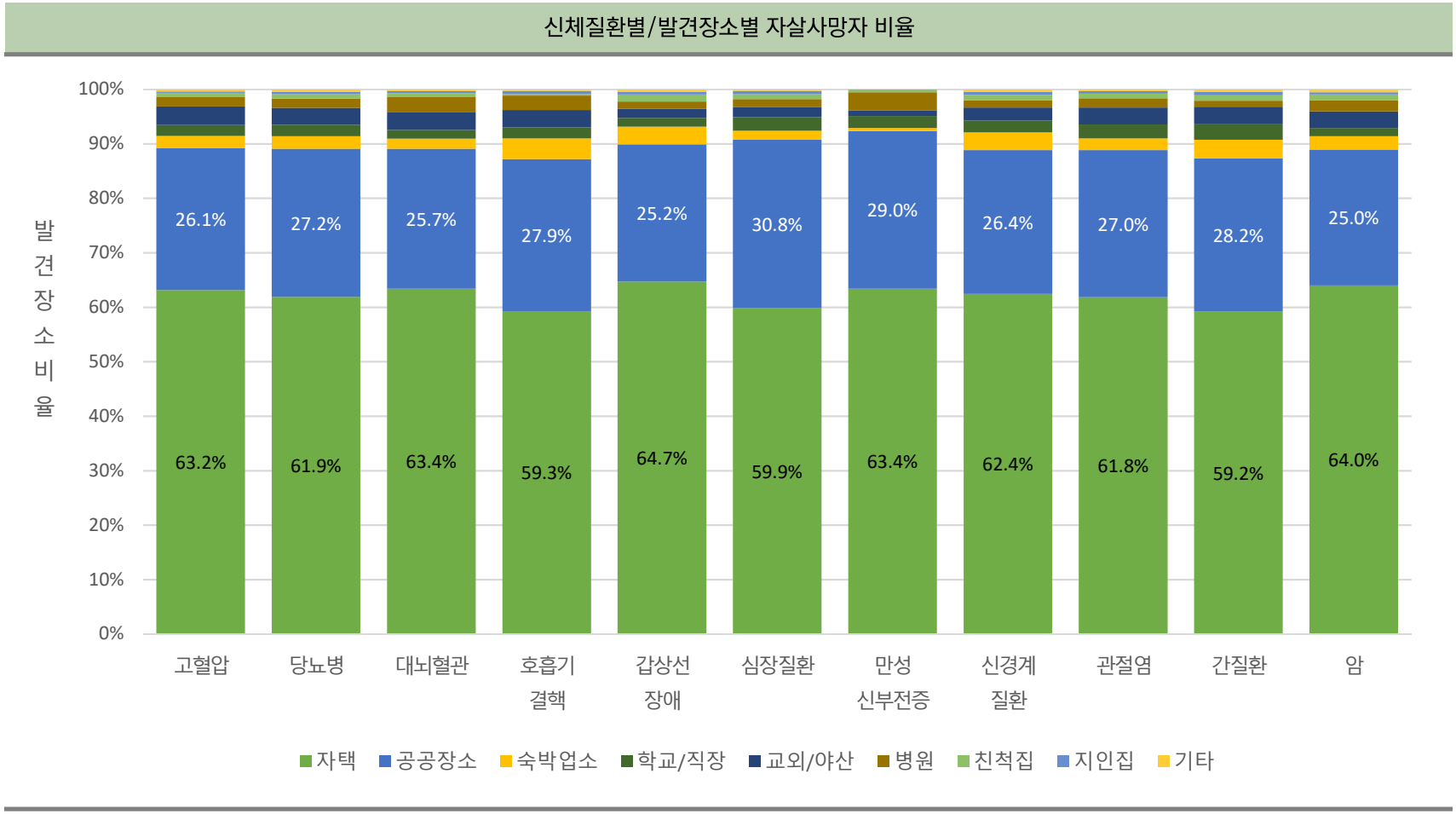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4) 신체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신체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4) 신체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4) 신체질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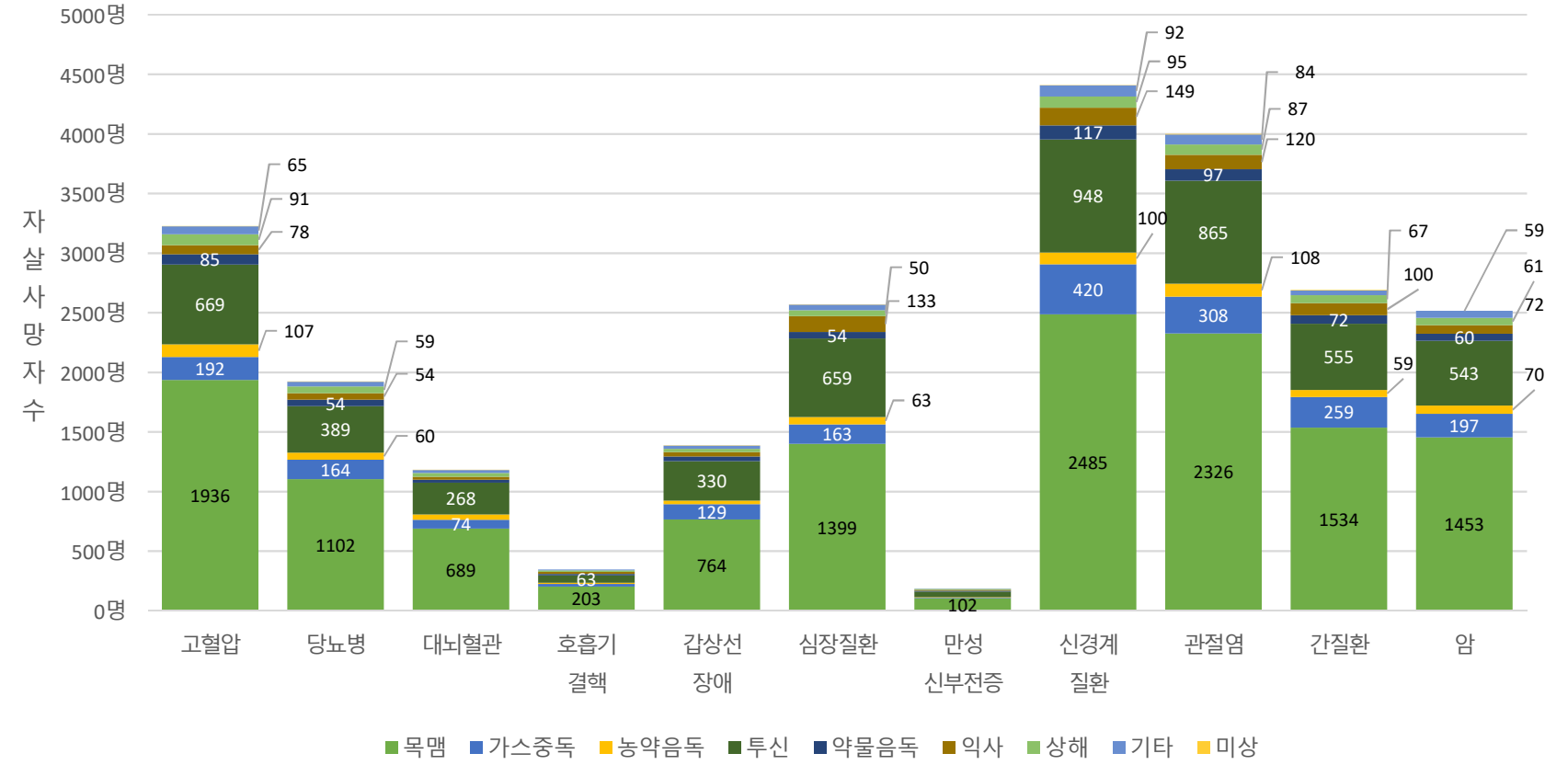
(단위 : 명)

	고혈압	당뇨병	대뇌혈관 질환	호흡기 결핵	갑상선 장애	심장질환	만성 신부전증	신경계질환	관절염	간질환	암
자택	2,037 (63.2%)	1,189 (61.9%)	748 (63.4%)	204 (59.3%)	897 (64.7%)	1,539 (59.9%)	116 (63.4%)	2,754 (62.4%)	2,473 (61.8%)	1,592 (59.2%)	1,609 (64.0%)
공공장소	841 (26.1%)	522 (27.2%)	303 (25.7%)	96 (27.9%)	350 (25.2%)	792 (30.8%)	53 (29.0%)	1,164 (26.4%)	1,080 (27.0%)	758 (28.2%)	628 (25.0%)
숙박업소	71 (2.2%)	45 (2.3%)	22 (1.9%)	13 (3.8%)	45 (3.2%)	43 (1.7%)	1 (0.5%)	143 (3.2%)	87 (2.2%)	91 (3.4%)	62 (2.5%)
학교/직장	65 (2.0%)	40 (2.1%)	19 (1.6%)	7 (2.0%)	22 (1.6%)	64 (2.5%)	4 (2.2%)	95 (2.2%)	103 (2.6%)	80 (3.0%)	38 (1.5%)
교외/야산	110 (3.4%)	60 (3.1%)	39 (3.3%)	11 (3.2%)	23 (1.7%)	46 (1.8%)	2 (1.1%)	106 (2.4%)	124 (3.1%)	83 (3.1%)	76 (3.0%)
병원	55 (1.7%)	33 (1.7%)	32 (2.7%)	9 (2.6%)	19 (1.4%)	39 (1.5%)	6 (3.3%)	58 (1.3%)	68 (1.7%)	30 (1.1%)	51 (2.0%)
친척집	25 (0.8%)	15 (0.8%)	9 (0.8%)	1 (0.3%)	18 (1.3%)	23 (0.9%)	1 (0.5%)	44 (1.0%)	34 (0.9%)	27 (1.0%)	28 (1.1%)
지인집	8 (0.2%)	8 (0.4%)	4 (0.3%)	2 (0.6%)	7 (0.5%)	15 (0.6%)	0 (0.0%)	25 (0.6%)	18 (0.5%)	16 (0.6%)	10 (0.4%)
기타	13 (0.4%)	9 (0.5%)	4 (0.3%)	1 (0.3%)	6 (0.4%)	8 (0.3%)	0 (0.0%)	21 (0.5%)	13 (0.3%)	13 (0.5%)	13 (0.5%)
총합계	3,225 (100%)	1,921 (100%)	1,180 (100%)	344 (100%)	1,387 (100%)	2,569 (100%)	183 (100%)	4,410 (100%)	4,000 (100%)	2,690 (100%)	2,515 (100%)

4.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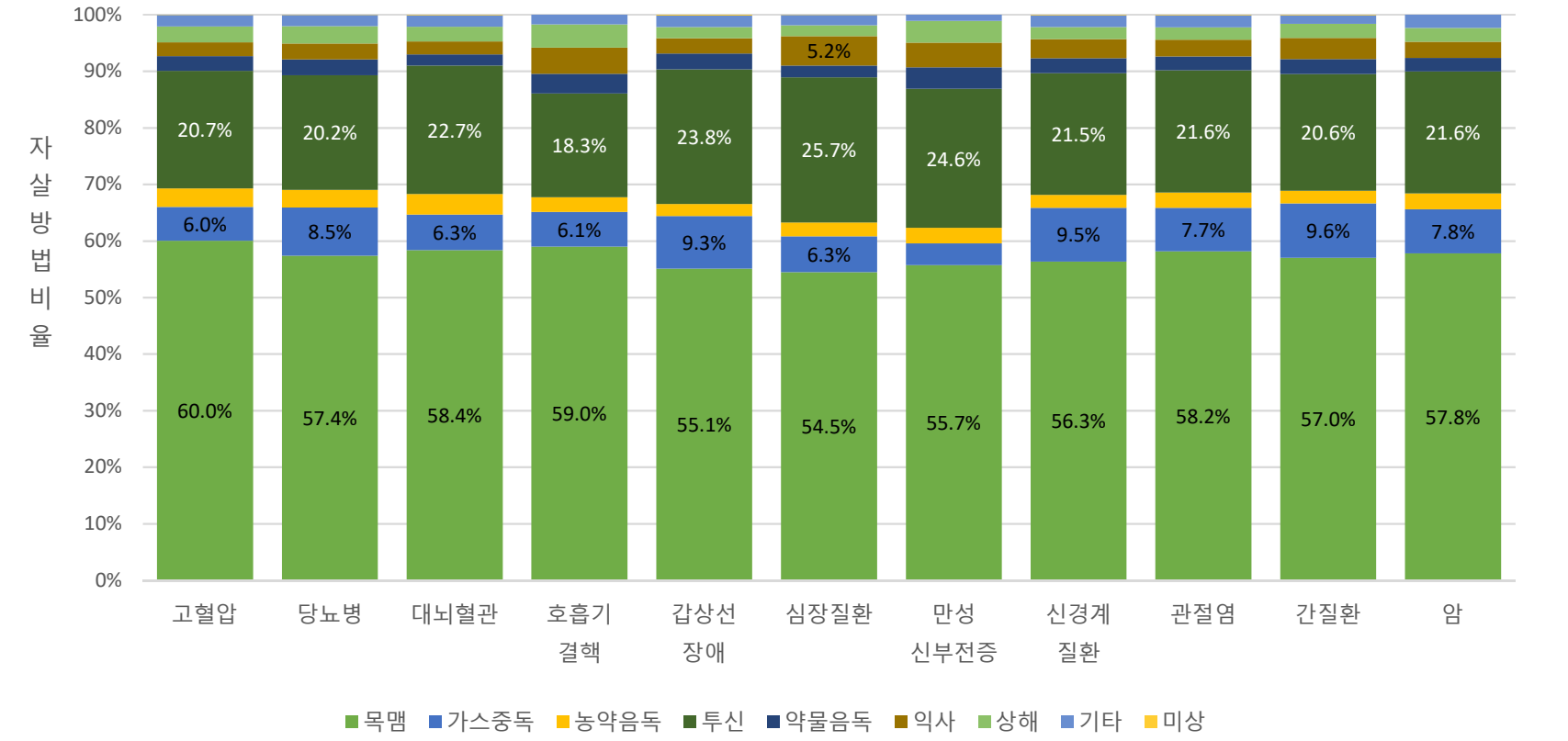
5) 신체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신체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5) 신체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신체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비율



5) 신체질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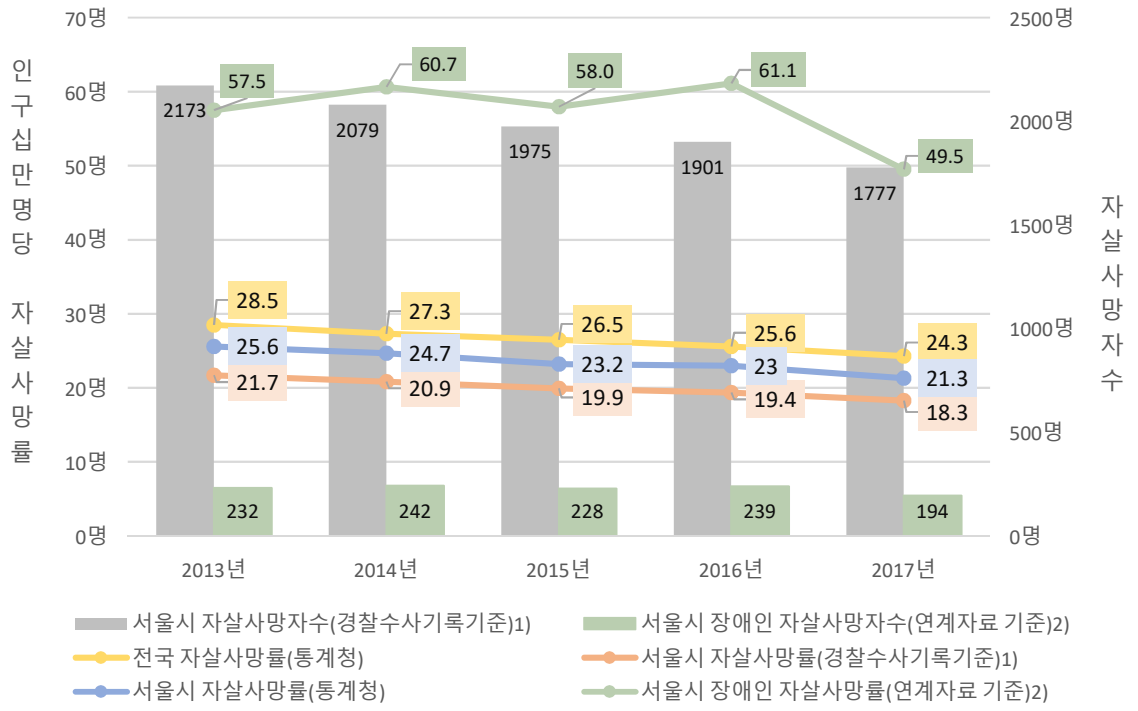
(단위 : 명)

	고혈압	당뇨병	대뇌혈관 질환	호흡기 결핵	갑상선 장애	심장질환	만성 신부전증	신경계질환	관절염	간질환	암
목맴	1,936 (60.0%)	1,102 (57.4%)	689 (58.4%)	203 (59.0%)	764 (55.1%)	1,399 (54.5%)	102 (55.7%)	2,485 (56.3%)	2,326 (58.2%)	1,534 (57.0%)	1,453 (57.8%)
가스중독	192 (6.0%)	164 (8.5%)	74 (6.3%)	21 (6.1%)	129 (9.3%)	163 (6.3%)	7 (3.8%)	420 (9.5%)	308 (7.7%)	259 (9.6%)	197 (7.8%)
농약음독	107 (3.3%)	60 (3.1%)	43 (3.6%)	9 (2.6%)	30 (2.2%)	63 (2.5%)	5 (2.7%)	100 (2.3%)	108 (2.7%)	59 (2.2%)	70 (2.8%)
투신	669 (20.7%)	389 (20.2%)	268 (22.7%)	63 (18.3%)	330 (23.8%)	659 (25.7%)	45 (24.6%)	948 (21.5%)	865 (21.6%)	555 (20.6%)	543 (21.6%)
약물음독	85 (2.6%)	54 (2.8%)	23 (1.9%)	12 (3.5%)	39 (2.8%)	54 (2.1%)	7 (3.8%)	117 (2.7%)	97 (2.4%)	72 (2.7%)	60 (2.4%)
익사	78 (2.4%)	54 (2.8%)	27 (2.3%)	16 (4.7%)	37 (2.7%)	133 (5.2%)	8 (4.4%)	149 (3.4%)	120 (3.0%)	100 (3.7%)	72 (2.9%)
상해	91 (2.8%)	59 (3.1%)	31 (2.6%)	14 (4.1%)	28 (2.0%)	50 (1.9%)	7 (3.8%)	95 (2.2%)	87 (2.2%)	67 (2.5%)	61 (2.4%)
기타	65 (2.0%)	38 (2.0%)	24 (2.0%)	6 (1.7%)	28 (2.0%)	47 (1.8%)	2 (1.1%)	92 (2.1%)	84 (2.1%)	41 (1.5%)	59 (2.3%)
미상	2 (0.1%)	1 (0.1%)	1 (0.1%)	0 (0.0%)	2 (0.1%)	1 (0.0%)	0 (0.0%)	4 (0.1%)	5 (0.1%)	3 (0.1%)	0 (0.0%)
총합계	3,225 (100%)	1,921 (100%)	1,180 (100%)	344 (100%)	1,387 (100%)	2,569 (100%)	183 (100%)	4,410 (100%)	4,000 (100%)	2,690 (100%)	2,515 (100%)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1) 연도별 서울시 등록장애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연도별 서울시 등록장애인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자살사망률(통계청)	28.5	27.3	26.5	25.6	24.3
서울시 자살사망률(통계청)	25.6	24.7	23.2	23	21.3
서울시 자살사망률(경찰수사기록기준)[1]	21.7	20.9	19.9	19.4	18.3
서울시 장애인 자살사망률(연계자료 기준)[2]	57.5	60.7	58.0	61.1	49.5
서울시 자살사망자수(경찰수사기록기준)[1]	2,173	2,079	1,975	1,901	1,777
서울시 장애인 자살사망자수(연계자료 기준)[2]	232	242	228	239	194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3]	403,435	398,908	393,245	391,027	391,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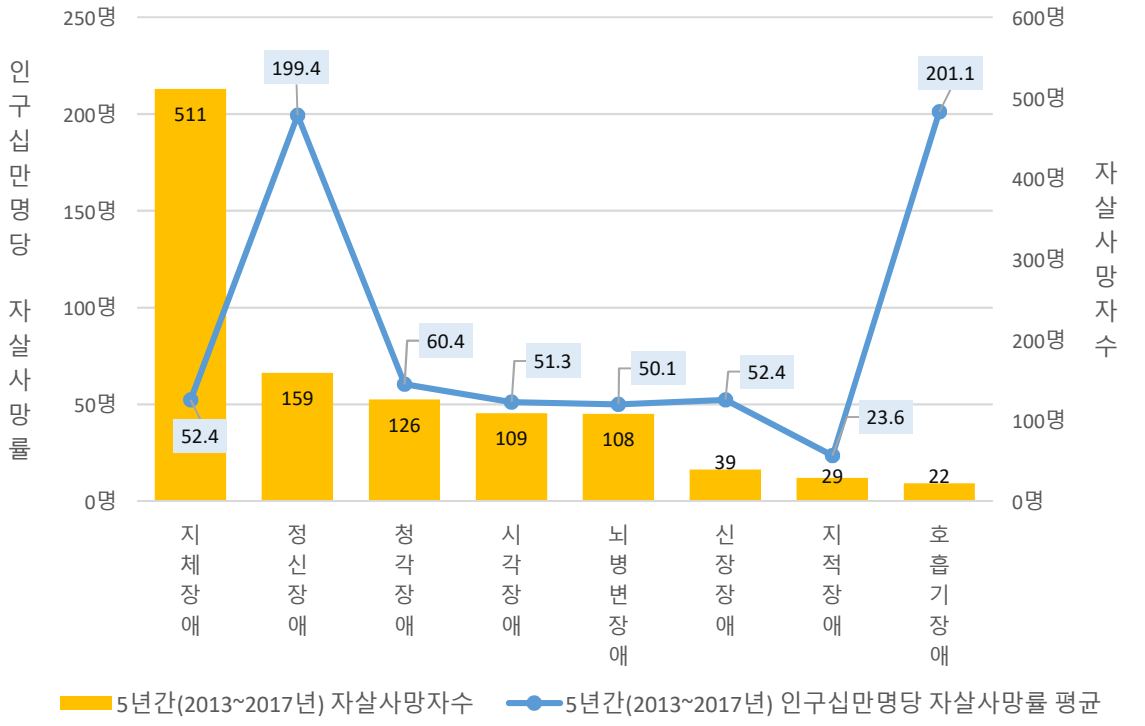
※ 자살사망률은 인구십만명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1)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2) 경찰 수사기록과 건강보험공단의 연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함
3) 행복e음 등록장애인 수를 근거로 함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2)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시 전체 등록 장애인 수	지체장애	204,168	199,943	194,843	189,777	185,424	974,155
	정신장애	15,537	15,728	15,943	16,139	16,326	79,673
	청각장애	41,375	40,518	39,598	41,887	45,244	208,622
	시각장애	43,027	42,731	42,533	42,203	41,995	212,489
	뇌병변장애	44,236	43,594	42,826	42,212	42,287	215,155
	신장장애	13,841	14,340	14,851	15,424	16,131	74,587
	지적장애	23,739	24,342	24,686	25,215	25,654	123,636
	호흡기장애	2,336	2,211	2,156	2,157	2,130	10,990
	장루·요루장애	2,748	2,783	2,789	2,760	2,794	13,874
	언어장애	2,856	2,928	3,014	3,097	3,252	15,147
	간질장애	1,346	1,303	1,286	1,264	1,240	6,439
	심장장애	1,615	1,491	1,345	1,205	1,154	6,810
	간장애	2,021	2,099	2,192	2,236	2,323	10,871
	자폐성장애	4,164	4,466	4,761	5,043	5,401	23,835
	안면장애	426	426	426	426	426	2,130

2) 장애종류별 자살사망자 수와 자살사망률(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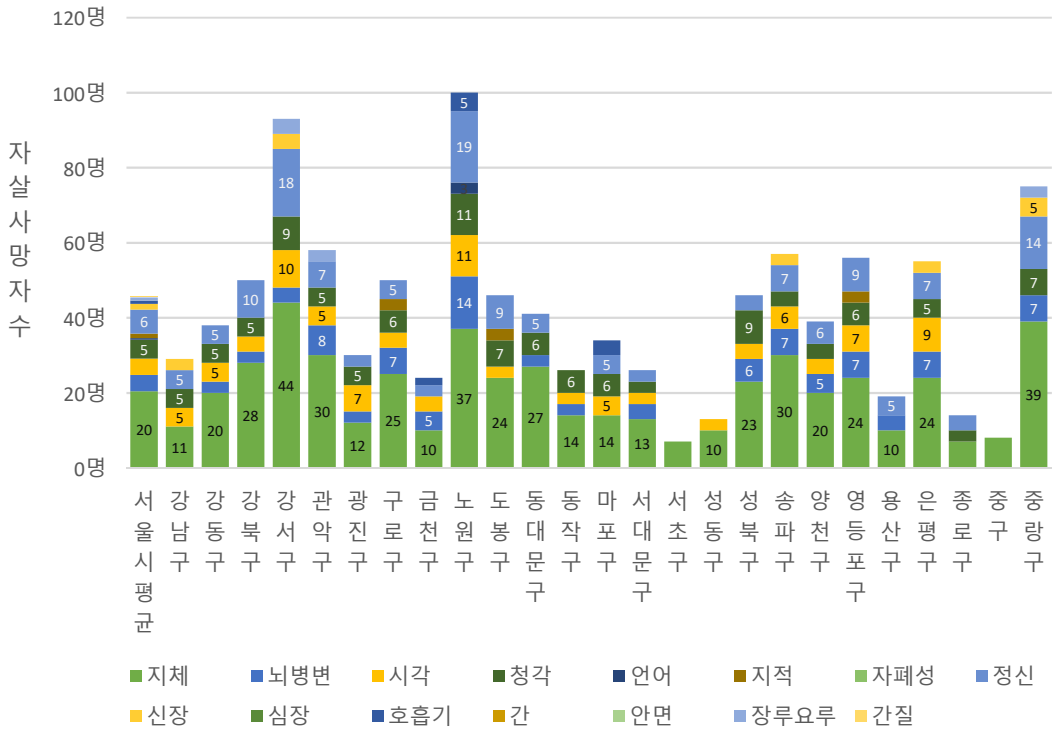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서울시 장애인 자살사망자 수	지체장애	111	109	102	102	87	511
	정신장애	22	36	34	37	30	159
	청각장애	24	19	25	32	26	126
	시각장애	27	18	23	21	20	109
	뇌병변장애	27	26	17	23	15	108
	신장장애	7	7	10	8	7	39
	지적장애	7	7	4	7	4	29
	호흡기장애	3	6	6	2	5	22
	장루·요루장애	4	7	4	4	-	19
	언어장애	-	4	-	3	-	7
	간질장애	-	3	-	-	0	3
	심장장애	0	-	3	0	0	3
	간장애	-	-	-	-	0	0
	자폐성장애	0	0	-	-	0	0
	안면장애	0	0	0	0	-	0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장애종류별 인구 십만명당 자살사망률	지체장애	54.4	54.5	52.3	53.7	46.9	52.4
	정신장애	141.6	228.9	213.3	229.3	183.8	199.4
	청각장애	58.0	46.9	63.1	76.4	57.5	60.4
	시각장애	62.8	42.1	54.1	49.8	47.6	51.3
	뇌병변장애	61.0	59.6	39.7	54.5	35.5	50.1
	신장장애	50.6	48.8	67.3	51.9	43.4	52.4
	지적장애	29.5	28.8	16.2	27.8	15.6	23.6
	호흡기장애	128.4	271.4	278.3	92.7	234.7	201.1
	장루·요루장애	145.6	251.5	143.4	144.9	-	-
	언어장애	-	136.6	-	96.9	-	-
	간질장애	-	230.2	-	`	0.0	-
	심장장애	0.0	-	223.0	0.0	0.0	-
	간장애	-	-	-	-	0.0	-
	자폐성장애	0.0	0.0	-	-	0.0	-
	안면장애	0.0	0.0	0.0	0.0	-	-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3)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



3)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총합계	비장애
서울시 평균	20 (44.7%)	4 (9.5%)	4 (9.5%)	5 (11.0%)	0 (1.0%)	1 (2.5%)	- (--)	6 (13.9%)	2 (3.4%)	- (--)	1 (1.9%)	- (--)	- (--)	1 (1.8%)	0 (0.6%)	46 (100%)	343
강남구	11 (37.9%)	- (--)	5 (17.2%)	5 (17.2%)	0 (0.0%)	- (--)	0 (0.0%)	5 (17.2%)	3 (10.3%)	0 (0.0%)	- (--)	0 (0.0%)	0 (0.0%)	- (--)	0 (0.0%)	29 (100%)	521
강동구	20 (52.6%)	3 (7.9%)	5 (13.2%)	5 (13.2%)	- (--)	0 (0.0%)	0 (0.0%)	5 (13.2%)	0 (0.0%)	0 (0.0%)	- (--)	0 (0.0%)	0 (0.0%)	0 (0.0%)	0 (0.0%)	38 (100%)	399
강북구	28 (56.0%)	3 (6.0%)	4 (8.0%)	5 (10.0%)	0 (0.0%)	0 (0.0%)	0 (0.0%)	10 (20.0%)	-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50 (100%)	364
강서구	44 (47.3%)	4 (4.3%)	10 (10.8%)	9 (9.7%)	0 (0.0%)	- (--)	0 (0.0%)	18 (19.4%)	4 (4.3%)	0 (0.0%)	0 (0.0%)	0 (0.0%)	0 (0.0%)	4 (4.3%)	- (--)	93 (100%)	472
관악구	30 (51.7%)	8 (13.8%)	5 (8.6%)	5 (8.6%)	- (--)	- (--)	0 (0.0%)	7 (12.1%)	- (--)	0 (0.0%)	- (--)	0 (0.0%)	0 (0.0%)	3 (5.2%)	0 (0.0%)	58 (100%)	487
광진구	12 (40.0%)	3 (10.0%)	7 (23.3%)	5 (16.7%)	0 (0.0%)	- (--)	0 (0.0%)	3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	30 (100%)	285
구로구	25 (50.0%)	7 (14.0%)	4 (8.0%)	6 (12.0%)	- (--)	3 (6.0%)	0 (0.0%)	5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 (--)	0 (0.0%)	50 (100%)	335
금천구	10 (41.7%)	5 (20.8%)	4 (16.7%)	- (--)	0 (0.0%)	- (--)	0 (0.0%)	3 (12.5%)	- (--)	0 (0.0%)	2 (8.3%)	0 (0.0%)	0 (0.0%)	0 (0.0%)	0 (0.0%)	24 (100%)	282
노원구	37 (37.0%)	14 (14.0%)	11 (11.0%)	11 (11.0%)	3 (3.0%)	- (--)	- (--)	19 (19.0%)	- (--)	- (--)	5 (5.0%)	- (--)	0 (0.0%)	- (--)	- (--)	100 (100%)	496
도봉구	24 (52.2%)	- (--)	3 (6.5%)	7 (15.2%)	0 (0.0%)	3 (6.5%)	0 (0.0%)	9 (19.6%)	- (--)	0 (0.0%)	0 (0.0%)	0 (0.0%)	- (--)	0 (0.0%)	0 (0.0%)	46 (100%)	331
동대문구	27 (65.9%)	3 (7.3%)	- (--)	6 (14.6%)	0 (0.0%)	0 (0.0%)	0 (0.0%)	5 (12.2%)	- (--)	- (--)	- (--)	0 (0.0%)	0 (0.0%)	0 (0.0%)	0 (0.0%)	41 (100%)	325

3)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총합계	비장애
동작구	14 (53.8%)	3 (11.5%)	3 (11.5%)	6 (23.1%)	0 (0.0%)	0 (0.0%)	0 (0.0%)	- (--)	-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6 (100%)	316
마포구	14 (41.2%)	- (--)	5 (14.7%)	6 (17.6%)	0 (0.0%)	- (--)	0 (0.0%)	5 (14.7%)	- (--)	0 (0.0%)	4 (11.8%)	0 (0.0%)	0 (0.0%)	- (--)	0 (0.0%)	34 (100%)	352
서대문구	13 (50.0%)	4 (15.4%)	3 (11.5%)	3 (11.5%)	- (--)	- (--)	- (--)	3 (11.5%)	0 (0.0%)	0 (0.0%)	0 (0.0%)	- (--)	0 (0.0%)	0 (0.0%)	0 (0.0%)	26 (100%)	215
서초구	7 (100%)	- (--)	0 (0.0%)	- (--)	0 (0.0%)	- (--)	0 (0.0%)	- (--)	- (--)	- (--)	- (--)	0 (0.0%)	0 (0.0%)	0 (0.0%)	0 (0.0%)	7 (100%)	336
성동구	10 (76.9%)	- (--)	3 (23.1%)	- (--)	0 (0.0%)	- (--)	0 (0.0%)	- (--)	0 (0.0%)	0 (0.0%)	0 (0.0%)	0 (0.0%)	0 (0.0%)	- (--)	- (--)	13 (100%)	235
성북구	23 (50.0%)	6 (13.0%)	4 (8.7%)	9 (19.6%)	0 (0.0%)	- (--)	0 (0.0%)	4 (8.7%)	- (--)	0 (0.0%)	0 (0.0%)	- (--)	0 (0.0%)	0 (0.0%)	- (--)	46 (100%)	317
송파구	30 (52.6%)	7 (12.3%)	6 (10.5%)	4 (7.0%)	- (--)	- (--)	0 (0.0%)	7 (12.3%)	3 (5.3%)	0 (0.0%)	- (--)	0 (0.0%)	0 (0.0%)	0 (0.0%)	0 (0.0%)	57 (100%)	477
양천구	20 (51.3%)	5 (12.8%)	4 (10.3%)	4 (10.3%)	0 (0.0%)	0 (0.0%)	0 (0.0%)	6 (15.4%)	- (--)	0 (0.0%)	- (--)	0 (0.0%)	0 (0.0%)	- (--)	0 (0.0%)	39 (100%)	313
영등포구	24 (42.9%)	7 (12.5%)	7 (12.5%)	6 (10.7%)	- (--)	3 (5.4%)	0 (0.0%)	9 (16.1%)	- (--)	0 (0.0%)	0 (0.0%)	- (--)	0 (0.0%)	- (--)	0 (0.0%)	56 (100%)	442
용산구	10 (52.6%)	4 (21.1%)	- (--)	- (--)	0 (0.0%)	0 (0.0%)	0 (0.0%)	5 (26.3%)	0 (0.0%)	0 (0.0%)	0 (0.0%)	0 (0.0%)	0 (0.0%)	- (--)	0 (0.0%)	19 (100%)	254
은평구	24 (43.6%)	7 (12.7%)	9 (16.4%)	5 (9.1%)	- (--)	- (--)	0 (0.0%)	7 (12.7%)	3 (5.5%)	0 (0.0%)	- (--)	0 (0.0%)	0 (0.0%)	0 (0.0%)	- (--)	55 (100%)	367
종로구	7 (50.0%)	- (--)	- (--)	3 (21.4%)	0 (0.0%)	- (--)	0 (0.0%)	4 (28.6%)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4 (100%)	157

3) 장애종류별/구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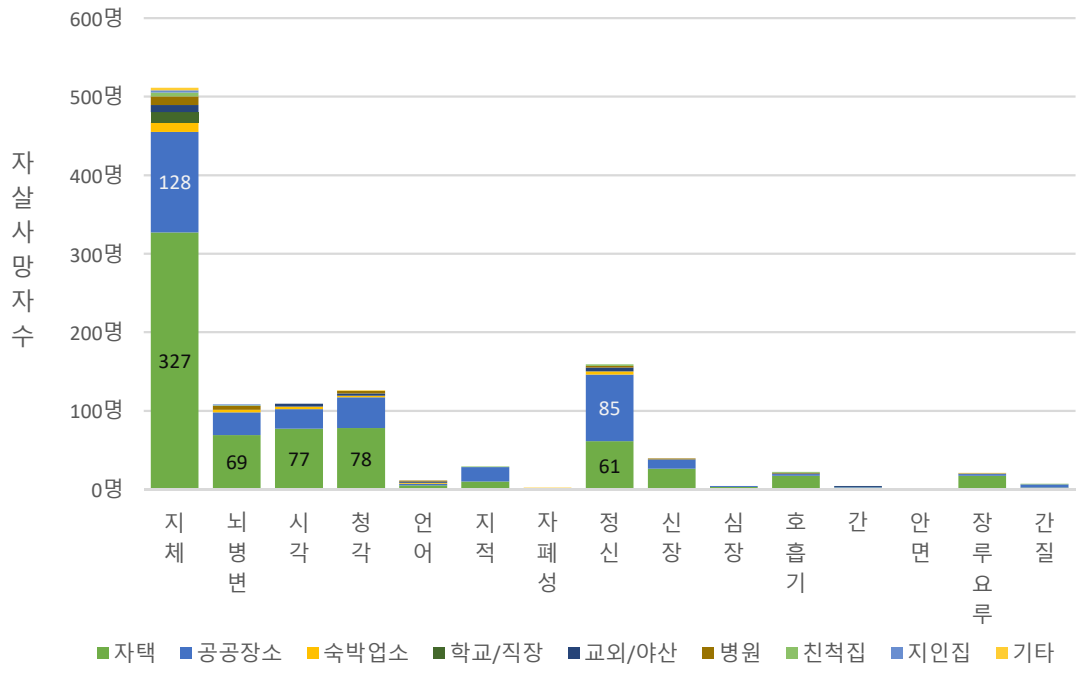
(단위 : 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총합계	비장애
중구	8 (100%)	0 (0.0%)	- (--)	- (--)	0 (0.0%)	0 (0.0%)	0 (0.0%)	- (--)	0 (0.0%)	0 (0.0%)	0 (0.0%)	0 (0.0%)	0 (0.0%)	- (--)	0 (0.0%)	8 (100%)	93
중랑구	39 (52.0%)	7 (9.3%)	- (--)	7 (9.3%)	0 (0.0%)	- (--)	0 (0.0%)	14 (18.7%)	5 (6.7%)	- (--)	0 (0.0%)	0 (0.0%)	0 (0.0%)	3 (4.0%)	- (--)	75 (100%)	402
서울시 총합	511 (44.7%)	108 (9.5%)	109 (9.5%)	126 (11.0%)	11 (1.0%)	29 (2.5%)	- (--)	159 (13.9%)	39 (3.4%)	- (--)	22 (1.9%)	- (--)	- (--)	21 (1.8%)	7 (0.6%)	1,142 (100%)	8,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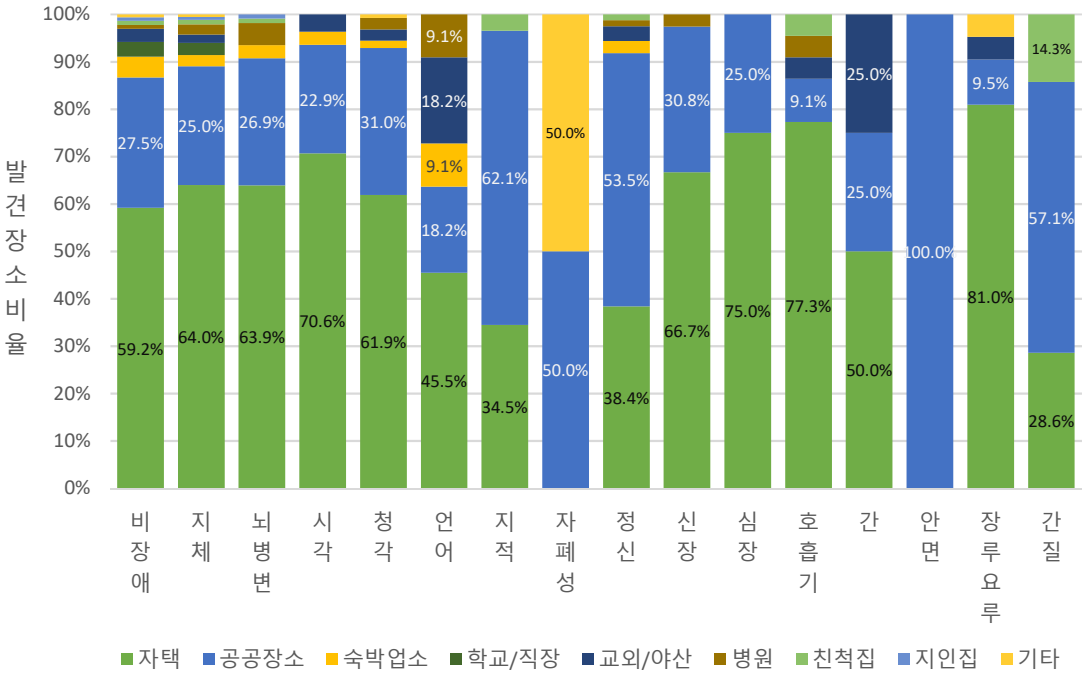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4) 장애종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

장애종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수



장애종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자 비율



4) 장애종류별/발견장소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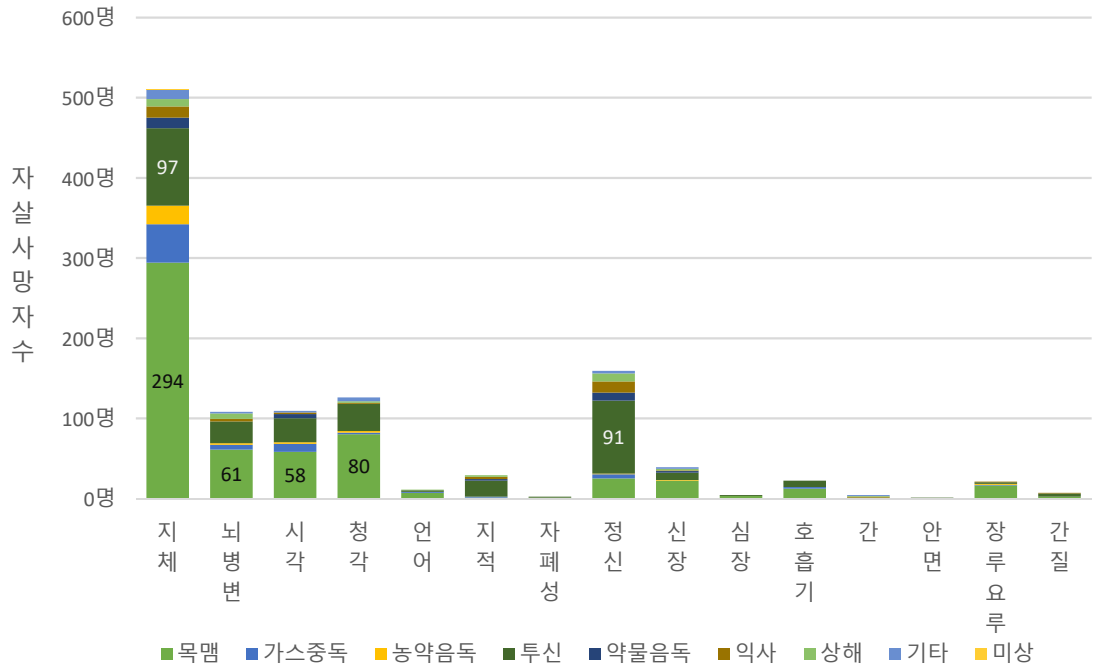
(단위 : 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비장애
자택	327 (64.0%)	69 (63.9%)	77 (70.6%)	78 (61.9%)	5 (45.5%)	10 (34.5%)	0 (0.0%)	61 (38.4%)	26 (66.7%)	3 (75.0%)	17 (77.3%)	2 (50.0%)	0 (0.0%)	17 (81.0%)	2 (28.6%)	5,072 (59.2%)
공공장소	128 (25.0%)	29 (26.9%)	25 (22.9%)	39 (31.0%)	2 (18.2%)	18 (62.1%)	1 (50.0%)	85 (53.5%)	12 (30.8%)	1 (25.0%)	2 (9.1%)	1 (25.0%)	1 (100%)	2 (9.5%)	4 (57.1%)	2,357 (27.5%)
숙박업소	12 (2.3%)	3 (2.8%)	3 (2.8%)	2 (1.6%)	1 (9.1%)	0 (0.0%)	0 (0.0%)	4 (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75 (4.4%)
학교/직장	13 (2.5%)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70 (3.1%)
교외/야산	9 (1.8%)	0 (0.0%)	4 (3.7%)	3 (2.4%)	2 (18.2%)	0 (0.0%)	0 (0.0%)	5 (3.1%)	0 (0.0%)	0 (0.0%)	1 (4.5%)	1 (25.0%)	0 (0.0%)	1 (4.8%)	0 (0.0%)	233 (2.7%)
병원	11 (2.2%)	5 (4.6%)	0 (0.0%)	3 (2.4%)	1 (9.1%)	0 (0.0%)	0 (0.0%)	2 (1.3%)	1 (2.6%)	0 (0.0%)	1 (4.5%)	0 (0.0%)	0 (0.0%)	0 (0.0%)	0 (0.0%)	73 (0.9%)
친척집	5 (1.0%)	1 (0.9%)	0 (0.0%)	0 (0.0%)	0 (0.0%)	1 (3.4%)	0 (0.0%)	2 (1.3%)	0 (0.0%)	0 (0.0%)	1 (4.5%)	0 (0.0%)	0 (0.0%)	0 (0.0%)	1 (14.3%)	73 (0.9%)
지인집	3 (0.6%)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8 (0.8%)
기타	3 (0.6%)	0 (0.0%)	0 (0.0%)	1 (0.8%)	0 (0.0%)	0 (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52 (0.6%)
총합계	511 (100%)	108 (100%)	109 (100%)	126 (100%)	11 (100%)	29 (100%)	2 (100%)	159 (100%)	39 (100%)	4 (100%)	22 (100%)	4 (100%)	1 (100%)	21 (100%)	7 (100%)	8,57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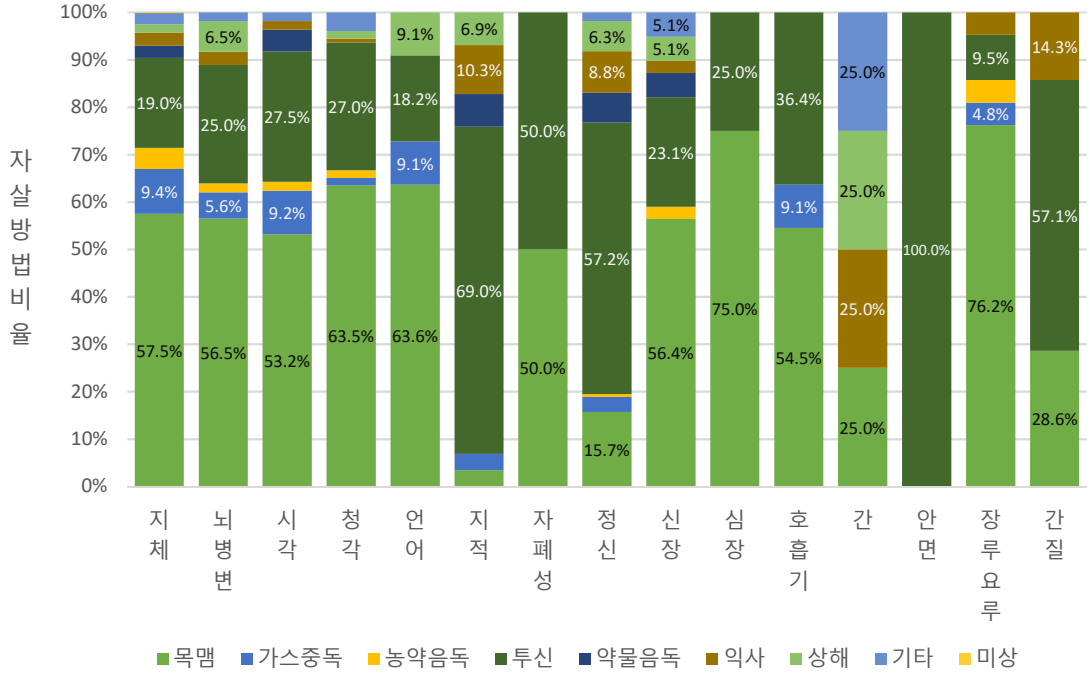
5.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분석

5) 장애종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

장애종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수



장애종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자 비율



5) 장애종류별/자살방법별 자살사망 현황(계속)

(단위 : 명)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비장애
목맴	294 (57.5%)	61 (56.5%)	58 (53.2%)	80 (63.5%)	7 (63.6%)	1 (3.4%)	1 (50.0%)	25 (15.7%)	22 (56.4%)	3 (75.0%)	12 (54.5%)	1 (25.0%)	0 (0.0%)	16 (76.2%)	2 (28.6%)	4,938 (57.6%)
가스 중독	48 (9.4%)	6 (5.6%)	10 (9.2%)	2 (1.6%)	1 (9.1%)	1 (3.4%)	0 (0.0%)	5 (3.1%)	0 (0.0%)	0 (0.0%)	2 (9.1%)	0 (0.0%)	0 (0.0%)	1 (4.8%)	0 (0.0%)	1,013 (11.8%)
농약 음독	23 (4.5%)	2 (1.9%)	2 (1.8%)	2 (1.6%)	0 (0.0%)	0 (0.0%)	0 (0.0%)	1 (0.6%)	1 (2.6%)	0 (0.0%)	0 (0.0%)	0 (0.0%)	0 (0.0%)	1 (4.8%)	0 (0.0%)	138 (1.6%)
투신	97 (19.0%)	27 (25.0%)	30 (27.5%)	34 (27.0%)	2 (18.2%)	20 (69.0%)	1 (50.0%)	91 (57.2%)	9 (23.1%)	1 (25.0%)	8 (36.4%)	0 (0.0%)	1 (100%)	2 (9.5%)	4 (57.1%)	1,604 (18.7%)
약물 음독	13 (2.5%)	0 (0.0%)	5 (4.6%)	0 (0.0%)	0 (0.0%)	2 (6.9%)	0 (0.0%)	10 (6.3%)	2 (5.1%)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88 (2.2%)
익사	14 (2.7%)	3 (2.8%)	2 (1.8%)	1 (0.8%)	0 (0.0%)	3 (10.3%)	0 (0.0%)	14 (8.8%)	1 (2.6%)	0 (0.0%)	0 (0.0%)	1 (25.0%)	0 (0.0%)	1 (4.8%)	1 (14.3%)	385 (4.5%)
상해	9 (1.8%)	7 (6.5%)	0 (0.0%)	2 (1.6%)	1 (9.1%)	2 (6.9%)	0 (0.0%)	10 (6.3%)	2 (5.1%)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164 (1.9%)
기타	12 (2.3%)	2 (1.9%)	2 (1.8%)	5 (4.0%)	0 (0.0%)	0 (0.0%)	0 (0.0%)	3 (1.9%)	2 (5.1%)	0 (0.0%)	0 (0.0%)	1 (25.0%)	0 (0.0%)	0 (0.0%)	0 (0.0%)	134 (1.6%)
미상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9 (0.1%)
총합계	511 (100%)	108 (100%)	109 (100%)	126 (100%)	11 (100%)	29 (100%)	2 (100%)	159 (100%)	39 (100%)	4 (100%)	22 (100%)	4 (100%)	1 (100%)	21 (100%)	7 (100%)	8,573 (100%)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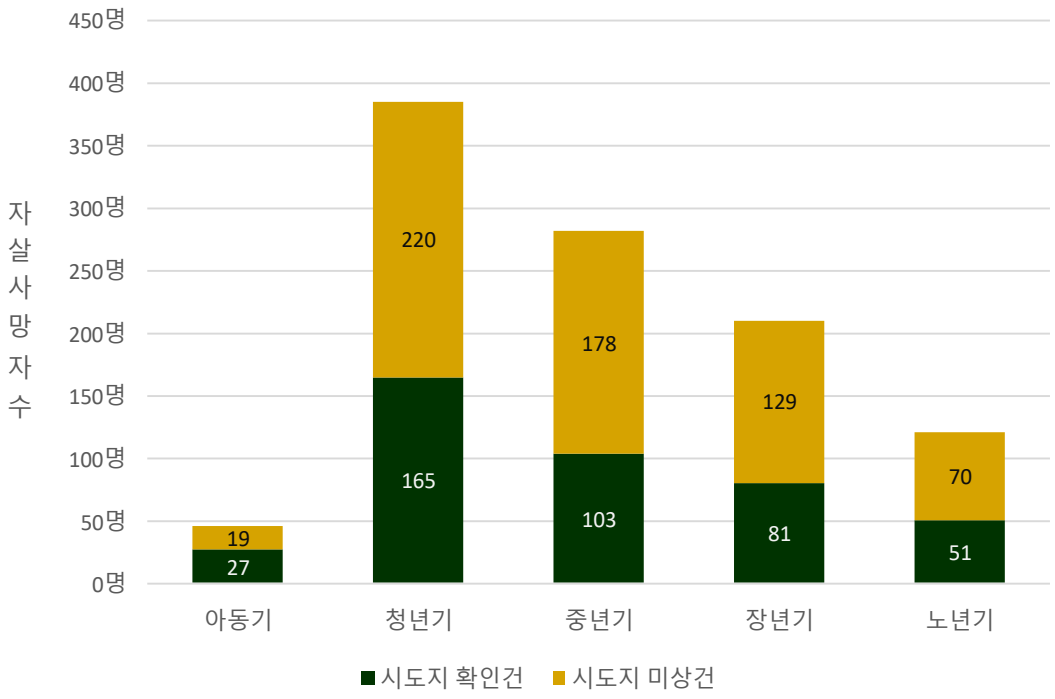
1) 한강변 익사자의 발견장소 분석

시도지 확인 건				시도지 미상 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50	70	31	8	109	156	29	83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41	10	52	20	143	15	10	43	18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2) 한강변 익사자의 생애주기 현황

한강변 익사자의 생애주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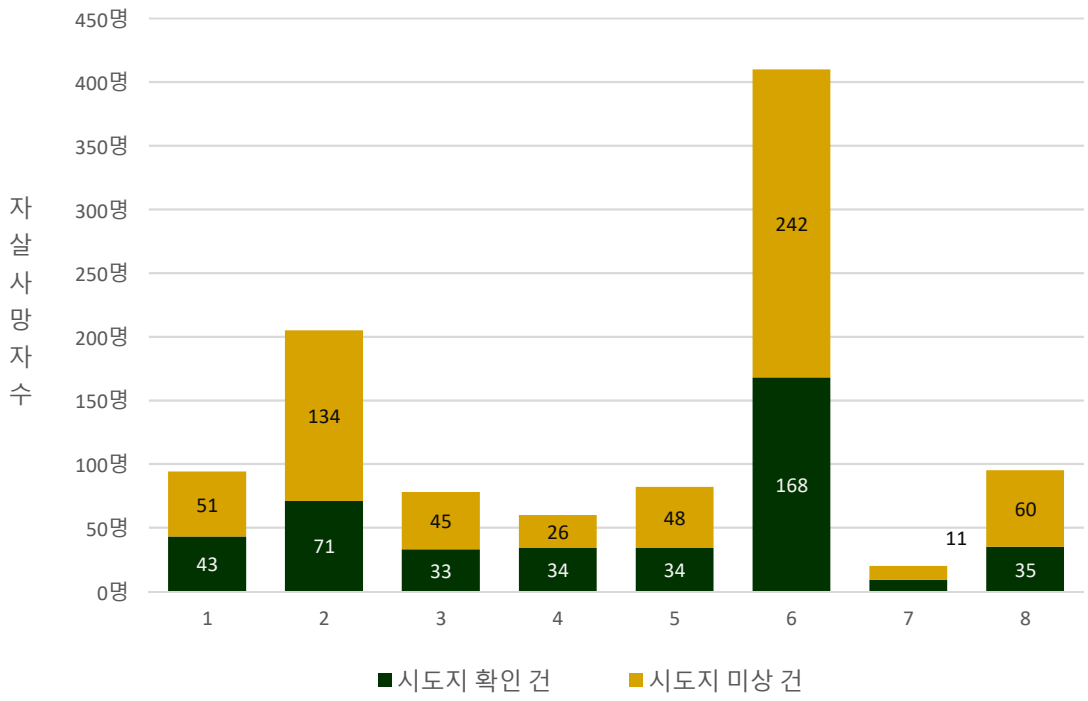
(단위 : 명)

시도지 확인건		시도지 미상건	
아동기	27 (6.3%)	아동기	19 (3.1%)
청년기	165 (38.6%)	청년기	220 (35.7%)
중년기	103 (24.1%)	중년기	178 (28.8%)
장년기	81 (19.0%)	장년기	129 (20.9%)
노년기	51 (11.9%)	노년기	70 (11.3%)
미상	0 (0.0%)	미상	1 (0.2%)
총합계	427 (100%)	총합계	617 (100%)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3) 한강변 익사자의 주원인 현황

한강변 익사자의 주원인 현황



(단위 : 명)

시도지 확인건		시도지 미상건	
직업문제	43 (10.1%)	직업문제	51 (8.3%)
경제문제	71 (16.6%)	경제문제	134 (21.7)
가족관계문제	33 (7.7%)	가족관계문제	45 (7.3%)
대인관계문제	34 (8.0%)	대인관계문제	26 (4.2%)
신체건강문제	34 (8.0%)	신체건강문제	48 (7.8%)
정신건강문제	168 (39.3%)	정신건강문제	242 (39.2%)
기타	9 (2.1%)	기타	11 (1.8%)
미상	35 (8.2%)	미상	60 (9.7%)
총합계	427 (100%)	총합계	617 (100%)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4) 교량별/연도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계
가양대교	1 (8.3%)	3 (25.0%)	4 (33.3%)	1 (8.3%)	3 (25.0%)	12 (100%)
광진교	3 (10.0%)	7 (23.3%)	9 (30.0%)	3 (10.0%)	8 (26.7%)	30 (100%)
구리암사대교	1 (50.0%)	0 (0.0%)	1 (50.0%)	0 (0.0%)	0 (0.0%)	2 (100%)
동작대교	3 (23.1%)	2 (15.4%)	1 (7.7%)	3 (23.1%)	4 (30.8%)	13 (100%)
동호대교	3 (21.4%)	6 (42.9%)	2 (14.3%)	1 (7.1%)	2 (14.3%)	14 (100%)
마포대교	20 (17.7%)	37 (32.7%)	19 (16.8%)	25 (22.1%)	12 (10.6%)	113 (100%)
반포대교	0 (0.0%)	2 (20.0%)	4 (40.0%)	2 (20.0%)	2 (20.0%)	10 (100%)
서강대교	2 (13.3%)	2 (13.3%)	4 (26.7%)	3 (20.0%)	4 (26.7%)	15 (100%)
성산대교	5 (31.3%)	2 (12.5%)	3 (18.8%)	4 (25.0%)	2 (12.5%)	16 (100%)
성수대교	2 (40.0%)	1 (20.0%)	0 (0.0%)	2 (40.0%)	0 (0.0%)	5 (100%)
양화대교	3 (17.6%)	4 (23.5%)	5 (29.4%)	2 (11.8%)	3 (17.6%)	17 (100%)
영동대교	3 (25.0%)	5 (41.7%)	1 (8.3%)	1 (8.3%)	2 (16.7%)	12 (100%)
올림픽대교	0 (0.0%)	3 (50.0%)	0 (0.0%)	1 (16.7%)	2 (33.3%)	6 (100%)
원효대교	4 (33.3%)	3 (25.0%)	1 (8.3%)	2 (16.7%)	2 (16.7%)	12 (100%)
잠수교	1 (50.0%)	0 (0.0%)	0 (0.0%)	0 (0.0%)	1 (50.0%)	2 (100%)
잠실대교	3 (15.0%)	7 (35.0%)	5 (25.0%)	3 (15.0%)	2 (10.0%)	20 (100%)
잠실철교	3 (50.0%)	0 (0.0%)	2 (33.3%)	0 (0.0%)	1 (16.7%)	6 (100%)
천호대교	4 (26.7%)	2 (13.3%)	4 (26.7%)	1 (6.7%)	4 (26.7%)	15 (100%)
청담대교	0 (0.0%)	0 (0.0%)	1 (100%)	0 (0.0%)	0 (0.0%)	1 (100%)
한강대교	8 (22.2%)	8 (22.2%)	6 (16.7%)	6 (16.7%)	8 (22.2%)	36 (100%)
한강철교	0 (0.0%)	0 (0.0%)	0 (0.0%)	1 (50.0%)	1 (50.0%)	2 (100%)
한남대교	3 (21.4%)	1 (7.1%)	1 (7.1%)	5 (35.7%)	4 (28.6%)	14 (100%)
익사 기타	21 (38.9%)	9 (16.7%)	8 (14.8%)	9 (16.7%)	7 (13.0%)	54 (100%)
총합계	93 (21.8%)	104 (24.4%)	81 (19.0%)	75 (17.6%)	74 (17.3%)	427 (100%)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5) 교량별/월별 자살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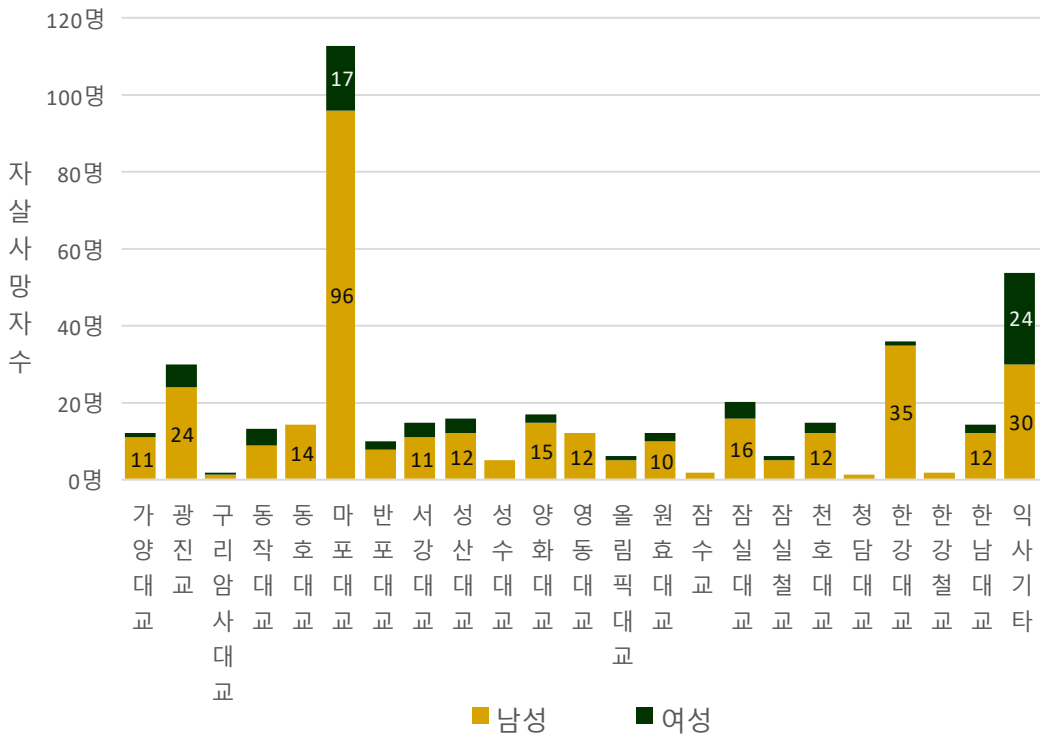
(단위 :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계
가양대교	0	1	0	1	4	2	1	0	0	2	1	0	12
광진교	2	3	3	5	1	4	1	3	4	1	3	0	30
구리암사대교	0	0	0	0	0	0	0	1	0	1	0	0	2
동작대교	1	3	1	0	0	1	2	1	0	1	0	3	13
동호대교	1	0	1	0	2	3	0	1	2	3	0	1	14
마포대교	3	9	6	10	17	7	9	10	17	13	8	4	113
반포대교	1	0	0	2	1	1	2	0	1	1	0	1	10
서강대교	1	1	2	1	1	0	1	4	1	2	0	1	15
성산대교	2	2	2	2	0	1	0	1	2	3	1	0	16
성수대교	0	0	0	0	0	2	0	1	0	0	1	1	5
양화대교	1	1	1	1	1	1	4	1	1	3	2	0	17
영동대교	1	0	0	2	1	0	3	0	3	0	2	0	12
올림픽대교	0	1	2	0	0	0	2	1	0	0	0	0	6
원효대교	1	0	0	0	4	1	0	1	3	1	0	1	12
잠수교	0	1	0	0	0	0	0	0	0	1	0	0	2
잠실대교	0	2	2	0	1	3	4	2	2	3	0	1	20
잠실철교	0	0	1	2	0	0	0	1	0	0	1	1	6
천호대교	3	0	2	0	1	2	0	0	1	4	2	0	15
청담대교	1	0	0	0	0	0	0	0	0	0	0	0	1
한강대교	1	6	2	2	3	1	7	5	4	3	0	2	36
한강철교	0	0	0	0	0	0	0	1	1	0	0	0	2
한남대교	0	1	0	0	2	2	3	2	3	0	1	0	14
익사 기타	1	3	3	3	7	2	8	15	5	4	0	3	54
총합계	20 (4.7%)	34 (8.0%)	28 (6.6%)	31 (7.3%)	46 (10.8%)	33 (7.7%)	47 (11.0%)	51 (11.9%)	50 (11.7%)	46 (10.8%)	22 (5.2%)	19 (4.4%)	427 (100%)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6) 교량별/성별 자살사망자 수

교량별/성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남성	여성	총합계
가양대교	11 (91.7%)	1 (8.3%)	12 (100%)
광진교	24 (80.0%)	6 (20.0%)	30 (100%)
구리암사대교	1 (50.0%)	1 (50.0%)	2 (100%)
동작대교	9 (69.2%)	4 (30.8%)	13 (100%)
동호대교	14 (100%)	0 (0.0%)	14 (100%)
마포대교	96 (85.0%)	17 (15.0%)	113 (100%)
반포대교	8 (80.0%)	2 (20.0%)	10 (100%)
서강대교	11 (73.3%)	4 (26.7%)	15 (100%)
성산대교	12 (75.0%)	4 (25.0%)	16 (100%)
성수대교	5 (100%)	0 (0.0%)	5 (100%)
양화대교	15 (88.2%)	2 (11.8%)	17 (100%)
영동대교	12 (100.0%)	0 (0.0%)	12 (100%)
올림픽대교	5 (83.3%)	1 (16.7%)	6 (100%)
원효대교	10 (83.3%)	2 (16.7%)	12 (100%)
잠수교	2 (100%)	0 (0.0%)	2 (100%)

6) 교량별/성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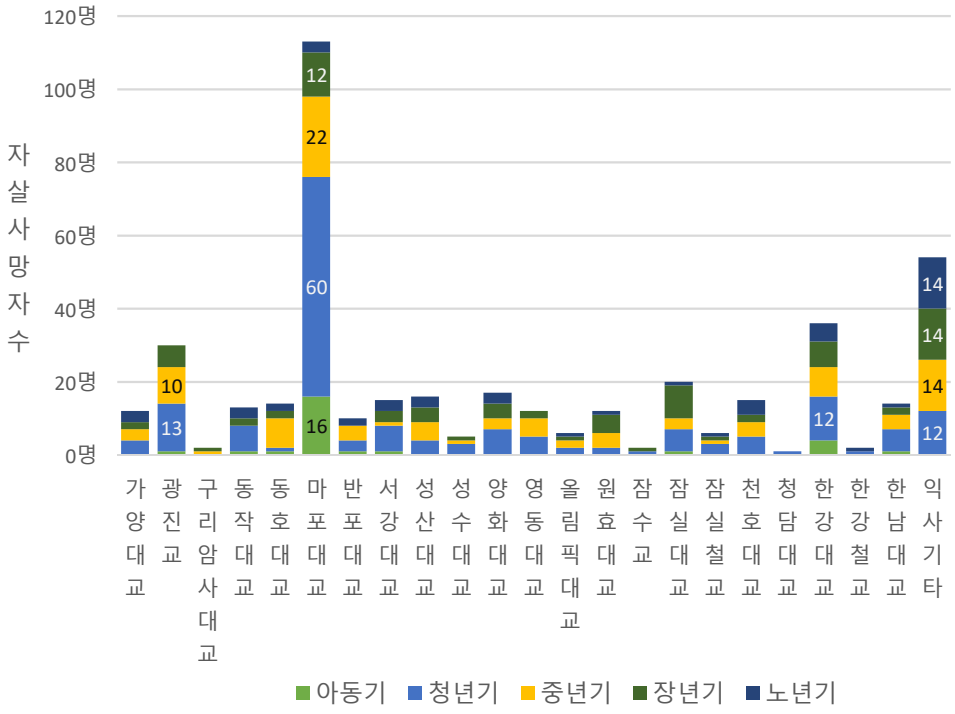
(단위 : 명)

	남성	여성	총합계
잠실대교	16 (80.0%)	4 (20.0%)	20 (100%)
잠실철교	5 (83.3%)	1 (16.7%)	6 (100%)
천호대교	12 (80.0%)	3 (20.0%)	15 (100%)
청담대교	1 (100%)	0 (0.0%)	1 (100%)
한강대교	35 (97.2%)	1 (2.8%)	36 (100%)
한강철교	2 (100%)	0 (0.0%)	2 (100%)
한남대교	12 (85.7%)	2 (14.3%)	14 (100%)
익사 기타	30 (55.6%)	24 (44.4%)	54 (100%)
총합계	348 (81.5%)	79 (18.5%)	427 (100%)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7) 교량별/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교량별/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



(단위 : 명)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총합계
가양대교	0 (0.0%)	4 (33.3%)	3 (25.0%)	2 (16.7%)	3 (25.0%)	12 (100%)
광진교	1 (3.3%)	13 (43.3%)	10 (33.3%)	6 (20.0%)	0 (0.0%)	30 (100%)
구리암사대교	0 (0.0%)	0 (0.0%)	1 (50.0%)	1 (50.0%)	0 (0.0%)	2 (100%)
동작대교	1 (7.7%)	7 (53.8%)	0 (0.0%)	2 (15.4%)	3 (23.1%)	13 (100%)
동호대교	1 (7.1%)	1 (7.1%)	8 (57.1%)	2 (14.3%)	2 (14.3%)	14 (100%)
마포대교	16 (14.2%)	60 (53.1%)	22 (19.5%)	12 (10.6%)	3 (2.7%)	113 (100%)
반포대교	1 (10.0%)	3 (30.0%)	4 (40.0%)	0 (0.0%)	2 (20.0%)	10 (100%)
서강대교	1 (6.7%)	7 (46.7%)	1 (6.7%)	3 (20.0%)	3 (20.0%)	15 (100%)
성산대교	0 (0.0%)	4 (25.0%)	5 (31.3%)	4 (25.0%)	3 (18.8%)	16 (100%)

7) 교량별/생애주기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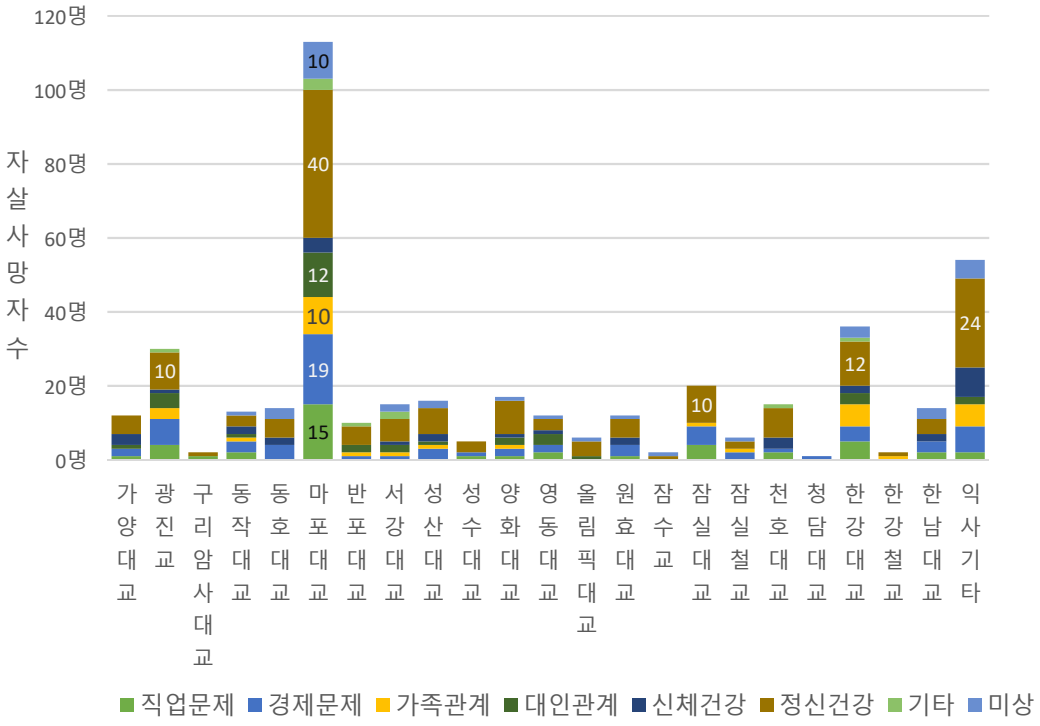
(단위 : 명)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총합계
성수대교	0 (0.0%)	3 (60.0%)	1 (20.0%)	1 (20.0%)	0 (0.0%)	5 (100%)
양화대교	0 (0.0%)	7 (41.2%)	3 (17.6%)	4 (23.5%)	3 (17.6%)	17 (100%)
영동대교	0 (0.0%)	5 (41.7%)	5 (41.7%)	2 (16.7%)	0 (0.0%)	12 (100%)
올림픽대교	0 (0.0%)	2 (33.3%)	2 (33.3%)	1 (16.7%)	1 (16.7%)	6 (100%)
원효대교	0 (0.0%)	2 (16.7%)	4 (33.3%)	5 (41.7%)	1 (8.3%)	12 (100%)
잠수교	0 (0.0%)	1 (50.0%)	0 (0.0%)	1 (50.0%)	0 (0.0%)	2 (100%)
잠실대교	1 (5.0%)	6 (30.0%)	3 (15.0%)	9 (45.0%)	1 (5.0%)	20 (100%)
잠실철교	0 (0.0%)	3 (50.0%)	1 (16.7%)	1 (16.7%)	1 (16.7%)	6 (100%)
천호대교	0 (0.0%)	5 (33.3%)	4 (26.7%)	2 (13.3%)	4 (26.7%)	15 (100%)
청담대교	0 (0.0%)	1 (100%)	0 (0.0%)	0 (0.0%)	0 (0.0%)	1 (100%)
한강대교	4 (11.1%)	12 (33.3%)	8 (22.2%)	7 (19.4%)	5 (13.9%)	36 (100%)
한강철교	0 (0.0%)	1 (50.0%)	0 (0.0%)	0 (0.0%)	1 (50.0%)	2 (100%)
한남대교	1 (7.1%)	6 (42.9%)	4 (28.6%)	2 (14.3%)	1 (7.1%)	14 (100%)
익사 기타	0 (0.0%)	12 (22.2%)	14 (25.9%)	14 (25.9%)	14 (25.9%)	54 (100%)
총합계	27 (6.3%)	165 (38.6%)	103 (24.1%)	81 (19.0%)	51 (11.9%)	427 (100%)

6. 한강변 익사로 인한 자살사망 분석

8)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



8)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자 수(계속)

(단위 : 명)

	직업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	대인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	기타	미상	총합계
가양대교	1 (8.3%)	2 (16.7%)	0 (0.0%)	1 (8.3%)	3 (25.0%)	5 (41.7%)	0 (0.0%)	0 (0.0%)	12 (100%)
광진교	4 (13.3%)	7 (23.3%)	3 (10.0%)	4 (13.3%)	1 (3.3%)	10 (33.3%)	1 (3.3%)	0 (0.0%)	30 (100%)
구리암사대교	1 (5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0 (0.0%)	2 (100%)
동작대교	2 (15.4%)	3 (23.1%)	1 (7.7%)	1 (7.7%)	2 (15.4%)	3 (23.1%)	0 (0.0%)	1 (7.7%)	13 (100%)
동호대교	0 (0.0%)	4 (28.6%)	0 (0.0%)	0 (0.0%)	2 (14.3%)	5 (35.7%)	0 (0.0%)	3 (21.4%)	14 (100%)
마포대교	15 (13.3%)	19 (16.8%)	10 (8.8%)	12 (10.6%)	4 (3.5%)	40 (35.4%)	3 (2.7%)	10 (8.8%)	113 (100%)
반포대교	0 (0.0%)	1 (10.0%)	1 (10.0%)	2 (20.0%)	0 (0.0%)	5 (50.0%)	1 (10.0%)	0 (0.0%)	10 (100%)
서강대교	0 (0.0%)	1 (6.7%)	1 (6.7%)	2 (13.3%)	1 (6.7%)	6 (40.0%)	2 (13.3%)	2 (13.3%)	15 (100%)
성산대교	0 (0.0%)	3 (18.8%)	1 (6.3%)	1 (6.3%)	2 (12.5%)	7 (43.8%)	0 (0.0%)	2 (12.5%)	16 (100%)
성수대교	1 (20.0%)	1 (20.0%)	0 (0.0%)	0 (0.0%)	0 (0.0%)	3 (60.0%)	0 (0.0%)	0 (0.0%)	5 (100%)
양화대교	1 (5.9%)	2 (11.8%)	1 (5.9%)	2 (11.8%)	1 (5.9%)	9 (52.9%)	0 (0.0%)	1 (5.9%)	17 (100%)
영동대교	2 (16.7%)	2 (16.7%)	0 (0.0%)	3 (25.0%)	1 (8.3%)	3 (25.0%)	0 (0.0%)	1 (8.3%)	12 (100%)
올림픽대교	0 (0.0%)	0 (0.0%)	0 (0.0%)	1 (16.7%)	0 (0.0%)	4 (66.7%)	0 (0.0%)	1 (16.7%)	6 (100%)
원효대교	1 (8.3%)	3 (25.0%)	0 (0.0%)	0 (0.0%)	2 (16.7%)	5 (41.7%)	0 (0.0%)	1 (8.3%)	12 (100%)
잠수교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0 (0.0%)	1 (50.0%)	2 (100%)
잠실대교	4 (20.0%)	5 (25.0%)	1 (5.0%)	0 (0.0%)	0 (0.0%)	10 (50.0%)	0 (0.0%)	0 (0.0%)	20 (100%)
잠실철교	0 (0.0%)	2 (33.3%)	1 (16.7%)	0 (0.0%)	0 (0.0%)	2 (33.3%)	0 (0.0%)	1 (16.7%)	6 (100%)
천호대교	2 (13.3%)	1 (6.7%)	0 (0.0%)	0 (0.0%)	3 (20.0%)	8 (53.3%)	1 (6.7%)	0 (0.0%)	15 (100%)

8) 교량별/주원인별 자살사망(계속)

(단위 : 명)

	직업문제	경제문제	가족관계	대인관계	신체건강	정신건강	기타	미상	총합계
청담대교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
한강대교	5 (13.9%)	4 (11.1%)	6 (16.7%)	3 (8.3%)	2 (5.6%)	12 (33.3%)	1 (2.8%)	3 (8.3%)	36 (100%)
한강철교	0 (0.0%)	0 (0.0%)	1 (50.0%)	0 (0.0%)	0 (0.0%)	1 (50.0%)	0 (0.0%)	0 (0.0%)	2 (100%)
한남대교	2 (14.3%)	3 (21.4%)	0 (0.0%)	0 (0.0%)	2 (14.3%)	4 (28.6%)	0 (0.0%)	3 (21.4%)	14 (100%)
익사 기타	2 (3.7%)	7 (13.0%)	6 (11.1%)	2 (3.7%)	8 (14.8%)	24 (44.4%)	0 (0.0%)	5 (9.3%)	54 (100%)
총합계	43 (10.1%)	71 (16.6%)	33 (7.7%)	34 (8.0%)	34 (8.0%)	168 (39.3%)	9 (2.1%)	35 (8.2%)	427 (100%)

부록 3장. 서울특별시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 건강보험료구간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2. 생활상태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3. 정신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4. 신체질환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5. 장애종류에 따른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6. 생애주기 대상자별 자살사망 분석

1-1.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 특성: 의료급여구간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성별	남성	6,640 (67.0%)	485 (67.5%)
	여성	3,263 (32.9%)	234 (32.5%)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719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11 (1.5%)
	청년기	1,971 (19.9%)	60 (8.3%)
	중년기	2,598 (26.2%)	159 (22.1%)
	장년기	2,605 (26.3%)	245 (34.1%)
	노년기	2,542 (25.7%)	244 (33.9%)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719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375 (52.4%)
	공공장소	2,756 (27.8%)	266 (37.2%)
	학교/직장	286 (2.9%)	- -
	숙박업소	411 (4.1%)	29 (4.1%)
	교외/야산	268 (2.7%)	15 (2.1%)
	병원	98 (1.0%)	15 (2.1%)
	친척집	88 (0.9%)	9 (1.3%)
	지인집	73 (0.7%)	7 (1.0%)
	기타	60 (0.6%)	- -
	합계	9,905 (100%)	716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326 (45.4%)
	가스중독	1,104 (11.1%)	53 (7.4%)
	농약음독	173 (1.7%)	14 (1.9%)
	투신	1,979 (20.0%)	226 (31.5%)
	약물음독	222 (2.2%)	30 (4.2%)
	익사	433 (4.4%)	34 (4.7%)
	상해	203 (2.0%)	26 (3.6%)
	기타	161 (1.6%)	9 (1.3%)
	미상	10 (0.1%)	- -
	합계	9,905 (100%)	718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정신질환	치매	313 (2.5%)	55 (3.7%)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110 (7.4%)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38 (2.5%)
	정신병적 장애	821 (6.5%)	155 (10.4%)
	양극성장애	582 (4.6%)	76 (5.1%)
	우울장애	2,932 (23.4%)	302 (20.2%)
	불안장애	1,935 (15.4%)	207 (13.9%)
	신체형장애	1,665 (13.3%)	154 (10.3%)
	정신지연	42 (0.3%)	8 (0.5%)
	행태 증후군	114 (0.9%)	8 (0.5%)
	수면장애	2,471 (19.7%)	267 (17.9%)
	성격장애	133 (1.1%)	19 (1.3%)
	발달장애	33 (0.3%)	- -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11 (0.7%)
	기타 장애	286 (2.3%)	53 (3.6%)
	간질	249 (2.0%)	29 (1.9%)
	합계	12,547 (100%)	1,492 (100%)
신체질환	고혈압	3,225 (13.2%)	373 (14.4%)
	당뇨병	1,921 (7.9%)	223 (8.6%)
	대뇌혈관질환	1,180 (4.8%)	162 (6.3%)
	호흡기결핵	344 (1.4%)	40 (1.5%)
	갑상선장애	1,387 (5.7%)	120 (4.6%)
	심장질환	2,569 (10.5%)	252 (9.7%)
	만성신부전증	183 (0.7%)	30 (1.2%)
	신경계질환	4,410 (18.1%)	441 (17.0%)
	관절염	4,000 (16.4%)	436 (16.9%)
	간질환	2,690 (11.0%)	279 (10.8%)
	암	2,515 (10.3%)	231 (8.9%)
	합계	24,424 (100%)	2,587 (100%)
세부	소득감소	839 (14.8%)	27 (5.8%)
	지출증가	373 (6.6%)	25 (5.4%)
	파산	148 (2.6%)	6 (1.3%)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경제문제	부채	1,951 (34.4%)	60 (12.9%)
	지속적빈곤	1,090 (19.2%)	227 (48.8%)
	무직/구직	1,264 (22.3%)	120 (25.8%)
	합계	5,665 (100%)	465 (100%)

1-2. 건강보험료구간별 자살사망 특성: 건강보험료 하위구간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
성별	남성	6,640 (67.0%)	1,402 (65.8%)
	여성	3,263 (32.9%)	730 (34.2%)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132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19 (0.9%)
	청년기	1,971 (19.9%)	423 (19.9%)
	중년기	2,598 (26.2%)	543 (25.5%)
	장년기	2,605 (26.3%)	609 (28.6%)
	노년기	2,542 (25.7%)	536 (25.2%)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2,130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308 (61.9%)
	공공장소	2,756 (27.8%)	5 (0.2%)
	학교/직장	286 (2.9%)	16 (0.8%)
	숙박업소	411 (4.1%)	48 (2.3%)
	교외/야산	268 (2.7%)	566 (26.8%)
	병원	98 (1.0%)	99 (4.7%)
	친척집	88 (0.9%)	51 (2.4%)
	지인집	73 (0.7%)	16 (0.8%)
	기타	60 (0.6%)	3 (0.1%)
	합계	9,905 (100%)	2,112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213 (56.9%)
	가스중독	1,104 (11.1%)	273 (12.8%)
	농약음독	173 (1.7%)	43 (2.0%)
	투신	1,979 (20.0%)	362 (17.0%)
	약물음독	222 (2.2%)	49 (2.3%)
	익사	433 (4.4%)	102 (4.8%)
	상해	203 (2.0%)	53 (2.5%)
	기타	161 (1.6%)	35 (1.6%)
	미상	10 (0.1%)	0 (0.0%)
	합계	9,905 (100%)	2,130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
정신질환	치매	313 (2.5%)	58 (2.1%)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154 (5.5%)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54 (1.9%)
	정신병적 장애	821 (6.5%)	191 (6.8%)
	양극성장애	582 (4.6%)	133 (4.7%)
	우울장애	2,932 (23.4%)	644 (22.8%)
	불안장애	1,935 (15.4%)	450 (15.9%)
	신체형장애	1,665 (13.3%)	366 (13.0%)
	정신지연	42 (0.3%)	4 (0.1%)
	행태 증후군	114 (0.9%)	31 (1.1%)
	수면장애	2,471 (19.7%)	573 (20.3%)
	성격장애	133 (1.1%)	27 (1.0%)
	발달장애	33 (0.3%)	3 (0.1%)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30 (1.1%)
	기타 장애	286 (2.3%)	52 (1.8%)
	간질	249 (2.0%)	52 (1.8%)
	합계	12,547 (100%)	2,822 (100%)
신체질환	고혈압	3,225 (13.2%)	734 (13.2%)
	당뇨병	1,921 (7.9%)	456 (8.2%)
	대뇌혈관질환	1,180 (4.8%)	228 (4.1%)
	호흡기결핵	344 (1.4%)	106 (1.9%)
	갑상선장애	1,387 (5.7%)	309 (5.5%)
	심장질환	2,569 (10.5%)	591 (10.6%)
	만성신부전증	183 (0.7%)	33 (0.6%)
	신경계질환	4,410 (18.1%)	1,016 (18.2%)
	관절염	4,000 (16.4%)	910 (16.3%)
	간질환	2,690 (11.0%)	662 (11.9%)
	암	2,515 (10.3%)	533 (9.6%)
	합계	24,424 (100%)	5,578 (100%)
세부	소득감소	839 (14.8%)	194 (13.9%)
	지출증가	373 (6.6%)	75 (5.4%)
	파산	148 (2.6%)	41 (2.9%)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건강보험료 하위구간(1~6분위)
경제문제	부채	1,951 (34.4%)	427 (30.6%)
	지속적빈곤	1,090 (19.2%)	307 (22.0%)
	무직/구직	1,264 (22.3%)	351 (25.2%)
	합계	5,665 (100%)	1,395 (100%)

2-1. 생활상태별 자살사망 특성: 실업자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실업자
성별	남성	6,640 (67.0%)	1,244 (74.0%)
	여성	3,263 (32.9%)	437 (26.0%)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1,681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7 (0.4%)
	청년기	1,971 (19.9%)	447 (26.6%)
	중년기	2,598 (26.2%)	553 (32.9%)
	장년기	2,605 (26.3%)	485 (28.9%)
	노년기	2,542 (25.7%)	189 (11.2%)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1,681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024 (60.9%)
	공공장소	2,756 (27.8%)	465 (27.7%)
	학교/직장	286 (2.9%)	3 (0.2%)
	숙박업소	411 (4.1%)	81 (4.8%)
	교외/야산	268 (2.7%)	47 (2.8%)
	병원	98 (1.0%)	6 (0.4%)
	친척집	88 (0.9%)	20 (1.2%)
	지인집	73 (0.7%)	20 (1.2%)
	기타	60 (0.6%)	15 (0.9%)
	합계	9,905 (100%)	1,681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948 (56.4%)
	가스중독	1,104 (11.1%)	261 (15.5%)
	농약음독	173 (1.7%)	23 (1.4%)
	투신	1,979 (20.0%)	281 (16.7%)
	약물음독	222 (2.2%)	27 (1.6%)
	익사	433 (4.4%)	74 (4.4%)
	상해	203 (2.0%)	37 (2.2%)
	기타	161 (1.6%)	30 (1.8%)
	미상	10 (0.1%)	0 (0.0%)
	합계	9,905 (100%)	1,681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실업자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109 (8.1%)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433 (32.3%)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458 (34.2%)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340 (25.4%)
	합계	9,679 (100%)	1,340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18 (0.9%)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134 (7.0%)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40 (2.1%)
	정신병적 장애	821 (6.5%)	139 (7.2%)
	양극성장애	582 (4.6%)	114 (5.9%)
	우울장애	2,932 (23.4%)	469 (24.4%)
	불안장애	1,935 (15.4%)	286 (14.8%)
	신체형장애	1,665 (13.3%)	227 (11.8%)
	정신지연	42 (0.3%)	7 (0.4%)
	행태 증후군	114 (0.9%)	24 (1.2%)
	수면장애	2,471 (19.7%)	365 (19.0%)
	성격장애	133 (1.1%)	26 (1.3%)
	발달장애	33 (0.3%)	6 (0.3%)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15 (0.8%)
	기타 장애	286 (2.3%)	25 (1.3%)
	간질	249 (2.0%)	31 (1.6%)
	합계	12,547 (100%)	1,926 (100%)
신체질환	고혈압	3,225 (13.2%)	377 (11.9%)
	당뇨병	1,921 (7.9%)	236 (7.5%)
	대뇌혈관질환	1,180 (4.8%)	109 (3.5%)
	호흡기결핵	344 (1.4%)	65 (2.1%)
	갑상선장애	1,387 (5.7%)	191 (6.1%)
	심장질환	2,569 (10.5%)	324 (10.3%)
	만성신부전증	183 (0.7%)	13 (0.4%)
	신경계질환	4,410 (18.1%)	613 (19.4%)
	관절염	4,000 (16.4%)	477 (15.1%)
	간질환	2,690 (11.0%)	456 (14.5%)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실업자
	암	2,515 (10.3%)	294 (9.3%)
	합계	24,424 (100%)	3,155 (100%)
장애종류	지체	511 (44.3%)	60 (49.2%)
	뇌병변	108 (9.4%)	6 (4.9%)
	시각	109 (9.5%)	11 (9.0%)
	청각	126 (10.9%)	14 (11.5%)
	언어	11 (1.0%)	3 (2.5%)
	지적	29 (2.5%)	- -
	자폐성	2 (0.2%)	0 (0.0%)
	정신	159 (13.8%)	25 (20.5%)
	신장	39 (3.4%)	- -
	심장	4 (0.3%)	0 (0.0%)
	호흡기결핵	22 (1.9%)	- -
	간	4 (0.3%)	0 (0.0%)
	안면	1 (0.1%)	0 (0.0%)
	장루요루	21 (1.8%)	3 (2.5%)
	간질	7 (0.6%)	- -
	합계	1,153 (100%)	122 (100%)
세부경제문제	소득감소	839 (14.8%)	144 (7.7%)
	지출증가	373 (6.6%)	45 (2.4%)
	파산	148 (2.6%)	34 (1.8%)
	부채	1,951 (34.4%)	398 (21.2%)
	지속적 빈곤	1,090 (19.2%)	285 (15.2%)
	무직/구직	1,264 (22.3%)	968 (51.7%)
	합계	5,665 (100%)	1,874 (100%)

2-2. 생활상태별 자살사망 특성: 독거자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독거자
성별	남성	6,640 (67.0%)	1,909 (69.3%)
	여성	3,263 (32.9%)	847 (30.7%)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756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9 (0.3%)
	청년기	1,971 (19.9%)	597 (21.7%)
	중년기	2,598 (26.2%)	849 (30.8%)
	장년기	2,605 (26.3%)	785 (28.5%)
	노년기	2,542 (25.7%)	516 (18.7%)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2,756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925 (69.8%)
	공공장소	2,756 (27.8%)	537 (19.5%)
	학교/직장	286 (2.9%)	42 (1.5%)
	숙박업소	411 (4.1%)	118 (4.3%)
	교외/야산	268 (2.7%)	62 (2.2%)
	병원	98 (1.0%)	33 (1.2%)
	친척집	88 (0.9%)	16 (0.6%)
	지인집	73 (0.7%)	15 (0.5%)
	기타	60 (0.6%)	8 (0.3%)
	합계	9,905 (100%)	2,756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607 (58.3%)
	가스중독	1,104 (11.1%)	515 (18.7%)
	농약음독	173 (1.7%)	40 (1.5%)
	투신	1,979 (20.0%)	300 (10.9%)
	약물음독	222 (2.2%)	85 (3.1%)
	익사	433 (4.4%)	93 (3.4%)
	상해	203 (2.0%)	67 (2.4%)
	기타	161 (1.6%)	42 (1.5%)
	미상	10 (0.1%)	7 (0.3%)
	합계	9,905 (100%)	2,756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독거자
결혼상태	기혼	3,751 (37.9%)	98 (3.6%)
	별거	335 (3.4%)	192 (7.0%)
	미혼	3,237 (32.7%)	1,283 (46.6%)
	사별	622 (6.3%)	257 (9.3%)
	이혼	1,287 (13.0%)	725 (26.3%)
	모름	673 (6.8%)	201 (7.3%)
	합계	9,905 (100%)	2,756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1,191 (44.3%)
	지역세대원	2,335 (24.0%)	382 (14.2%)
	직장가입자	1,392 (14.3%)	290 (10.8%)
	직장피부양자	3,292 (33.8%)	492 (18.3%)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314 (11.7%)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17 (0.6%)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2,686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84 (2.5%)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216 (6.4%)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67 (2.0%)
	정신병적 장애	821 (6.5%)	174 (5.2%)
	양극성장애	582 (4.6%)	144 (4.3%)
	우울장애	2,932 (23.4%)	791 (23.5%)
	불안장애	1,935 (15.4%)	499 (14.8%)
	신체형장애	1,665 (13.3%)	426 (12.7%)
	정신지연	42 (0.3%)	12 (0.4%)
	행태 증후군	114 (0.9%)	33 (1.0%)
	수면장애	2,471 (19.7%)	716 (21.3%)
	성격장애	133 (1.1%)	43 (1.3%)
	발달장애	33 (0.3%)	10 (0.3%)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34 (1.0%)
	기타 장애	286 (2.3%)	60 (1.8%)
	간질	249 (2.0%)	55 (1.6%)
	합계	12,547 (100%)	3,364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독거자
신체질환	고혈압	3,225 (13.2%)	804 (13.6%)
	당뇨병	1,921 (7.9%)	495 (8.4%)
	대뇌혈관질환	1,180 (4.8%)	276 (4.7%)
	호흡기결핵	344 (1.4%)	102 (1.7%)
	갑상선장애	1,387 (5.7%)	315 (5.3%)
	심장질환	2,569 (10.5%)	510 (8.6%)
	만성신부전증	183 (0.7%)	38 (0.6%)
	신경계질환	4,410 (18.1%)	1,143 (19.4%)
	관절염	4,000 (16.4%)	956 (16.2%)
	간질환	2,690 (11.0%)	721 (12.2%)
	암	2,515 (10.3%)	545 (9.2%)
	합계	24,424 (100%)	5,905 (100%)

3-1.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수면장애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수면장애
성별	남성	6,640 (67.0%)	1408 (57.4%)
	여성	3,263 (32.9%)	1045 (42.6%)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453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8 (0.3%)
	청년기	1,971 (19.9%)	313 (12.8%)
	중년기	2,598 (26.2%)	515 (21.0%)
	장년기	2,605 (26.3%)	650 (26.5%)
	노년기	2,542 (25.7%)	967 (39.4%)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2,453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591 (64.4%)
	공공장소	2,756 (27.8%)	598 (24.2%)
	학교/직장	286 (2.9%)	38 (1.5%)
	숙박업소	411 (4.1%)	97 (3.9%)
	교외/야산	268 (2.7%)	63 (2.5%)
	병원	98 (1.0%)	33 (1.3%)
	친척집	88 (0.9%)	24 (1.0%)
	지인집	73 (0.7%)	13 (0.5%)
	기타	60 (0.6%)	14 (0.6%)
	합계	9,905 (100%)	2,471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309 (53.0%)
	가스중독	1,104 (11.1%)	309 (12.5%)
	농약음독	173 (1.7%)	60 (2.4%)
	투신	1,979 (20.0%)	517 (20.9%)
	약물음독	222 (2.2%)	94 (3.8%)
	익사	433 (4.4%)	65 (2.6%)
	상해	203 (2.0%)	58 (2.3%)
	기타	161 (1.6%)	55 (2.2%)
	미상	10 (0.1%)	4 (0.2%)
	합계	9,905 (100%)	2,471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수면장애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267 (10.9%)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573 (23.4%)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656 (26.7%)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957 (39.0%)
	합계	9,679 (100%)	2,453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453 (18.5%)
	지역세대원	2,335 (24.0%)	446 (18.2%)
	직장가입자	1,392 (14.3%)	349 (14.2%)
	직장피부양자	3,292 (33.8%)	973 (39.7%)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190 (7.7%)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42 (1.7%)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2,453 (100%)
신체질환	고혈압	3,225 (13.2%)	1,169 (12.5%)
	당뇨병	1,921 (7.9%)	675 (7.2%)
	대뇌혈관질환	1,180 (4.8%)	485 (5.2%)
	호흡기결핵	344 (1.4%)	118 (1.3%)
	갑상선장애	1,387 (5.7%)	554 (5.9%)
	심장질환	2,569 (10.5%)	855 (9.2%)
	만성신부전증	183 (0.7%)	65 (0.7%)
	신경계질환	4,410 (18.1%)	2,099 (22.5%)
	관절염	4,000 (16.4%)	1,441 (15.5%)
	간질환	2,690 (11.0%)	964 (10.3%)
	암	2,515 (10.3%)	891 (9.6%)
	합계	24,424 (100%)	9,316 (100%)

3-2.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우울장애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우울장애
성별	남성	6,640 (67.0%)	1,530 (52.6%)
	여성	3,263 (32.9%)	1,378 (47.4%)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908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37 (1.3%)
	청년기	1,971 (19.9%)	564 (19.4%)
	중년기	2,598 (26.2%)	674 (23.2%)
	장년기	2,605 (26.3%)	734 (25.2%)
	노년기	2,542 (25.7%)	899 (30.9%)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2,908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846 (63.0%)
	공공장소	2,756 (27.8%)	799 (27.3%)
	학교/직장	286 (2.9%)	46 (1.6%)
	숙박업소	411 (4.1%)	84 (2.9%)
	교외/야산	268 (2.7%)	65 (2.2%)
	병원	98 (1.0%)	36 (1.2%)
	친척집	88 (0.9%)	29 (1.0%)
	지인집	73 (0.7%)	16 (0.5%)
	기타	60 (0.6%)	11 (0.4%)
	합계	9,905 (100%)	2,932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514 (51.6%)
	가스중독	1,104 (11.1%)	269 (9.2%)
	농약음독	173 (1.7%)	59 (2.0%)
	투신	1,979 (20.0%)	754 (25.7%)
	약물음독	222 (2.2%)	109 (3.7%)
	익사	433 (4.4%)	105 (3.6%)
	상해	203 (2.0%)	56 (1.9%)
	기타	161 (1.6%)	63 (2.1%)
	미상	10 (0.1%)	3 (0.1%)
	합계	9,905 (100%)	2,932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우울장애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302 (10.4%)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644 (22.1%)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775 (26.7%)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1,187 (40.8%)
	합계	9,679 (100%)	2,908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487 (16.7%)
	지역세대원	2,335 (24.0%)	585 (20.1%)
	직장가입자	1,392 (14.3%)	454 (15.6%)
	직장피부양자	3,292 (33.8%)	1,119 (38.5%)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212 (7.3%)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51 (1.8%)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2,908 (100%)
신체질환	고혈압	3,225 (13.2%)	1,161 (12.0%)
	당뇨병	1,921 (7.9%)	699 (7.2%)
	대뇌혈관질환	1,180 (4.8%)	485 (5.0%)
	호흡기결핵	344 (1.4%)	108 (1.1%)
	갑상선장애	1,387 (5.7%)	670 (6.9%)
	심장질환	2,569 (10.5%)	997 (10.3%)
	만성신부전증	183 (0.7%)	61 (0.6%)
	신경계질환	4,410 (18.1%)	1,839 (19.1%)
	관절염	4,000 (16.4%)	1,520 (15.8%)
	간질환	2,690 (11.0%)	1,066 (11.1%)
	암	2,515 (10.3%)	1,040 (10.8%)
	합계	24,424 (100%)	9,646 (100%)

3-3. 정신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정신병적장애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정신병적장애
성별	남성	6,640 (67.0%)	449 (55.2%)
	여성	3,263 (32.9%)	365 (44.8%)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814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9 (1.1%)
	청년기	1,971 (19.9%)	226 (27.8%)
	중년기	2,598 (26.2%)	295 (36.2%)
	장년기	2,605 (26.3%)	203 (24.9%)
	노년기	2,542 (25.7%)	81 (10.0%)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814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366 (44.6%)
	공공장소	2,756 (27.8%)	383 (46.7%)
	학교/직장	286 (2.9%)	5 (0.6%)
	숙박업소	411 (4.1%)	30 (3.7%)
	교외/야산	268 (2.7%)	11 (1.3%)
	병원	98 (1.0%)	12 (1.5%)
	친척집	88 (0.9%)	10 (1.2%)
	지인집	73 (0.7%)	3 (0.4%)
	기타	60 (0.6%)	1 (0.1%)
	합계	9,905 (100%)	821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244 (29.7%)
	가스중독	1,104 (11.1%)	42 (5.1%)
	농약음독	173 (1.7%)	8 (1.0%)
	투신	1,979 (20.0%)	400 (48.7%)
	약물음독	222 (2.2%)	25 (3.0%)
	익사	433 (4.4%)	59 (7.2%)
	상해	203 (2.0%)	31 (3.8%)
	기타	161 (1.6%)	10 (1.2%)
	미상	10 (0.1%)	2 (0.2%)
	합계	9,905 (100%)	821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정신병적장애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155 (19.0%)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191 (23.5%)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185 (22.7%)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283 (34.8%)
	합계	9,679 (100%)	814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118 (14.5%)
	지역세대원	2,335 (24.0%)	182 (22.4%)
	직장가입자	1,392 (14.3%)	87 (10.7%)
	직장피부양자	3,292 (33.8%)	275 (33.8%)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114 (14.0%)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38 (4.7%)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814 (100%)
신체질환	고혈압	3,225 (13.2%)	183 (9.7%)
	당뇨병	1,921 (7.9%)	133 (7.0%)
	대뇌혈관질환	1,180 (4.8%)	60 (3.2%)
	호흡기결핵	344 (1.4%)	24 (1.3%)
	갑상선장애	1,387 (5.7%)	147 (7.8%)
	심장질환	2,569 (10.5%)	248 (13.1%)
	만성신부전증	183 (0.7%)	11 (0.6%)
	신경계질환	4,410 (18.1%)	379 (20.1%)
	관절염	4,000 (16.4%)	278 (14.7%)
	간질환	2,690 (11.0%)	238 (12.6%)
	암	2,515 (10.3%)	187 (9.9%)
	합계	24,424 (100%)	1,888 (100%)

4-1.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고혈압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고혈압
성별	남성	6,640 (67.0%)	2,248 (70.5%)
	여성	3,263 (32.9%)	942 (29.5%)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3,190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 -
	청년기	1,971 (19.9%)	46 (1.4%)
	중년기	2,598 (26.2%)	347 (10.9%)
	장년기	2,605 (26.3%)	993 (31.1%)
	노년기	2,542 (25.7%)	1,802 (56.5%)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3,188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2,037 (63.2%)
	공공장소	2,756 (27.8%)	841 (26.1%)
	학교/직장	286 (2.9%)	65 (2.0%)
	숙박업소	411 (4.1%)	71 (2.2%)
	교외/야산	268 (2.7%)	110 (3.4%)
	병원	98 (1.0%)	55 (1.7%)
	친척집	88 (0.9%)	25 (0.8%)
	지인집	73 (0.7%)	8 (0.2%)
	기타	60 (0.6%)	13 (0.4%)
	합계	9,905 (100%)	3,225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936 (60.0%)
	가스중독	1,104 (11.1%)	192 (6.0%)
	농약음독	173 (1.7%)	107 (3.3%)
	투신	1,979 (20.0%)	669 (20.7%)
	약물음독	222 (2.2%)	85 (2.6%)
	익사	433 (4.4%)	78 (2.4%)
	상해	203 (2.0%)	91 (2.8%)
	기타	161 (1.6%)	65 (2.0%)
	미상	10 (0.1%)	2 (0.1%)
	합계	9,905 (100%)	3,225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고혈압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373 (11.7%)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734 (23.0%)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786 (24.6%)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1,297 (40.7%)
	합계	9,679 (100%)	3,190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507 (15.9%)
	지역세대원	2,335 (24.0%)	593 (18.6%)
	직장가입자	1,392 (14.3%)	389 (12.2%)
	직장피부양자	3,292 (33.8%)	1,369 (42.9%)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295 (9.2%)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37 (1.2%)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3,190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243 (4.6%)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260 (5.0%)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103 (2.0%)
	정신병적 장애	821 (6.5%)	183 (3.5%)
	양극성장애	582 (4.6%)	165 (3.1%)
	우울장애	2,932 (23.4%)	1,161 (22.1%)
	불안장애	1,935 (15.4%)	889 (16.9%)
	신체형장애	1,665 (13.3%)	686 (13.1%)
	정신지연	42 (0.3%)	13 (0.2%)
	행태 증후군	114 (0.9%)	42 (0.8%)
	수면장애	2,471 (19.7%)	1,169 (22.3%)
	성격장애	133 (1.1%)	21 (0.4%)
	발달장애	33 (0.3%)	7 (0.1%)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14 (0.3%)
	기타 장애	286 (2.3%)	178 (3.4%)
	간질	249 (2.0%)	111 (2.1%)
	합계	12,547 (100%)	5,245 (100%)

4-2.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당뇨병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당뇨병
성별	남성	6,640 (67.0%)	1,372 (72.1%)
	여성	3,263 (32.9%)	530 (27.9%)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1,902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0 (0.0%)
	청년기	1,971 (19.9%)	46 (2.4%)
	중년기	2,598 (26.2%)	233 (12.3%)
	장년기	2,605 (26.3%)	632 (33.2%)
	노년기	2,542 (25.7%)	991 (52.1%)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1,902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189 (61.9%)
	공공장소	2,756 (27.8%)	522 (27.2%)
	학교/직장	286 (2.9%)	45 (2.3%)
	숙박업소	411 (4.1%)	40 (2.1%)
	교외/야산	268 (2.7%)	60 (3.1%)
	병원	98 (1.0%)	33 (1.7%)
	친척집	88 (0.9%)	15 (0.8%)
	지인집	73 (0.7%)	8 (0.4%)
	기타	60 (0.6%)	9 (0.5%)
	합계	9,905 (100%)	1,921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102 (57.4%)
	가스중독	1,104 (11.1%)	164 (8.5%)
	농약음독	173 (1.7%)	60 (3.1%)
	투신	1,979 (20.0%)	389 (20.2%)
	약물음독	222 (2.2%)	54 (2.8%)
	익사	433 (4.4%)	54 (2.8%)
	상해	203 (2.0%)	59 (3.1%)
	기타	161 (1.6%)	38 (2.0%)
	미상	10 (0.1%)	1 (0.1%)
	합계	9,905 (100%)	1,921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당뇨병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223 (11.7%)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456 (24.0%)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464 (24.4%)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759 (39.9%)
	합계	9,679 (100%)	1,902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313 (16.5%)
	지역세대원	2,335 (24.0%)	361 (19.0%)
	직장가입자	1,392 (14.3%)	240 (12.6%)
	직장피부양자	3,292 (33.8%)	780 (41.0%)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185 (9.7%)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23 (1.2%)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1,902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151 (4.8%)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169 (5.4%)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59 (1.9%)
	정신병적 장애	821 (6.5%)	133 (4.2%)
	양극성장애	582 (4.6%)	99 (3.1%)
	우울장애	2,932 (23.4%)	699 (22.2%)
	불안장애	1,935 (15.4%)	518 (16.4%)
	신체형장애	1,665 (13.3%)	395 (12.5%)
	정신지연	42 (0.3%)	18 (0.6%)
	행태 증후군	114 (0.9%)	28 (0.9%)
	수면장애	2,471 (19.7%)	675 (21.4%)
	성격장애	133 (1.1%)	19 (0.6%)
	발달장애	33 (0.3%)	4 (0.1%)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8 (0.3%)
	기타 장애	286 (2.3%)	120 (3.8%)
	간질	249 (2.0%)	57 (1.8%)
	합계	12,547 (100%)	3,152 (100%)

4-3. 신체질환별 자살사망 특성: 암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암
성별	남성	6,640 (67.0%)	1,463 (58.9%)
	여성	3,263 (32.9%)	1,021 (41.1%)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484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11 (0.4%)
	청년기	1,971 (19.9%)	233 (9.4%)
	중년기	2,598 (26.2%)	434 (17.5%)
	장년기	2,605 (26.3%)	637 (25.6%)
	노년기	2,542 (25.7%)	1,169 (47.1%)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2,484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609 (64.0%)
	공공장소	2,756 (27.8%)	628 (25.0%)
	학교/직장	286 (2.9%)	38 (1.5%)
	숙박업소	411 (4.1%)	62 (2.5%)
	교외/야산	268 (2.7%)	76 (3.0%)
	병원	98 (1.0%)	51 (2.0%)
	친척집	88 (0.9%)	28 (1.1%)
	지인집	73 (0.7%)	10 (0.4%)
	기타	60 (0.6%)	13 (0.5%)
	합계	9,905 (100%)	2,515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453 (57.8%)
	가스중독	1,104 (11.1%)	197 (7.8%)
	농약음독	173 (1.7%)	70 (2.8%)
	투신	1,979 (20.0%)	543 (21.6%)
	약물음독	222 (2.2%)	60 (2.4%)
	익사	433 (4.4%)	72 (2.9%)
	상해	203 (2.0%)	61 (2.4%)
	기타	161 (1.6%)	59 (2.3%)
	미상	10 (0.1%)	0 (0.0%)
	합계	9,905 (100%)	2,515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암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231 (9.3%)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533 (21.5%)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648 (26.1%)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1,072 (43.2%)
	합계	9,679 (100%)	2,484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357 (14.4%)
	지역세대원	2,335 (24.0%)	495 (19.9%)
	직장가입자	1,392 (14.3%)	358 (14.4%)
	직장피부양자	3,292 (33.8%)	1,085 (43.7%)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157 (6.3%)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32 (1.3%)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2,484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159 (3.6%)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135 (3.1%)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77 (1.8%)
	정신병적 장애	821 (6.5%)	187 (4.3%)
	양극성장애	582 (4.6%)	171 (3.9%)
	우울장애	2,932 (23.4%)	1,040 (23.7%)
	불안장애	1,935 (15.4%)	739 (16.8%)
	신체형장애	1,665 (13.3%)	644 (14.7%)
	정신지연	42 (0.3%)	15 (0.3%)
	행태 증후군	114 (0.9%)	42 (1.0%)
	수면장애	2,471 (19.7%)	891 (20.3%)
	성격장애	133 (1.1%)	31 (0.7%)
	발달장애	33 (0.3%)	11 (0.3%)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31 (0.7%)
	기타 장애	286 (2.3%)	124 (2.8%)
	간질	249 (2.0%)	95 (2.2%)
	합계	12,547 (100%)	4,392 (100%)

5-1.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특성: 지체장애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지체장애
성별	남성	6,640 (67.0%)	389 (79.6%)
	여성	3,263 (32.9%)	100 (20.4%)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489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 -
	청년기	1,971 (19.9%)	20 (4.1%)
	중년기	2,598 (26.2%)	80 (16.4%)
	장년기	2,605 (26.3%)	152 (31.1%)
	노년기	2,542 (25.7%)	236 (48.4%)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488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315 (64.7%)
	공공장소	2,756 (27.8%)	124 (25.5%)
	학교/직장	286 (2.9%)	13 (2.7%)
	숙박업소	411 (4.1%)	9 (1.8%)
	교외/야산	268 (2.7%)	7 (1.4%)
	병원	98 (1.0%)	11 (2.3%)
	친척집	88 (0.9%)	5 (1.0%)
	지인집	73 (0.7%)	- -
	기타	60 (0.6%)	3 (0.6%)
	합계	9,905 (100%)	487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279 (57.2%)
	가스중독	1,104 (11.1%)	44 (9.0%)
	농약음독	173 (1.7%)	23 (4.7%)
	투신	1,979 (20.0%)	97 (19.9%)
	약물음독	222 (2.2%)	11 (2.3%)
	익사	433 (4.4%)	14 (2.9%)
	상해	203 (2.0%)	9 (1.8%)
	기타	161 (1.6%)	11 (2.3%)
	미상	10 (0.1%)	- -
	합계	9,905 (100%)	488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지체장애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93 (19.0%)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132 (27.0%)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102 (20.9%)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162 (33.1%)
	합계	9,679 (100%)	489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77 (15.7%)
	지역세대원	2,335 (24.0%)	81 (16.6%)
	직장가입자	1,392 (14.3%)	47 (9.6%)
	직장피부양자	3,292 (33.8%)	198 (40.5%)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77 (15.7%)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9 (1.8%)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489 (100%)

5-2.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특성: 정신장애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정신장애
성별	남성	6,640 (67.0%)	86 (59.3%)
	여성	3,263 (32.9%)	59 (40.7%)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145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0 (0.0%)
	청년기	1,971 (19.9%)	25 (17.2%)
	중년기	2,598 (26.2%)	71 (49.0%)
	장년기	2,605 (26.3%)	36 (24.8%)
	노년기	2,542 (25.7%)	13 (9.0%)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145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55 (39.0%)
	공공장소	2,756 (27.8%)	77 (54.6%)
	학교/직장	286 (2.9%)	0 (0.0%)
	숙박업소	411 (4.1%)	4 (2.8%)
	교외/야산	268 (2.7%)	5 (3.5%)
	병원	98 (1.0%)	- -
	친척집	88 (0.9%)	- -
	지인집	73 (0.7%)	0 (0.0%)
	기타	60 (0.6%)	0 (0.0%)
	합계	9,905 (100%)	141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24 (16.9%)
	가스중독	1,104 (11.1%)	5 (3.5%)
	농약음독	173 (1.7%)	- -
	투신	1,979 (20.0%)	81 (57.0%)
	약물음독	222 (2.2%)	10 (7.0%)
	익사	433 (4.4%)	14 (9.9%)
	상해	203 (2.0%)	8 (5.6%)
	기타	161 (1.6%)	- -
	미상	10 (0.1%)	0 (0.0%)
	합계	9,905 (100%)	142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정신장애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79 (58.5%)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16 (11.9%)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25 (18.5%)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15 (11.1%)
	합계	9,679 (100%)	135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16 (11.0%)
	지역세대원	2,335 (24.0%)	21 (14.5%)
	직장가입자	1,392 (14.3%)	3 (2.1%)
	직장피부양자	3,292 (33.8%)	26 (17.9%)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63 (43.4%)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16 (11.0%)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145 (100%)

5-3. 장애종류별 자살사망 특성: 호흡기장애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호흡기장애인
성별	남성	6,640 (67.0%)	18 (85.7%)
	여성	3,263 (32.9%)	3 (14.3%)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1 (100%)
생애주기	아동기	184 (1.9%)	0 (0.0%)
	청년기	1,971 (19.9%)	0 (0.0%)
	중년기	2,598 (26.2%)	0 (0.0%)
	장년기	2,605 (26.3%)	5 (23.8%)
	노년기	2,542 (25.7%)	16 (76.2%)
	미상	5 (0.1%)	0 (0.0%)
	합계	9,905 (100%)	21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6 (100.0%)
	공공장소	2,756 (27.8%)	- -
	학교/직장	286 (2.9%)	0 (0.0%)
	숙박업소	411 (4.1%)	0 (0.0%)
	교외/야산	268 (2.7%)	- -
	병원	98 (1.0%)	- -
	친척집	88 (0.9%)	- -
	지인집	73 (0.7%)	0 (0.0%)
	기타	60 (0.6%)	0 (0.0%)
	합계	9,905 (100%)	16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2 (63.2%)
	가스중독	1,104 (11.1%)	- -
	농약음독	173 (1.7%)	0 (0.0%)
	투신	1,979 (20.0%)	7 (36.8%)
	약물음독	222 (2.2%)	0 (0.0%)
	익사	433 (4.4%)	0 (0.0%)
	상해	203 (2.0%)	0 (0.0%)
	기타	161 (1.6%)	0 (0.0%)
	미상	10 (0.1%)	0 (0.0%)
	합계	9,905 (100%)	19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호흡기장애인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 -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4 (57.1%)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3 (42.9%)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0 (0.0%)
	합계	9679 (100%)	7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4 (21.1%)
	지역세대원	2,335 (24.0%)	5 (26.3%)
	직장가입자	1,392 (14.3%)	0 (0.0%)
	직장피부양자	3,292 (33.8%)	10 (52.6%)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 -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0 (0.0%)
	미상	36 (0.4%)	0 (0.0%)
	합계	9,726 (100%)	19 (100%)

6-1.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아동기(아동·청소년)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아동기
성별	남성	6,640 (67.0%)	115 (62.5%)
	여성	3,263 (32.9%)	69 (37.5%)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184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81 (44.8%)
	공공장소	2,756 (27.8%)	97 (53.6%)
	학교/직장	286 (2.9%)	0 (0.0%)
	숙박업소	411 (4.1%)	3 (1.7%)
	교외/야산	268 (2.7%)	0 (0.0%)
	병원	98 (1.0%)	- -
	친척집	88 (0.9%)	- -
	지인집	73 (0.7%)	- -
	기타	60 (0.6%)	0 (0.0%)
	합계	9,905 (100%)	181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46 (25.4%)
	가스중독	1,104 (11.1%)	10 (5.5%)
	농약음독	173 (1.7%)	0 (0.0%)
	투신	1,979 (20.0%)	98 (54.1%)
	약물음독	222 (2.2%)	- -
	익사	433 (4.4%)	27 (14.9%)
	상해	203 (2.0%)	0 (0.0%)
	기타	161 (1.6%)	- -
	미상	10 (0.1%)	0 (0.0%)
	합계	9,905 (100%)	181 (100%)
보험료구간	의료급여구간	751 (7.8%)	11 (8.5%)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19 (14.7%)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26 (20.2%)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73 (56.6%)
	합계	9,679 (100%)	129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아동기
정신질환	치매	313 (2.5%)	0 (0.0%)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0 (0.0%)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 -
	정신병적 장애	821 (6.5%)	9 (6.1%)
	양극성장애	582 (4.6%)	11 (7.5%)
	우울장애	2,932 (23.4%)	37 (25.2%)
	불안장애	1,935 (15.4%)	15 (10.2%)
	신체형장애	1,665 (13.3%)	23 (15.6%)
	정신지연	42 (0.3%)	- -
	행태 증후군	114 (0.9%)	- -
	수면장애	2,471 (19.7%)	8 (5.4%)
	성격장애	133 (1.1%)	- -
	발달장애	33 (0.3%)	5 (3.4%)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35 (23.8%)
	기타 장애	286 (2.3%)	0 (0.0%)
	간질	249 (2.0%)	4 (2.7%)
	합계	12,547 (100%)	147 (100%)
재학상태	초등학교 재학	- -	3 (1.6%)
	중학교 재학	- -	34 (18.5%)
	고등학교 재학	- -	90 (48.9%)
	대학교 재학	- -	9 (4.9%)
	고등학교 졸업	- -	14 (7.6%)
	학교 밖 청소년	- -	26 (14.1%)
	미상	- -	8 (4.3%)
	합계	- -	184 (100%)

6-2.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청년기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청년기
성별	남성	6,640 (67.0%)	1,111 (56.4%)
	여성	3,263 (32.9%)	860 (43.6%)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1,971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107 (56.2%)
	공공장소	2,756 (27.8%)	603 (30.6%)
	학교/직장	286 (2.9%)	38 (1.9%)
	숙박업소	411 (4.1%)	142 (7.2%)
	교외/야산	268 (2.7%)	13 (0.7%)
	병원	98 (1.0%)	9 (0.5%)
	친척집	88 (0.9%)	16 (0.8%)
	지인집	73 (0.7%)	33 (1.7%)
	기타	60 (0.6%)	10 (0.5%)
	합계	9,905 (100%)	1,971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945 (48.0%)
	가스중독	1,104 (11.1%)	300 (15.2%)
	농약음독	173 (1.7%)	4 (0.2%)
	투신	1,979 (20.0%)	457 (23.2%)
	약물음독	222 (2.2%)	45 (2.3%)
	익사	433 (4.4%)	165 (8.4%)
	상해	203 (2.0%)	25 (1.3%)
	기타	161 (1.6%)	29 (1.5%)
	미상	10 (0.1%)	- -
	합계	9,905 (100%)	1,970 (100%)
결혼상태	기혼	3,751 (37.9%)	147 (7.5%)
	별거	335 (3.4%)	20 (1.0%)
	미혼	3,237 (32.7%)	1,639 (83.2%)
	사별	622 (6.3%)	3 (0.2%)
	이혼	1,287 (13.0%)	58 (2.9%)
	모름	673 (6.8%)	104 (5.3%)
	합계	9,905 (100%)	1,971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청년기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60 (4.1%)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423 (29.0%)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520 (35.6%)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457 (31.3%)
	합계	9,679 (100%)	1,460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339 (17.5%)
	지역세대원	2,335 (24.0%)	584 (30.2%)
	직장가입자	1,392 (14.3%)	332 (17.2%)
	직장피부양자	3,292 (33.8%)	633 (32.7%)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17 (0.9%)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29 (1.5%)
	미상	36 (0.4%)	1 (0.1%)
	합계	9,726 (100%)	1,935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10 (0.4%)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53 (2.3%)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40 (1.7%)
	정신병적 장애	821 (6.5%)	229 (10.0%)
	양극성장애	582 (4.6%)	167 (7.3%)
	우울장애	2,932 (23.4%)	571 (24.9%)
	불안장애	1,935 (15.4%)	305 (13.3%)
	신체형장애	1,665 (13.3%)	319 (13.9%)
	정신지연	42 (0.3%)	15 (0.7%)
	행태 증후군	114 (0.9%)	35 (1.5%)
	수면장애	2,471 (19.7%)	318 (13.9%)
	성격장애	133 (1.1%)	68 (3.0%)
	발달장애	33 (0.3%)	14 (0.6%)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82 (3.6%)
	기타 장애	286 (2.3%)	21 (0.9%)
	간질	249 (2.0%)	44 (1.9%)
	합계	12,547 (100%)	2,291 (100%)
	고혈압	3,225 (13.2%)	46 (2.1%)
	당뇨병	1,921 (7.9%)	46 (2.1%)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청년기
신체질환	대뇌혈관질환	1,180 (4.8%)	22 (1.0%)
	호흡기결핵	344 (1.4%)	45 (2.0%)
	갑상선장애	1,387 (5.7%)	262 (11.8%)
	심장질환	2,569 (10.5%)	329 (14.8%)
	만성신부전증	183 (0.7%)	3 (0.1%)
	신경계질환	4,410 (18.1%)	621 (27.9%)
	관절염	4,000 (16.4%)	265 (11.9%)
	간질환	2,690 (11.0%)	347 (15.6%)
	암	2,515 (10.3%)	237 (10.7%)
	합계	24,424 (100%)	2,223 (100%)
세부경제문제	소득감소	839 (14.8%)	101 (9.4%)
	지출증가	373 (6.6%)	71 (6.6%)
	파산	148 (2.6%)	8 (0.7%)
	부채	1,951 (34.4%)	376 (35.0%)
	지속적 빈곤	1,090 (19.2%)	155 (14.4%)
	무직·구직	1,264 (22.3%)	362 (33.7%)
	합계	5,665 (100%)	1,073 (100%)

6-3.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중년기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중년기
성별	남성	6,640 (67.0%)	1,738 (66.9%)
	여성	3,263 (32.9%)	860 (33.1%)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598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537 (59.2%)
	공공장소	2,756 (27.8%)	682 (26.3%)
	학교/직장	286 (2.9%)	111 (4.3%)
	숙박업소	411 (4.1%)	145 (5.6%)
	교외/야산	268 (2.7%)	49 (1.9%)
	병원	98 (1.0%)	10 (0.4%)
	친척집	88 (0.9%)	32 (1.2%)
	지인집	73 (0.7%)	20 (0.8%)
	기타	60 (0.6%)	12 (0.5%)
	합계	9,905 (100%)	2,598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486 (57.2%)
	가스중독	1,104 (11.1%)	440 (16.9%)
	농약음독	173 (1.7%)	7 (0.3%)
	투신	1,979 (20.0%)	417 (16.1%)
	약물음독	222 (2.2%)	72 (2.8%)
	익사	433 (4.4%)	105 (4.0%)
	상해	203 (2.0%)	45 (1.7%)
	기타	161 (1.6%)	25 (1.0%)
	미상	10 (0.1%)	1 (0.0%)
	합계	9,905 (100%)	2,598 (100%)
결혼상태	기혼	3,751 (37.9%)	861 (33.1%)
	별거	335 (3.4%)	102 (3.9%)
	미혼	3,237 (32.7%)	1,029 (39.6%)
	사별	622 (6.3%)	22 (0.8%)
	이혼	1,287 (13.0%)	438 (16.9%)
	모름	673 (6.8%)	146 (5.6%)
	합계	9,905 (100%)	2,598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중년기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159 (7.8%)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543 (26.5%)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681 (33.2%)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667 (32.5%)
	합계	9,679 (100%)	2,050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738 (29.0%)
	지역세대원	2,335 (24.0%)	649 (25.5%)
	직장가입자	1,392 (14.3%)	548 (21.5%)
	직장피부양자	3,292 (33.8%)	452 (17.7%)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115 (4.5%)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34 (1.3%)
	미상	36 (0.4%)	12 (0.5%)
	합계	9,726 (100%)	2,548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5 (0.2%)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195 (6.8%)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70 (2.4%)
	정신병적 장애	821 (6.5%)	298 (10.4%)
	양극성장애	582 (4.6%)	178 (6.2%)
	우울장애	2,932 (23.4%)	680 (23.6%)
	불안장애	1,935 (15.4%)	390 (13.5%)
	신체형장애	1,665 (13.3%)	358 (12.4%)
	정신지연	42 (0.3%)	7 (0.2%)
	행태 증후군	114 (0.9%)	18 (0.6%)
	수면장애	2,471 (19.7%)	520 (18.1%)
	성격장애	133 (1.1%)	39 (1.4%)
	발달장애	33 (0.3%)	6 (0.2%)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12 (0.4%)
	기타 장애	286 (2.3%)	34 (1.2%)
	간질	249 (2.0%)	69 (2.4%)
	합계	12,547 (100%)	2,879 (100%)
	고혈압	3,225 (13.2%)	353 (8.4%)
	당뇨병	1,921 (7.9%)	235 (5.6%)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중년기
신체질환	대뇌혈관질환	1,180 (4.8%)	89 (2.1%)
	호흡기결핵	344 (1.4%)	65 (1.5%)
	갑상선장애	1,387 (5.7%)	321 (7.6%)
	심장질환	2,569 (10.5%)	466 (11.1%)
	만성신부전증	183 (0.7%)	10 (0.2%)
	신경계질환	4,410 (18.1%)	903 (21.5%)
	관절염	4,000 (16.4%)	637 (15.2%)
	간질환	2,690 (11.0%)	675 (16.1%)
	암	2,515 (10.3%)	443 (10.6%)
	합계	24,424 (100%)	4,197 (100%)
세부경제문제	소득감소	839 (14.8%)	332 (15.3%)
	지출증가	373 (6.6%)	114 (5.3%)
	파산	148 (2.6%)	69 (3.2%)
	부채	1,951 (34.4%)	815 (37.7%)
	지속적빈곤	1,090 (19.2%)	340 (15.7%)
	무직/구직	1,264 (22.3%)	493 (22.8%)
	합계	5,665 (100%)	2,163 (100%)

6-4.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장년기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장년기
성별	남성	6,640 (67.0%)	1,932 (74.2%)
	여성	3,263 (32.9%)	673 (25.8%)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605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495 (57.4%)
	공공장소	2,756 (27.8%)	709 (27.2%)
	학교/직장	286 (2.9%)	117 (4.5%)
	숙박업소	411 (4.1%)	95 (3.6%)
	교외/야산	268 (2.7%)	99 (3.8%)
	병원	98 (1.0%)	25 (1.0%)
	친척집	88 (0.9%)	20 (0.8%)
	지인집	73 (0.7%)	16 (0.6%)
	기타	60 (0.6%)	29 (1.1%)
	합계	9,905 (100%)	2,605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601 (61.5%)
	가스중독	1,104 (11.1%)	271 (10.4%)
	농약음독	173 (1.7%)	51 (2.0%)
	투신	1,979 (20.0%)	413 (15.9%)
	약물음독	222 (2.2%)	53 (2.0%)
	익사	433 (4.4%)	84 (3.2%)
	상해	203 (2.0%)	83 (3.2%)
	기타	161 (1.6%)	44 (1.7%)
	미상	10 (0.1%)	5 (0.2%)
	합계	9,905 (100%)	2,605 (100%)
결혼상태	기혼	3,751 (37.9%)	1,317 (50.6%)
	별거	335 (3.4%)	148 (5.7%)
	미혼	3,237 (32.7%)	350 (13.4%)
	사별	622 (6.3%)	82 (3.1%)
	이혼	1,287 (13.0%)	600 (23.0%)
	모름	673 (6.8%)	108 (4.1%)
	합계	9,905 (100%)	2,605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장년기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245 (10.8%)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609 (26.9%)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688 (30.4%)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722 (31.9%)
	합계	9,679 (100%)	2,264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684 (26.8%)
	지역세대원	2,335 (24.0%)	548 (21.4%)
	직장가입자	1,392 (14.3%)	407 (15.9%)
	직장피부양자	3,292 (33.8%)	678 (26.5%)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204 (8.0%)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25 (1.0%)
	미상	36 (0.4%)	9 (0.4%)
	합계	9,726 (100%)	2,555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26 (0.8%)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251 (7.9%)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55 (1.7%)
	정신병적 장애	821 (6.5%)	204 (6.4%)
	양극성장애	582 (4.6%)	145 (4.6%)
	우울장애	2,932 (23.4%)	741 (23.3%)
	불안장애	1,935 (15.4%)	505 (15.9%)
	신체형장애	1,665 (13.3%)	430 (13.5%)
	정신지연	42 (0.3%)	8 (0.3%)
	행태 증후군	114 (0.9%)	30 (0.9%)
	수면장애	2,471 (19.7%)	653 (20.5%)
	성격장애	133 (1.1%)	19 (0.6%)
	발달장애	33 (0.3%)	3 (0.1%)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4 (0.1%)
	기타 장애	286 (2.3%)	55 (1.7%)
	간질	249 (2.0%)	51 (1.6%)
	합계	12,547 (100%)	3,180 (100%)
	고혈압	3,225 (13.2%)	1,002 (14.7%)
	당뇨병	1,921 (7.9%)	639 (9.4%)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장년기
신체질환	대뇌혈관질환	1,180 (4.8%)	274 (4.0%)
	호흡기결핵	344 (1.4%)	75 (1.1%)
	갑상선장애	1,387 (5.7%)	341 (5.0%)
	심장질환	2,569 (10.5%)	633 (9.3%)
	만성신부전증	183 (0.7%)	53 (0.8%)
	신경계질환	4,410 (18.1%)	1,167 (17.1%)
	관절염	4,000 (16.4%)	1,162 (17.0%)
	간질환	2,690 (11.0%)	843 (12.3%)
	암	2,515 (10.3%)	643 (9.4%)
	합계	24,424 (100%)	6,832 (100%)
세부경제문제	소득감소	839 (14.8%)	336 (16.3%)
	지출증가	373 (6.6%)	127 (6.2%)
	파산	148 (2.6%)	62 (3.0%)
	부채	1,951 (34.4%)	633 (30.7%)
	지속적 빈곤	1,090 (19.2%)	437 (21.2%)
	무직·구직	1,264 (22.3%)	467 (22.6%)
	합계	5,665 (100%)	2,062 (100%)

6-5. 생애주기별 자살사망 특성: 노년기

1) 자살사망 세부분석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노년기
성별	남성	6,640 (67.0%)	1,741 (68.5%)
	여성	3,263 (32.9%)	801 (31.5%)
	미상	2 (0.0%)	0 (0.0%)
	합계	9,905 (100%)	2,542 (100%)
발견장소	자택	5,865 (59.2%)	1,645 (64.7%)
	공공장소	2,756 (27.8%)	665 (26.2%)
	학교/직장	286 (2.9%)	20 (0.8%)
	숙박업소	411 (4.1%)	26 (1.0%)
	교외/야산	268 (2.7%)	102 (4.0%)
	병원	98 (1.0%)	53 (2.1%)
	친척집	88 (0.9%)	19 (0.7%)
	지인집	73 (0.7%)	3 (0.1%)
	기타	60 (0.6%)	9 (0.4%)
	합계	9,905 (100%)	2,542 (100%)
자살방법	목맴	5,620 (56.7%)	1,537 (60.5%)
	가스중독	1,104 (11.1%)	83 (3.3%)
	농약음독	173 (1.7%)	111 (4.4%)
	투신	1,979 (20.0%)	594 (23.4%)
	약물음독	222 (2.2%)	51 (2.0%)
	익사	433 (4.4%)	52 (2.0%)
	상해	203 (2.0%)	50 (2.0%)
	기타	161 (1.6%)	61 (2.4%)
	미상	10 (0.1%)	3 (0.1%)
	합계	9,905 (100%)	2,542 (100%)
결혼상태	기혼	3,751 (37.9%)	1,425 (56.1%)
	별거	335 (3.4%)	65 (2.6%)
	미혼	3,237 (32.7%)	36 (1.4%)
	사별	622 (6.3%)	515 (20.3%)
	이혼	1,287 (13.0%)	191 (7.5%)
	모름	673 (6.8%)	310 (12.2%)
	합계	9,905 (100%)	2,542 (100%)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노년기
보험료분위	의료급여구간	751 (7.8%)	244 (10.0%)
	하위구간(1~6분위)	2,576 (26.6%)	536 (21.9%)
	중위구간(7~13분위)	2,920 (30.2%)	488 (20.0%)
	상위구간(14~20분위)	3,432 (35.5%)	1,176 (48.1%)
	합계	9,679 (100%)	2,444 (100%)
건강보험가입상태	지역세대주	2,014 (20.7%)	251 (10.0%)
	지역세대원	2,335 (24.0%)	507 (20.2%)
	직장가입자	1,392 (14.3%)	102 (4.1%)
	직장피부양자	3,292 (33.8%)	1,418 (56.5%)
	의료급여세대주	536 (5.5%)	200 (8.0%)
	의료급여세대원	121 (1.2%)	19 (0.8%)
	미상	36 (0.4%)	13 (0.5%)
	합계	9,726 (100%)	2,510 (100%)
정신질환	치매	313 (2.5%)	272 (6.7%)
	알코올 사용장애	603 (4.8%)	104 (2.6%)
	정신활성화물질사용장애	224 (1.8%)	58 (1.4%)
	정신병적 장애	821 (6.5%)	81 (2.0%)
	양극성장애	582 (4.6%)	81 (2.0%)
	우울장애	2,932 (23.4%)	903 (22.3%)
	불안장애	1,935 (15.4%)	720 (17.8%)
	신체형장애	1,665 (13.3%)	535 (13.2%)
	정신지연	42 (0.3%)	11 (0.3%)
	행태 증후군	114 (0.9%)	30 (0.7%)
	수면장애	2,471 (19.7%)	972 (24.0%)
	성격장애	133 (1.1%)	6 (0.1%)
	발달장애	33 (0.3%)	5 (0.1%)
	아동기 및 청소년 장애	144 (1.1%)	11 (0.3%)
	기타 장애	286 (2.3%)	176 (4.3%)
	간질	249 (2.0%)	81 (2.0%)
	합계	12,547 (100%)	4,046 (100%)
	고혈압	3,225 (13.2%)	1,825 (16.6%)
	당뇨병	1,921 (7.9%)	1,001 (9.1%)

1) 자살사망 세부분석(계속)

(단위 : 명)

구 분		서울시 전체	노년기
신체질환	대뇌혈관질환	1,180 (4.8%)	794 (7.2%)
	호흡기결핵	344 (1.4%)	155 (1.4%)
	갑상선장애	1,387 (5.7%)	438 (4.0%)
	심장질환	2,569 (10.5%)	1,092 (9.9%)
	만성신부전증	183 (0.7%)	117 (1.1%)
	신경계질환	4,410 (18.1%)	1,668 (15.2%)
	관절염	4,000 (16.4%)	1,917 (17.4%)
	간질환	2,690 (11.0%)	806 (7.3%)
	암	2,515 (10.3%)	1,181 (10.7%)
	합계	24,424 (100%)	10,994 (100%)
세부경제문제	소득감소	839 (14.8%)	70 (12.8%)
	지출증가	373 (6.6%)	61 (11.1%)
	파산	148 (2.6%)	9 (1.6%)
	부채	1,951 (34.4%)	126 (23.0%)
	지속적 빈곤	1,090 (19.2%)	153 (27.9%)
	무직·구직	1,264 (22.3%)	129 (23.5%)
	합계	5,665 (100%)	548 (100%)

발행번호	KPAC-2019-00011-01
발행일	2019년 9월
발행처	중앙심리부검센터
발행인	전홍진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